

기술적 분석의 모든 것



# 차트의

# 맥

민경인 지음

이론적인 차트 분석은 가라!  
새로운 개념의 실전 차트 분석!

- ➔ 실전 확률이 높은 고급 투자기법 공개!
- ➔ 기술적 분석의 원리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핵심 전략집
- ➔ 공개를 꺼려했던 고수들만의 투자비법 소개!

헤지견  
www.hyejiwon.co.kr

 [별책부록]  
최고의 확률을 보장하는 핵심기법  
'동방신비의 법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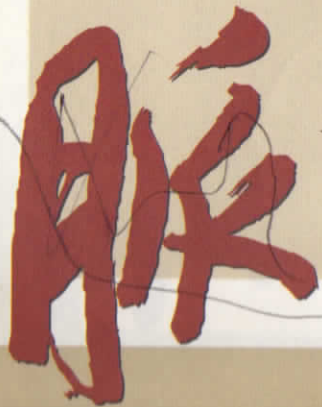
# 차트는 눈먼 장님의 지팡이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술적 분석이라고 일컫는 차트분석이 일단 최우선입니다. 차트분석을 완벽히 끝낸 후 기본적 분석과 가치분석 및 투자심리분석 순으로 공부해야만 비로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주식은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은행 이자놀이나 부동산 투자 등에 비할 바가 안 되는 매우 훌륭한 재테크 수단입니다. 무엇보다 환금성이 다른 투자 상품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단, 이 말은 기초를 충실하게 다진 투자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란 바로 차트분석을 말합니다. 기본적 분석이나 가치분석 또한 주식투자의 중요한 잣대이긴 하지만, 과거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차트야말로 주식투자의 가장 기본이 되며 매매의 필독서인 셈입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한 주식시장에서, 특히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 모든 정보력이 뒤지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그야말로 눈먼 장님인 셈입니다. 눈먼 장님이 혼자 길을 걸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지팡이에 의지해야만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그 지팡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차트분석입니다.

흔히 기초가 튼튼해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래사장에 기둥을 박고 벽돌을 쌓아봐야 금방 무너집니다. 땅이 무른 상태에서는 제아무리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우매한 결과를 낳고 맙니다.



주식투자에 처음 입문하게 되면, 한 손에는 재무제표를 다른 한 손에는 차트를 보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여기서 재무제표란 한 기업에 대해 기본적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매출이 얼마인지, 이익은 나는지, 빌린 돈은 얼마인지 하는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투자의 척도가 되지 못함을 기존 주식투자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매출은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고, 이익 또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재무제표는 영수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단지 과거를 증명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재무제표는 투자의 참고 역할을 할 뿐이지 투자의 척도가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 차트는 후행성과 선행성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차트는 과거를 기록하는 동시에 현재를(해당 기업의 현재 주가) 나타내 줍니다. 재무제표는 오로지 과거지만 차트는 과거와 현재의 기록으로 향후 미래까지 예측하게 해줍니다. 이 차이점 하나만으로도 차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조사에 의하면 100명 중 5명은 꾸준한 수익을 보고, 5명은 본전치기를 하며, 나머지 90명은 투자에 실패를 한다고 합니다. 주식투자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차트분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투자의 주체자들이 모두 인간이기에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그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차트분석을 제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실전에서 그대로 수익을 내기란 정말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차트분석 이외에도 기본적 분석과 가치분석, 심리분석 등이 함께 동반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국내 및 해외 경기 동향 등의 시대적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비소로 성공투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주식시장도 사람들이 모여 하는 일이라 심리적 영향이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수십 년간 공부한 차트분석과 그동안 실패하면서 쌓인 나름대로 주식투자 노하우는 매우 훌륭한 투자수단이 되지만, 한순간의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면 그동안의 성공은 고스란히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이버 증권 애널리스트인 그들도 이론은 강하지만 실전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차트는 단순히 기업 주가의 가격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 분석의 모든 결과와 투자자의 심리 상태와 세력의 움직임과 경제동향과 향후 실적 기대치 등 모든 것이 차트에 함축되어 그대로 우리 앞에 적나라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차트분석에서는 바로 이런 모든 것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트분석은 그저 그림만 대충 보고 수학기초처럼 암기하는 이론이 절대 아닙니다. 죽어라 패턴만 외운다고 모두 차트도사가 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인 차트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그동안 외우기만 한 것은 모두 말짱 도루묵입니다.

차트분석은 의문점을 갖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대량거래 장대음봉은 매도다 하는 식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대량거래가 일어나야 하는지? 왜 음봉은 무서운 것인지? 장대음봉이라도 반가울 때는 없는지? 항상 의심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예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패한 예를 통해서 원인을 찾아야 하며, 그밖에 차트 하나하나에 숨어있는 수많은 비밀을 최대한 밝혀내려고 나름의 노력을 씬 없이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노력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차트분석을 완벽히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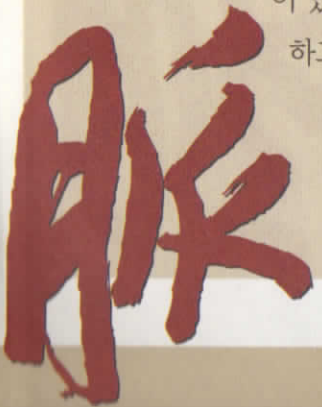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 최고의 주식 고수는 못 됩니다. 그저 꾸준히 일정 수익 이상을 내는 순수 아마추어 개인투자자일 뿐입니다. 이 책은 저의 그동안의 실패담을 정리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욕심이 있었다면, 시중에 출간된 여러 차트분석집보다 조금 더 나은 책으로, 일반적 기초 이론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고수들의 숨겨진 여러 다양한 투자기법 공개를 통해 수많은 개인투자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저만의 독특한 투자기법도 이 책을 통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식투자를 현재 하고 있거나 혹은 주식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차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배우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자세와 자신만의 투자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지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 치열한 주식시장에서 분명 성공한 투자자로 살아남을 것입니다.

모쪼록 이 책을 통해 성공투자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민경인

e-mail : photoplus515@paran.com







# CONTENTS

이 책은 개인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근본원인을 분석해내고, 그동안 어설프게 알고 있었던 차트분석 이론을 보다 확실히 다져줍니다. 다양한 투자기법과 투자요령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 외에도 실전에서 신뢰가 높은 매매기법들을 소개함으로써 성공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별책 부록

최고의 확률을 보장하는 핵심기법

‘동방신비의 법칙’

## 머리말

차트는 눈먼 장님의 지팡이 • 5

## Part 1.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첫걸음

미국의 영향력을 인정하라 • 14

주식시장에서 금리, 유가, 환율의 절대 관계 • 15

주가의 흐름은 대주주가 좌우한다 • 17

## Part 2. 세력이 그리는 차트분석의 맥

### 1. 세력이 만드는 캔들의 비밀

캔들의 기초 • 24

캔들의 기본 모형과 패턴 • 25

상승전환패턴 • 26

하락전환패턴 • 27

지속형패턴 • 27

캔들의 기본 형성 • 28

하루의 주가변화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분봉 • 29

캔들 위꼬리는 매도, 아래꼬리는 매수세력 출현을 의미 • 30

캔들의 몸통은 매수-매도 세력 간의 힘겨루기 • 31

캔들 길이에 따른 주가 변화 • 32

장대봉의 강력한 힘 • 33

고점에서 장대음봉은 추가 상투 • 34

고점에서 추가 상투를 알리는 캔들의 유형 • 35

급등주에서 장대음봉은 36계 줄행랑 • 36

급등주에서 망치형, 교수형, 잠자리형, 장대양봉의 비밀 • 37

고점에서 양봉을 음봉으로 해석하는 경우 • 38

대표적인 반전형 캔들 유형 • 39

저점에서 십자형과 망치형 출현 • 40

단기 급락 후 비석형은 상승반전 신호탄 • 41

위꼬리와 아래꼬리의 길이 • 42

위꼬리 음봉은 다음날 하락 예고 • 43

바닥권에서 상승음봉은 추세전환 신호 • 44

상승음봉의 비밀 • 45

상승음봉에서 확률을 높여라 • 46

고점 흑삼병은 강력한 하락신호 • 47

지적 직삼병은 강력한 추세상승 신호 • 48

큰 흐름은 주봉을 통해서 • 49  
판단이 어려우면 때론 뒤집어라 • 50

## 2. 세력이 만드는 거래량과 매물대의 비밀

거래량 막대그래프 색상? • 51  
캔들은 후행성, 거래량은 선행성 • 52  
거래량이 곧 차트이다 • 53  
상승과 하락추세의 거래량 변화에 대한 일반적 이론 • 54  
상승추세가 임박해서는 거래량이 증가한다 • 55  
상승시 점진성 거래량이 좋다 • 56  
과도한 대량거래는 후유증이 크다 • 57  
전고점을 뚫으려면 전고점보다 거래량이 많아야 한다 • 58  
단기 급락 후 대량거래는 짧게 가져가라 • 59  
대량거래 후 전저점 지지가 실패하면 무조건 버려라 • 60  
물량탈기용 대량거래 • 61  
거래량 없이 급락하는 주식의 위험성 • 62  
거래량 변화없이 장기간 횡보하는 주식은 매매하지 마라 • 63  
물량매집형 대량거래 • 64  
바닥권에서 거래량 증가→감소→증가 종목을 노려라 • 65  
이상적 거래량 매수급소 • 66  
거래량 최저점에서 5일간을 주목하라 • 67  
주봉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을 노려라 • 68

속임수 음봉은 거래량에서 찾아라 • 69  
거래량과 매물대의 불가분 관계 • 70  
위쪽 매물이 없어야 상승이 쉽다 • 71  
거래량이 늘어야 매물대를 뚫을 수 있다 • 72  
매물대를 활용하는 지혜 • 73  
매물공백은 되도록 짧게 끊어라 • 74

## 3. 이동평균선의 특급 비밀

이동평균선의 기본 개념 • 75  
그랜빌의 법칙 • 76  
이동평균선 설정에 대한 기초 • 78  
이평선으로 살펴보는 대세상승과 대세하락 • 79  
골든크로스는 정배열 • 80  
데드크로스는 역배열 • 81  
중기이평선 하락추세에는 단기이평선 추세반등이 짧다 • 82  
중기이평선 상승추세에는 단기이평선 급락은 조정 가능성 • 83  
이격도란 무엇인가? • 85  
이격도 매매의 맥을 짚어라 • 86  
주가바닥에서 이격도가 크면 반등폭도 크다 • 87  
매매는 이평선 교차시점에서 • 88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 • 89  
정배열에서 이평선은 강력한 지지선이다 • 90

역배열에서 이평선은 강력한 저항선이다 • 91  
정배열에서는 5일선을 따라가라 • 92  
이평선 수렴 후 5일 변곡점은 의외로 큰 수익이 가능 • 93  
단기급락 후 5일 변곡점을 노려라 • 94  
5일선이 양봉 아래에서 상향 관통하는 패턴이 좋다 • 95  
속임수 5일 변곡점 판별법 • 96  
단기 이평선이 수렴중이라 해서 덩석 물지 마라 • 97  
이평선 수렴을 탈피하려면 힘을 받아야 한다 • 98  
20일선은 세력선이다 • 99  
급등주에서 20일선은 쉬어가는 구간이다 • 100  
20일선이 살아있는 종목만 거래하라 • 101

## 4. 세력이 만드는 추세와 패턴의 비밀

추세의 의미 • 102  
추세선의 종류 • 103  
추세선 긋기 • 104  
추세대 설정 • 105  
추세선을 이용한 기본 매수신호 • 106  
추세선을 이용한 기본 매도신호 • 107  
추세선의 신뢰도 분석 • 108  
추세전환시점이 매매시점이다 • 109  
추세선의 매수급소 • 110



매집대량거래를 동반한 추세전환 매수급소 • 111  
 중심추세선을 설정하라 • 112  
 추세선을 통해 지지선과 저항선을 설정하라 • 113  
 저항선이 상향돌파되면 이전 저항선은 지지선이다 • 114  
 인기 주식이라도 지지선이 깨지면 버려라 • 115  
 가장 안전한 투자방법인 박스권 매매 • 116  
 박스권 매매의 맥을 잡아라 • 117  
 추세매매의 핵심 • 118  
 차트의 다양한 패턴은 참조만 하라 • 119  
 V자형 반등 패턴 • 120  
 단기급락 중 거래량의 점진적 상승은 매수시점 • 121  
 세력주는 V자형 패턴을 이용해 주가를 급등시킨다 • 122  
 급등주의 대표 N자형 패턴 • 123  
 지루함 뒤에 희열, L자형 패턴 • 124  
 역L자형 패턴은 거래량과 이평선으로 매수시점 판단 • 125  
 W자형 패턴은 전저점을 높여야 확률이 높다 • 126  
 급등주에서 W자형의 변형 • 127  
 이중바닥형은 단기이평선을 상승추세로 돌린다 • 128  
 삼중바닥은 집을 팔아서라도 매수한다? • 129  
 완만한 하락추세 마무리, 원형바닥형 패턴 • 130  
 급등 뒤에 따라오는 급락, 역V자형 패턴 • 131  
 전고점을 뚫지 못하는 M자형(이중천정형) 패턴 • 132  
 고점을 3번 확인하고도 실패하면 빠진다 • 133

힘 한번 못 써보는 원형천정형 패턴 • 134  
 삼각형 패턴은 형태가 아니라 최종 방향이 중요하다 • 135  
 추세선의 방향이 같은 켜기형 패턴 • 136  
 깃발형 패턴은 조정국면을 나타낸다 • 137  
 하락추세를 암시하는 확대형(역삼각형) 패턴 • 138  
 주가 정체구간을 나타내는 직사각형 패턴 • 139  
 헤드앤쇼울더 패턴 • 140

## 5. 세력이 만드는 보조지표

다이버전시란 무엇을 말하는가? • 142  
 대표적인 거래량 지표 OBV • 143  
 OBV 다이버전시 • 144  
 OBV의 한계를 파악하라 • 145  
 시세의 강약을 분석하는 VR • 146  
 대표적인 이동평균선 지표 MACD • 147  
 MACD 추세선을 활용하라 • 148  
 MACD 다이버전시 • 149  
 MACD 오실레이터 • 150  
 MACD와 MACD 오실레이터로 확률을 높여라 • 151  
 스토캐스틱으로 신뢰도를 높여라 • 152  
 Slow, Fast 스토캐스틱 활용하기 • 153  
 보조지표도 하락추세에서는 무용지물이다 • 154  
 급등주에서도 스토캐스틱은 고가놀이 패턴으로 진행 • 155

모멘텀 지표로 사용하는 소나 지표 • 156  
 펀드멘탈과 모멘텀의 기본 개념 • 157  
 RSI(추세강도지수) 보조지표 • 158  
 Trix(지수이동평균 변화율) 지표 • 159  
 투자심리선 • 160  
 불린저밴드 지표 • 161  
 그물망 차트 • 162  
 삼선전환도 차트 • 163  
 일목균형표 지표 • 164

## Part 3. 고수들의 투자비법과 공식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면 일단 세력주에 올라타라 • 166  
 세력주(급등주)에 대한 리포트 • 167  
 일반개미는 세력을 이기지 못한다 1 • 172  
 일반개미는 세력을 이기지 못한다 2 • 173  
 급등주의 일반적 조건 • 174  
 급등주에서도 차트는 정직하다 • 175  
 예쁜 차트가 보기에도 좋다 • 176  
 급등주의 캔들은 짧아야 좋다 • 178  
 단기매집은 대량거래를 통해서 • 179  
 매집형 대량거래의 맥을 찾아라 • 180  
 세력이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는 집을 준다 • 181

매집형 대량거래에서(양봉형) 주가를 빼는 경우 1 • 182  
 매집형 대량거래에서(음봉형) 주가를 빼는 경우 2 • 183  
 매집형 대량거래는 통상 급등 2개월 전에 발생 • 184  
 세력의 교묘한 물량매집 패턴 • 185  
 물량탈기용 속임수 대량거래를 조심하라 • 186  
 바닥권 대량거래의 허와 실 • 187  
 급등주에서의 일반적 거래량 법칙 • 189  
 급등주 초기의 거래량 변화 • 190  
 급등주 거래량의 맥을 찾아라(이평선 밀집형) 1 • 191  
 급등주 거래량의 맥을 찾아라(이평선 밀집형) 2 • 192  
 급등주 거래량의 맥을 찾아라(역배열형) 3 • 193  
 급등주 거래량의 맥을 찾아라(역배열형) 4 • 194  
 초급등주는 120일선을 점상으로 돌파한다 • 195  
 고수는 정배열이 아닌 역배열에 관심을 둔다 • 196  
 폭등주는 역배열에서 찾아라 • 197  
 대이격 종목은 매물공백을 노린다 • 198  
 역배열 후 매수급소 1 • 199  
 역배열 후 매수급소 2 • 200  
 급등주 초기의 공통점 찾아보기 1 • 201  
 급등주 초기의 공통점 찾아보기 2 • 202  
 급등주 초기의 공통점 찾아보기 3 • 203  
 급등주 초기의 공통점 찾아보기 4 • 204

급등주 초기의 공통점 찾아보기 5 • 205  
 급등주 초기의 공통점 찾아보기 6 • 206  
 급등주 초기의 공통점 찾아보기 7 • 207  
 급등주 초기의 공통점 찾아보기 8 • 208  
 급등주 초기의 공통점 찾아보기 9 • 209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세력주 하나 1 • 210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세력주 하나 2 • 211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세력주 하나 3 • 212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세력주 하나 4 • 213  
 상장주식수와 유동주식수에 따라 한계 급등폭을 예상 • 214  
 시가총액으로 알아보는 급등주의 조건과 한계 • 214  
 급등주 놀림목의 백미 • 216  
 급등 초기 놀림목 구간 • 217  
 가격조정구간에서 매수시점을 노려라 • 218  
 1차 급등 후 2차, 3차 상승을 위한 놀림목 구간 • 219  
 고가놀이 패턴에 대해서 • 220  
 3번 놀림목은 빠진다 • 221  
 되돌림 현상과 놀림목에 대한 고찰 • 222  
 정배열에서 20일선 놀림목 매매는 최고의 매매기법 • 223  
 놀림목 매매의 핵심사항 • 224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급등하는 주식은 하락폭이 깊다 • 225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급락하는 주식은 상승폭이 크다 • 226

숫자로 알아보는 급등패턴 1 (5) • 227  
 숫자로 알아보는 급등패턴 2 (7) • 228  
 단기 상투권이 저점인 경우 • 229  
 숫자로 알아보는 급등패턴 3 (11) • 230  
 11일 조정 실패 • 231  
 숫자로 알아보는 급등패턴 4 (21) • 232  
 숫자로 알아보는 급등패턴 5 • 233  
 숫자로 알아보는 급등패턴 6 • 234  
 21일 조정 후 급상승하는 주식일수록 강하다 • 235  
 21일 조정 실패 • 236  
 숫자로 알아보는 급등패턴 7 (3, 5, 7, 11, 21) • 237  
 급등주에서는 5일선이 깨질 때가 매도? • 238  
 급등주의 최상의 매도급소 • 239  
 급등주에서는 30분봉을 주시하라 • 240  
 급등 중 대량거래는 분봉을 통해 세력의 의도를 파악 • 241  
 꿈의 기법인 상한가 따라잡기 1 • 242  
 꿈의 기법인 상한가 따라잡기 2 • 245  
 상한가 따라잡기 성공(강한 상한가를 잡아라) • 248  
 상한가 따라잡기 실패(속임수 상한가에 당하지 마라) • 249  
 급반등 후 상한가 대량거래는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한다 • 250  
 속임수 상한가 판단법 • 251  
 상한가 따라잡기에서 분봉의 중요성 • 252



개인투자자들이 따라가기 힘든 급등 패턴 • 253  
 급등과 급락, 그리고 되돌림 반등에 대해서 • 254  
 하한가 매매는 곧 순발력 게임 • 255  
 하한가 매매의 기본 원칙 • 256  
 3일 이상 연속 하한가에서 대량거래는 조심히 접근 • 258  
 연속 하한가 대량거래시 거래원을 살펴라 • 259  
 하한가 대량거래 실패 사례 • 260  
 초저가주에서 하한가 매매를 잘못하면 끝이다 • 261  
 전통적 투자기법인 사캐다 전법에 대해서 • 262  
 삼중바닥 완성 후 5일선 돌파를 노려라 • 263  
 3음봉 패턴 후 양봉을 노려라 • 264  
 급등주에서 3음봉 후 5일선 돌파하는 양봉을 노려라 • 265  
 정배열 조정시 3번째 음봉을 노려라 • 266  
 매집형 대량거래 출현 후 3음봉은 매수급소다 • 267  
 바닥권에서 5일 번곡점 탄생시 역망치형을 노려라 • 268  
 이평선 수렴 중 연속 역망치 출현은 매수급소 • 269  
 갭의 기본적 이해 • 270  
 갭의 종류와 기본 성격 • 271  
 갭을 통해 살펴보는 급등주 공부 • 272  
 신고가 종목 투자 요령 • 273  
 신고가 갱신 과정 중 참조할 상승반전 패턴 하나 • 274  
 보조지표를 활용해 확률을 높여라 • 275

투자매매 확률을 높이는 맥 • 276  
 엘리어트는 죽었다 • 277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심리전 승패에 따른다 • 279  
 자신만의 매매기법을 찾아라 • 281

## Part 4. 데이트레이더를 위한 최고의 신차트 강의

데이트레이더는 오로지 차트로만 승부한다 • 284  
 데이트레이딩 종목 선정에 대해서 • 285  
 데이트레이더의 매매 시간대는? • 286  
 호가창을 믿지 말고 시장가에 사고 팔아라 • 287  
 일단 정배열 종목이 안전하다 • 288  
 5일선을 따라가는 종목에서 확률이 높다 • 289  
 제일 먼저 지지선과 저항선을 설정하라(박스권 설정) • 290  
 데이트레이딩 분봉 차트의 맥 1 • 291  
 데이트레이딩 분봉 차트의 맥 2 • 292  
 데이트레이딩 분봉 차트의 맥 3 • 293  
 스켈퍼는 1, 3분봉 차트에 목숨을 건다 • 294  
 스윙트레이딩 분봉 차트의 맥 1 • 295  
 스윙트레이딩 분봉 차트의 맥 2 • 296  
 스윙트레이딩 분봉 차트의 맥 3 • 297

바닥권의 박스권 종목을 노려라 • 298  
 30분봉 이격도를 공략하라 • 299  
 30분봉 역배열 말기인 종목을 노려라 • 300  
 급등주 눌림목은 언제나 좋은 먹잇감 • 301  
 급등주 상한가 공략의 맥 1 • 302  
 급반등 상한가 공략의 맥 2 • 303  
 하한가 공략의 맥 • 304  
 분봉을 통해 단타 세력의 장난을 파악하라 • 305  
 상승음봉만 찾아라 • 306  
 미수 반대매매를 노려라 • 307  
 3일 매매기법 • 308  
 갭 채우기를 시도하라 • 309  
 쌍둥이 역망치형 캔들을 주시하라 • 310  
 3중바닥을 그냥 지나치지 마라 • 311  
 데이트레이더의 기본자세 • 312



Part **1**

#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첫걸음

stock / money rates / exchange rate / valuableness





## 미국의 영향력을 인정하라

**21** 세기 현재, 미국의 영향력은 세계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럼 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까? 왜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로 군림할 수 있었을까?

19세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나라라면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강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럽 국가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은 한낱 영국 이주민들의 새로운 개척의 땅이며 서부국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미국의 힘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1차 원인이야 풍부한 천연자원과 물자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미국이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1914년부터 4년간 계속되었던 '제1차 세계대전' 과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치러진 '제2차 세계대전' 이었습니다.

**전** 쟁을 치르면 반드시 승자와 패자는 가려지게 마련입니다. 승리국가는 곧 정의요, 법이요, 우상이 됩니다. 반대로 패전국가는 악이요, 실패자요, 승리국가로부터의 절대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매우 힘든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2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미국은 세계무대에 초강대국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전쟁은 우선 과학을 발전시키며, 나아가 자국의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연히 2차례에 걸쳐 치열한 세계대전을 무난히 승리로 이끈 미국은 자국의 문화를 패전국으로부터 독립시킨 여러 국가들에게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미국의 문화를 일찍부터 받아들였던 일본, 일본의 식민지였던 아시아 여러 국가, 또한 세계대전의 일등 주역인 독일과 그 점령국가들까지 미국의 힘은 자연스럽게 전파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지구상에 모든 국가들은, 21세기 현재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 놓여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주식시장을 봐도 미국의 다우지수와 나스닥의 급등락에 따라 세계시장과 우리 한국 주식시장도 동반 패턴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가가 어디입니까? 최대 수입국가가 어디입니까? 자연히 그들의 경제 상황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 국을 이상화시키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문화를 선호하고 그들에게 복종하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세상은 힘과 권력에 따라 역사가 탄생하는 법입니다. 비록 강한 자가 영원토록 강할 수만은 없지만, 어쨌든 현재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주식시장에서 금리, 유가, 환율의 절대 관계

주식시장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3가지 대외변수를 꼽으라면 단연 '금리, 유가, 환율'입니다.

금리, 유가, 환율이 오르면 → 주가는 떨어집니다(하락장).  
금리, 유가는 내리고, 환율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 → 주가는 올라갑니다(상승장).

**왜** 그럴까?

먼저 금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금리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 은행이자입니다. 많은 기업들은 은행돈과 사채 등을 이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자가 오르게 되면 은행에 많은 돈을 빚진 기업들은 피땀 흘려 장사를 해서 번 돈을 모두 고스란히 은행이자로 지출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기업 수지는 악화되고,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정리해고 등을 단행하고, 많은 실업자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다시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당연히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침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제일 먼저 취하는 정책이 바로 금리 인하 정책입니다. 은행이자가 줄어들면 기업들은 숨통이 트이게 되고, 이자가 낮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설비를 증축하고 많은 노동자를 새로 고용하게 됨으로써

소비심리가 확장됩니다. 은행이자 낮으니 그동안 은행에 적금 든 사람들은 이자수익이 대폭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보다는 수익원을 찾아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됩니다. 당연히 주식시장은 호황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소비심리가 과열되면 경기는 팽창하게 되는데, 이런 경기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다시 금리를 올리면서 과열 현상을 잠재우려 합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은 금리인하폭과 금리인상폭에 따라 울고 웃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유가란 석유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동에서 1배럴에 30달러 하던 것이 어느 날 40달러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기업 실적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석유로 공장도 돌리고, 자동차도 몰고 하는데 석유값이 인상되면 당연히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기억하신다면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율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환율은 외환시세라고도 하며 외국돈과 한국돈을 서로 교환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환율상승은 예를 들어 1달러를 1,200원에 서로 바꿀 수 있는데, 환율상승으로 이제는 1달러를 1,500원에 교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언뜻 보기에 수출기업들은 달러당 돈을 많이 받게 되지만, 수입기업들은 달러당 돈을 더 많이 주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기업들에게 큰 치명타입니다. 지난 IMF 경제위기를 전후해 달러당 2천 원까지 환율이 올랐던 경험을 되새겨 보시면 환율상승이 얼마나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지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또 한 환율상승은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환차익을 노린 외국 핫머니 펀드의 유출로 금융권의 붕괴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환율이 하락하면 어떨까요? 환율하락은 수출기업에 막대한 치명타를 가합니다. 따라서 환율은 상승이나 하락보다는 일정하게 유지될 때가 가장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시장은 금리와 유가가 하락을 하고 환율이 안정적일 때 상승세를 타게 됩니다.



**주**식시장은 크게 외국인, 기관, 개인투자자의 싸움의 장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정보력이 떨어지는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문제는 바로 정보입니다. 정보력에서 뒤지니 승률이 좋을리 없습니다. 그럼 과연 여기서 말하는 정보란 무엇일까?

주식시장은 다른 아닌 투자한 기업에 대한 주식 가격의 차이에 따라 성공한 투자와 실패한 투자로 나뉩니다. 성공한 투자가란 남들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투자가가 아니라, 높은 가격이라도 자신이 산 주식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한 투자가를 말합니다. 즉, 주식을 사고파는 가격 차이에 따라 돈을 버느냐 잃느냐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정보는 바로 이처럼 투자한 해당 기업의 주식 가격 차이를 좌우하는 객관적인 어떤 자료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러한 주식의 가격 차이를 좌우하는 정보는 과연 누가 손에 쥐고 있을까? 외국인? 기관투자자? 아닙니다. 바로 해당 기업의 모든 실정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대주주는 해당 기업의 회장이나 사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사채업자나 제3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바로 어느 누가 가장 많은 비율로 해당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 대주주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식시장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돈놀이 장입니다. 그 많은 기업들이 왜 주식시장에 등록하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요? 명분은 좀 더 나은 회사로 발전시키고자 투자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투자는 누가 할까요? 투자자는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으며 제3금융권이나 개인투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이 회사가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이며, 이것은 곧 대주주의 행동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대주주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는 주식시장에 등록하면서 보유주식을 높은 가격에 처분하기도 합니다. 대주주는 해당 기업에 대한 독보적인 정보력을 바탕으로 모 투기세력과 결탁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기도 합니다.(모디아의 주가조작 사건) 또한 무상이나 유상증자 등을 통해 보유주식을 배로 늘리기도 하고, 개인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사탕발림식 공시도 서슴지 않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대주주가 주식시장에서 직접 돈놀이에 참여하기도 하고, 보유지분을 담보로 선물/옵션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비추얼텍 대주주의 주식담보 돈놀이 사건) 그리고 해당 기업이 망할 것 같은 조짐을 보이면 제일 먼저 지분을 처분하는 사람이 바로 대주주입니다. 한 예로 LG카드 유동성 위기 직전 LG그룹 전문 경영인들이 가장 먼저 LG카드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남긴 사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가 흐름은 대주주가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 기관, 금융과 더불어 대주주와 결탁한 세력과도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는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가의 흐름을 좌우하는 능동적 주체가 아닌 주가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수동적이고 겸허한 자세로 주식투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 수익률게임의 허와 실

**탈** 무드에 보면 '물고기를 잡아서 주기 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지혜를 강조한 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식시장에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려 힘들게 배우고 노력하고 많은 실패 경험을 쌓으려 하기 보다는 누군가 쉽게 물고기를 자기 입에 넣어주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특히 투자경력이 적을수록 어느 누군가의 말에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투자를 처음하는 분들이나 늘 투자손실을 보는 분들은 저마다 고수라는 분들이 어느 종목을 추천해 주기를 바라며, 그 고수라는 분들의 투자기법을 배우려 무던히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모 수익률대회에서 단기간에 몇천 % 수익을 올렸다는 1등 수상자의 강의나 몇십만 원이나 하는 테이프나 동영상 CD, 책 등을 내용보다는 저자약력만 보고 무조건 사보는 개인투자자분들도 상당합니다.

그럼 여기서 참조할만한 기사 하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증권사 수익률대회 최강자 주가조작 적발”

지난 2002년부터 증권회사들이 실시한 각종 수익률대회에서 1등을 휩쓴 수익률게임 최강자 조모씨(47)(필명 아홍성)가 주가 조작 혐의로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지난해 3월 M증권이 개최한 수익률대회에 참가한 조씨를 13개 상장·등록 기업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증권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3~7월 까지 M증권의 수익률대회에 본인 및 처명의 계좌로 참여해 각각 765%, 2702%의 수익률을 올려 부문별 리그에서 우승했다. 조씨는 당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참여계좌를 통해 매수한 N종목 등 13개 종목의 주가를 가족명의 계좌 등 다른 차명계좌를 활용해 끌어올리거나 허수주문, 가장·통정매매를 통해 매수세를 유인한 뒤 참여계좌 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조씨는 또 500원 내외의 저가종목을 매매 종목으로 선정한 뒤 데이트레이딩(day trading) 방식으로 집중매매했다. 조씨는 이외에도 총 4개 수익률대회에 참가해 3개 대회에서 우승한 바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52개 종목에 투자해 1개 종목만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아홍성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각종 수익률 대회에서 1000% 수익률 기록으로 1등 수상을 휩쓰는 등 주식투자 전문가로서 명성을 날려왔다.

조씨는 그러나 금감원 조사에서 “사실상 대다수 수익률게임 참가자들이 일반적으로 이 같은 수법을 동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증권업계에서는 증권사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개최된 수익률대회에서 일부 상위 입상자가 단기간에 10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수익률대회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돼 왔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시장에서의 단기, 고수익 환상은 있을 수 없고 주식투자는 장기적으로 하되 우량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투자자들은 1000% 수익 등 대박의 꿈 등 환상을 심어줄 수 있는 수익률게임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수익률대회 개최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명시토록 하는 한편 대회 참가자가 불공정 거래에 연루됐을 때는 수상취소는 물론 사기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증권위는 지난해 9월말 D증권 수익률대회 일반리그 우승자 @씨를 S사 등 8개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머니투데이 04/14]



기사는 수익률대회에서의 주가조작에 관련된 2004년 4월15일자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사를 통해 무엇을 느끼십니까? 물론 수익률대회의 1등 수상자 전부가 다 주가조작을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수익률대회에서 1위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몇천 %에 육박하는 엄청난 수익률을 올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어떻게, 무슨 매매방법으로 그토록 엄청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을까?

**대**부분의 수익률대회 참가자들의 공통된 목표는 하나뿐입니다. 바로 수익률대회 최강자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금도 받고 이름도 널리 알려지고 동호회도 쉽게 만들고 순진한 개인투자자들을 쉽게 끌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당연히 안정적이고 정석적인 투자방법으로는 수익률대회 최강자 자리에 오르기가 매우 힘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로지 수익률대회 1등만을 목표로 마음을 독하게 먹은 일부 참가자들은 일단 수익률대회가 시작하기 이전에 우선 여러 차명계좌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초저가주만을 공략합니다. 왜냐하면 적은 자본으로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여러 계좌를 돌려가며 작전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대회 중반으로 접어들수록 보여주기 관리 차원에서 업종 대표 우량주로 갈아타며 대회를 끝마치게 됩니다.

**어**쨌거나 수익률대회에서 최강자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분명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마다 확실한 투자비법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투자원칙은 당연히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달 사이에 몇천 % 수익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매우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큰마음을 먹고 수익률대회 연속 1위를 차지한 어느 고수분의 강의를 청강하러 갔습니다. 캠코더도 준비하고, 녹음기도 준비하고, 노트도 준비하고, 귀를 바짝 세우며 고수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애를 씁니다. 분명 신비한 투자비법을 얘기할 것이고, 그렇다면 자신도 그 투자비법으로 한순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달콤한 환상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그 고수분이 하는 말은 너무나 평범해 보입니다. 어느덧 모두가 다 하는 매매방법으로 자신도 매매했으며, 단지 손절매 만큼은 누구보다 철저했다고 하며 강의를 끝마치기에 이릅니다. 힘들게 밭갈음하며 얻어온 것이라고는 생소했던 주식용어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몇백만 원으로 수천 % 수익률을 올리는 쉽습니다. 그러나 투자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애기는 달라집니다. 투자금액이 억 단위로 올라가면 아주 잘해야 100%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본전치기도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얼추 생각해 한 달 만에 수천 % 수익률을 올리는 고수라면 투자금액이 1억이면 단 며칠 만에 몇십억까지 벌 수 있다는 단순 계산이 나옵니다. 때문에 초보 개인투자자들은 모 수익률대회에서 수천 % 수익률로 1등한 이들은 그야말로 한국 최고 부자가 될 것이라는 상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투자금액이 작으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저가주 위주의 하이리턴 하이리스크 주만 노립니다. 잘하면 수천 %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만, 못하면 그깟 몇백만원 수업료로 치부해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억 단위의 금액으로는 잘해야 본전에서 약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못하면 그야말로 인생의 실패자로 낙인찍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수는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한 상태라면 매도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수익을 봤으니 매도를 하고 싶어도 매도금액이 크기 때문에 고가권에서 매수해 주는 주체가 없다면 쉽게 매도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수익률대회에서는 몇 % 수익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명계좌 없이 실전투자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개** 인투자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투자를 한다면 절대 환상에 젖지 말기 바랍니다. 비싼 수업료를 내가며 여기저기 기웃거릴 시간과 노력을 아끼기 바랍니다. 남이 물어다 주는 물고기를 받아먹으려 하기 보다는 자신이 직접 물고기를 잡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잡을까? 누군가는 그물로 잡기도 하고 작살이나 칼로 잡기도 할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는 그냥 맨손으로 잡을 테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제아무리 성능 좋은 도구를 사용해도 쉽게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물고기를 잡는 연습을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물고기 잡는 방법도 생기고 요령도 생깁니다. 잡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 배울 수 있지만, 요령은 자기자신만의 노하우입니다.

주식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매매방법은 그대로 따라할 수 있지만 자신만의 요령이 없다면 실패하는 법입니다. 멋있고 화려하게 보이는 남의 옷을 자신이 입는다고 다 멋있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옷도 자신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주식 투자방법도 자신만의 매매방법을 갖춰야 합니다.

어떻게 갖출까? 주식투자에서 중요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완벽히 마스터한 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차트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해야 합니다. 성공한 예보다는 실패했던 예를 노트에 기록하는 겁니다. 성공했던 예는 자기 자신에 맞는 투자방법을 말합니다. 반대로 실패했던 예는 자기 자신과 맞지 않는 투자방법을 말합니다. 자신과 맞지 않으면 버려야겠죠. 왜 억지로 갖고 있으려 합니까? 맞지 않은 옷은 입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후에 그때의 그 투자노트는 수백만 원짜리 주식강의와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밑바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동안은 아직 진짜 밑바닥이 아니다.**

세익스피어(1564-1616) / 영국 / 시인·극작가



Part **2**

**세력이 그리는**

**차트분석의 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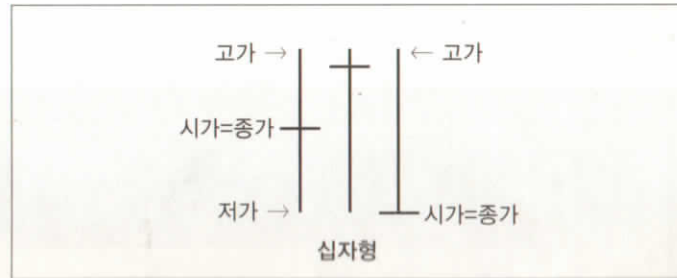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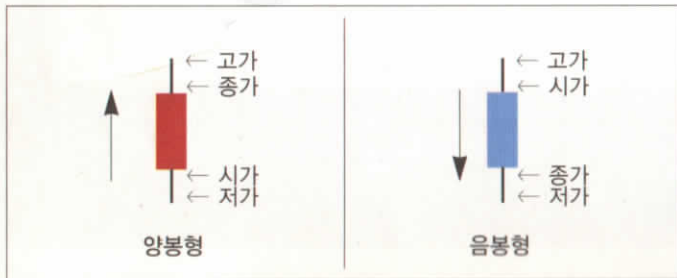
# 01. 세력이 만드는 캔들의 비밀

## 캔들의 기초

**주**식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가장 먼저 기술적 분석부터 배우게 됩니다. 일명 '차트분석'이라고도 합니다. 차트의 가장 기본 요소는 캔들(봉)입니다. 캔들차트는 일본에서 개발된 것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캔들차트의 기원은 일본 쌀 선물거래소에서 매매가 시작되면서 발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초에는 종가를 점으로 찍어 선으로 이은 선형차트로 출발하여, 고가와 저가를 표시하여 하루의 변동폭을 알 수 있는 현재의 봉(캔들)형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밖에 미국식 봉차트가 있지만 일본식 봉차트(캔들차트)만큼 유용하지는 않습니다.

캔들은 일정기간 동안 주식 가격을 시가(처음 가격), 고가(가장 높은 가격), 저가(가장 낮은 가격), 종가(마지막 가격)를 나누어 하나의 봉 형태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캔들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양봉형,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음봉형, 마지막으로 시가와 종가가 같은 십자형이 그것입니다. 양봉은 상승세의 흐름을 나타내며 매수세가 강함을 표시합니다. 음봉은 하락세의 흐름을 나타내며 매도세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십자형은 매도세와 매수세가 한 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로, 그날 종가 위치에 따라 매도세가 우위인지 매수세가 우위인지를 판단하게 해줍니다.





### 장대양봉형

시초가대비 증가를 강하게 끌어올린 경우입니다. 매우 강한 매수강도를 알 수 있으며, 바닥권에서 출현한 경우에는 다음날 강한 추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장대음봉형

시초가가 최고가인 동시에 종가가 최저가인 경우입니다. 매도세가 매우 강하며, 고가권에서 출현한 경우에는 강력한 매도신호로 해석합니다. 다음날 시초가 갱하락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망치형

시초가부터 밀린 매도세를 장중에 강하게 끌어올려 시초가보다 높은 종가로 마무리한 경우입니다. 바닥권에서 추세반전을 알리는 신호 역할을 하며, 아래꼬리가 길고 몸통이 짧을수록 신뢰가 높습니다.



### 유성형

장중에 매도세에 밀려 종가가 시초보다 아래로 마무리된 경우로 하락추세를 예고합니다. 단기고점에서는 상투권을, 바닥권에서는 추가 조정을 알립니다.



### 역망치형

망치형을 거꾸로 뒤집은 모습으로 장중 시체차의 매물에 밀려 증가가 형성된 패턴입니다. 상승추세인 차트에서 주로 출현하며, 단타성 매물이 해소된 만큼 바닥권에서는 상승추세전환 신호로 해석합니다.



### 교수형

장중에 시초가 이하의 물량을 매수하였으나 시초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매물에 밀린 패턴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락 추세형 캔들로 해석하고, 고가권에서는 급락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 살바형

양봉 살바형은 상승시, 음봉 살바형은 주로 하락시에 가장 많이 출현합니다. 긴 몸통은 매수세력과 매도세력 간의 치열한 매매싸움으로, 양봉이나 음봉이냐에 따라 한쪽 세력의 힘이 보다 강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 십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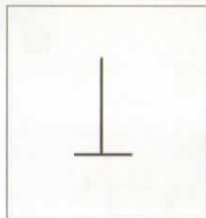
시가와 종가가 일치하는 캔들로써 매수, 매도세력 간의 한 치 양보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바닥권에서는 상승추세로 천장권에서는 하락추세 신호로 해석합니다.





**잠자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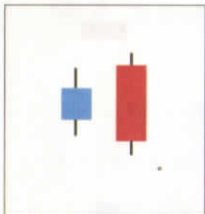
일명 드래곤플라이 도지형으로써 장중 출현한 매도세력을 강한 매수세력이 이겨낸 패턴입니다. 바닥권에서는 상승추세로, 상승중인 상태에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신호로 해석합니다.



**비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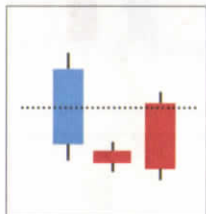
힘차게 비상하는 잠자리형과 달리 비석이라는 어휘처럼 강력한 매도신호로 해석합니다. 매수세력을 매도세력이 강하게 압도해버린 패턴으로 고가권에서는 매도, 단기 투매권에서는 거래량에 따라 매수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승전환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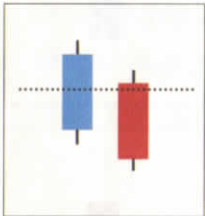
**상승장악형**

전일 음봉을 당일 양봉이 완전히 감싸 안은 패턴입니다. 바닥권에서는 강력한 상승반전 신호를 알리며, 거래량이 수반될수록 상승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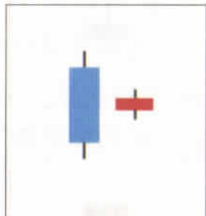
**셋별형**

첫 번째 장대음봉, 두 번째 겹하락성 단봉, 마지막 세 번째 양봉이 첫 번째 음봉의 50% 이상에서 종가가 형성된 패턴입니다. 바닥권에서는 강력한 상승반전 신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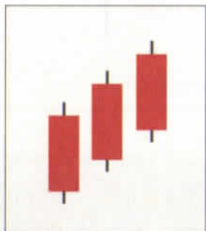
**관통형**

전일 종가 밑에서 당일 시초가가 형성되고, 이어서 전일 음봉의 50% 이상을 당일 양봉으로 관통한 패턴입니다. 상승반전형으로 하락추세시 강력한 신규 매수세력의 출현으로 해석합니다.



**상승임태형**

전일 장대음봉 안에서 당일에 몸통이 작은 양봉이 옹크리고 있는 패턴입니다. 전일 매도세력에 반발 매수세력이 유입된 형상으로 꼬리와 몸통이 작을수록 확률은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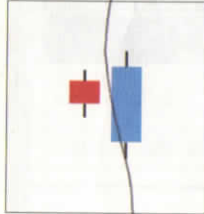


**적삼병**

연속된 3개의 양봉으로 시초가와 종가가 모두 이전 캔들보다 위에서 형성되는 패턴입니다. 바닥권에서는 대표적으로 강력한 상승추세를 알리는 패턴이지만, 천장권에서는 단기 고점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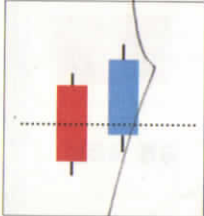


## 하락전환패턴



### 하락장악형

전일의 양봉을 당일 음봉이 완전히 덮어쓰는 패턴으로 강력한 하락추세를 예고합니다. 음봉의 몸통이 길수록, 거래량이 수반될수록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 흑운형

관통형과 반대로 전일 양봉의 50% 이하에서 당일 음봉의 종가가 형성된 패턴입니다. 신뢰도는 그렇게 높지 않으나 하락추세를 예고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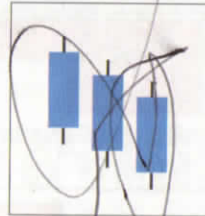
### 석별형

셋별형과 반대로 세 번째 음봉의 종가가 첫 번째 양봉의 50% 이하 부근에서 형성되는 패턴입니다. 첫 번째 양봉에서 출현한 매수세력이 실종되거나 차익매물 출현으로 하락을 예고합니다.



### 하락잉태형

전일 양봉 안에서 당일 음봉이 웅크리고 있는 형상으로 매도세력의 출현을 알립니다. 신뢰도는 매우 낮으나 다음날 주의할 필요가 있는 패턴입니다.



### 흑삼병

연속된 3개의 음봉으로 시초가와 종가가 모두 이전 캔들보다 아래에서 형성되는 대표적인 하락형 패턴입니다. 천장권에서는 강력한 매도신호로, 바닥권에서는 거래량에 따라 추가하락 혹은 속임수 패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지속형패턴



### 상승지속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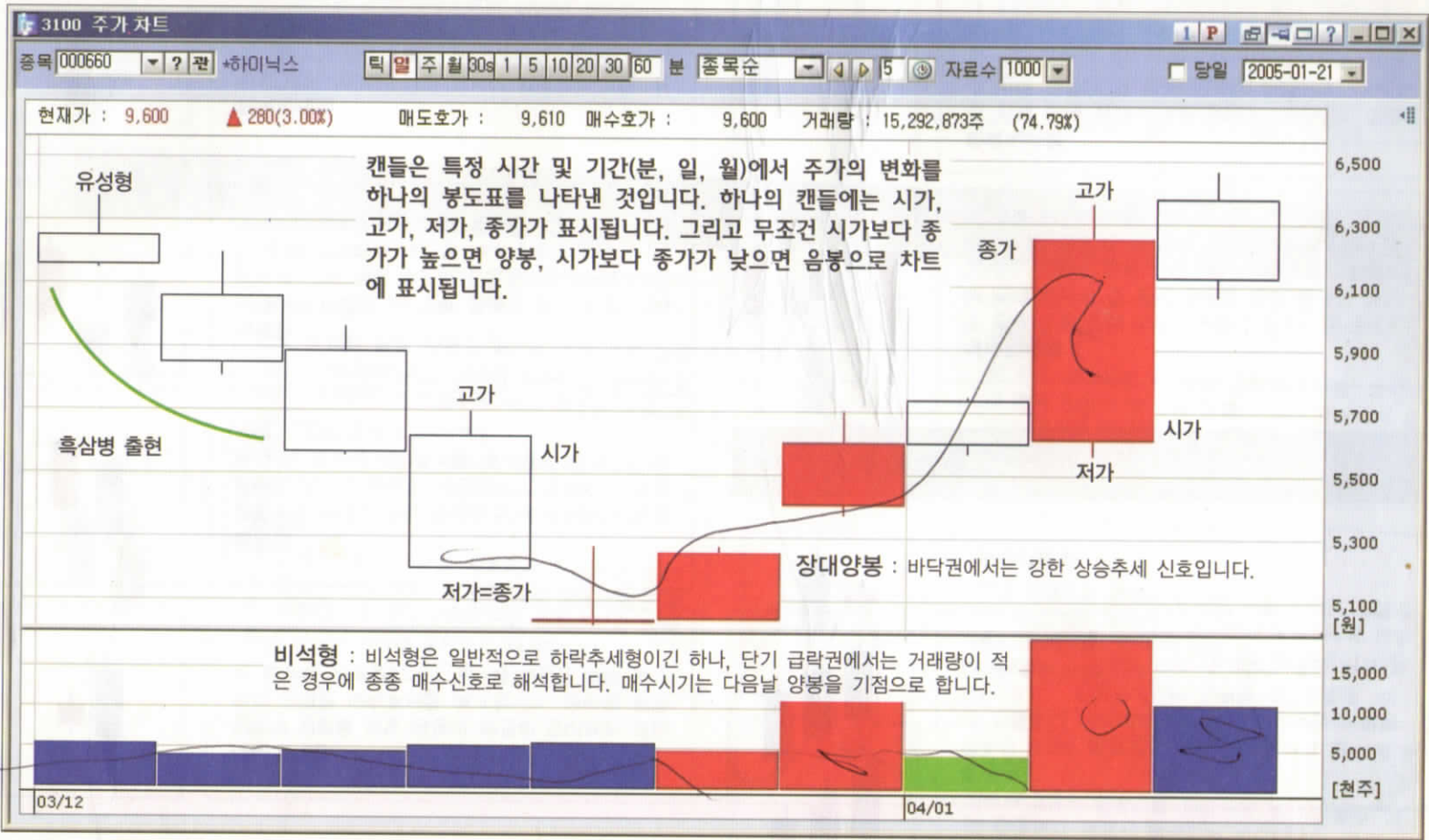
첫 번째 양봉 안에 3개의 음봉이 포함된 상태에서 네 번째 양봉이 첫 번째 양봉을 뚫고 올라온 패턴입니다. 3일에 걸쳐 매물소화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첫 번째 양봉의 저가를 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하락지속형

첫 번째 음봉 안에 3개의 양봉이 나타나고, 이어 네 번째 음봉이 첫 번째 음봉을 하향이탈한 패턴입니다. 단타성 매수세력이 출현했지만 곧이어 매물벽에 막혀 추가 상승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캔들의 기본 형성



▶ 하나의 캔들(봉)에는 무수히 많은 주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캔들 하나에는 매수-매도세력의 힘과 투자자의 심리를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주가의 흐름을 읽 어낼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캔들의 기본 모형과 패턴은 주식투자자라면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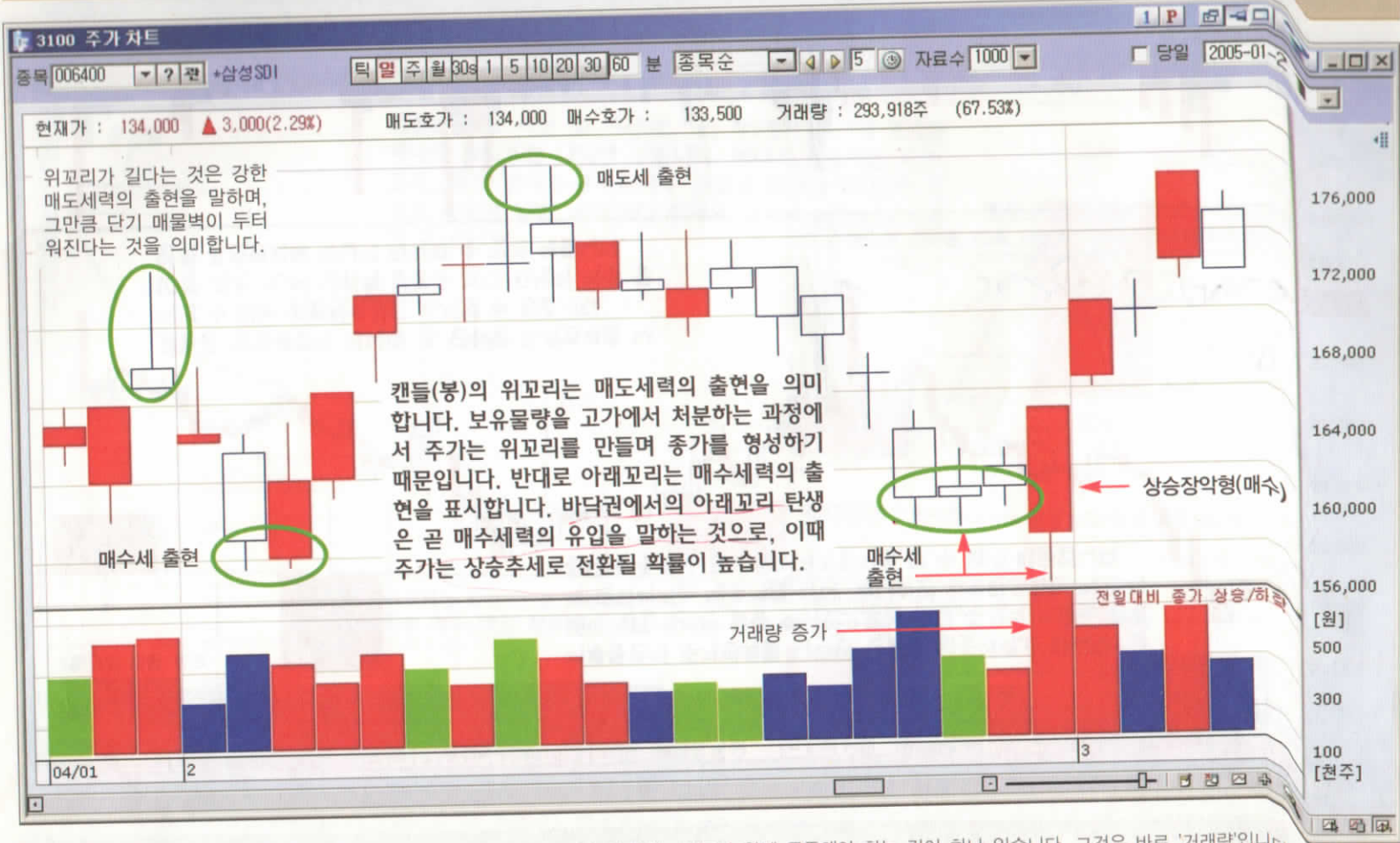


# 하루의 주가변화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분봉



▶ 단기적인 매매는 주로 일봉을 참조하지만, 중장기적인 매매는 주봉이나 심지어 한 달의 주가 변화를 하나의 봉으로 표시한 월봉을 참조해 주가가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를 파악하게 해줍니다. 분봉차트인 경우에는 단기 성향이 큰 데이트레이더나 스윙트레이더가 주로 활용하는 봉차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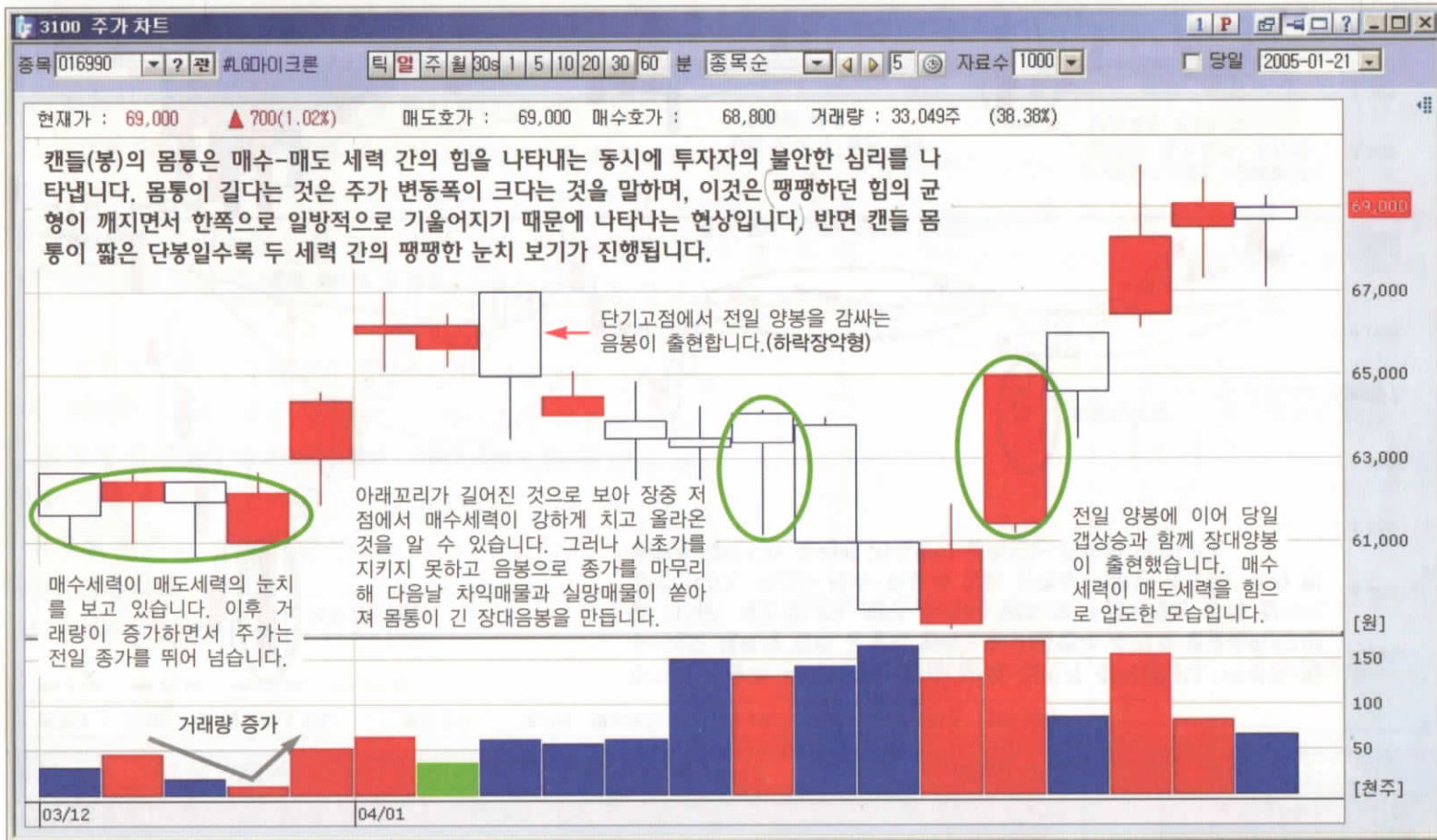
# 캔들 위꼬리는 매도, 아래꼬리는 매수세력 출현을 의미



▶ 주가차트에서 하나의 캔들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캔들과 함께 공존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래량'입니다. 양은 주가차트를 분석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2가지 기본요소인 동시에 최고의 핵심요소인 것입니다.

캔들과 거래

# 캔들의 몸통은 매수-매도 세력 간의 힘겨루기



▶ 캔들의 몸통 길이는 당일 주가의 변동폭을 말하는 것으로 몸통이 짧을수록 당일 주가의 변동폭이 매우 작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몸통 길이가 짧으면 그만큼 거래량이 감소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주가의 등락폭이 작으니 대기 매수자가 선택 매수하지 않습니다. 매수를 해도 올라가는 주식을 매수하지 제자리걸음만 하는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 캔들 길이에 따른 주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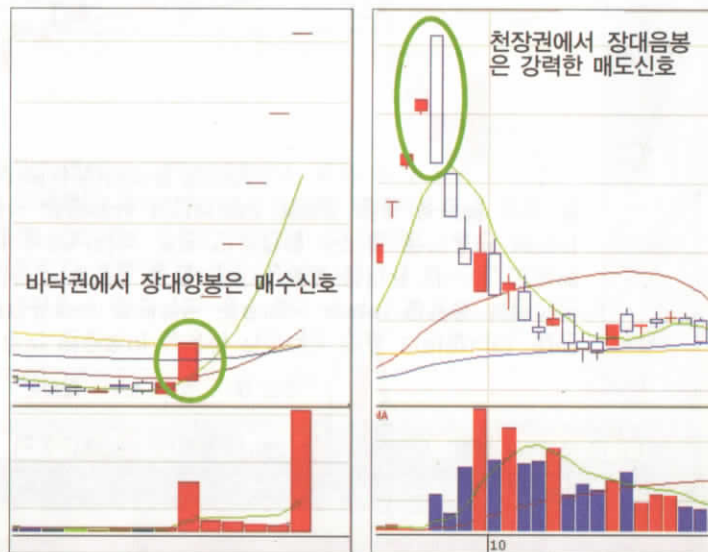


▶ 일반적으로 캔들 길이에 따라 거래량이 급격히 변하게 됩니다. 캔들(몸통과 꼬리를 포함해) 길이가 길어진다는 것은 매수-매도 세력 간의 심리적 변화가 매우 크다는 것인데, 이것은 한쪽 힘이 다른 한쪽을 완전히 제압하면서 일어나는 현상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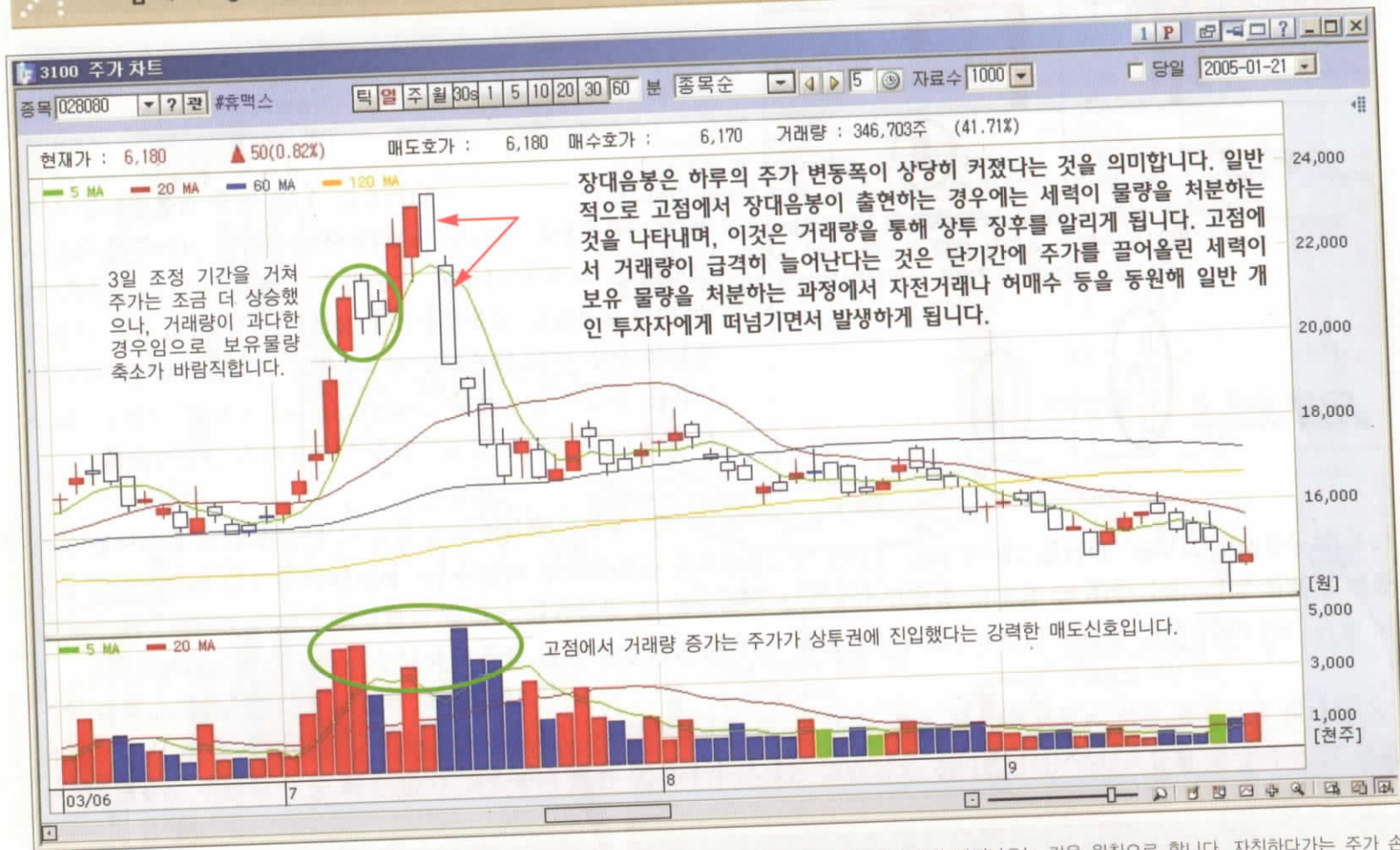
일봉이 길다는 것은 하루 주가 변동폭이 대략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의미합니다. 장대양봉인 경우에는 그 시세 차이로 단 하루 만에 1년치 은행이자 이상에 육박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로 엄청난 자본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캔들차트에서 장대봉 형태로 표시됩니다.

캔들차트에서 장대봉은 주가의 흐름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장대양봉은 매수세력의 강력한 힘을 나타내며, 이후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늘거나 거래량이 줄면서 갭상승을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장대음봉은 매도세력의 강도를 나타내며, 이에 따라 손절물량과 실망물량으로 주가는 하락을 예고합니다. 이처럼 장대봉은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따라 주가의 큰 흐름을 좌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바닥권에서 장대양봉은 상승추세 신호를 알리며, 반대로 고가권에서 장대음봉은 하락추세 신호를 알립니다. 반면에 바닥권에서 장대음봉은 거래량에 따라 추가 하락을 알리는 경우가 많고, 고가권에서 장대양봉은 거래량에 따라 추가 상승을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실전에서는 단타성 속임수 장대양봉이나 매집성 장대음봉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 고점에서 장대음봉은 주가 상투



▶ 단기 급등한 주식에서 고점 대량거래에 따른 장대음봉을 맞은 경우에는 비록 손실을 보더라도 무조건 신속히 빠져나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칫하다가 주가 손실에 대한 미련 때문에 몇 개월 혹은 1년이 넘도록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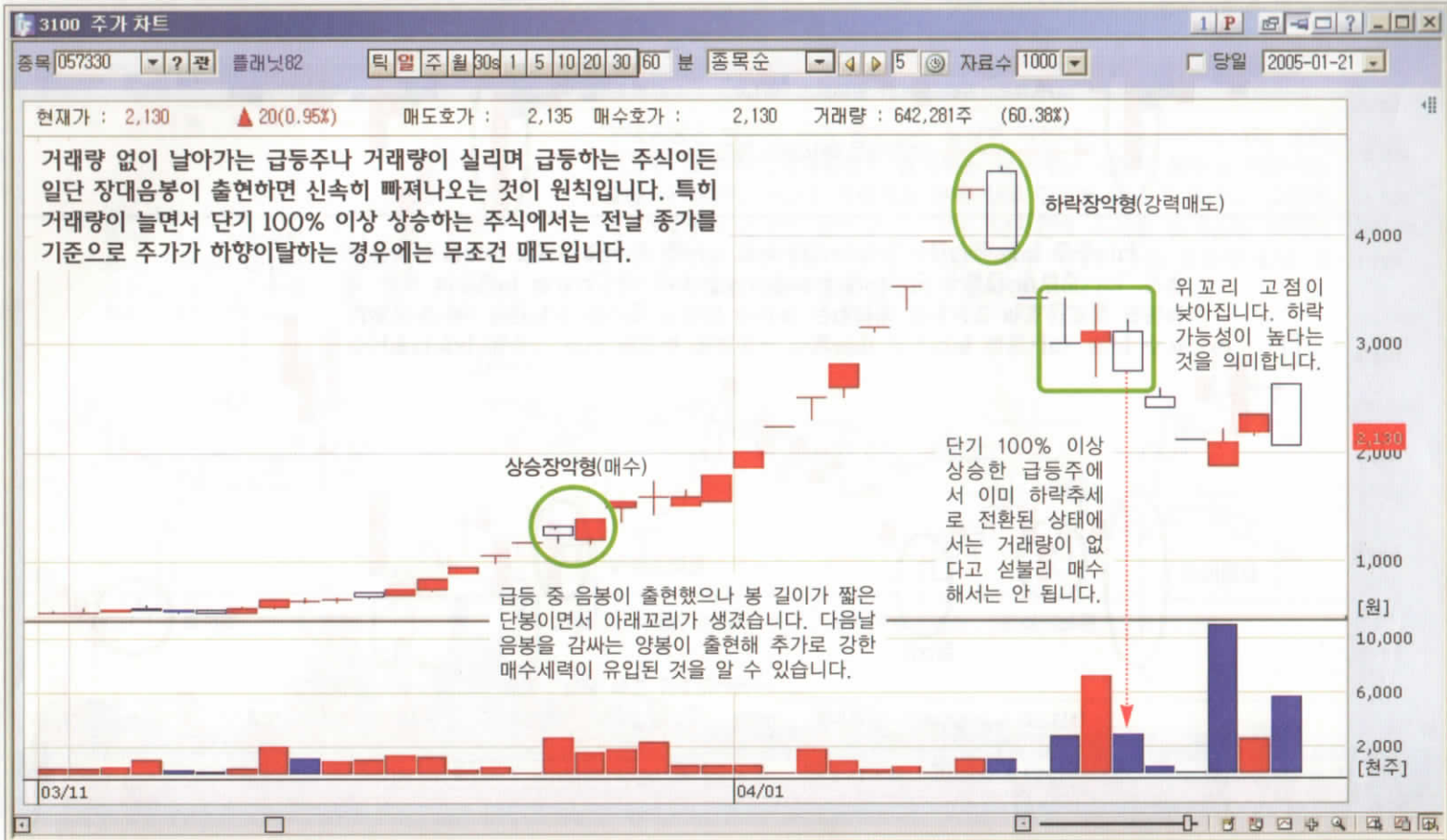


# 고점에서 주가 상투를 알리는 캔들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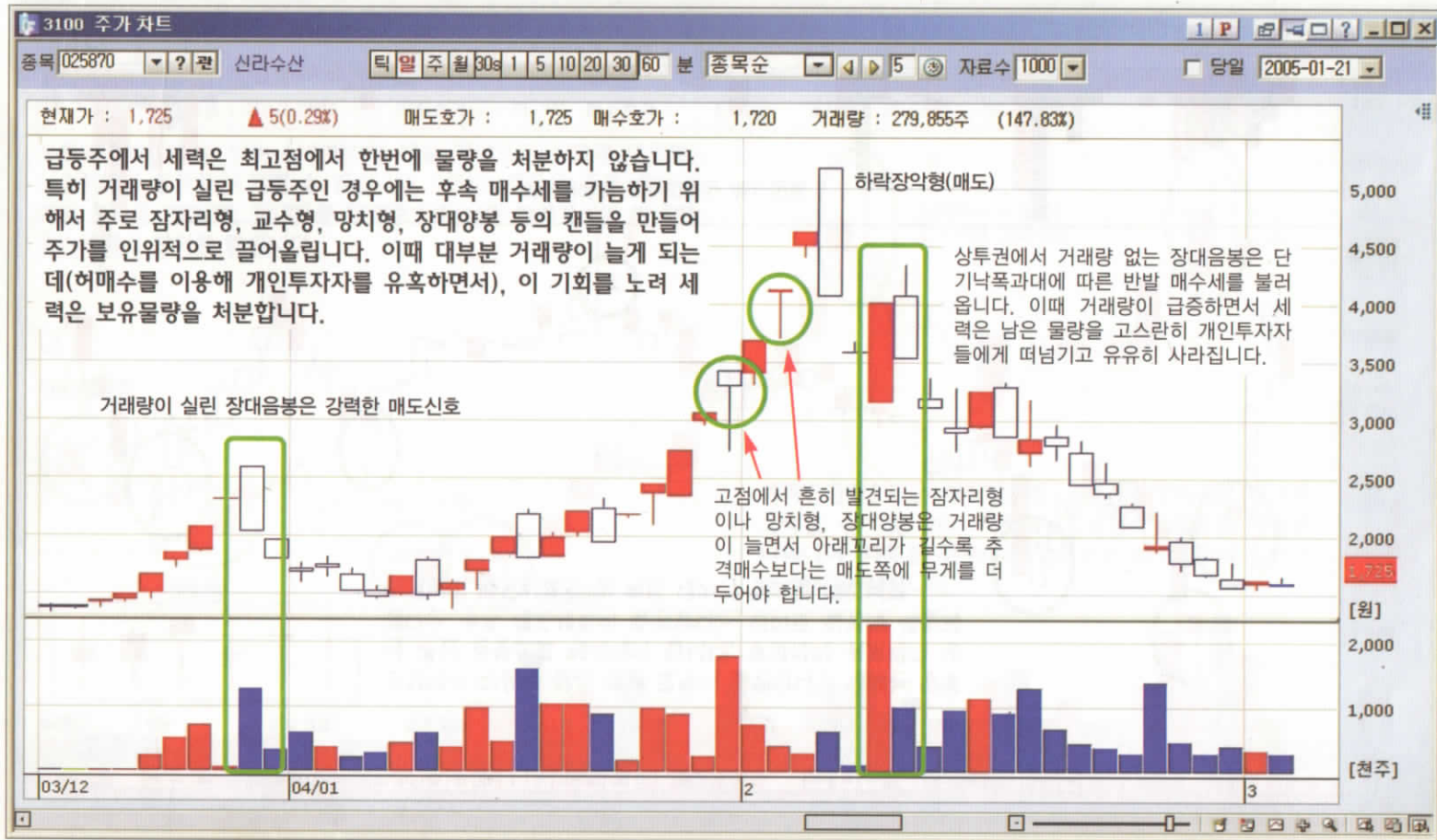
▶ 주가가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나 혹은 신고가를 갱신하는 시점에서 위꼬리가 나타나는 비석형, 심자형, 역망치형, 살바형, 그밖에 장대음봉, 흑삼병, 흑운형, 하락장악형, 유성형, 석별형 등이 출현하면 추세에 연연하지 마시고 일단 매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급등주에서 장대음봉은 36계 줄행랑



▶ 고점에서 양봉이든 음봉이든 위꼬리가 출현한다는 것은 당일 고점에 누군가 물량을 던졌다는 뜻으로, 매도세력이 매수세력을 압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봉 길이에 관계없이 위꼬리 출현시에는 매도관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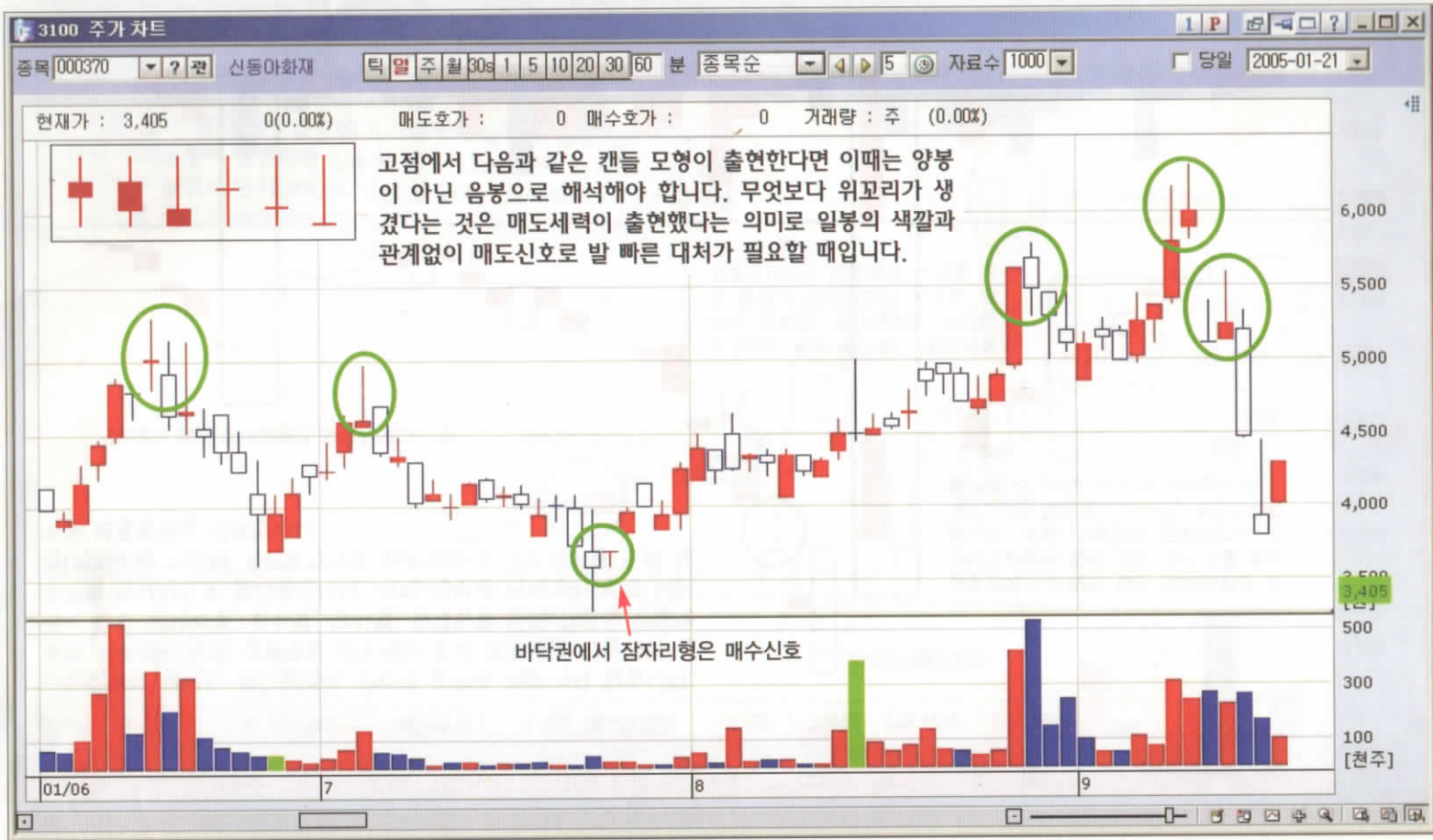
# 급등주에서 망치형, 교수형, 잠자리형, 장대양봉의 비밀



▶ 단기간에 100% 이상 급등하는 주식에서는 급등 도중 잠자리형, 망치형 캔들을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거래량이 평소보다 5배 이상 많다면 필시 세력이 물량을 일부 처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곧이어 상투권에 진입한다는 신호로 해석하기 바랍니다.(매도관점)



고점에서 양봉을 음봉으로 해석하는 경우



▶ 고점에서 주가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이 바로 위꼬리가 연속해서 출현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봉의 길이입니다. 봉의 길이와 꼬리의 길이에 따라 매수세력과 매도세력 간의 한쪽 힘의 크기가 결정되는데, 고점에서는 일단 그동안의 주가 상승으로 수익을 본 이들이 많기 때문에 매도심리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꼬리가 연속해서 출현하면 연속된 매도세가 출현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도신호로 해석합니다.

# 대표적인 반전형 캔들 유형



▶ 실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바닥권 상승반전형 캔들패턴으로는 '셋별형'을 들 수 있으며, 상투권 하락반전형으로는 '하락장악형'을 들 수 있습니다.

## 저점에서 십자형과 망치형 출현



▶ 저점에서 십자형과 망치형, 혹은 역망치형이 출현했을 때는 당일보다는 다음날 매수시점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량이 전일보다 감소한 상태에서 전일 저점과 고점을 높인다면 단기 투자심리가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승추세 확률은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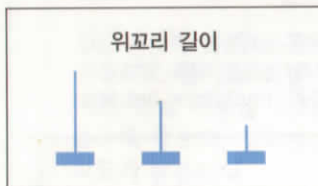
# 단기 급락 후 비석형은 상승반전 신호탄



▶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비석형이 연속해서 출현하는 경우, 전일 비석형의 증가 위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며 양봉이 탄생한다면 매수관심입니다.

## 위꼬리와 아래꼬리의 길이

### ▶ 위꼬리 길이에 따른 매도심리



※ 조건 :  
몸통 길이 같음, 거래량 동일

캔들에서 위꼬리는 장중 고점에서 매도세가 출현해 매수세를 압도해버린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없이 일단 매도세가 출현했다는 것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위꼬리가 길다는 것은 매도가격 변동폭이 컸다는 뜻으로 장중 고점부근에서 매수한 이들은 일단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기서 거래량이 늘었다면 손해를 보는 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향후 추가상승에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꿔말해 현재 손해를 보는 이들이 많은 주식을 얼씨구나 하고 매수하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즉, 매물소화를 거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매물은 매물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꼬리는 매도심리의 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짧을수록 좋습니다.

### ▶ 아래꼬리 길이에 따른 매수심리



캔들에서 아래꼬리는 장중 저점에서 매수세가 출현해 매도세를 압도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양봉이나 음봉이나와 몸통 길이 및 거래량에 따라 약간씩 해석하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매수세가 출현했다는 것은 반가운 의미일 것입니다. 그럼 아래꼬리의 길이는 길수록 좋을까? 짧을수록 좋을까?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아래꼬리 길이가 몸통길이의 50% 정도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아래꼬리가 너무 길다면 매수세의 힘을 나타내는 동시에, 장중 저점에서 매수한 이들은 이미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도세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아래꼬리가 짧다면 봉의 색깔과 몸통길이와 거래량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확실한 사실은 추가 매수세의 힘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저점대에서 아래꼬리는 상승추세전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저점을 지지하는 아래꼬리가 연속해서 출현한다면 그만큼 상승확률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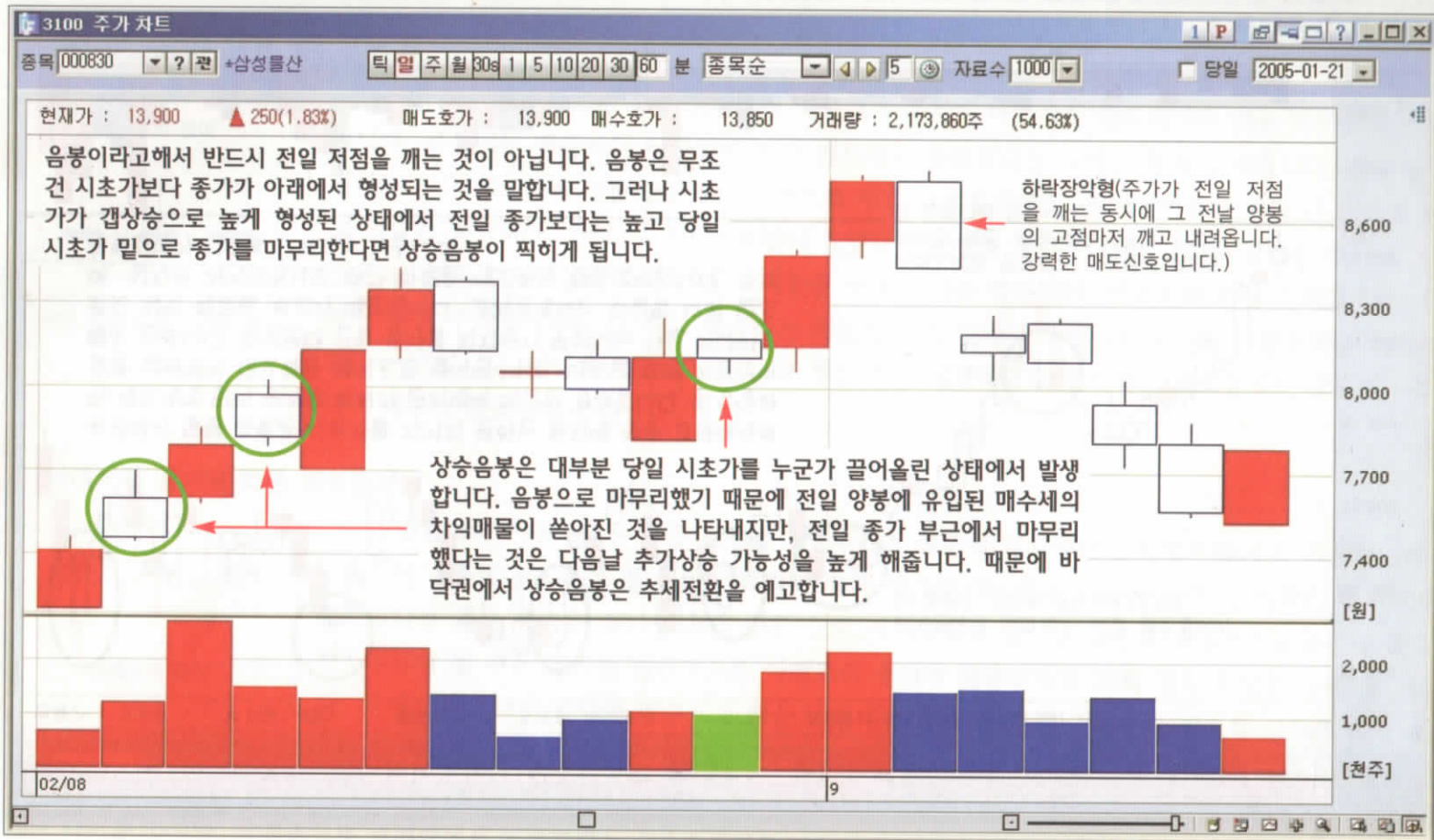
# 위꼬리 음봉은 다음날 하락 예고



▶ 위꼬리가 길다거나 장대음봉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저점에서 음봉은 속임수로 흔히 나타나며, 고점에서의 음봉 또한 추가매집용으로도 종종 활용됩니다. 속임수 음봉에 대한 대처 문제는 거래량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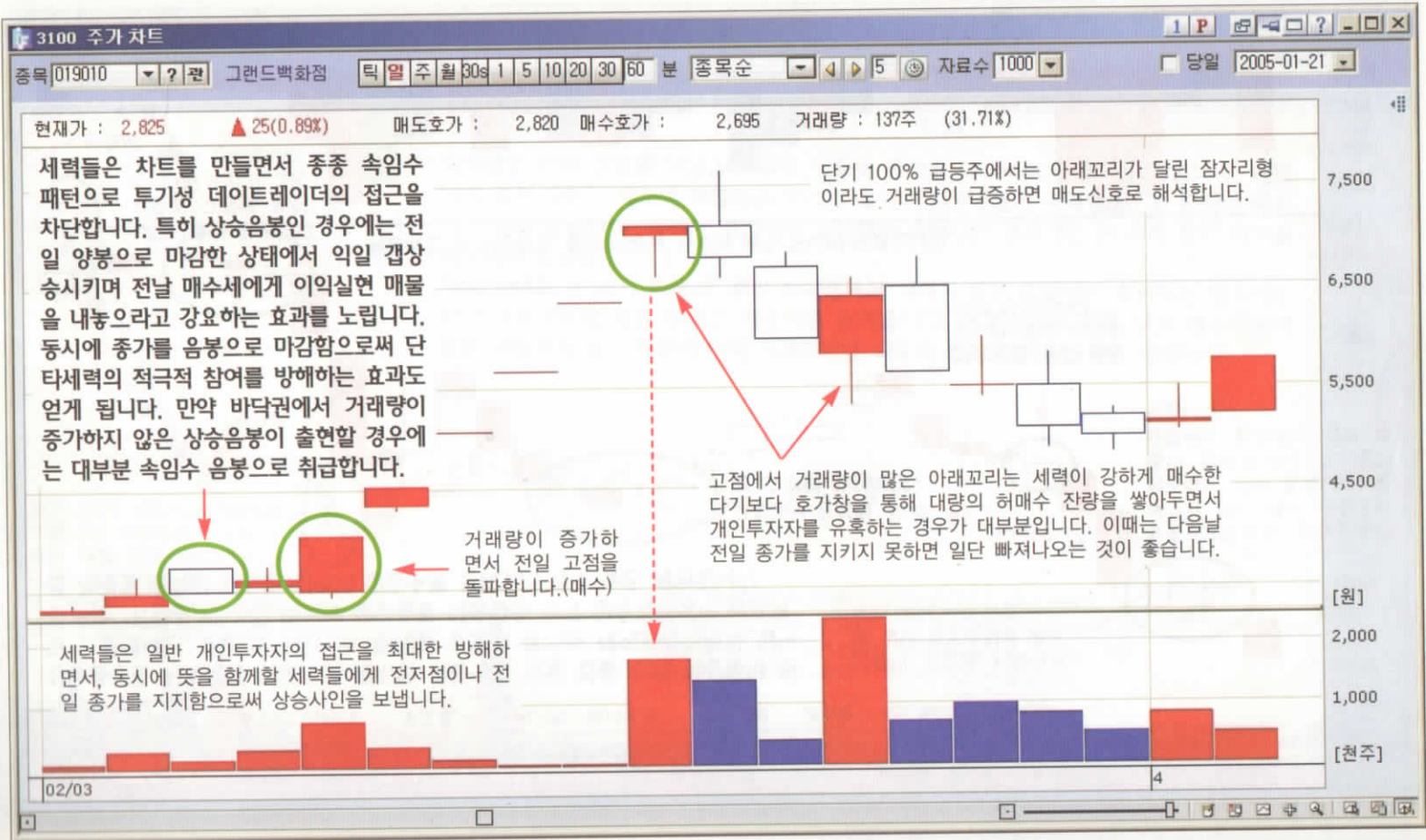


바닥권에서 상승음봉은 추세전환 신호



▶ 상승음봉은 세력의 '양음양' 캔들 패턴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전일 양봉에서 매수한 물량을 당일 고점에서 일만 매도한 다음 장중 저가에 다시 주워담으며 물량을 늘리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주가는 양봉→음봉→양봉 순으로 반복해가며 상승하게 됩니다.

# 상승음봉의 비밀



▶ 고점에서는 캔들의 몸통이나 꼬리의 길이는 되도록 짧아야 좋습니다. 비록 아래꼬리가 생긴 양봉이라도 몸통이나 꼬리 길이가 길다는 것은 장중 가격변동폭이 매우 컸다는 것을 말합니다. 장중 저가에 매수한 이들은 단 하루 만에 큰 수익을 본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매물로 쏟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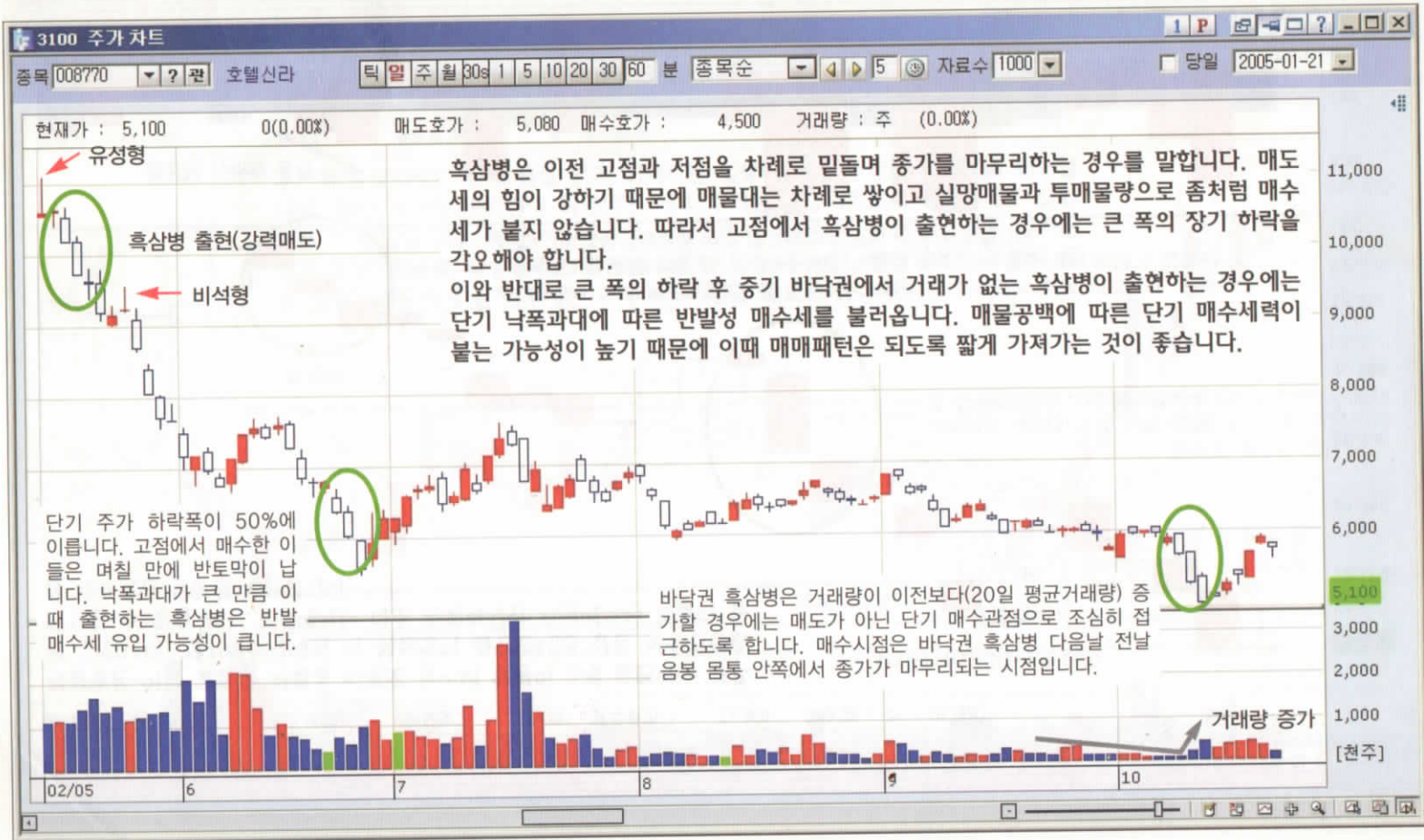
## 상승음봉에서 확률을 높여라



▶ 주가 상승 과정에서 양봉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속된 양봉은 무조건 매수하기만 하면 수익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제아무리 자본이 많은 세력이라도 그 많은 물량을 전부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력은 물량 일부를 고가에서 던지고 다시 받고, 다시 올리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패턴을 통해 매물부담을 줄이며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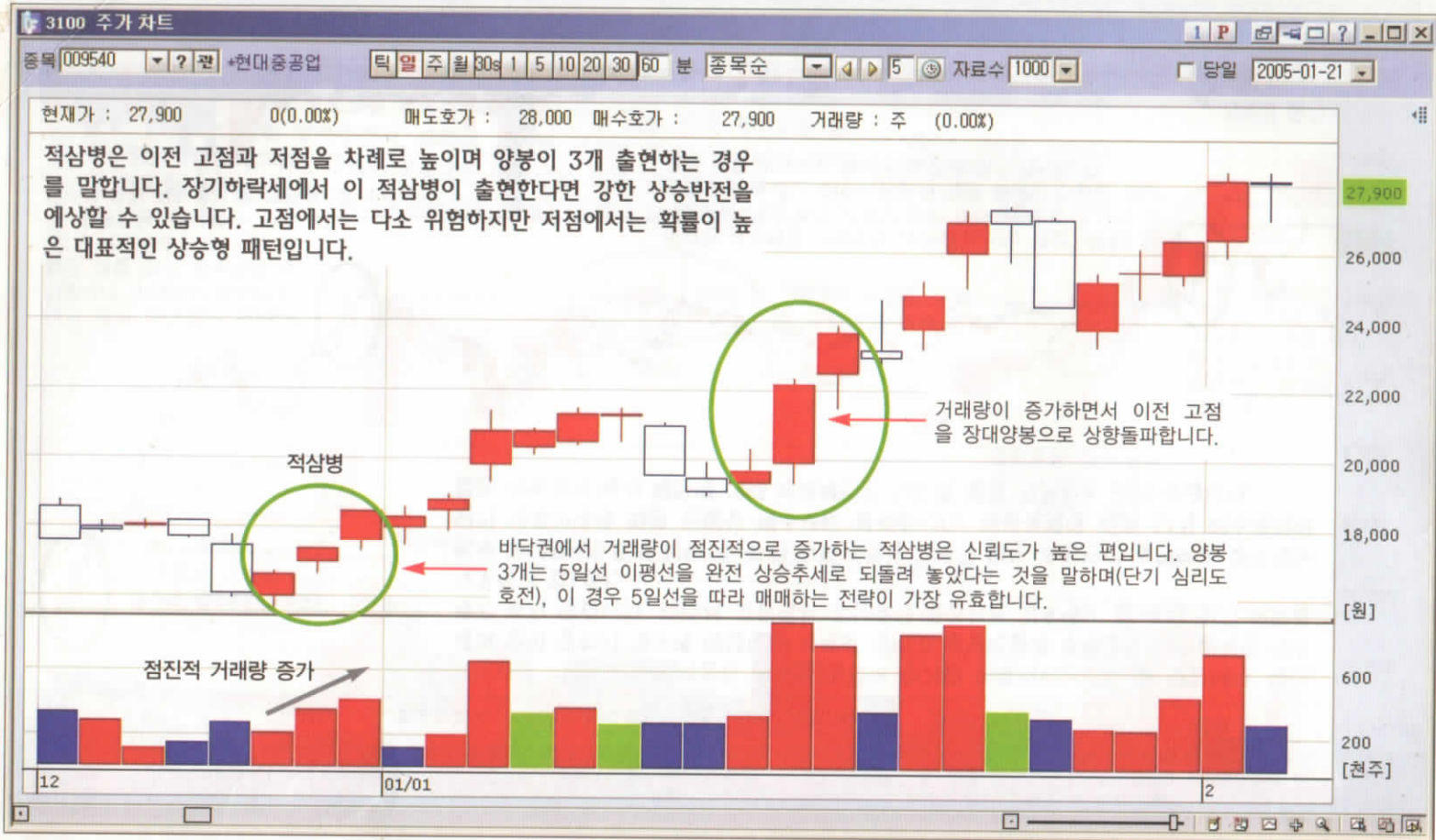


# 고점 흑삼병은 강력한 하락신호



▶ 고점에서 음봉 3개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봉 길이가 길어지고, 위꼬리가 연속해서 출현하고, 전일 저점을 하향이탈하는 순간 미련없이 매도버튼을 눌러야겠지요.

### 저점 적삼병은 강력한 추세상승 신호





▶ 직장인들은 전업 투자자와 달리 빠르게 변하는 주가를 자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단기 매매보다는 중기적으로 매매 포지션을 잡아야 하며, 이 경우 자본이 적은 중소형주는 피하고, 지수관련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삼성, LG, 현대 등 업종 대표주. 참고로 삼성전자 한 종목만 중기적으로 노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 02. 세력이 만드는 거래량과 매물대의 비밀



### 거래량 막대그래프 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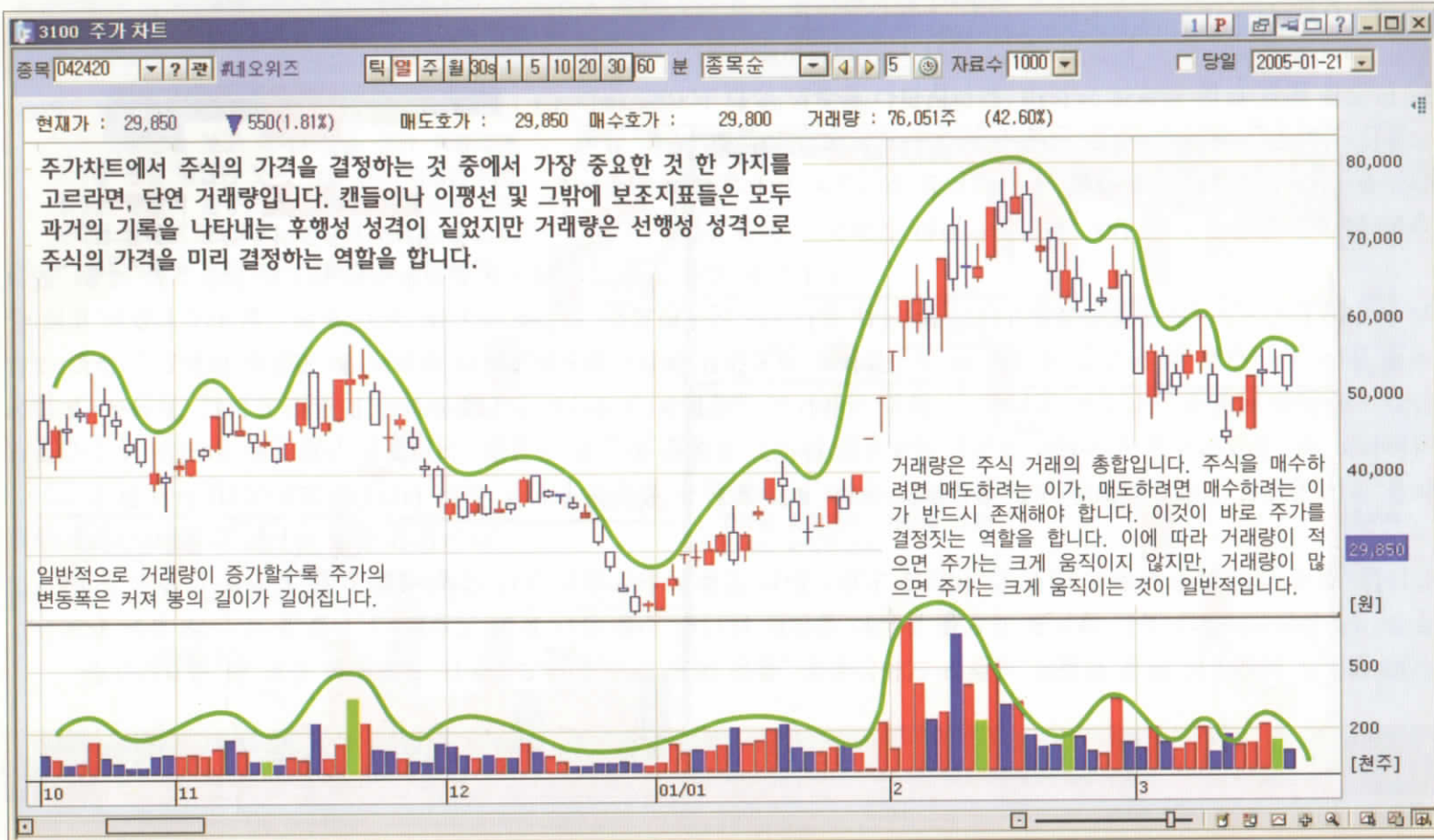
주가차트를 맨 처음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양봉, 음봉이라고 일컫는 캔들과 함께 거래량을 표시한 막대 그래프가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캔들은 특정 기간 동안 주가의 변화를 하나의 봉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거래량은 특정 기간 동안 주식이 거래가 되는 양을 말합니다. 차트에서 거래량 막대그래프 길이가 긴 것은 거래량이 많다는 것을, 길이가 짧은 것은 거래량이 적다는 것을 말합니다.

각 증권사 HTS 프로그램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을 우선 밝히며, 다음 거래량을 표시한 막대그래프 그림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하나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캔들은 빨간색 양봉과 파란색 음봉으로 2가지 색으로만 표시하지만, 왜 여기서는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연두색 이렇게 3가지 색상으로 거래량을 표시하는 것일까? 주식을 처음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주식 투자 경력이 오래된 분들도 왜 거래량 막대그래프를 3가지 색상으로 표시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일 거래량보다 많으면 빨간색, 적으면 파란색, 같으면 연두색? 다른 분은 매수량이 많으면 빨간색, 매도량이 많으면 파란색, 매수-매도량이 같으면 연두색으로 표시한다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주가차트에서 거래량 막대그래프의 색상은 전일대비 주가의 상승 여부에 따라 3가지 색상으로 표시합니다. **빨간색**은 전일보다 당일 주가가 높은 경우, **파란색**은 전일보다 주가가 낮은 경우, 그리고 **연두색**은 전일과 당일 주가가 같은 경우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차트를 넓게 보면 빨간색 거래량은 주가가 전일보다 높았다는 것을, 파란색 거래량은 전일보다 주가가 낮았다는 것을 표시합니다.(참고로 증권사마다 기본 차트 색상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캔들은 후행성, 거래량은 선행성



▶ 흔히 거래량은 주가의 바로미터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주가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잣대인 셈입니다. 보통 거래량이 바닥시점이 주가 바닥인 경우가 많으며, 거래량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할 때가 매수관점입니다.







## 상승과 하락추세의 거래량 변화에 대한 일반적 이론

**일** 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려면 거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매수한 이들은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팔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그런데 주가가 상승한 상태에서 쏟아지는 매도물량을 누군가 계속 사들입니다. 가격이 오를수록 매도세는 늘어나고, 계속 매수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으면 당연히 거래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한다면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주가 상승은 빨간색 양봉으로 차트에 표시됩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점차 감소하는 경우에는 주가는 하락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주가 하락의 이유는 매도하고자 하는 주체보다는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세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팔자는 물량을 조금만 내놓아도 주가는 힘을 못 받고 추가 하락을 하게 되며, 거래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가져옵니다.

‘그럼 매수세가 없다고 한다면 매도를 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 ‘매도물량이 없으면 주식 가격이 내려갈 이유가 없을 것 아니냐?’ 하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소유한 이들은 반드시 매도를 해야만 합니다. 주식은 직접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고가권에서 매수하기보다는 저점에서 매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매도세는 항상 일정하게 존재하지만 이 상태에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주가는 하락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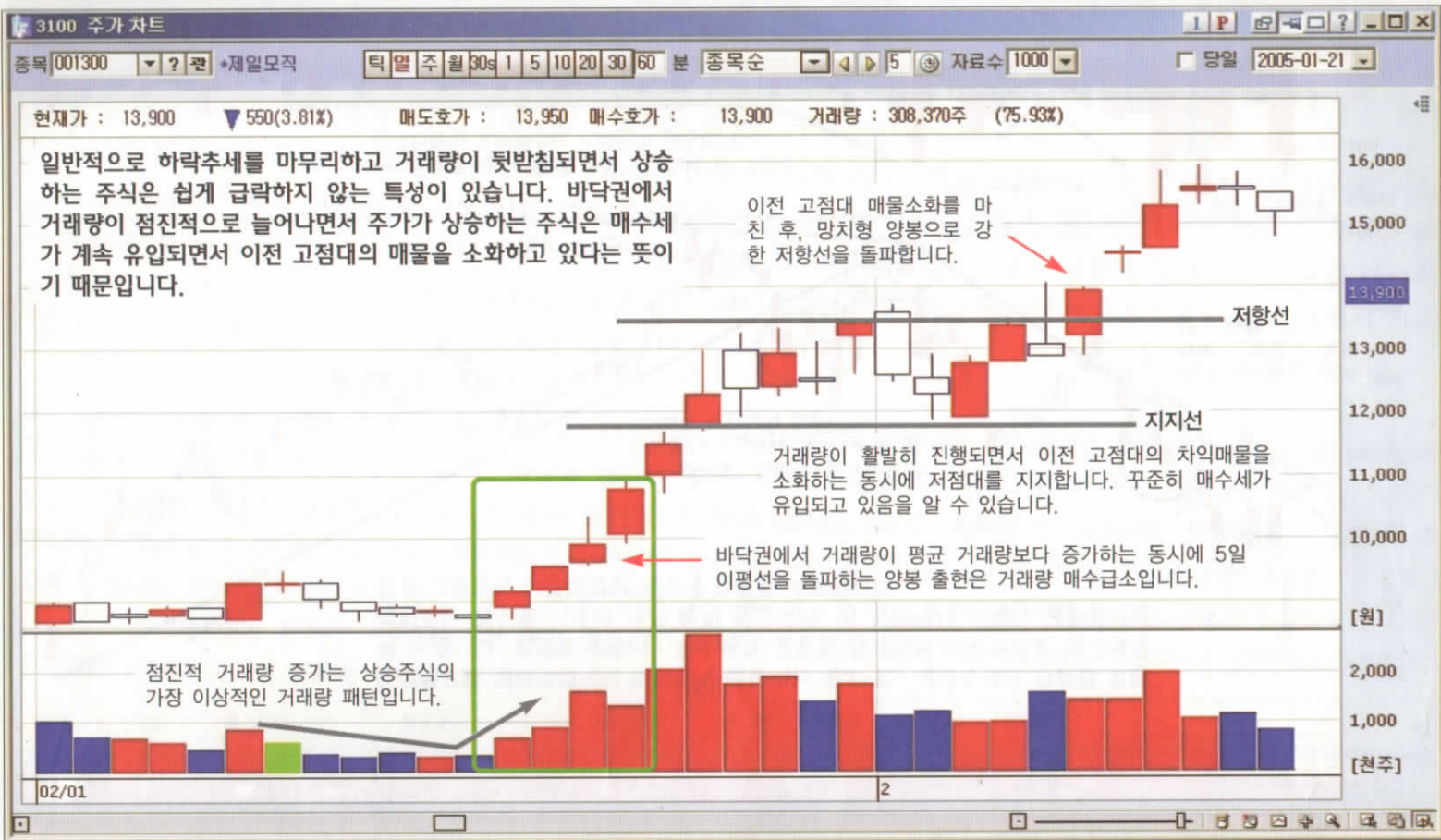
▶ ‘일반적’이라는 말은 항상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렇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시장은 매우 복잡해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같습니다. 공통점을 보이는 점도 많지만 예상과 달리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서 설명한 거래량을 예로 들자면,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도 주가는 급등할 수 있고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데도 주가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세력이 많은 물량을 매집했다면 거래량 없이 주가는 상승하고, 상투권에서 거래량이 급증해도 세력이 버티고 오히려 물량을 매집한다면 주가는 한 단계 더 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매수하고자 하는 이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매도하고자 하는 이들이 적다면 주가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도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식시장에서 어떤 절대적인 법칙이나 원리를 찾고자 하기보다는 가변적이고 상대적이고 예외적인 현상들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 상승추세가 임박해서는 거래량이 증가한다





상승시 점진성 거래량이 좋다



# 과도한 대량거래는 후유증이 크다



▶ 상투권에서는 일단 거래량이 많으면 매도관점입니다. 그러나 주가가 단기 고점이라도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장대양봉을 만들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주식은 세력의 강한 매집을 엿보게 합니다.

전고점을 뚫으려면 전고점보다 거래량이 많아야 한다



▶ ①거래량보다 ②거래량이 많아 이전 고점을 돌파합니다. 그러나 ②거래량보다 ③거래량이 적어 고점 돌파에 실패합니다. 이후 주가조정을 거치며 ②거래량보다 많은 ④거래량으로 전고점을 돌파합니다. 마찬가지로 ④거래량보다 ⑤거래량이 많아 전고점 돌파에 성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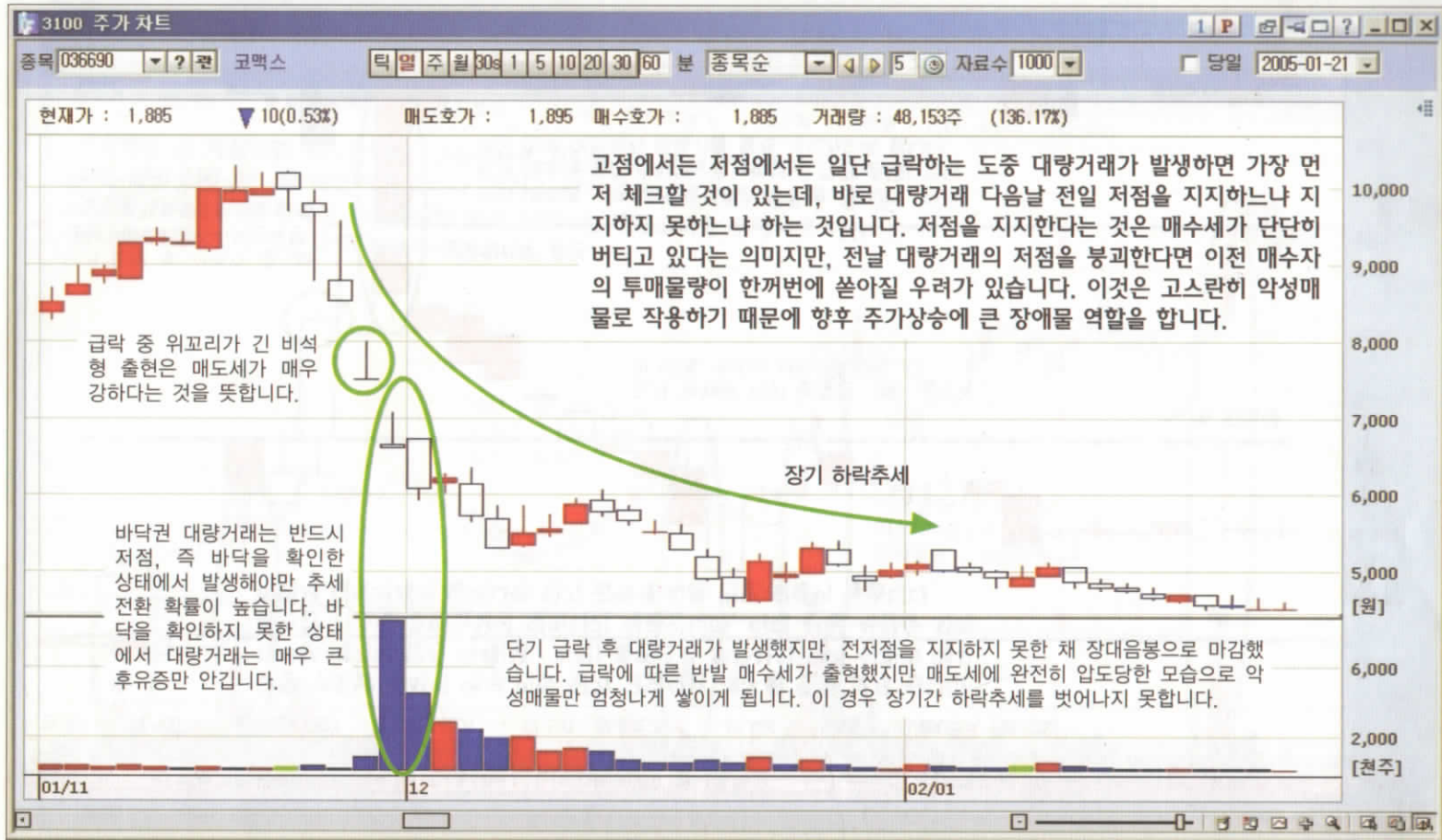


# 단기 급락 후 대량거래는 짧게 가져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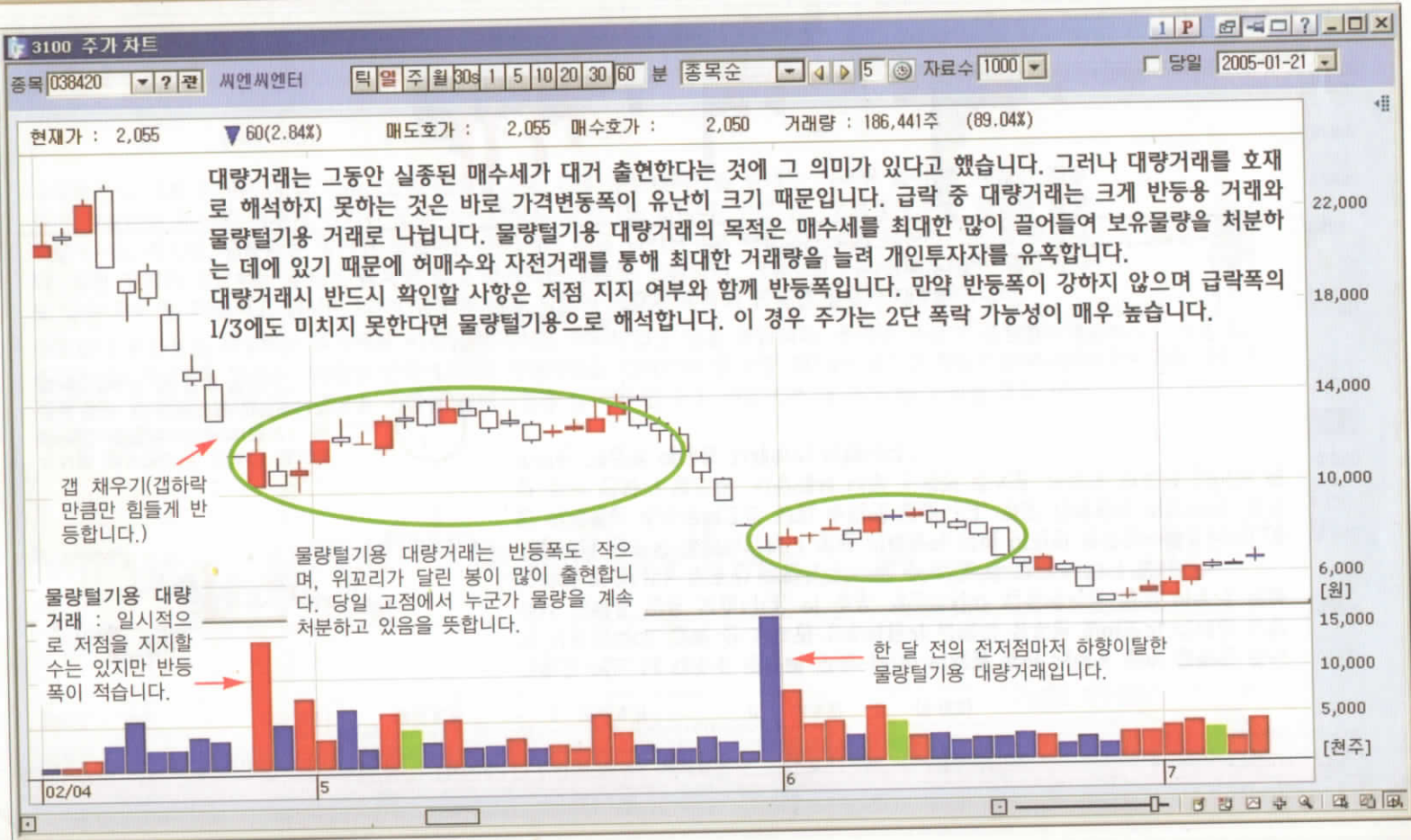


▶ 단기 급락권에서 대량거래는 항상 이전 고점과 저점을 높여야 신뢰가 있습니다.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가는 반등하고, 이때 반등폭은 급락의 50% 선에서 일단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량거래 후 전저점 지지가 실패하면 무조건 버려라



▶ 급락하는 주식이든 하락하는 주식이든 일단 저점을 지지해야만 합니다. 저점을 지속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은 세력이 더 이상 추가하락을 방지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따라서 저점을 지지한 상태에서만 주가상승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 단기 급락권에서 물량털기용 대량거래는 단기간이나 이전 저점을 지지하는 경우와 이전 저점을 지지하지 못하고 추가로 하락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전 저점을 지지한다 해도 거래량이 불규칙하거나 반등폭이 매우 미미한 경우에는 세력이 주가를 받치면서 손해를 본 물량을 마저 처분하는 물량처분용 주가관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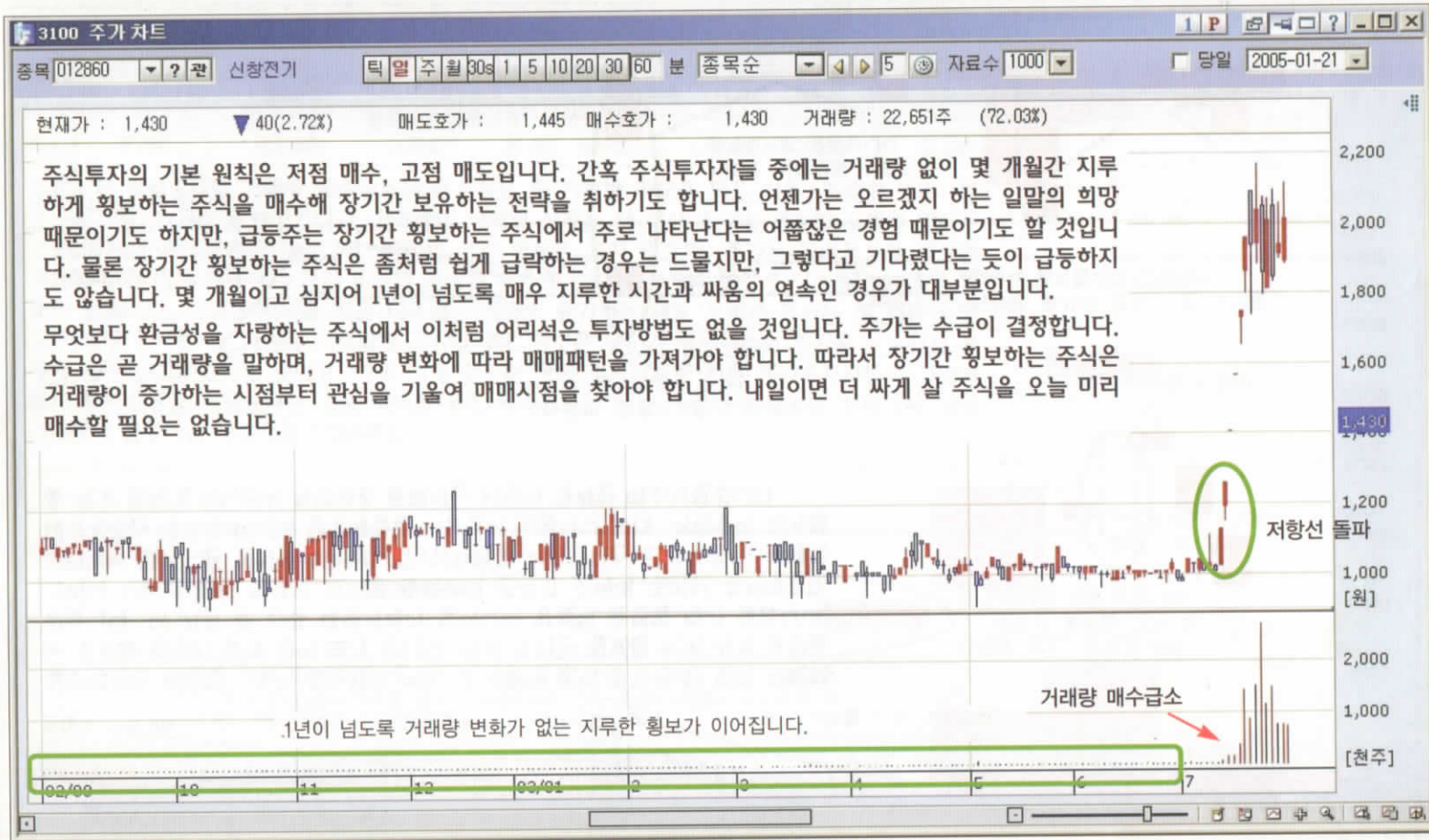


## 거래량 없이 급락하는 주식의 위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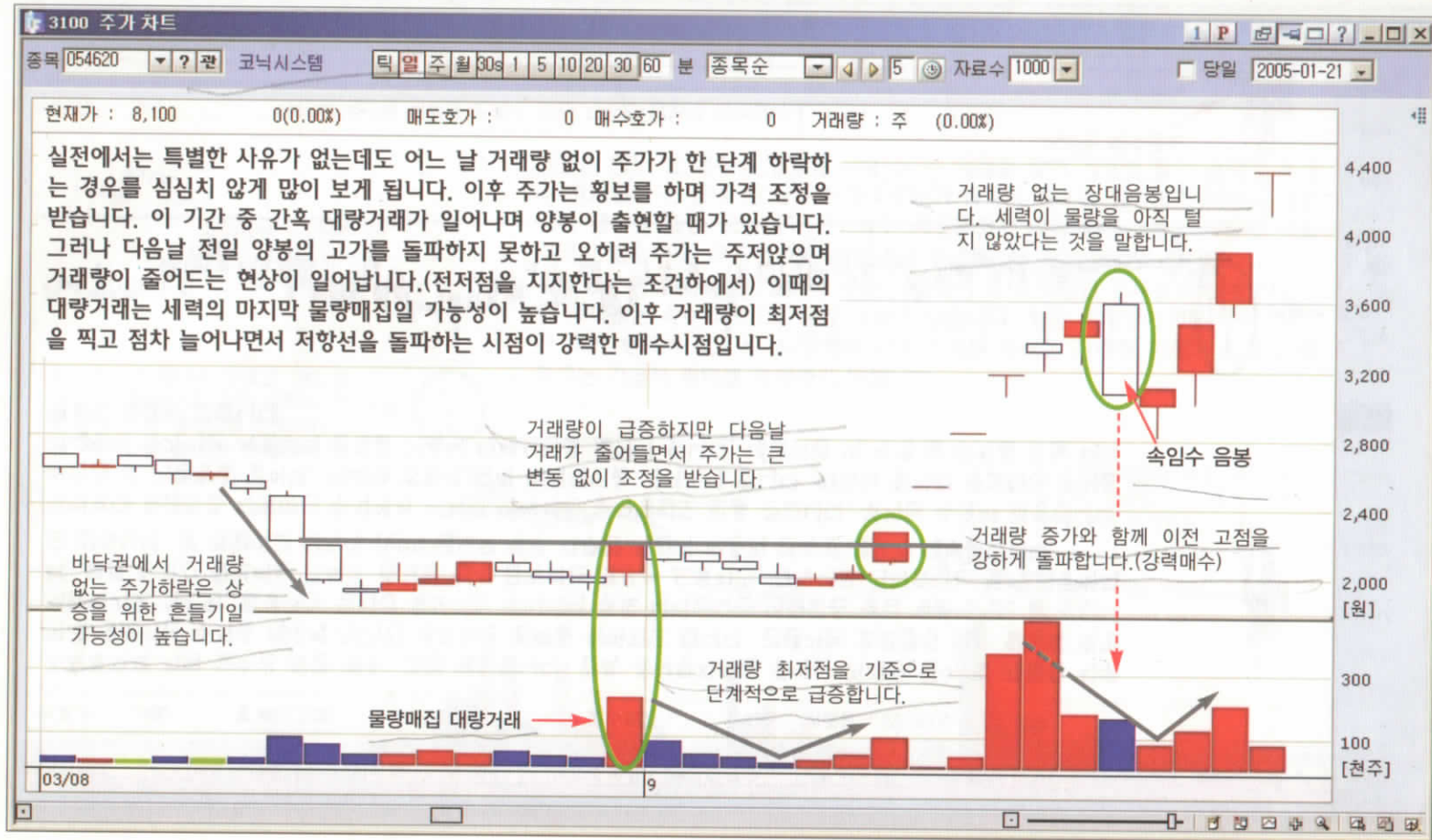
▶ 모든 주식에는 저마다 세력이 존재합니다. 세력이라고 다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강한 주도세력이 있는 반면에 개인투자자보다 멍청한 세력도 많습니다. 부도 위험성이 높은 종목, 유동불량이 극히 적은 종목, 대주주 지분이 최근 들어 크게 감소한 종목, 주가가 지지선 없이 갈팡질팡하는 종목(세력이 주가관리를 포기한 종목)들은 가급적 매매를 자제하도록 합니다.

## 거래량 변화없이 장기간 횡보하는 주식은 매매하지 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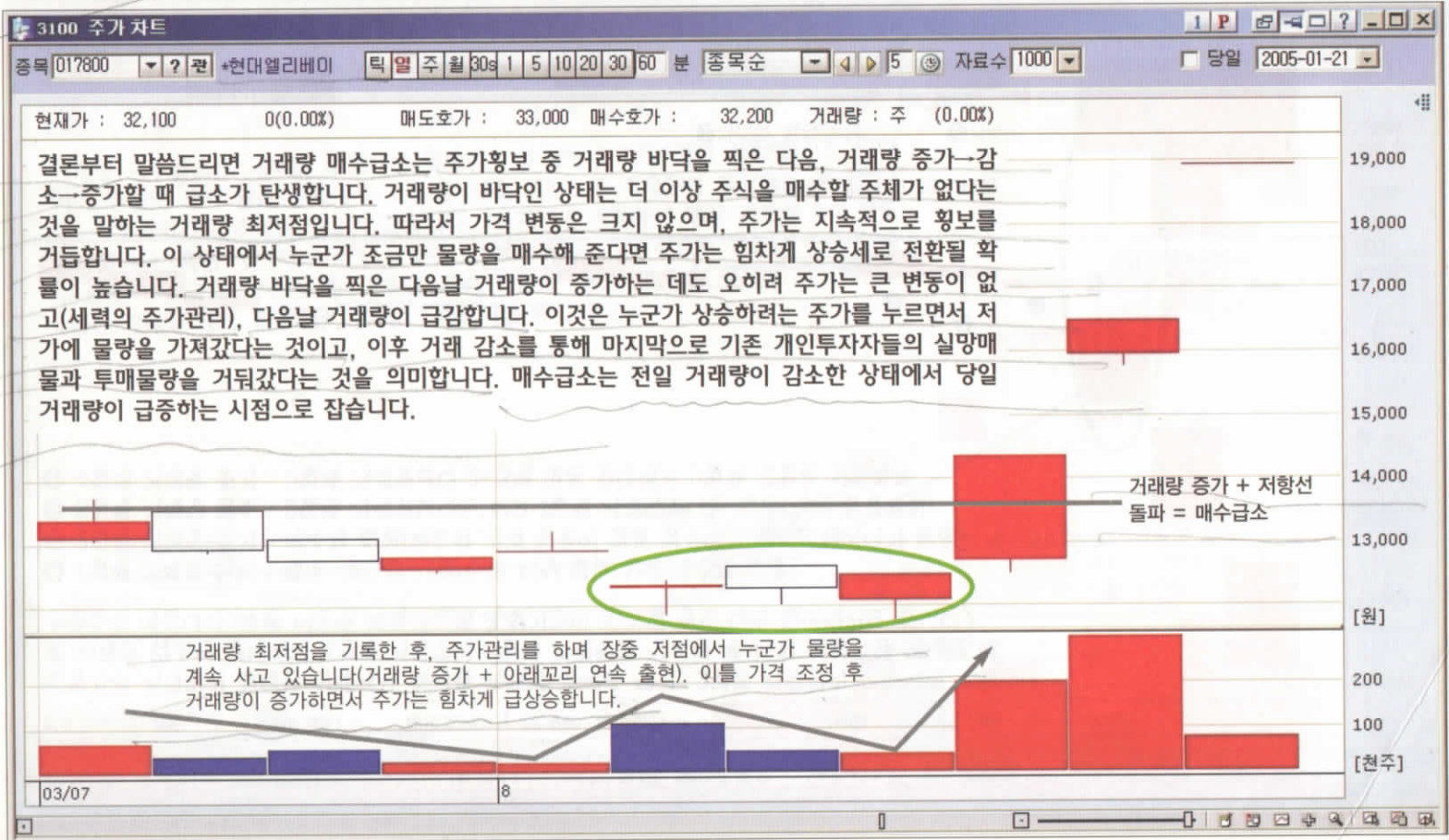
▶ 주가 변화없이 몇 개월간 지루하게 횡보하는 주식은 거래량 변동이 없는 크게 내려가지도 크게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급등 가능성이 크다고 어디서 주워들은 얇은 지식으로 덜컥 매수했다가는 몇 개월 동안 밤을 소주와 함께 건디셔야 할 겁니다.

물량매집형 대량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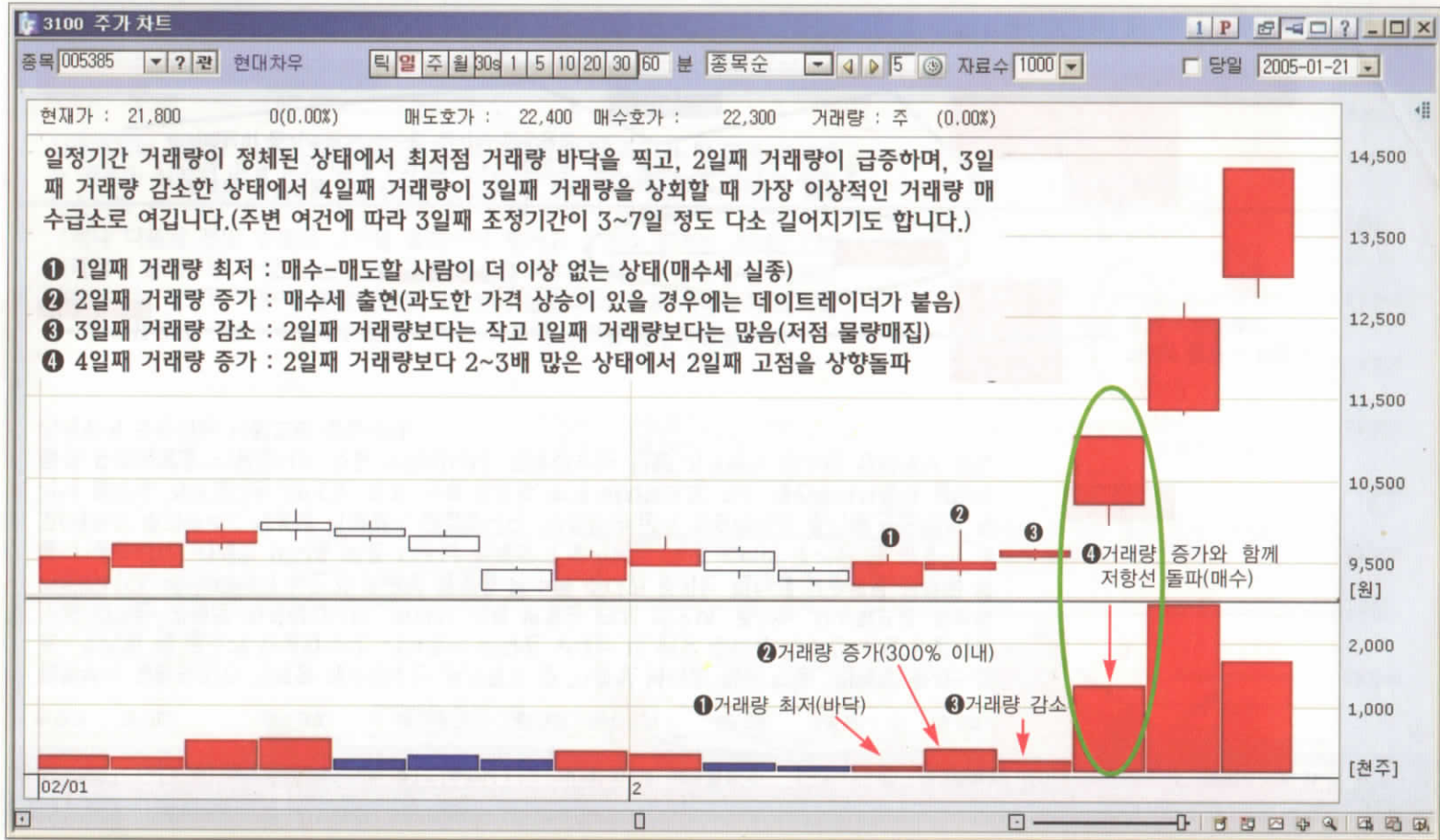


# 바닥권에서 거래량 증가→감소→증가 종목을 노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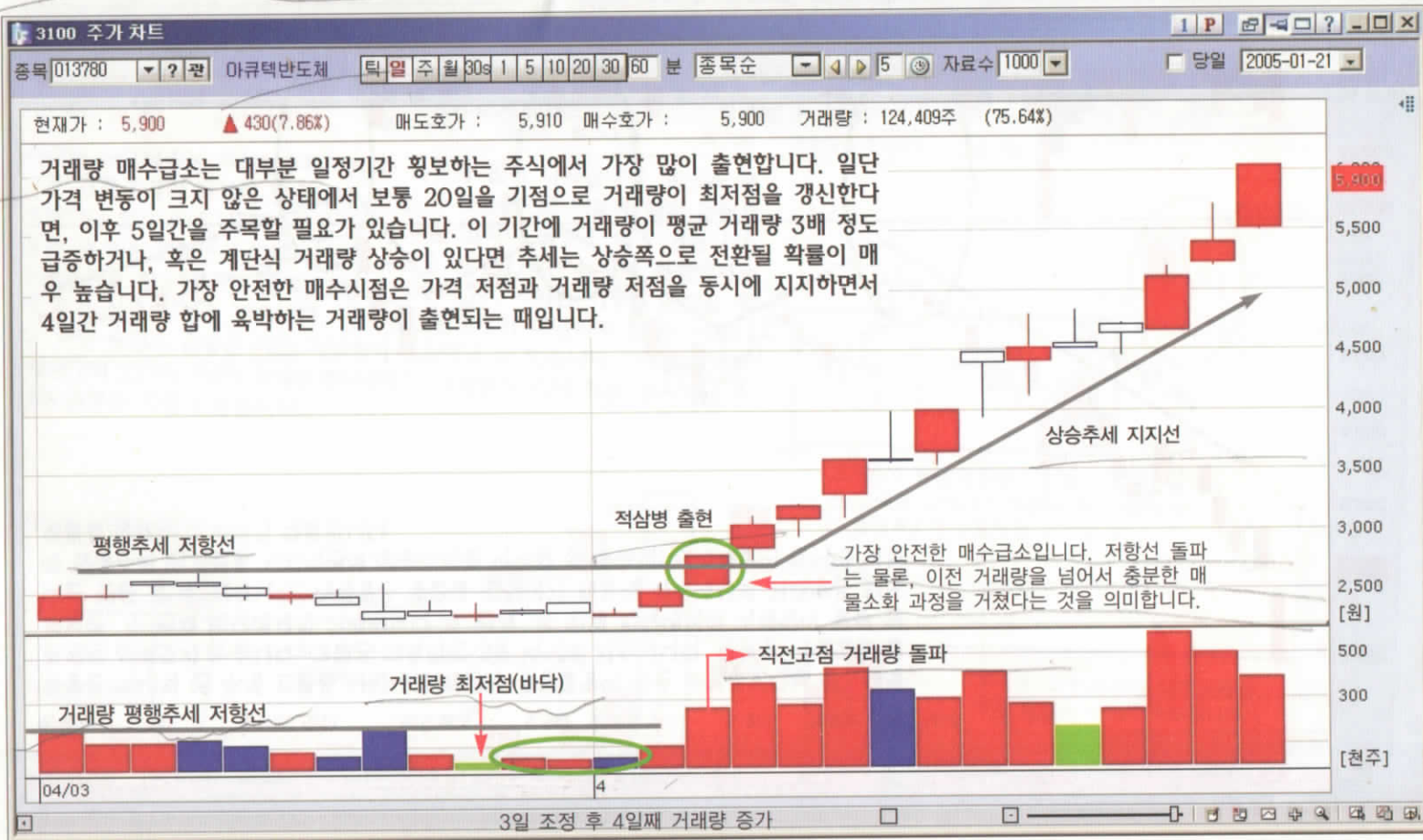
▶ 주가 바닥이란 다른 말로 거래량 바닥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거래량이 없는 상태는 매수하는 사람도 매도하는 사람도 없는 공황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거래량 매수급소는 바로 거래량 바닥에서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는 시점입니다. 사는 사람이 나타나야 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곧 거래량 증가를 의미합니다.

## 이상적 거래량 매수급소



▶ 거래량 바닥을 찍고 다음날 거래량이 평균거래량의 300% 이내 증가한다면 매수관점으로 접근하기 바랍니다. 다음날 거래량이 감소하는데도 주가는 오히려 상승한다면, 이것은 대부분 세력이 그날 하루는 주가관리를 하지 않고 개인투자자에게만 매매를 맡기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즉, 개인매수세가 어느 만큼 유입되는지를 관찰하는 최종 구간인 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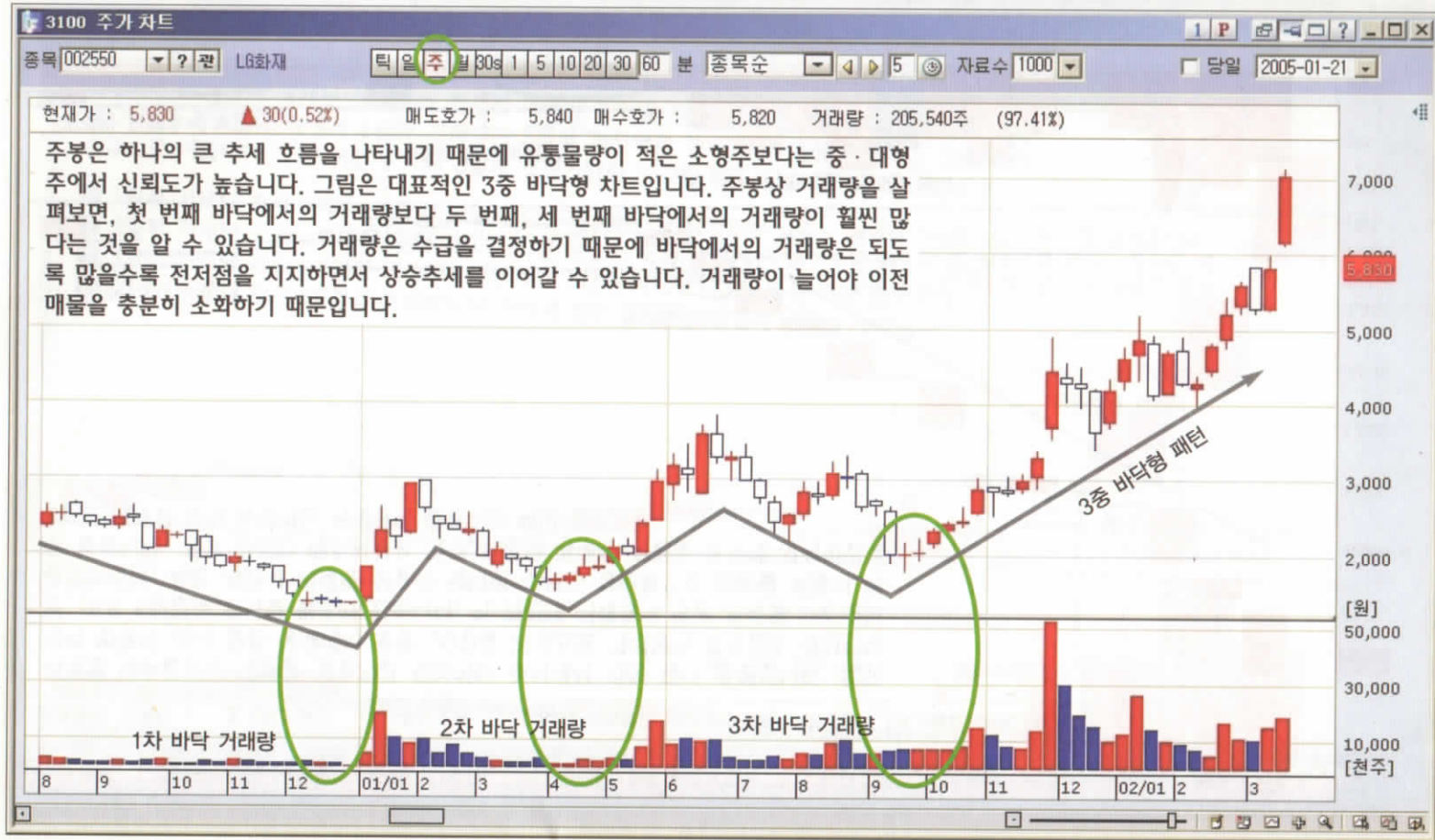
# 거래량 최저점에서 5일간을 주목하라



▶ 장기간 수렴하는 주식은 강한 하방경직성을 자랑합니다. 내려가기도 싫고, 위로 올라가기도 싫은 구간이죠. 세력은 주로 이렇게 장기간 횡보하는 구간에서 물량을 조금씩 매집합니다. 위로 갈 때(호재 출현)를 기다리거나 상승 명분이 충분하다면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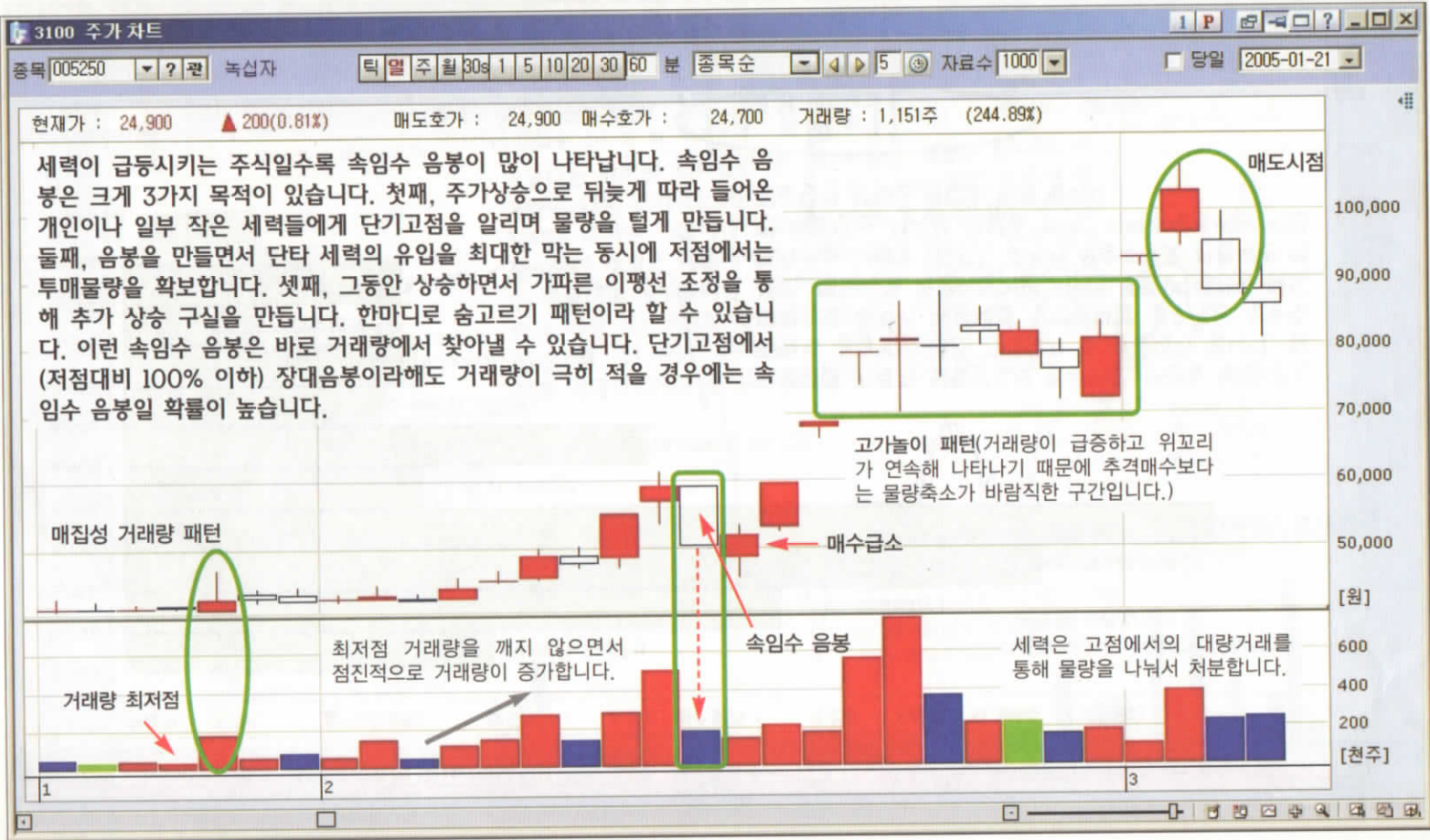
주봉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을 노려라



▶ 주봉을 참조해 중장기 추세 흐름을 파악하려면 일단 소형주는 제외합니다. 소형주는 세력이 작은 금액으로도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교적 안전한 대형주 위주로 주봉을 참조해 추세 흐름을 예측하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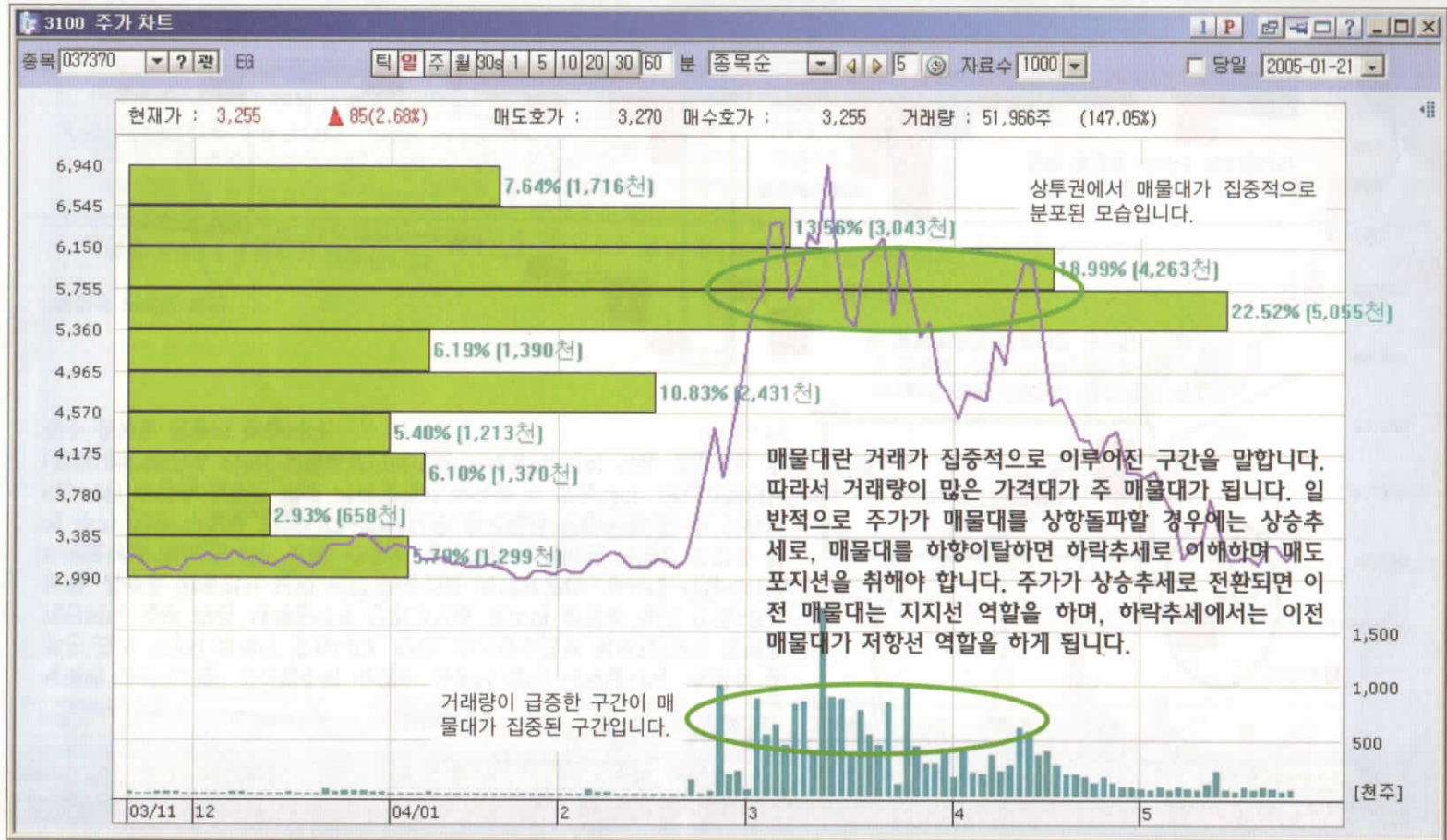


# 속임수 음봉은 거래량에서 찾아라



▶ 고점에서 거래량 없는 장대음봉이 출현하는 경우 무조건 속임수 음봉으로 오해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임수 음봉이나 상승 음봉이나 일단 단기 100% 이상 상승한 상태에서는 거래량과 관계없이 매도관점입니다. 특히 속임수 음봉은 상승 초기에 노리는 것이 유리하며, 짧은 단봉일수록 신뢰도는 높습니다. 매수시점은 속임수 음봉 다음날 전일 음봉의 저가를 상회하는 양봉에서(5일선을 회복) 매수급소가 탄생합니다.

## 거래량과 매물대의 불가분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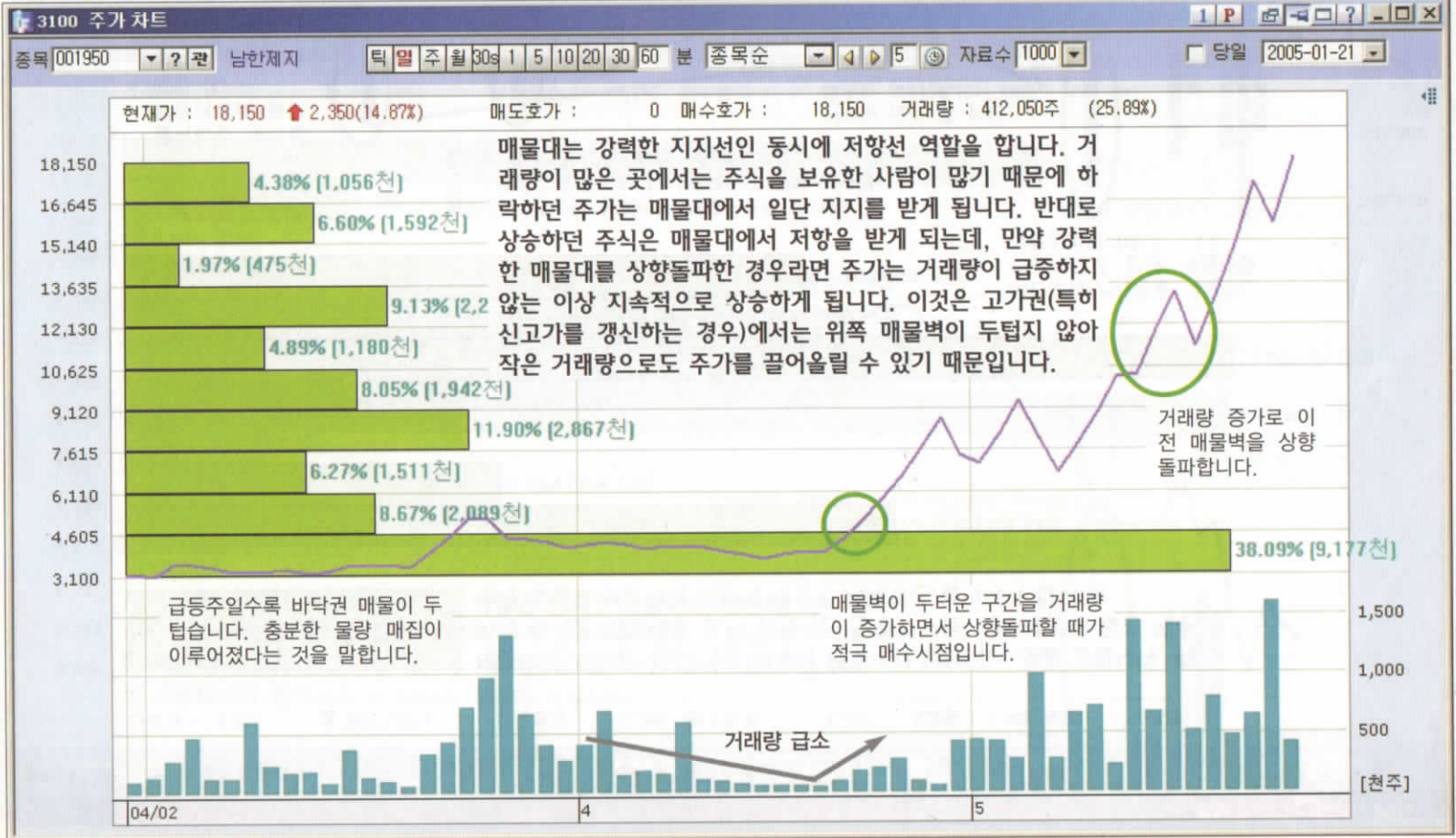


▶ 거래량이 많은 구간에서는 사자는 사람과 팔자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점 대량거래인 경우, 그동안 지겹게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수익을 본 세력) 매수세가 나타날 때를 노려 매도합니다. 이 매도물량을 받는 사람들은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고점에서라도 용감무쌍하게 매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상태에서 주가가 급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물이 매물을 부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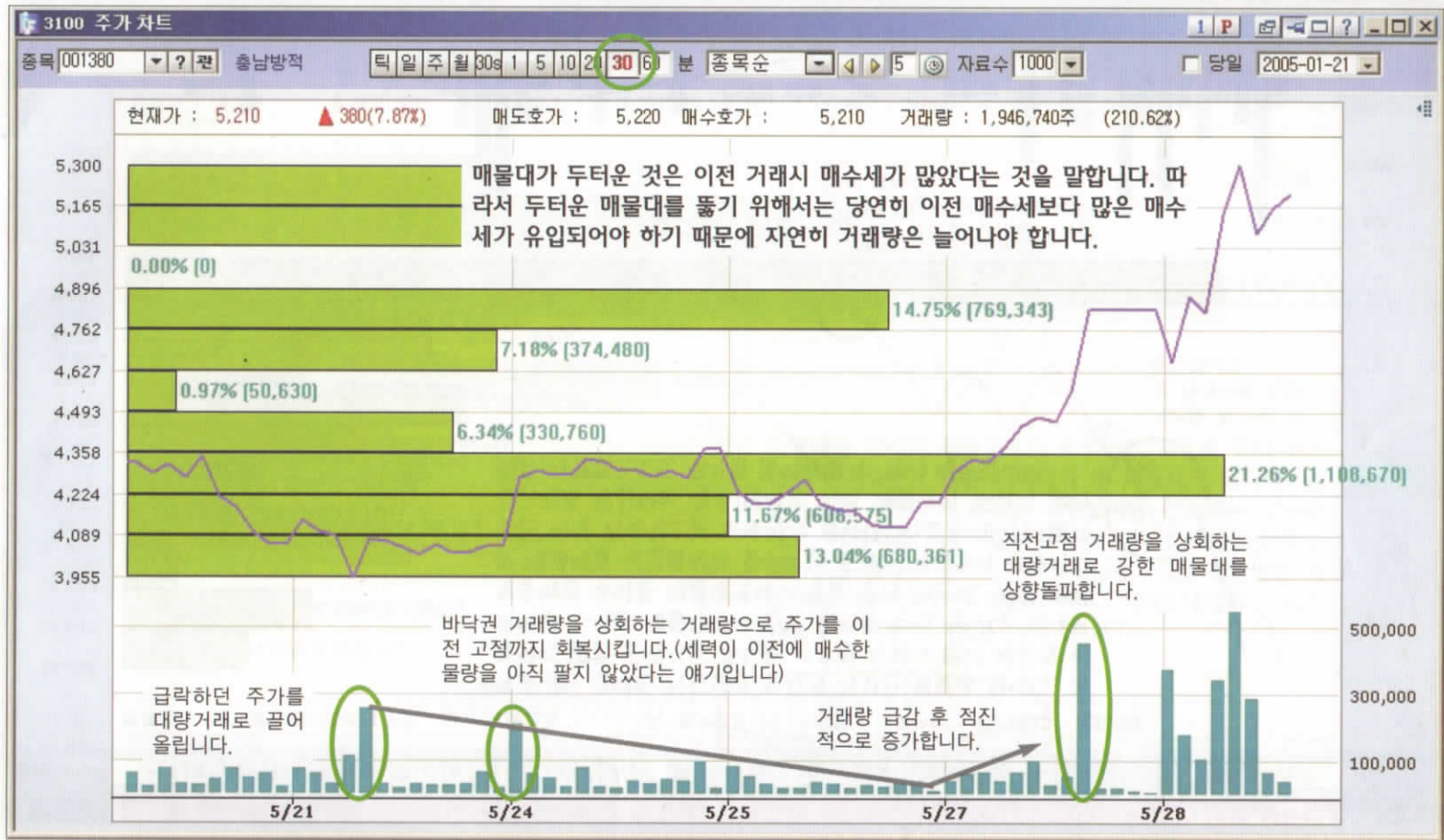


# 위쪽 매물이 없어야 상승이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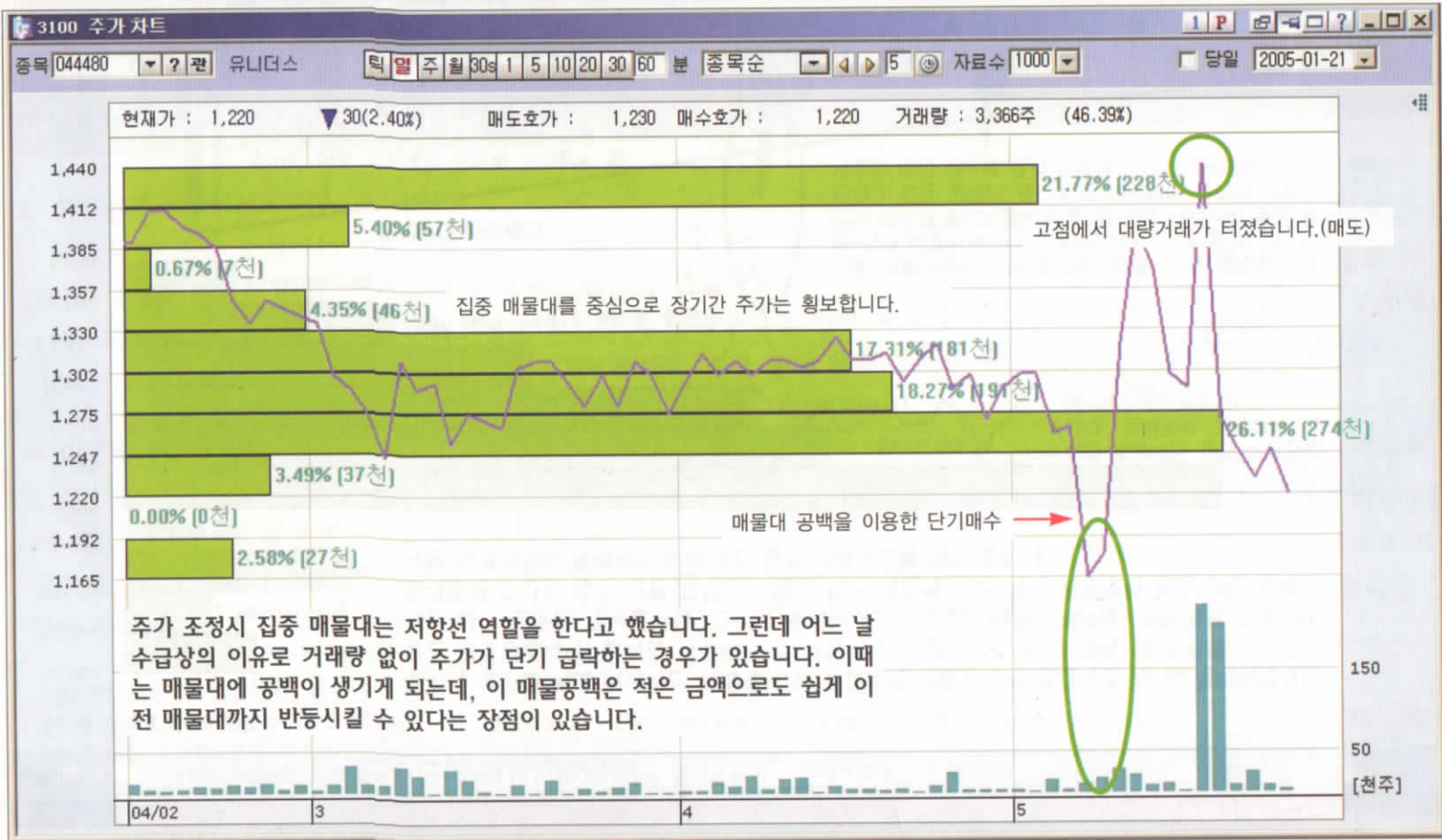


▶ 매물벽이 두텁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래가 많다는 것을 말하며, 바로 매수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매도한 사람이 많다는 것과는 틀립니다. 매수를 해야만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수한 사람이 많은 구간을 상향돌파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동안 매수한 주체가 이제는 주가를 상승시켜 팔아먹겠다는 신호입니다.

거래량이 늘어야 매물대를 뚫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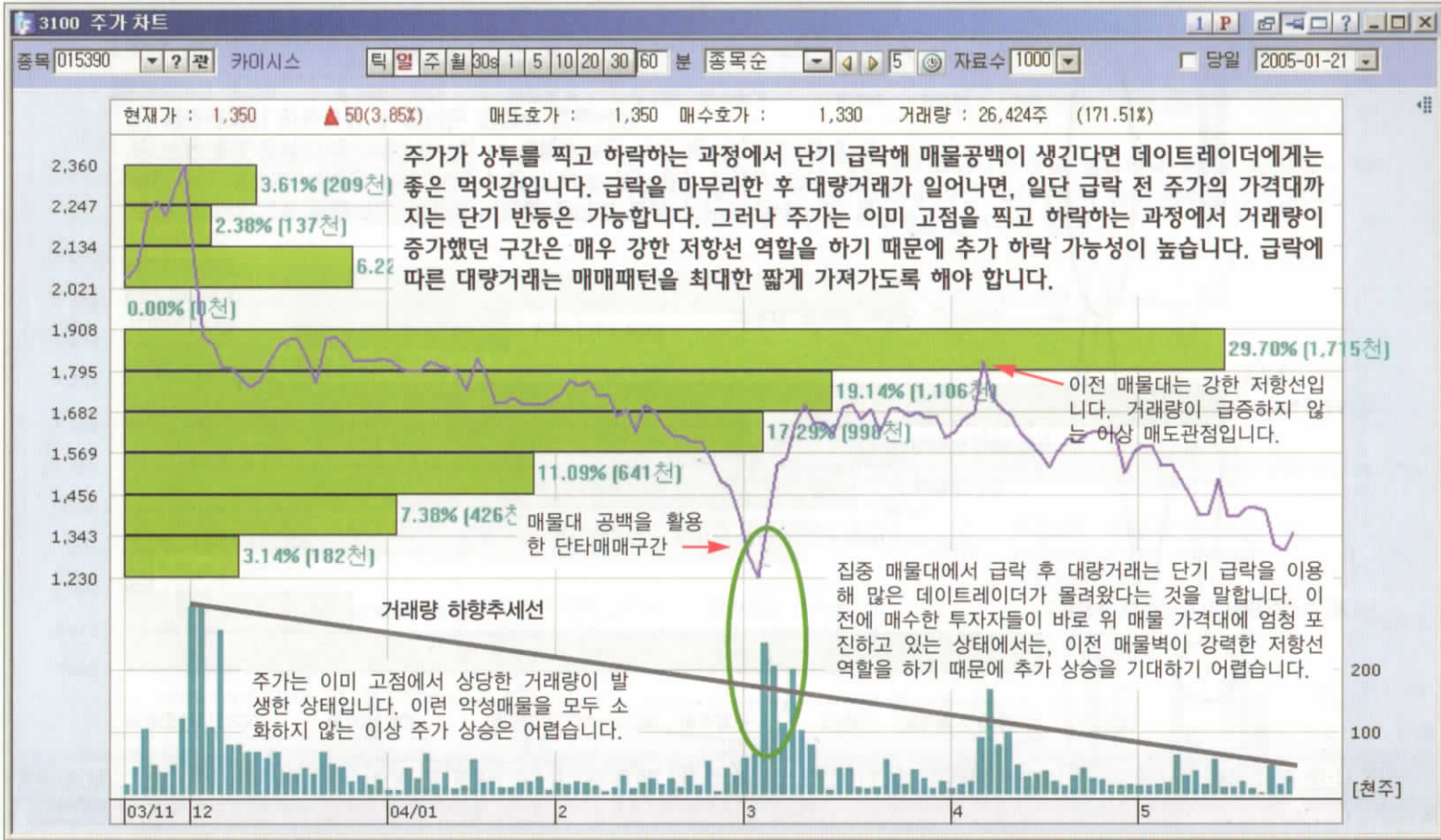
▶ 일반적 거래량 법칙에 따르면 이전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전 고점 거래량보다 많아야(매물소화) 고점을 돌파합니다. 그러나 이전 고점 거래량보다 적은 거래량으로 고점을 돌파할 경우에는 세력이 물량을 꾸준히 매입한 상태에서(팔지 않은 상태) 보다 높은 가격에 팔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예가 바로 '돌파갭'입니다. 갭을 통해 적은 거래량으로 집중 매물대를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 매물대 공백을 활용한 매매기법은 데이트레이더가 즐겨 사용하는 투자기법입니다. 단기적으로 매물대 집중 구간에서 일시적 주가 급락으로 매물공백이 생긴다면, 주가는 회귀본능과 맞물려 이전에 집중된 매물대까지 급반등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거래량 없이 일시적으로 밀렸으니, 이제는 적은 거래량으로도 이전 매물대 주가까지는 쉽게 상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매물공백은 되도록 짧게 끊어라



## 03. 이동평균선의 특급 비밀



### 이동평균선의 기본 개념

#### ▶ 이동평균선(이평선)이란?

주가차트를 구성하는 3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캔들(봉), 둘째는 거래량, 셋째는 이동평균선을 말합니다. 그만큼 이동평균선은 캔들, 거래량과 함께 중요한 차트분석의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평선)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주가의 연속적인 변화과정을 특정한 주가 평균값을 내어 차트에 곡선으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이동평균선은 무엇보다 주가의 연속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주가를 예측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 ▶ 이동평균선의 종류

차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동평균선은 5일, 20일, 60일, 120일이 일반적입니다. 그 외에도 주가 산출 기간에 따라 240일, 300일, 600일 이평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단기적 지표로는 5, 10, 20일 이평선을, 중기적 지표로는 60, 120일 이평선을, 그리고 장기적 지표로는 240, 300일 이평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평선으로는 5일, 20일, 60일 이평선이 있으며, 특히 5일, 20일선 이평선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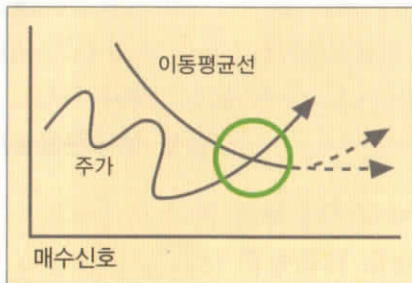
이동평균선은 차트상에서 일정한 기간 주가변화의 평균값을 알기 쉽게 선으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가는 이동평균선을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는 5일선을 따라 움직이며, 20일선을 중심으로 상승과 하락추세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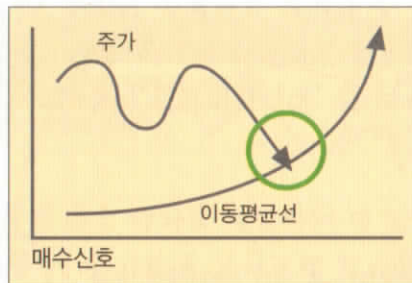
## ▶ 그랜빌의 법칙

‘그랜빌의 법칙’이란 미국의 유명한 주가분석가인 죠셉 그랜빌(J.E.Granville)이 제시한 투자법칙으로, 주가는 이 동평균선에서 멀어지면 다시 가까워지려는 성질을 이용해 만든 주식매매의 8가지 투자전략을 말합니다. 그랜빌의 법칙은 주로 단기추세인 20일선 이평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보다는 단기투자에 유용한 방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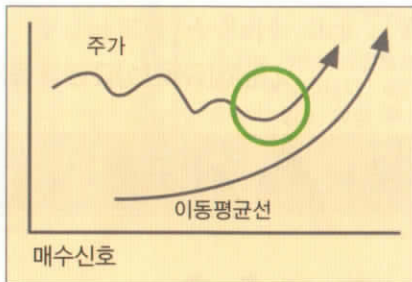
### 그랜빌의 매수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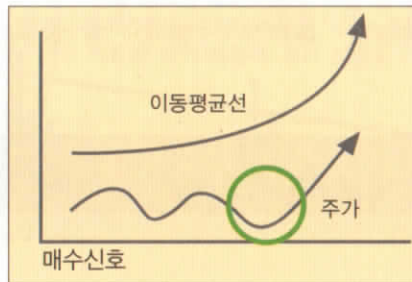
❶ 이동평균선이 하락세에서 벗어나 횡보나 상승하는 상황에서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상향돌파할 때에는 매수신호입니다.



❷ 주가는 큰 폭의 상승이 없는 상태에서 상승 중인 이동평균선에 접근해 하향이탈할 때는 일단 매수신호로 봅니다. 이동평균선이 상승추세이기 때문에 주가하락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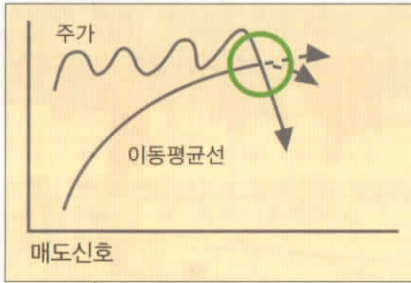
❸ 상승세인 이동평균선을 향해 하락하던 주가가 하향이탈하지 않고 다시 오르는 때에는 매수신호입니다. 주가는 하락하고 있으나 이동평균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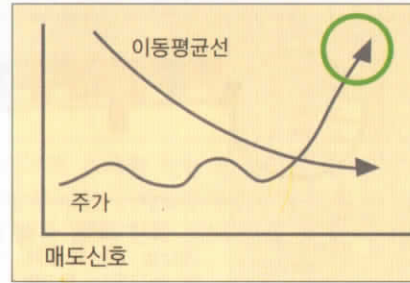
❹ 상승세인 이동평균선보다 주가가 너무 낮은 상태에서 이동평균선 쪽으로 주가가 근접할 때에는 매수신호입니다. 이것은 이평선에서 멀어진 주가는 다시 이평선 근처로 다가간다는 성향을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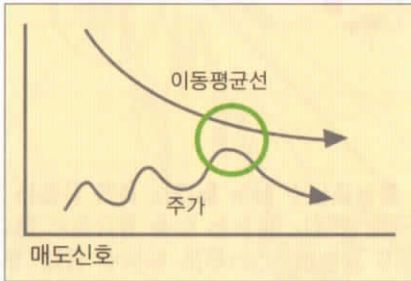
## 그랜빌의 매도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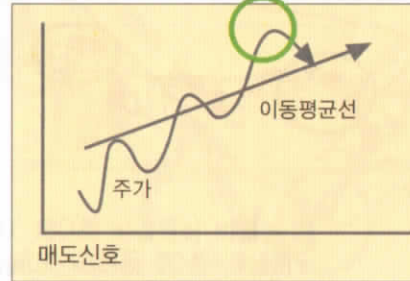
① 이동평균선이 상승한 상태에서 주가가 한때 출렁인 다음 이동평균선 아래로 뚫고 내려가면 강력한 매도신호입니다.



② 하락추세인 이동평균선에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이동평균선 위로 돌파할 경우에는 매도신호입니다. 이동평균선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기에 여전히 추세는 하락세이기 때문입니다.



③ 주가가 하락추세인 이동평균선보다 크게 동떨어진 상태에서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상승했으나, 이동평균선을 미치지 못하면서 다시 하락할 경우에는 매도신호입니다.



④ 이동평균선이 상승하고 있는 경우라도 주가가 이동평균선으로부터 크게 동떨어진 경우에는,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향하여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도신호입니다.

## 이동평균선 설정에 대한 기초



▶ 빠른 매매패턴으로 가져 간다면 3, 5, 10, 20, 40일 이평선으로 설정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평선으로 살펴보는 대세상승과 대세하락



▶ 지수차트는 일봉이 아닌 주봉으로 추세를 판단해야 합니다. 지수차트에서 생명선은 20주선이며, 장기적 이평선(60주선)이 상승추세 속에서 20주선이 상향돌파할 경우에는 대세상승세가 연출됩니다. 반대일 경우에는 대세하락이겠죠.



## 골든크로스는 정배열



▶ 정배열은 위로부터 5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이 차례로 버티고 있는 형상을 말합니다. 이평선은 지지선과 저항선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주가가 이평선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이런 강한 지지선이 연달아 밑에서 바치고 있으니 초보 개인투자자에게는 이런 정배열 종목이 비교적 안전한 매수종목입니다.



▶ 역배열 종목은 짧은 주식 경력과 어설픈 투자기법만 배운 개인들이 매매하는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역배열 구간은 웬만해서는 수익을 내기 무척 어려운 구간입니다. 매매는 되도록 짧게, 그리고 매수시점은 단기 반등 타이밍을 노린 시점에서나 가능합니다. 따라서 역배열 종목은 고수들의 영역이지 초보들의 영역은 아닙니다.

중기이평선 하락추세에는 단기이평선 추세반등이 짧다



▶ 이동평균선은 다르게 해석하면 매물대와 같습니다. 특정 기간 동안 거래된 주가의 평균값을 산출한 곡선이기에, 거래된 주가의 평균값이 곧 평균 매물대로 해석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매물대를 상향돌파하려면 일단 거래량이 증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우선적으로 지지선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지지선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량만 증가한다면 당연히 후유증이 커집니다.



# 중기이평선 상승추세에는 단기이평선 급락은 조정 가능성



## 이평선 추월의 일반적 법칙



01

20, 60, 120일선이 상승세인 상태에서 5일선이 하락하면,  
다시 상승추세로 전환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

02

120, 60, 20일선이 하락세인 상태에서 5일선이 상승하면,  
다시 하락추세로 전환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

03

60일, 120일선이 완만한 상승세인 상태에서 5일, 20일선이 하락하면,  
상승추세는 꺾일 확률이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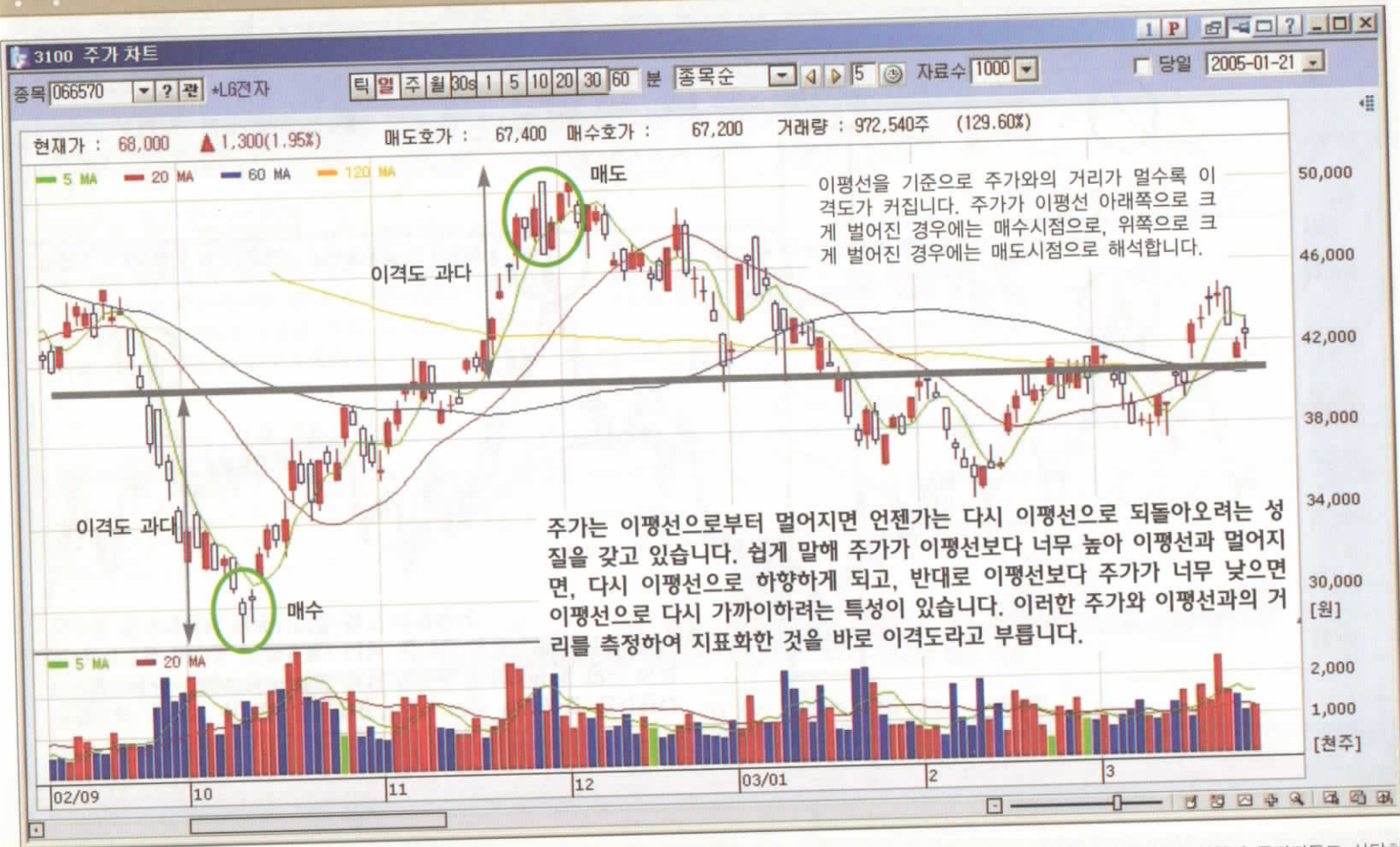
---

04

60일, 120일선이 완만한 하락세인 상태에서 5일, 20일선이 상승하면,  
하락추세를 마무리하고 추세전환을 예고합니다.



# 이격도란 무엇인가?



▶ 이격도를 활용한 매매에 있어 기준은 보통 60일선으로 잡습니다. 그러나 20일선을 기점으로 이격도가 과다하게 벌어진 종목만 노리는 단기 성향의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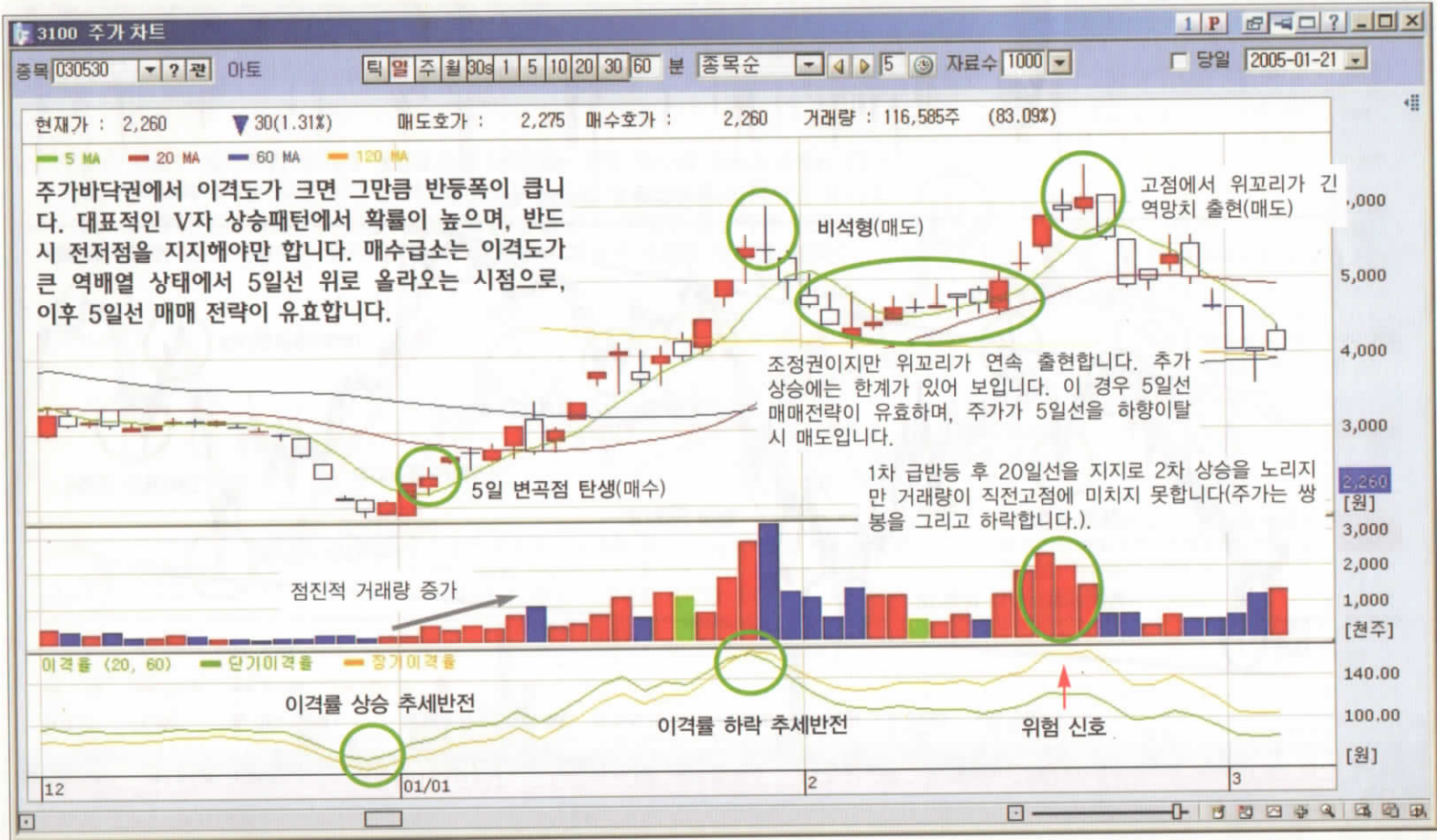


이격도 매매의 맥을 짚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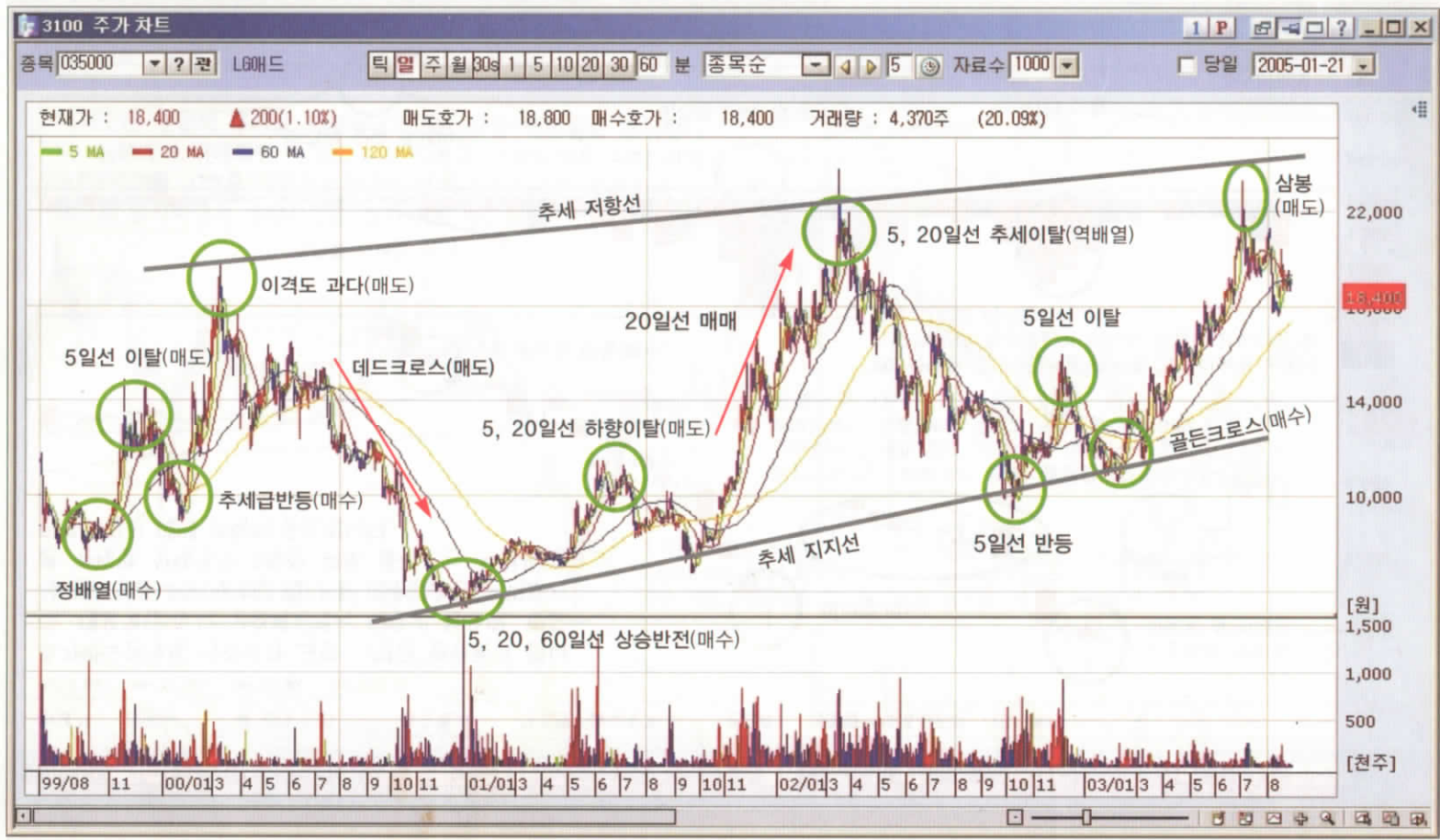
▶ 이격률을 차트에 표시하려면, 차트 환경설정 중 보조지표 항목에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 주가바닥에서 이격도가 크면 반등폭도 크다



▶ 이격률 보조지표에서 단기이격률과 장기이격률의 간격이 크게 벌어지면 일단 위험 신호로 해석하기 바랍니다. 두 이격률 간격이 크게 벌어진다는 것은 고점에서 주가 변동폭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급락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매매는 이평선 교차시점에서



▶ 이동평균선이 서로 교차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추세반전을 뜻합니다. 주식매매는 바로 추세반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매수 혹은 매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매매원칙입니다.(이평선 크로스 매매기법)





##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



▶ 이동평균선은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상승추세보다 고점을 찍고 하락추세인 경우에 이평선 지지선이 쉽게 붕괴되는 성향이 짙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유통물량이 적은 중소형주나 단기 100% 이상 급등한 주식에서는 이평선 지지선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말기 바랍니다.

정배열에서 이평선은 강력한 지지선이다



▶ 상승각도가 45도 이상 가파른 종목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정배열 종목에서는 각 이평선이 모두 저마다 강한 지지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승이 완만한 종목에서는 5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늘림목 매매도 비교적 안전한 투자방법에 속합니다.



# 역배열에서 이평선은 강력한 저항선이다



▶ 역배열 종목에서는 모든 이평선이 강한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이런 강한 저항선을 상향돌파하기 위해서는 첫째 거래량이 증가해야 하고, 둘째 지지선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중장기 이평선(60, 120일선)이 완만한 상태로 하락추세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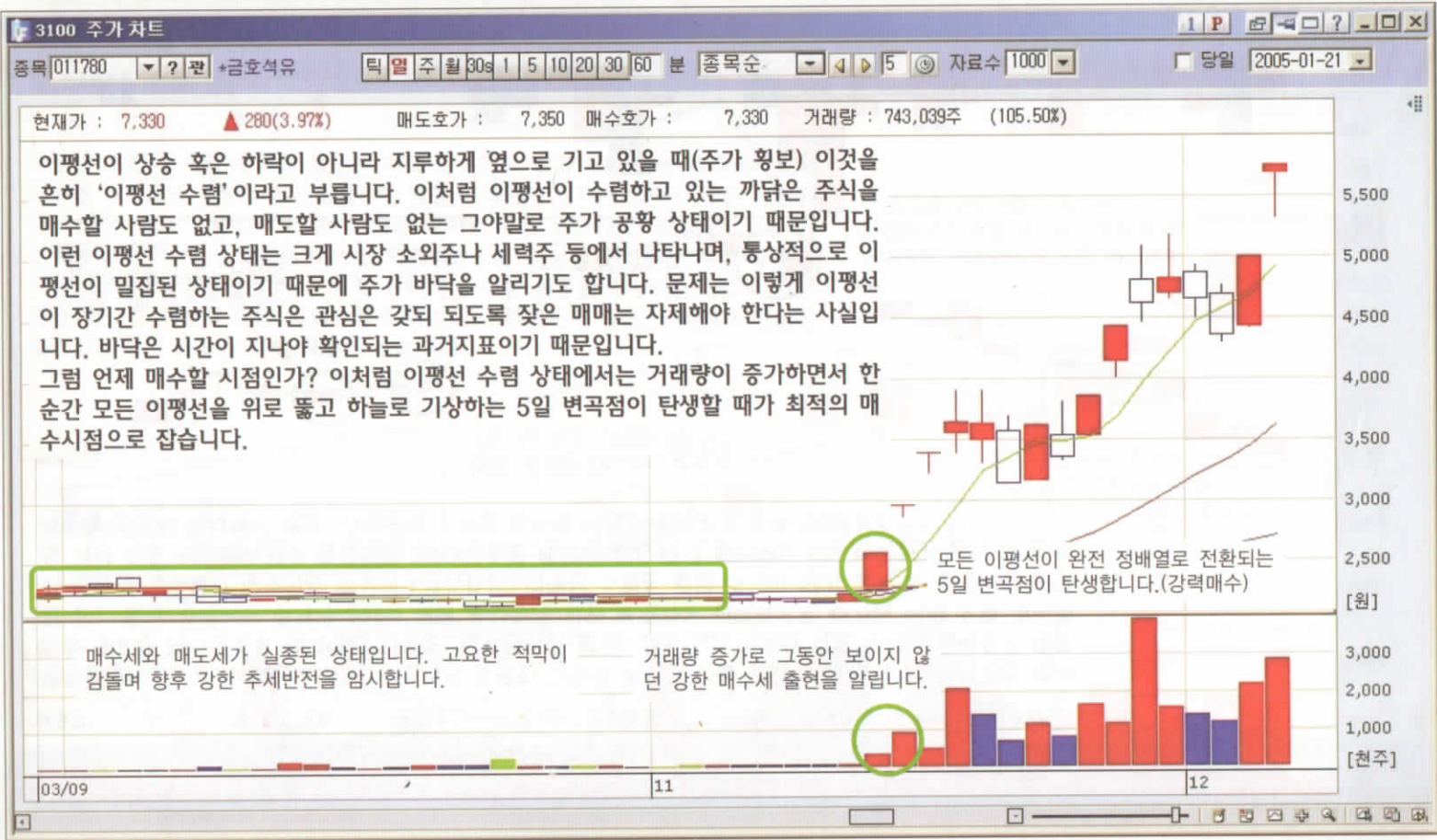


정배열에서는 5일선을 따라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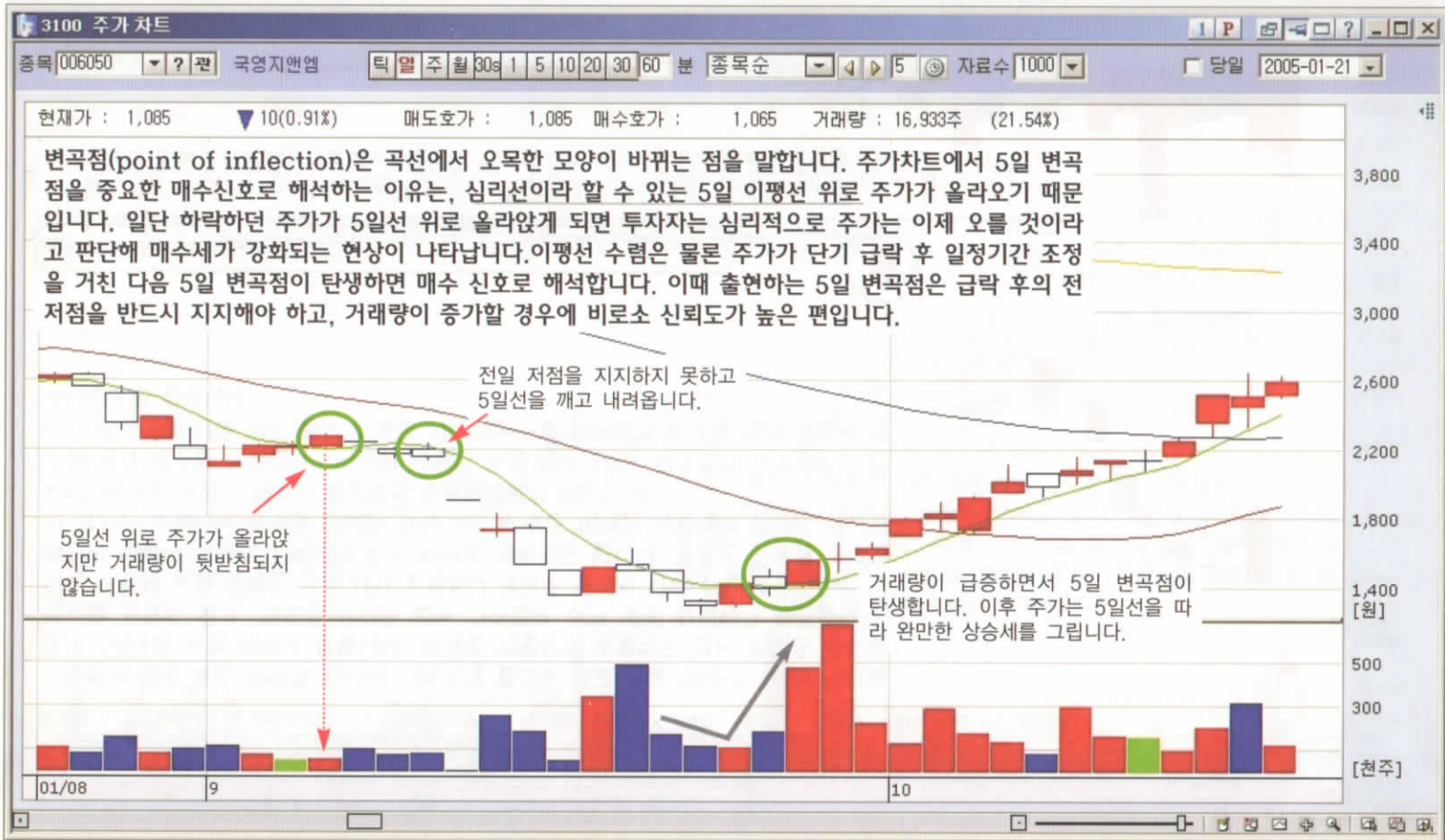
▶ 주식 초보자들에게는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는 정배열 종목에서(소형주, 유동물량이 적은 종목, 관리주, 초저가주는 제외) 20일을 따라가는 5일선 매매가 가장 안전한 매매기법입니다. 며칠째 상한가를 그리는 종목을 바라보노라면 다소 배 아파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매매기법부터 다져놓아야 합니다.

# 이평선 수렴 후 5일 변곡점은 의외로 큰 수익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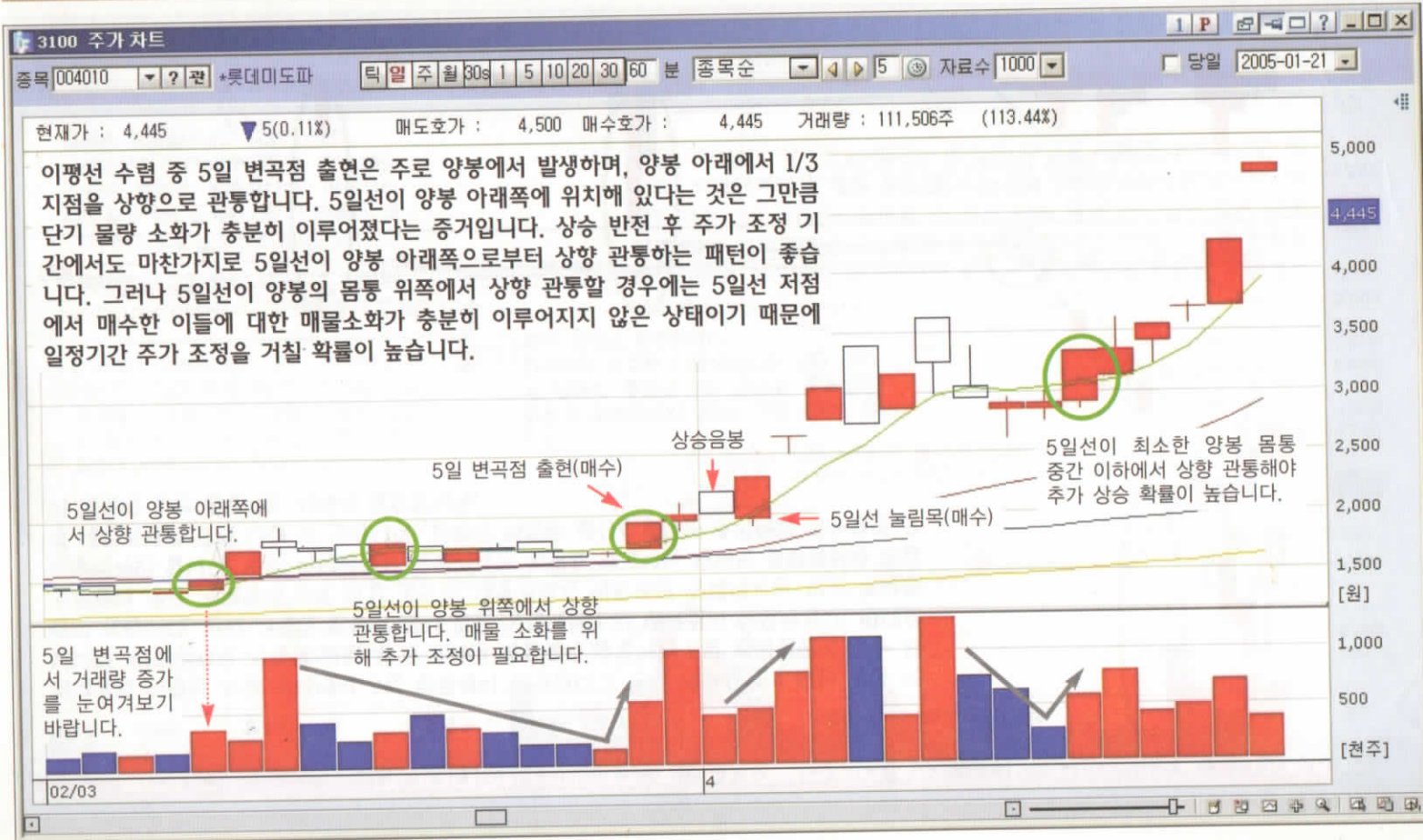
단기급락 후 5일 변곡점을 노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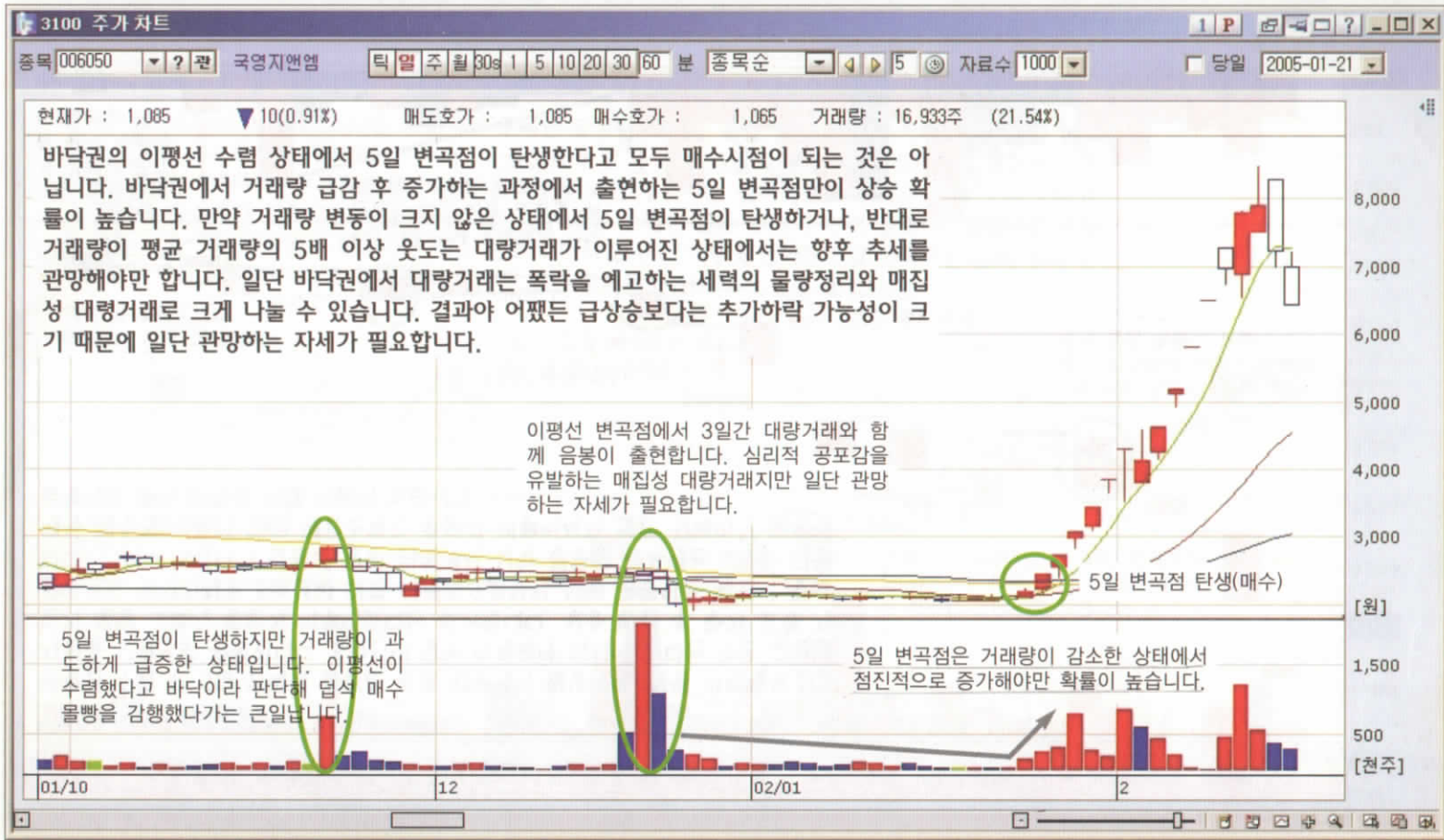


# 5일선이 양봉 아래에서 상향 관통하는 패턴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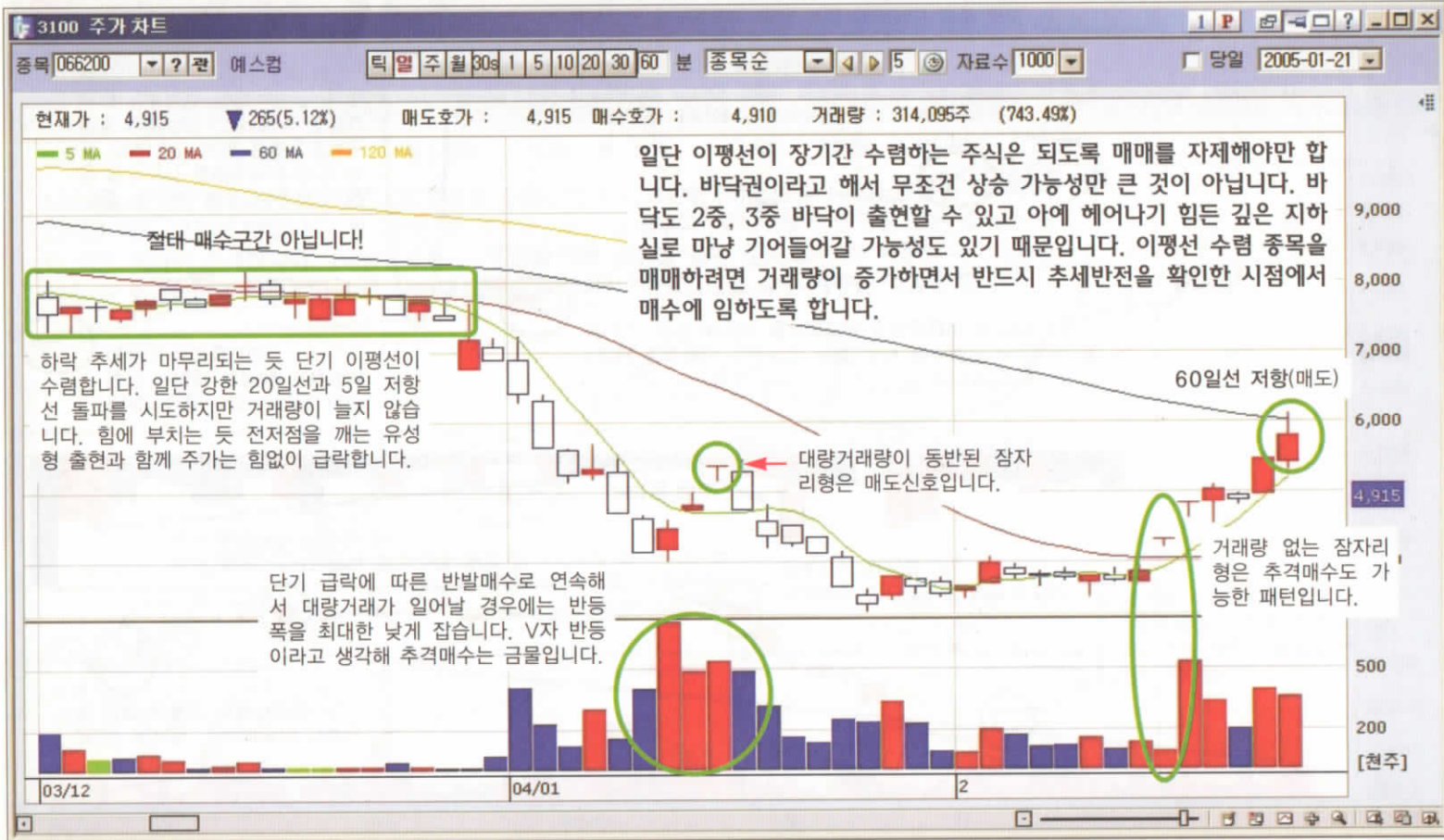




### 속임수 5일 변곡점 판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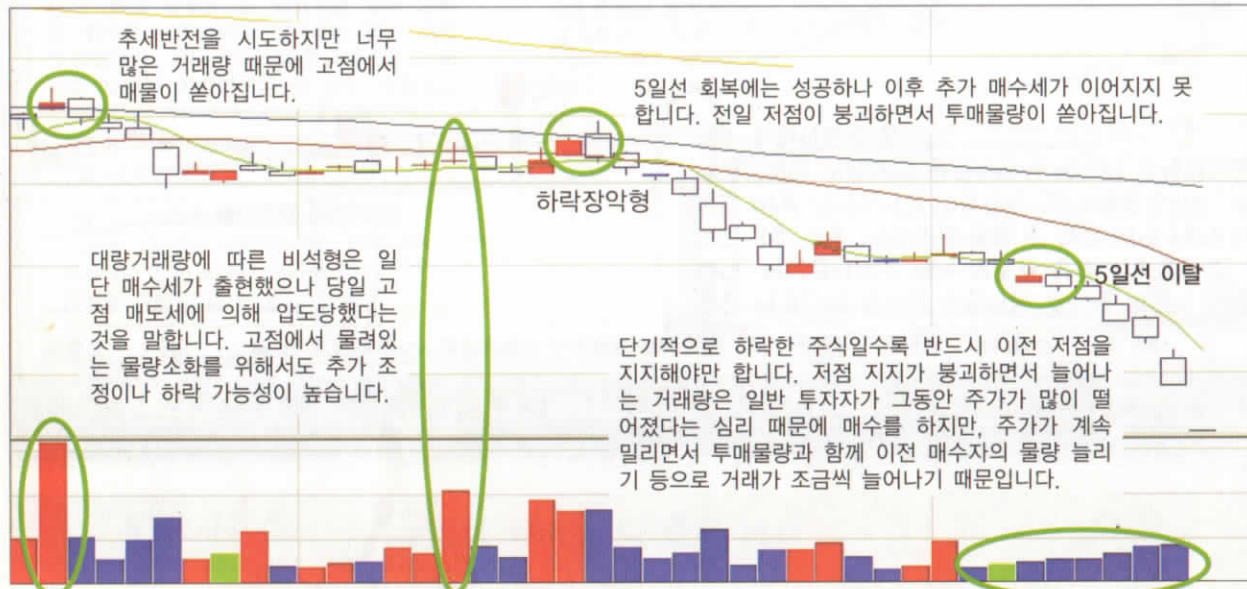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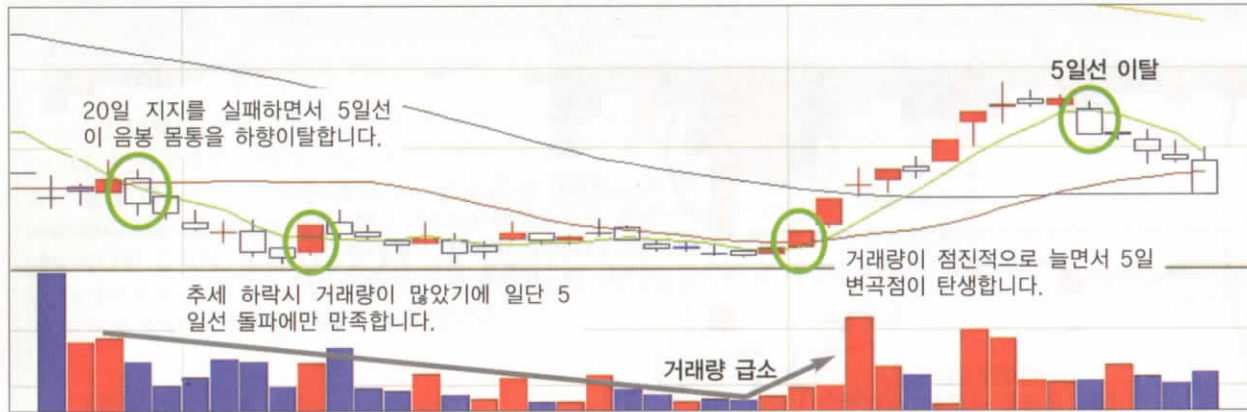
# 단기 이평선이 수렴중이라 해서 덩석 물지 마라



▶ 주식투자를 오래하신 분들은 운이 좋게도 이평선 수렴하는 종목을 매수해 며칠 만에 급등하는 경험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이 한두 번 있었다고 해서 모든 이평선 수렴 종목만 골라 분할 매수해서 일단 기다리고 보자는 식의 투자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밝은 빛만 생각하십니까? 고개를 살짝 뒤로 돌려보면 여러분들 뒤에는 항상 어둠의 그림자가 뒤따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 이평선 수렴을 탈피하려면 힘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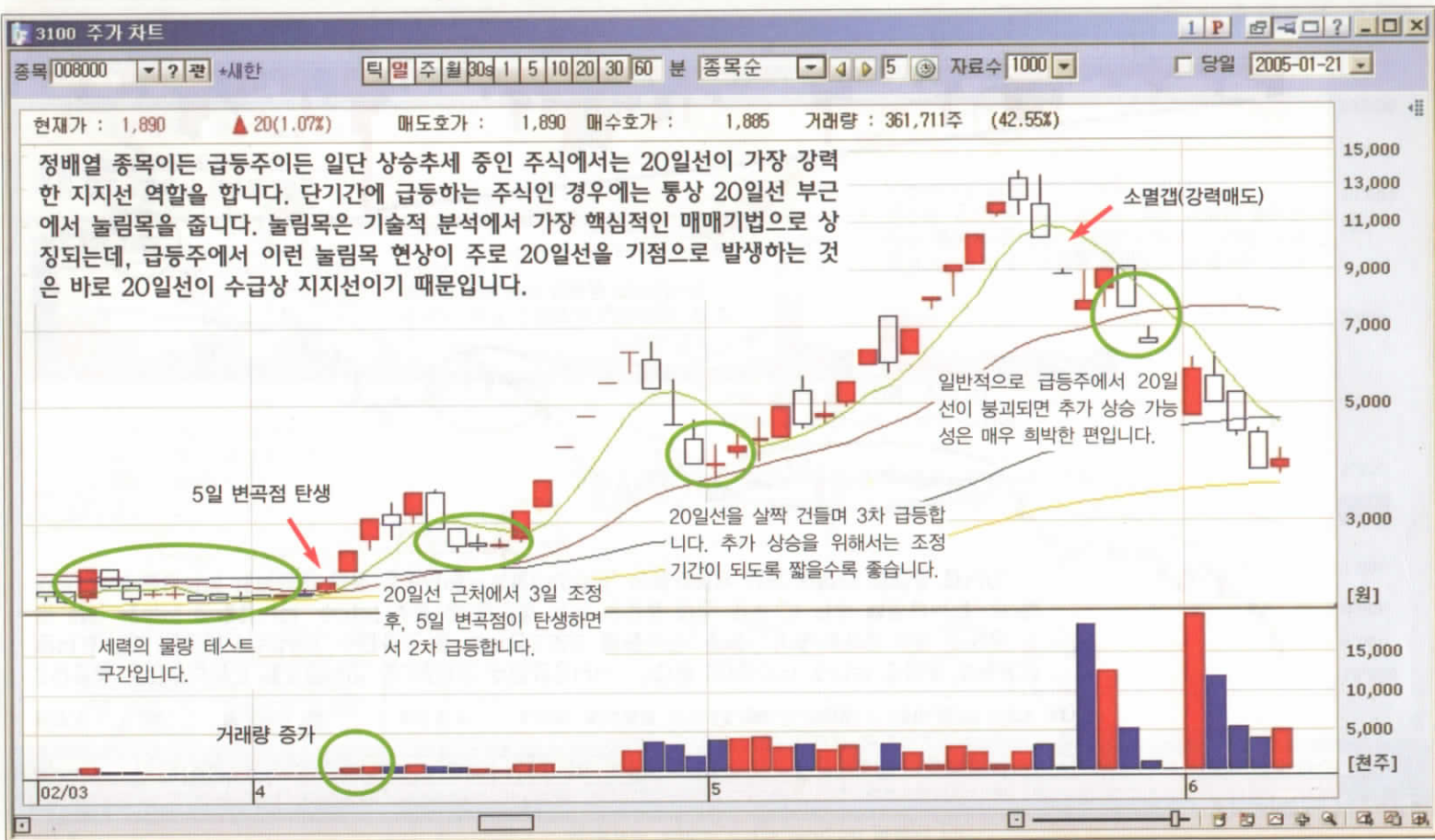


## 20일선은 세력선이다



▶ 주식시장에서 세력은 투기성 세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나 일반 큰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세력이 물량을 꾸준히 보유하느냐 혹은 보유하지 않고 작은 이익이라도 매도하느냐에 따라 주가 상승폭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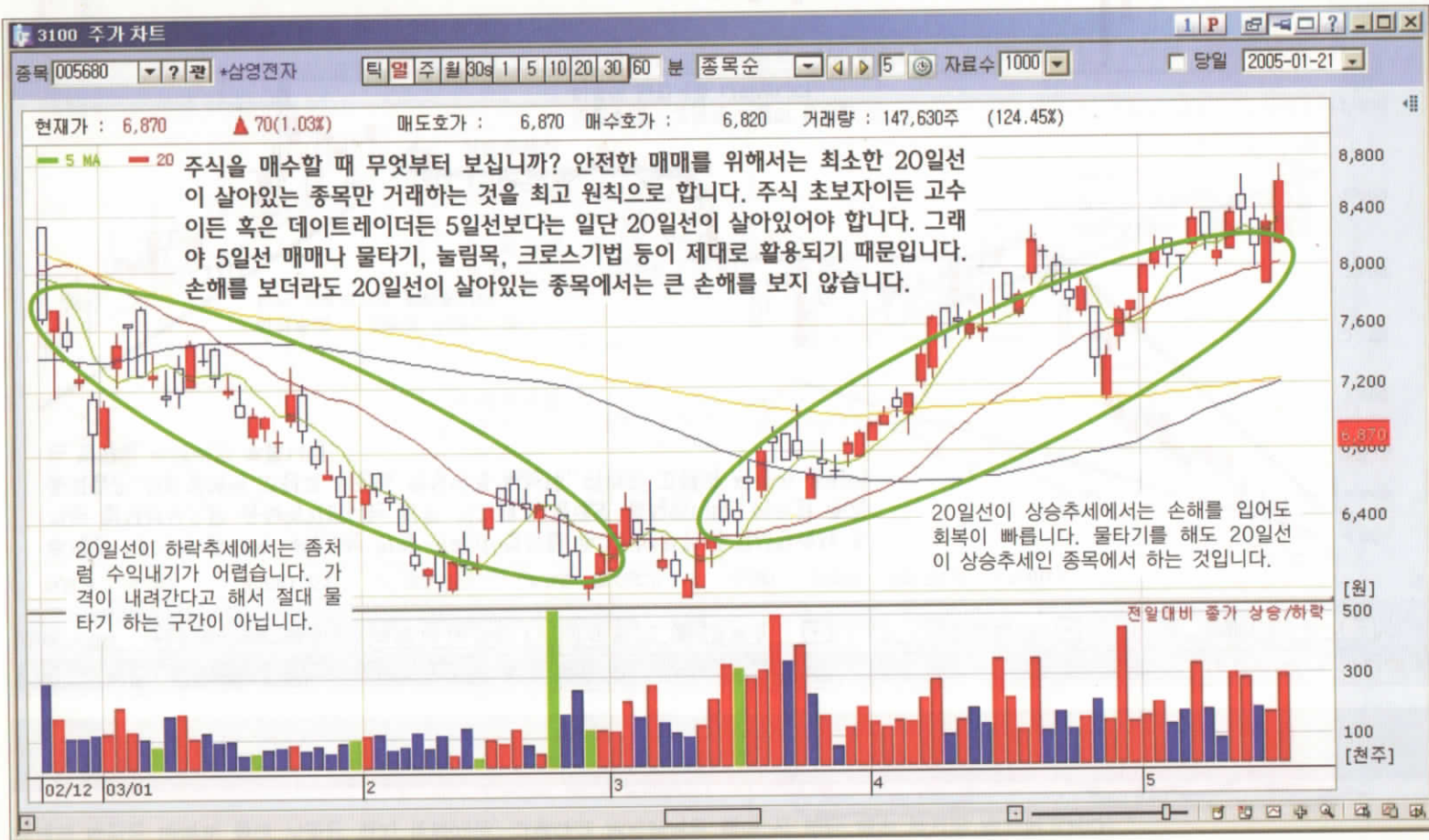
## 급등주에서 20일선은 쉬어가는 구간이다



▶ 눌림목 매매는 일반적으로 20일선을 생명선으로 잡습니다.



# 20일선이 살아있는 종목만 거래하라



▶ 주식투자는 무엇보다 위험성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차트분석이 완벽하지 못하고 주변 상황에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일반 투자자들은 최소한 20일선이 상승 중인 종목만 거래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한 매매방법입니다.

# 04. 세력이 만드는 추세와 패턴의 비밀

추세와 패턴은 매매의 절대 기준은 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는 매우 중요한 투자참고서다!

## 추세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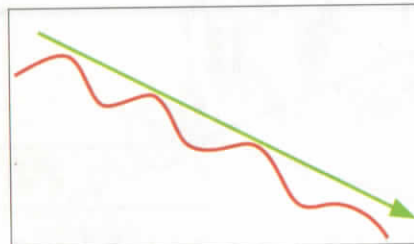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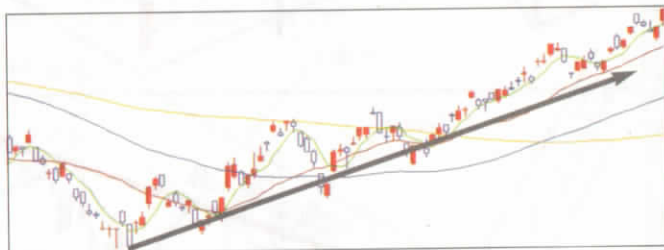


추세선은 차트상에서 추세의 방향을 알기 쉽게 표시하기 위해 선을 그어놓은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승추세선, 하락추세선, 보합추세선으로 나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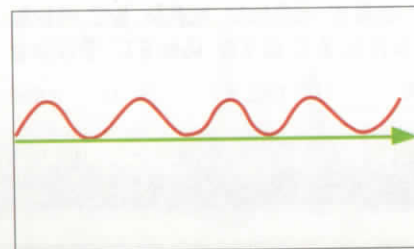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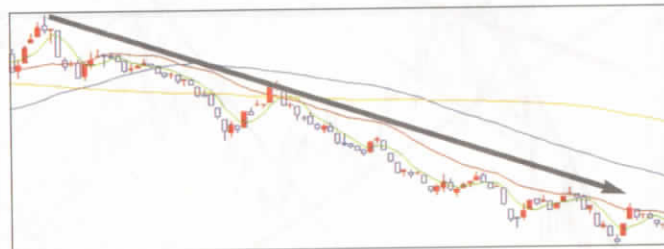
### 상승추세선

상승추세는 매수세력이 매도세력보다 강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따라서 매수세력의 힘은 저점을 통해 나타나며, 상승추세 중 의미있는 저점들을 서로 연결하면 상승추세선이 완성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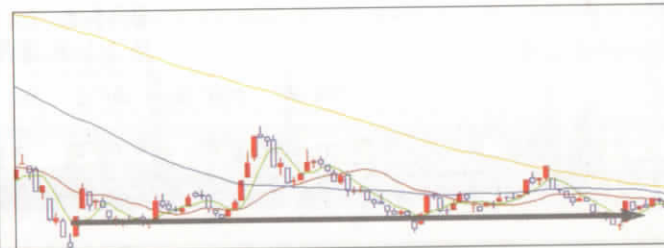
### 하락추세선

하락추세는 매도세력이 강할 때 일어납니다. 주가하락 중에서도 매수세력이 유입되지만 고점에서 매도세의 힘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락추세 중 의미있는 고점 연결을 통해 하락추세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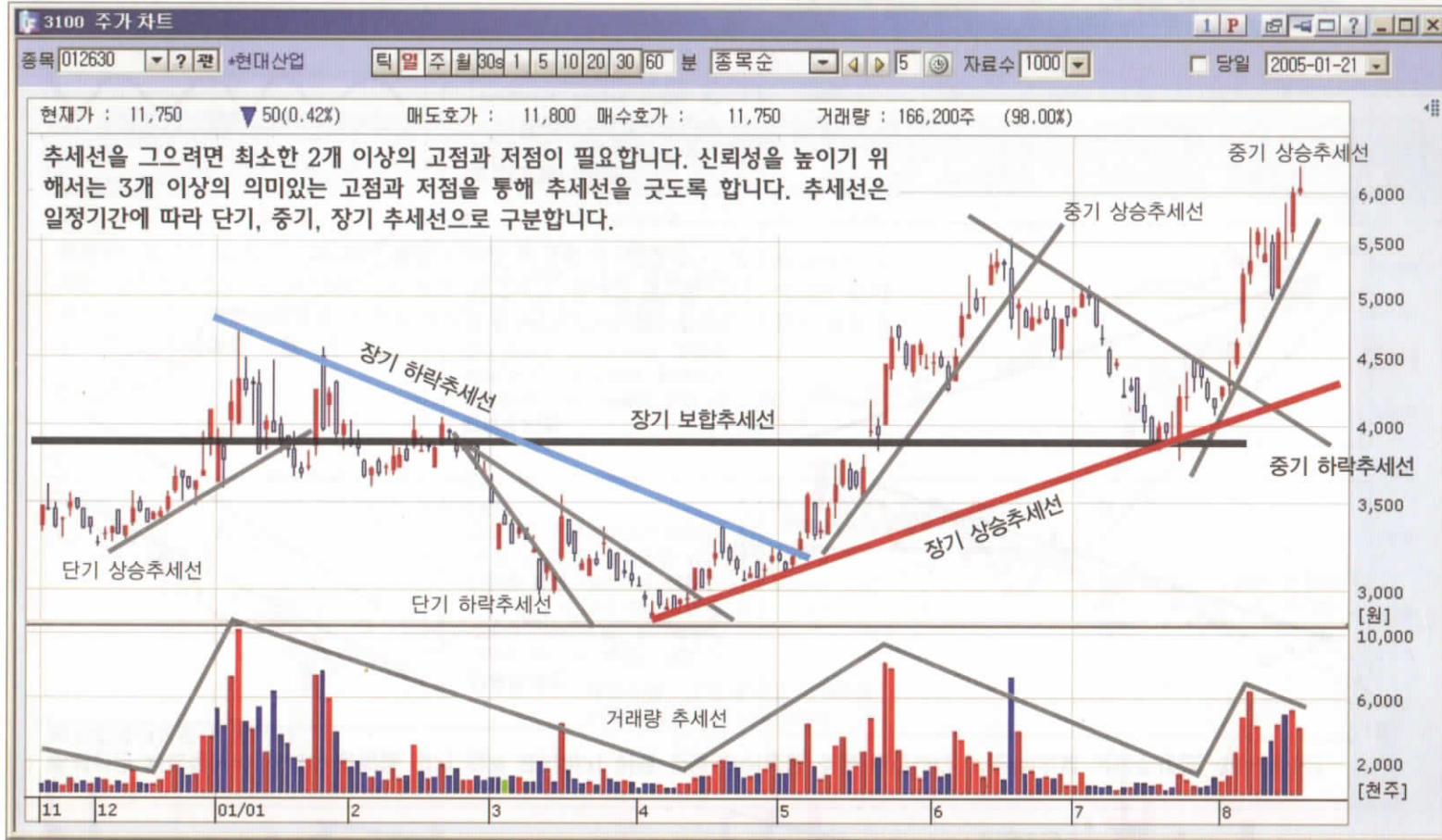
### 보합(평행)추세선

보합추세는 매수세력과 매도세력의 팽팽한 힘겨루기 구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주가는 큰 변동 없이 횡보하게 됩니다. 보합추세 중 의미있는 저점을 서로 연결해 선으로 표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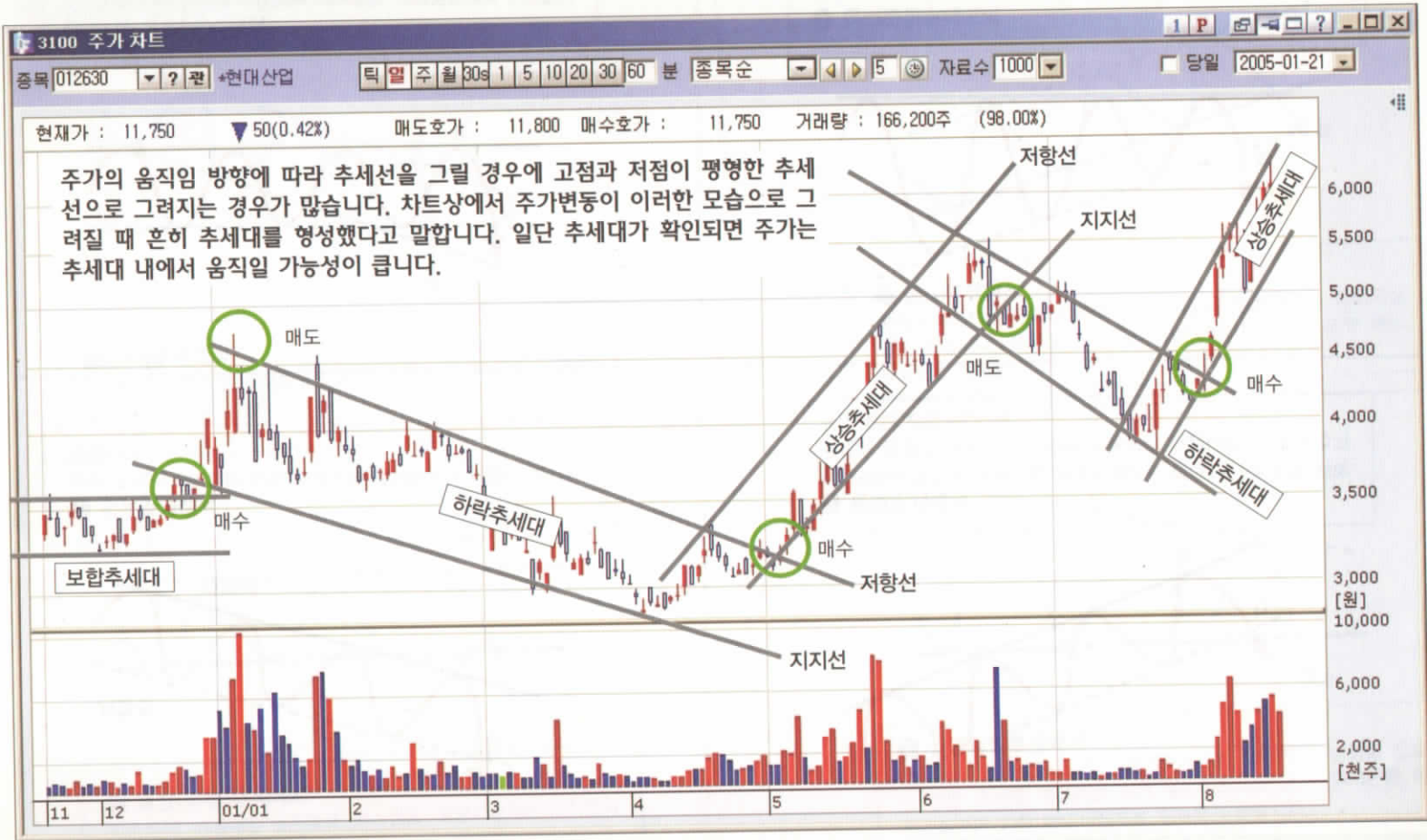
## 추세선 긋기



▶ 추세선은 봉 차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량 차트에서도 의미있는 2개의 거래량 고점과 저점을 서로 직선으로 연결해 거래량 추세를 가능해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 바닥 시점과 거래량 증가 시점을 추세선으로 그리다 보면 거래량 매수급소가 탄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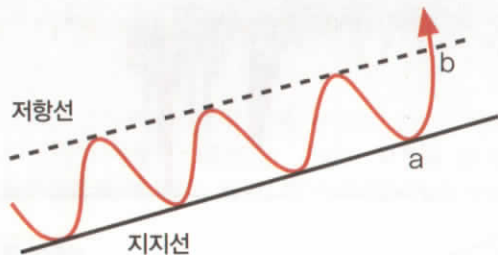


# 추세대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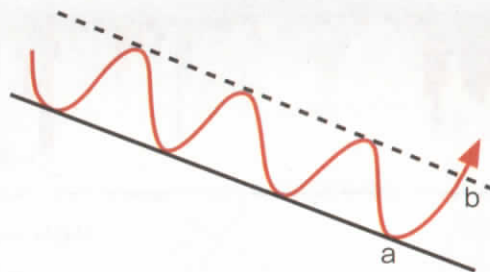


▶ 주가가 추세대를 돌파할 경우에는 추세반전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상승추세대를 하향이탈하면 하락추세로, 하락추세대를 상향돌파하면 상승추세로 전환됩니다. 만약 큰 가격 변동없이 횡보를 한다면 보합추세대 내에서 주가는 횡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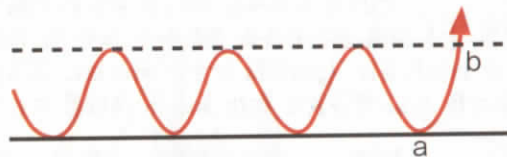
추세선을 이용한 기본 매수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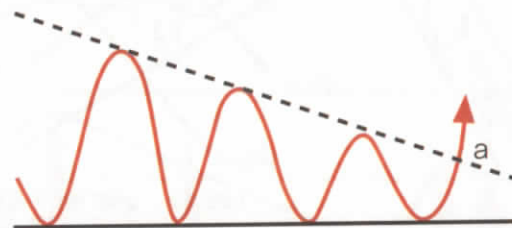
**1 상승추세에서**  
 상승 지지선 a지점과 상승 저항선을 돌파하는 b지점이 매수시점입니다.



**2 하락추세에서**  
 일차적으로 지지선 a지점을 매수시점으로 합니다. b지점은 하락 추세가 강한 경우에는 추가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b지점은 일단 관망세입니다.



**3 보합(평행)추세에서**  
 박스권에서는 전저점 a지점과 박스권을 상향돌파하는 b지점이 매수시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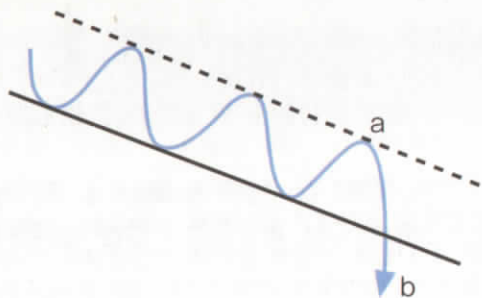


**4 삼각밀집추세에서**  
 전고점과 전저점이 한 곳으로 모이는 뺨기형 패턴에서는 고점 추세선을 돌파하는 a지점을 최고의 매수시점으로 잡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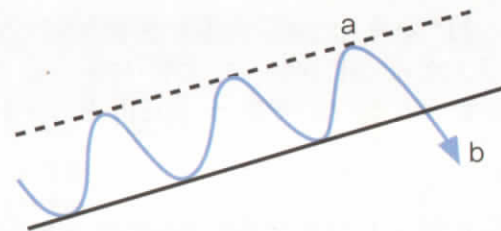


## 추세선을 이용한 기본 매도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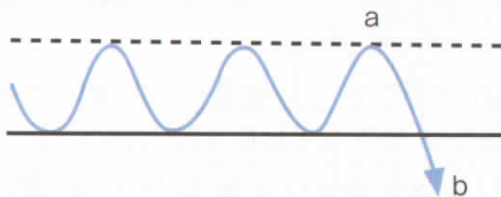
### 1 하락추세에서

전고점대 저항선인 a지점과 전저점 지지선이 무너지는 b지점을 매도시점으로 잡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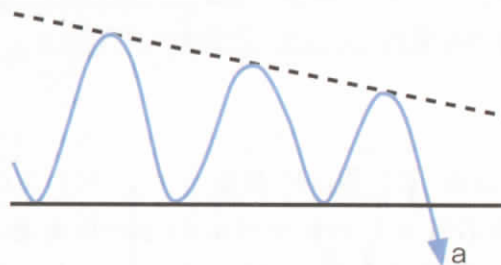
### 2 상승추세에서

상승추세에서는 전고점 추세대인 a지점을 일차적으로 매도시점으로 잡습니다. 전저점 추세대를 하향이탈하는 b지점 또한 매도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 3 보합(평행)추세에서

박스권의 고점대인 a지점과 박스권을 하향이탈하는 b지점이 매도시점입니다.



### 4 삼각밀집추세에서

삼각형 패턴으로도 불리는 썬기형에서는 일단 한쪽 방향을 잡으면 강한 추세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지 추세선을 하향이탈하면 강한 매도시점으로 인식하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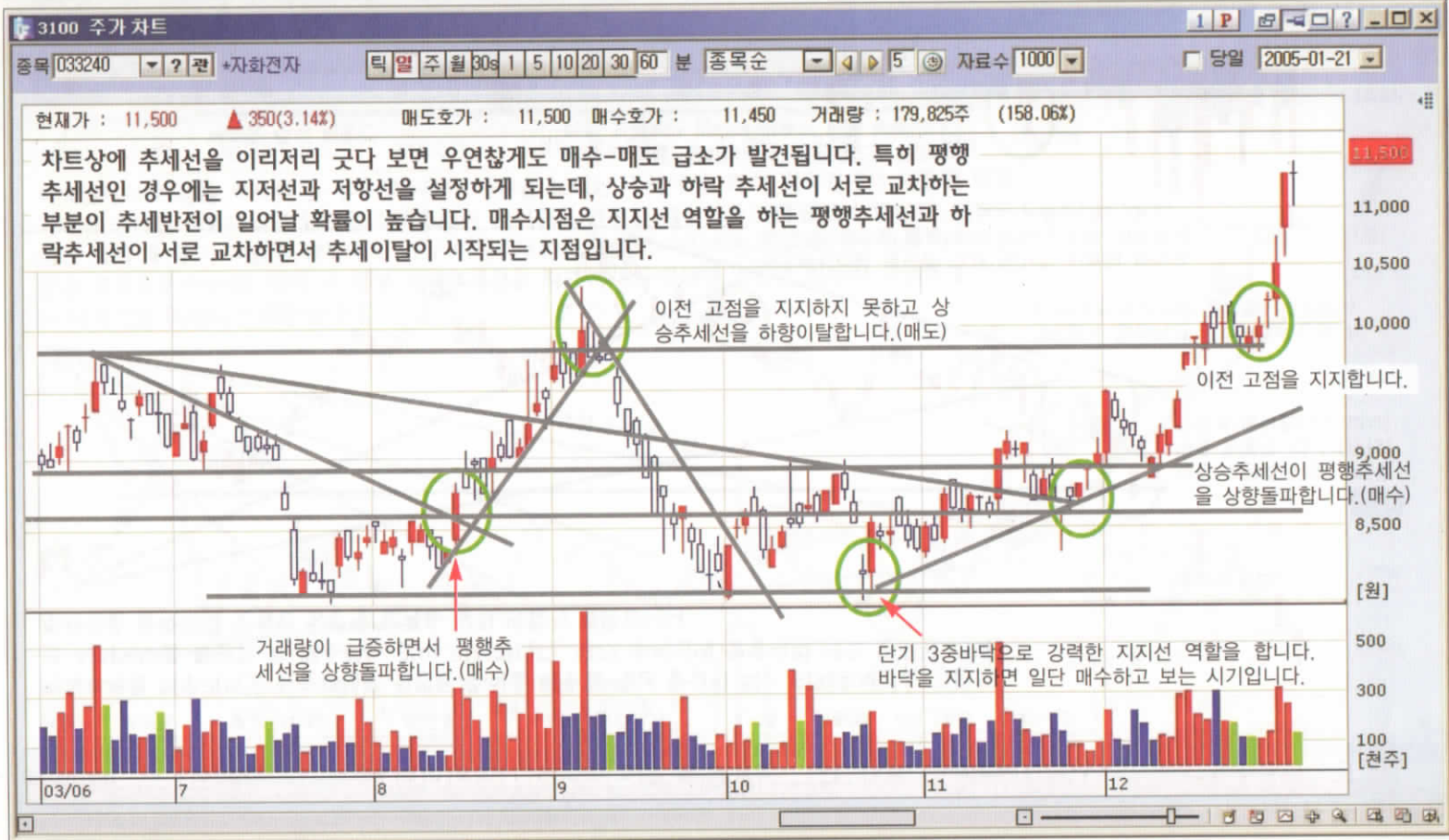
## 추세선의 신뢰도 분석

**추**세는 한번 진행되면 추세가 깨질 때까지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승추세에서는 추세선이 깨질 때까지 추세흐름을 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추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고 추세 반전은 급격히 일어날 수 있으며, 이에 발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추세 분석의 의미는 희석될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나 차트상에 추세선을 그을 수 있지만 보다 신뢰도가 높은 추세를 쫓아 매매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식은 확률 게임입니다. 보다 높은 추세 확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추세선의 길이** : 추세선은 길이가 길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추세선의 길이가 짧다면, 주가변동은 예상외로 급등락을 반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세선이 길어야 그만큼 주가가 진행되는 방향이 강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2. **추세점의 횡수** : 추세선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고점내지는 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말합니다. 최소한 2개의 추세점을 기준으로 추세선을 긋지만, 간혹 의미있는 고점이나 저점이 세 번째 형성될 때는 기존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상승추세에서는 추세점이 3개 형성될 때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추세반전 없이 4개 이상 추세점이 형성된다면 그만큼 추세선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신뢰도는 커집니다.
3. **추세선의 각도** : 급등주와 마찬가지로 추세선의 각도가 45도 이상 가파른 경우에는 추세전환 확률이 높습니다. 추세선이 완만한 상승 주식일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추세대의 간격** : 고점 추세선과 저점 추세선을 직선으로 그리다 보면 일정한 추세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추세선을 따라 움직인다고 하기보다는 추세대 내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추세대의 간격이 좁다면 추세 전환시 급등락이 연출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추세대의 간격이 넓을수록 추세선의 신뢰도는 높습니다.
5. **추세선의 기간** : 추세선이 탄생하는 기간은 대략 단기 2~3개월, 중기 6~7개월로 잡습니다. 무엇보다 1개월 이내에 만들어지는 추세선은 그 생성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성이 없습니다. 추세선의 기간은 추세선의 길이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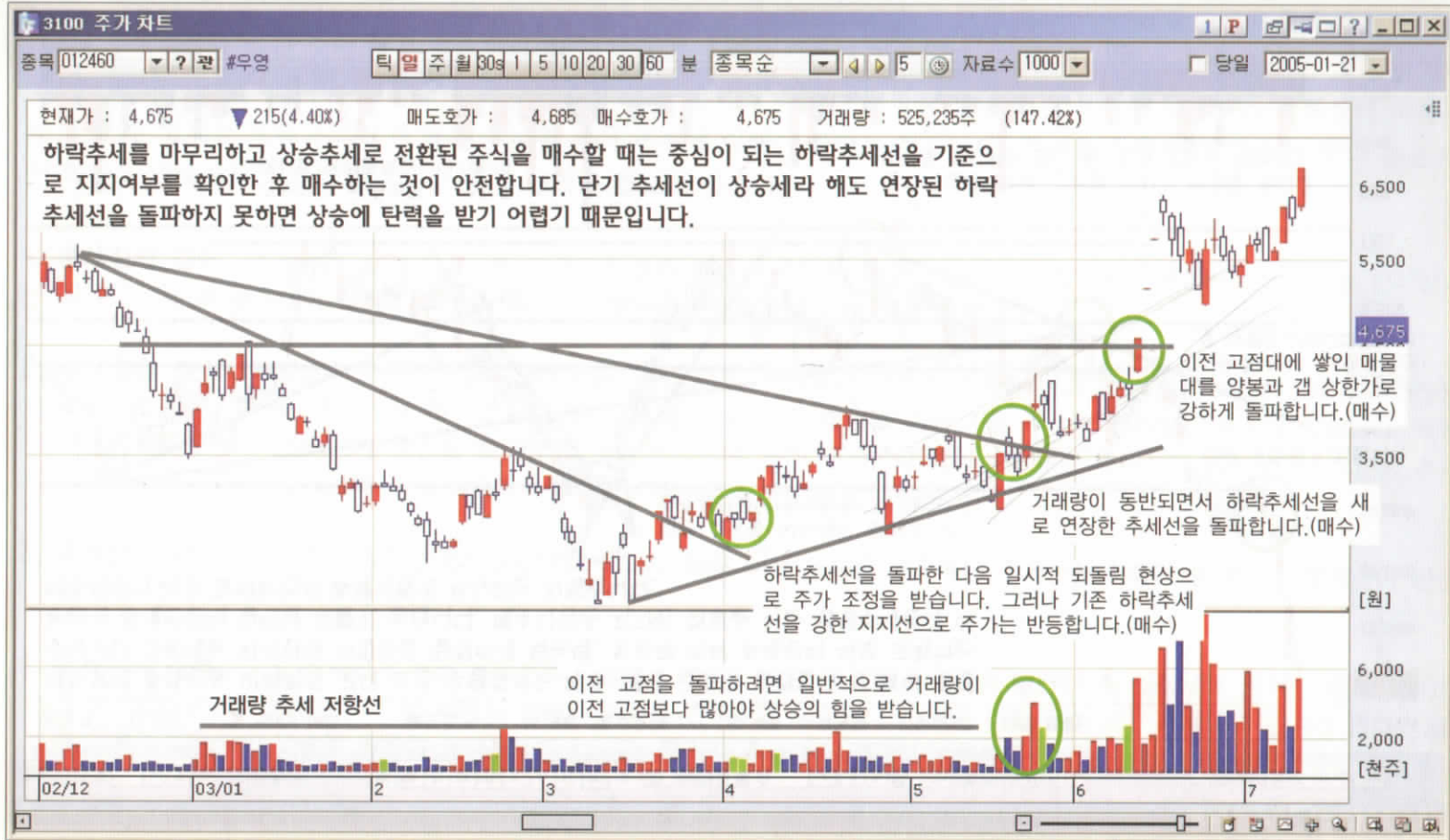
# 추세전환시점이 매매시점이다



▶ 차트분석 능력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추세선 긁기를 많이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차트에서 의미가 있어 보이는 저점과 고점들을 한번 직선으로 이리저리 그어보기 바랍니다. 자신도 모르게 지지선과 저항선을 설정하고, 매수-매도 급소를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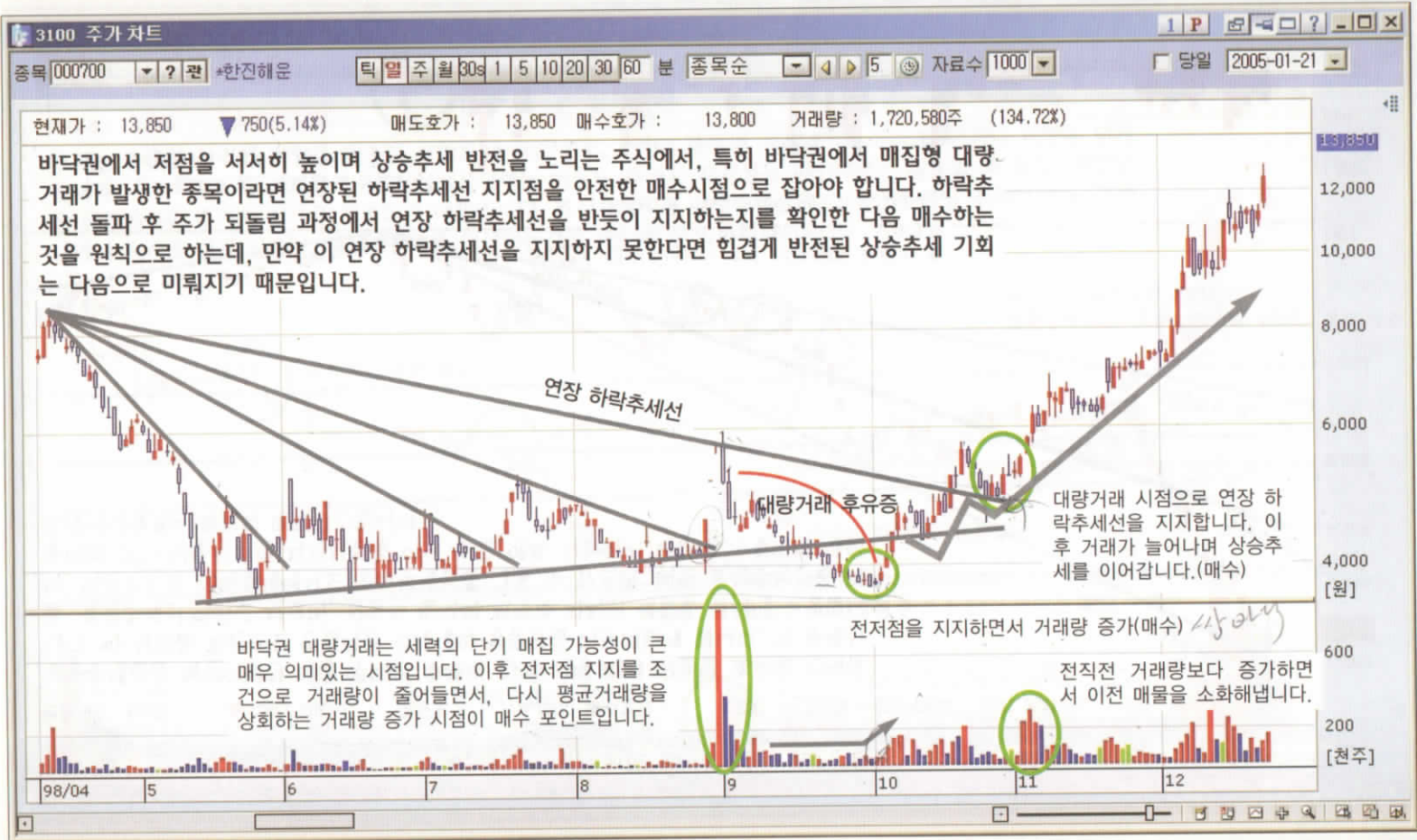


## 추세선의 매수급소



▶ 거래량이 실리면서 평행추세선 상향돌파, 하락추세선 상향돌파,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상승추세선 상향돌파는 모두 매수관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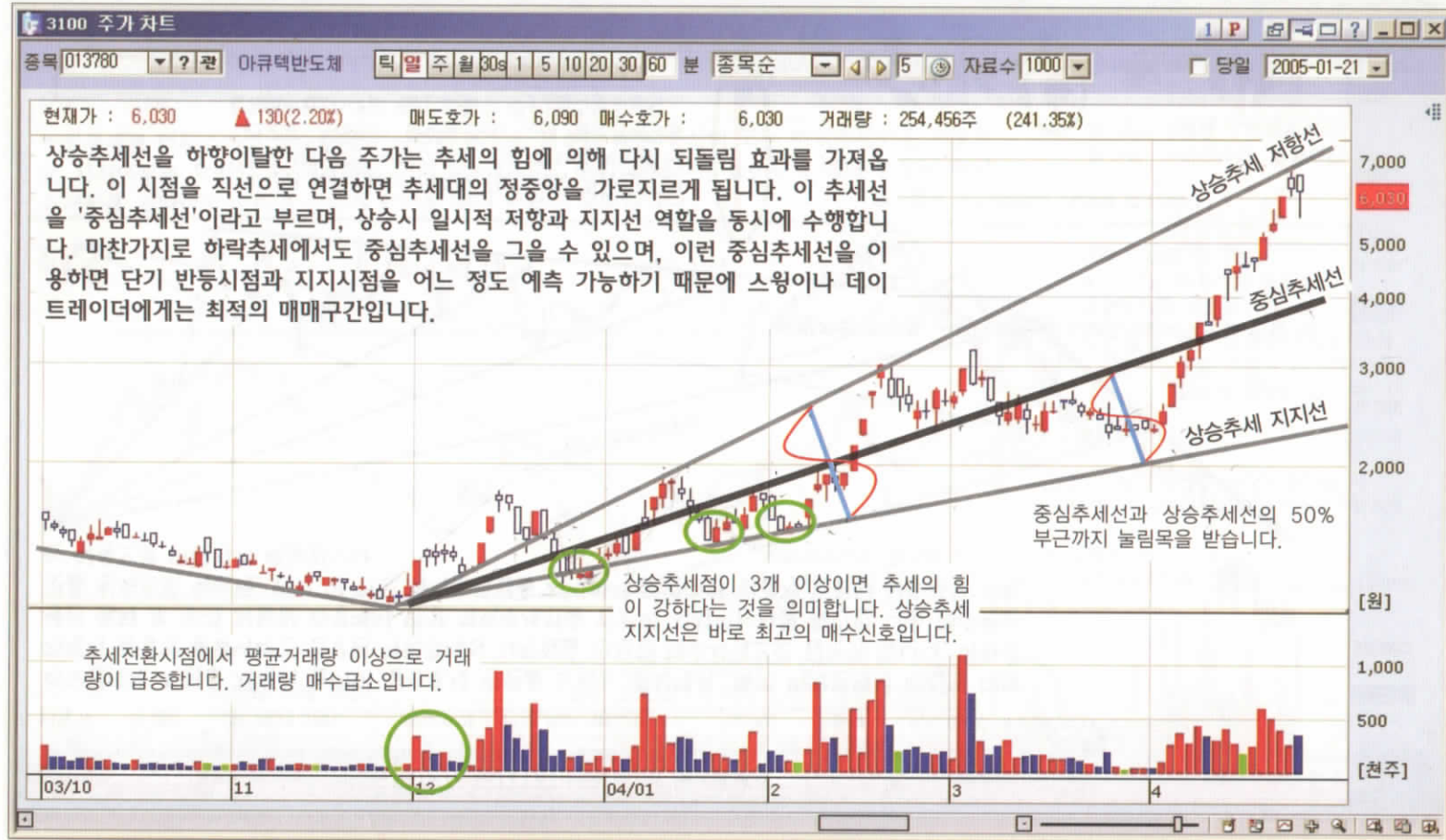
# 매집대량거래를 동반한 추세전환 매수급소



▶ 긴 하락추세를 마무리하는 상태에서는 반드시 이전 저점(가장 낮은 주가)을 지지해야만 상승추세 반전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큰 거래량 변동없이 이전 저점을 하향 이탈 한다면, 하락추세는 지속되고 상승반전의 기회는 점차 멀어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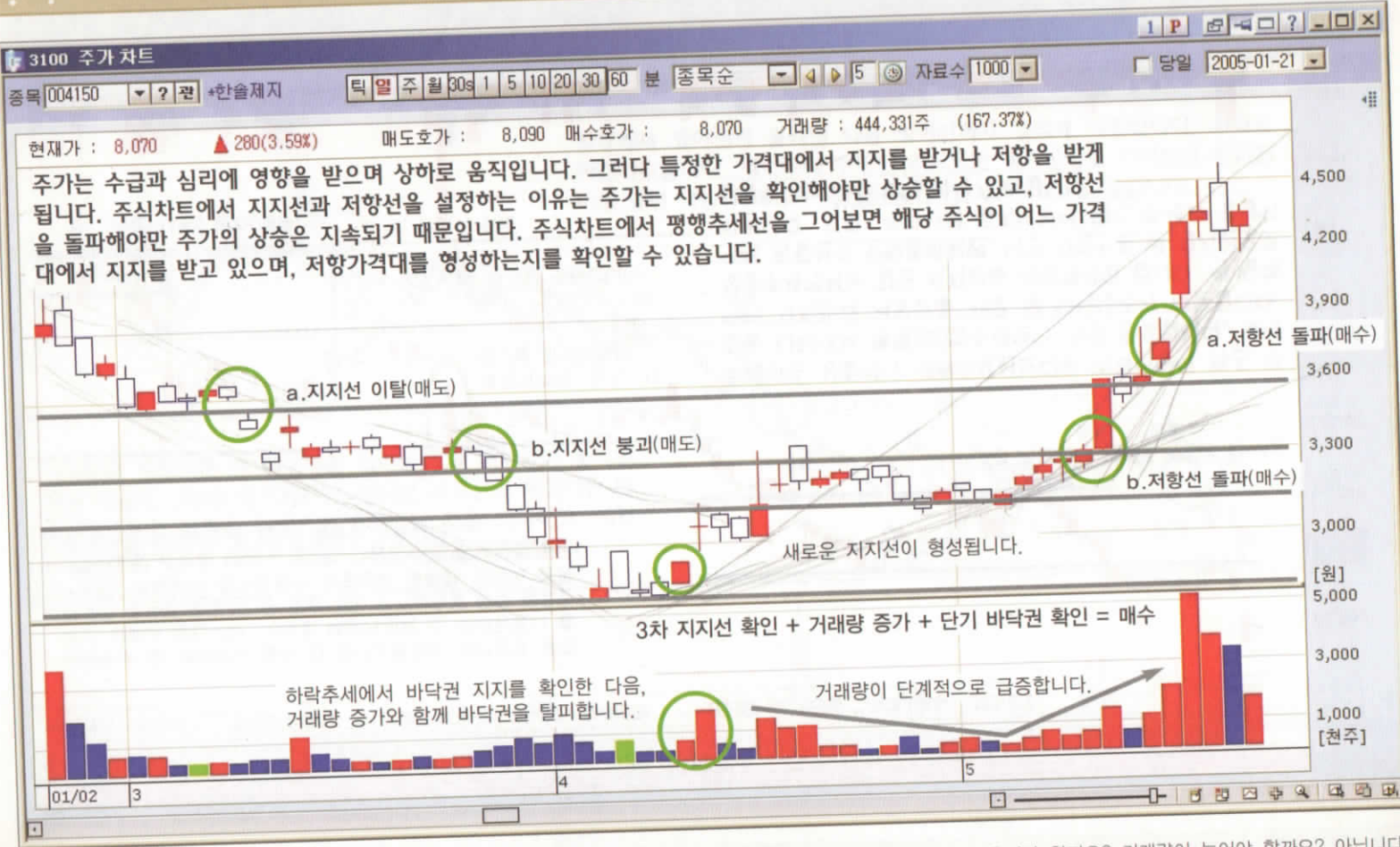
## 중심추세선을 설정하라



▶ 추세의 방향이 한쪽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그 추세의 힘은 강하다고 보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주가는 중심추세선을 기준으로 주가 되돌림 현상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추세 원리를 이용한다면 매매시점을 노릴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추세선을 통해 지지선과 저항선을 설정하라



▶ 지지선이 깨지면 저항선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항선을 상향돌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거래량이 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다음 지지선을 확인해야 합니다. 1차 지지선이 깨진 후 2차 지지선을 확보하지 못하면 주가는 상승하기 힘듭니다. 위로 올라가려면 일단 밟고 있어야 하는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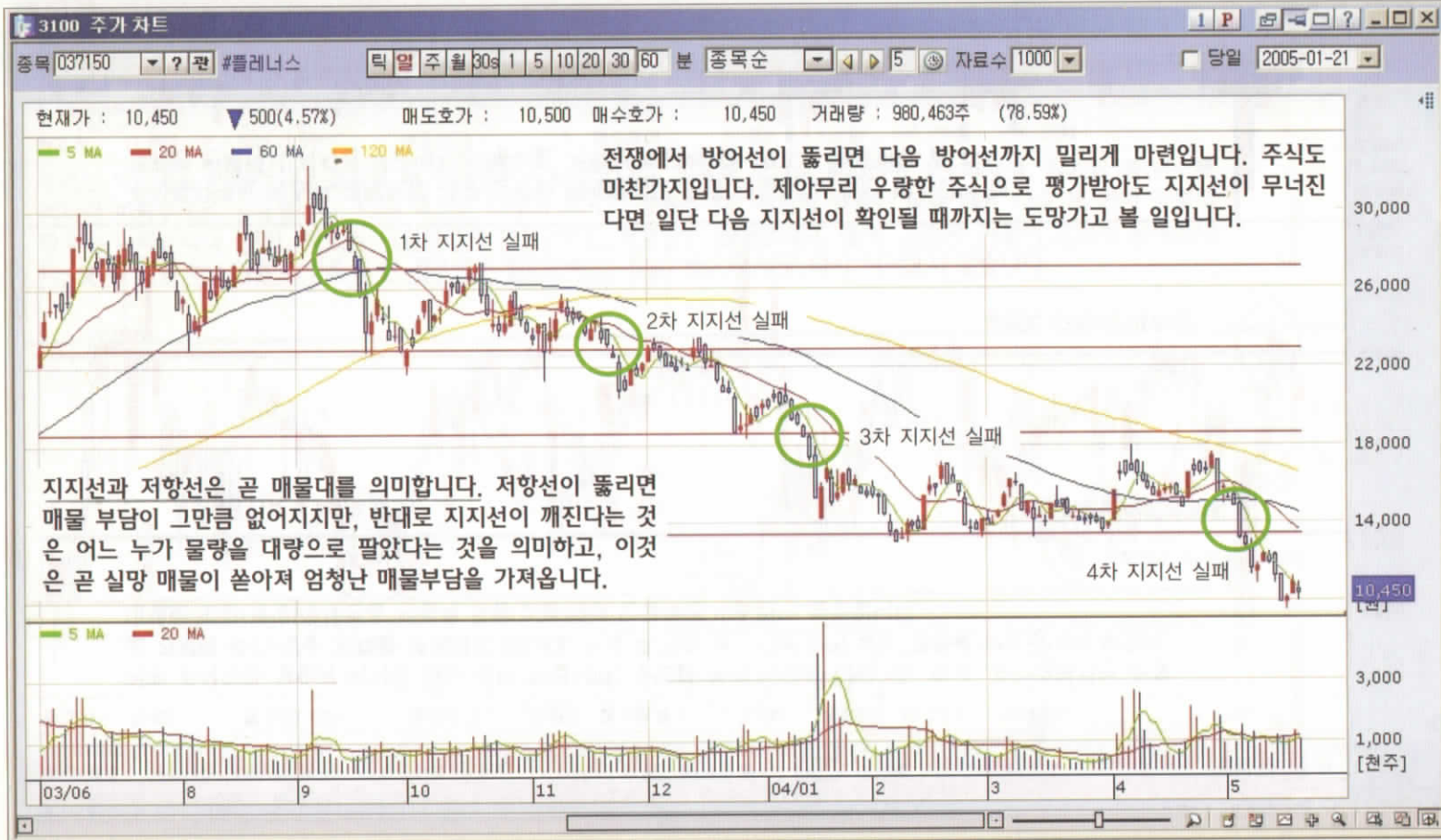
## 저항선이 상향돌파되면 이전 저항선은 지지선이다



▶ 평행추세대는 세력의 주가관리 구간을 의미합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평행추세대를 상향돌파한다면 세력이 주가를 본격적으로 상승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매수급소는 바로 이때 탄생합니다.



# 인기 주식이라도 지지선이 깨지면 버려라



▶ 지지선이 연속해서 붕괴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군가 물량을 꾸준히 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가가 상투를 들고 그냥 하락하는 주식은 짧은 반등만 일어날 뿐 주가를 단계적으로 지지하면서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위 차트를 살펴보면, 누군가 지지선을 구축해 가면서 물량을 털고, 이어서 다음 지지선을 만들어 개인투자자들을 유혹한 다음 다시 물량을 털고 하는 연속된 물량털기 과정을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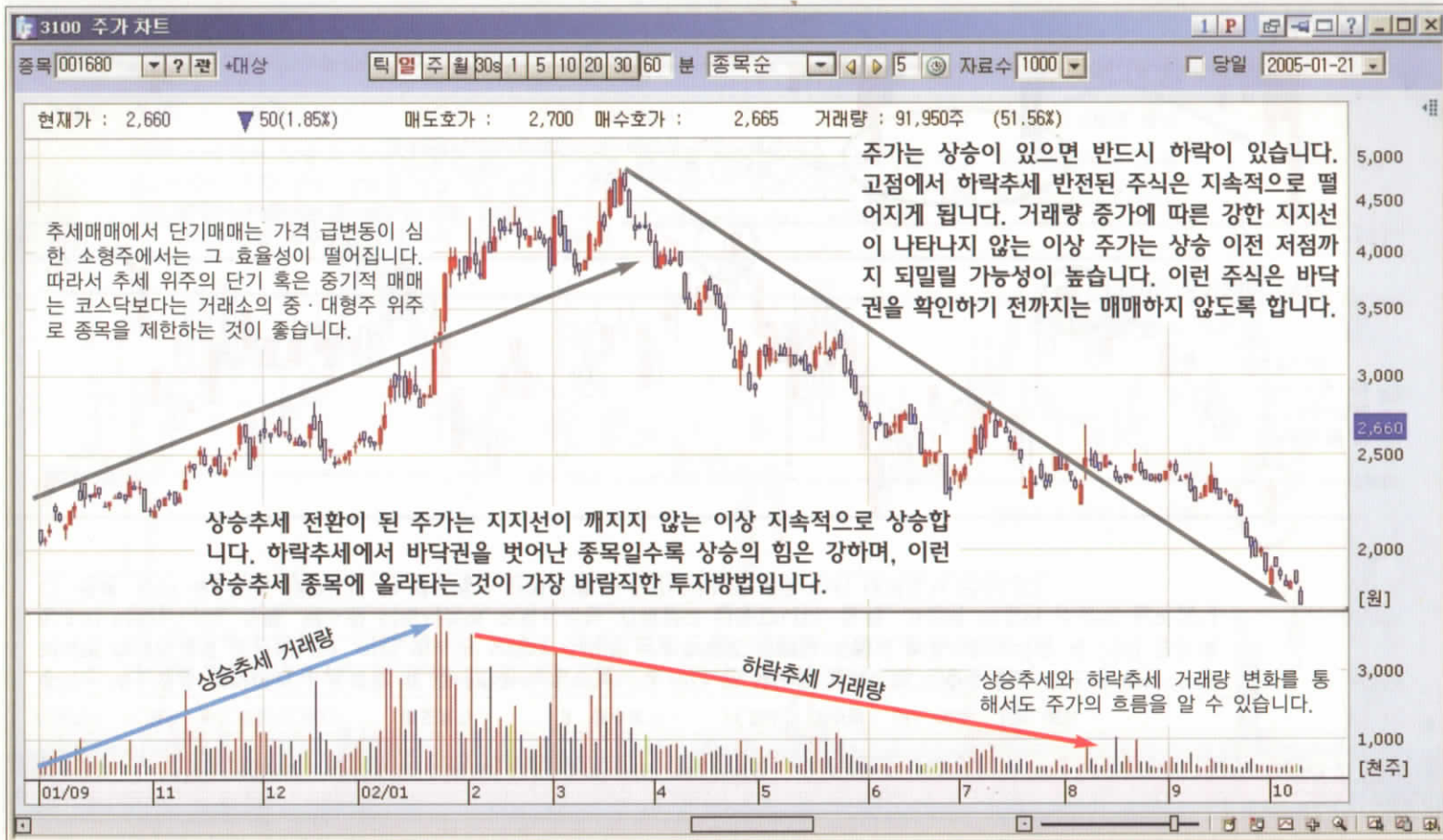
# 가장 안전한 투자방법인 박스권 매매



▶ 박스권 매매는 주가횡보시 의미있어 보이는 저점과 고점 2개를 서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박스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박스권 내의 고점과 저점이 3개 이상일 때가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 추세매매의 핵심







**오** 랜 세월동안 기술적 분석에 매달리다 보면 다양한 패턴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상승형 패턴에는 V자, N자, W자형이 있으며, 하락형 패턴에는 역V자, M자, 원형천정형 등의 패턴이 그것입니다.

‘패턴’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하나의 동일한 모양이나 형태를 말합니다. 주식차트에서 패턴분석은 추세선이 변화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주가변동 모형을 미리 정형화해 놓고, 실제 주가의 움직임을 각 패턴에 맞추어 봄으로써 앞으로의 주가 방향을 미리 예측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에서 유사한 형태의 어떤 패턴들을 종종 발견해 내게 되는데, 이러한 패턴들은 다우이론이니 파동이론이니 카오스이론이니 하는 주식형 이론과 함께 차트상에서 어떤 공통적인 현상을 나타내줍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이런 패턴들은 어떤 공식화된 이론이 아니며, 다만 차트분석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사 패턴들에 대한 기본 정의로만 해석해야지 절대매매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 러면 실전매매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기술적 분석을 왜 배워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주식시장에서 과거에 이러이러한 유사한 패턴들이 많이 발생했기에,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패턴의 양상을 보이는 주식에서는 어느 정도 향후 추세를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배울 것이 많다고 중요치 않은 것을 소홀히 하기보다는, 일단 알아야 면장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상승형 패턴	하락형 패턴	지속형 패턴	급등형 패턴
V자형, W자형, N자형, 삼중바닥형, 원형바닥형	M자형, 역V자형, 원형천정형	썩기형, 삼각형, 확대형, 깃발형, 직사각형	V자형, N자형, L자형, 역L자형

## V자형 반등 패턴



▶ V자형 패턴은 거래량 없는 단기 급락주의 매물공백을 노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단기 급락을 했으니 이격도가 커지고, 이격도가 커지면 주가는 다시 이격도를 줄이려 합니다. V자형 패턴은 이런 요소들이 서로 어우러져 단기 급등의 조건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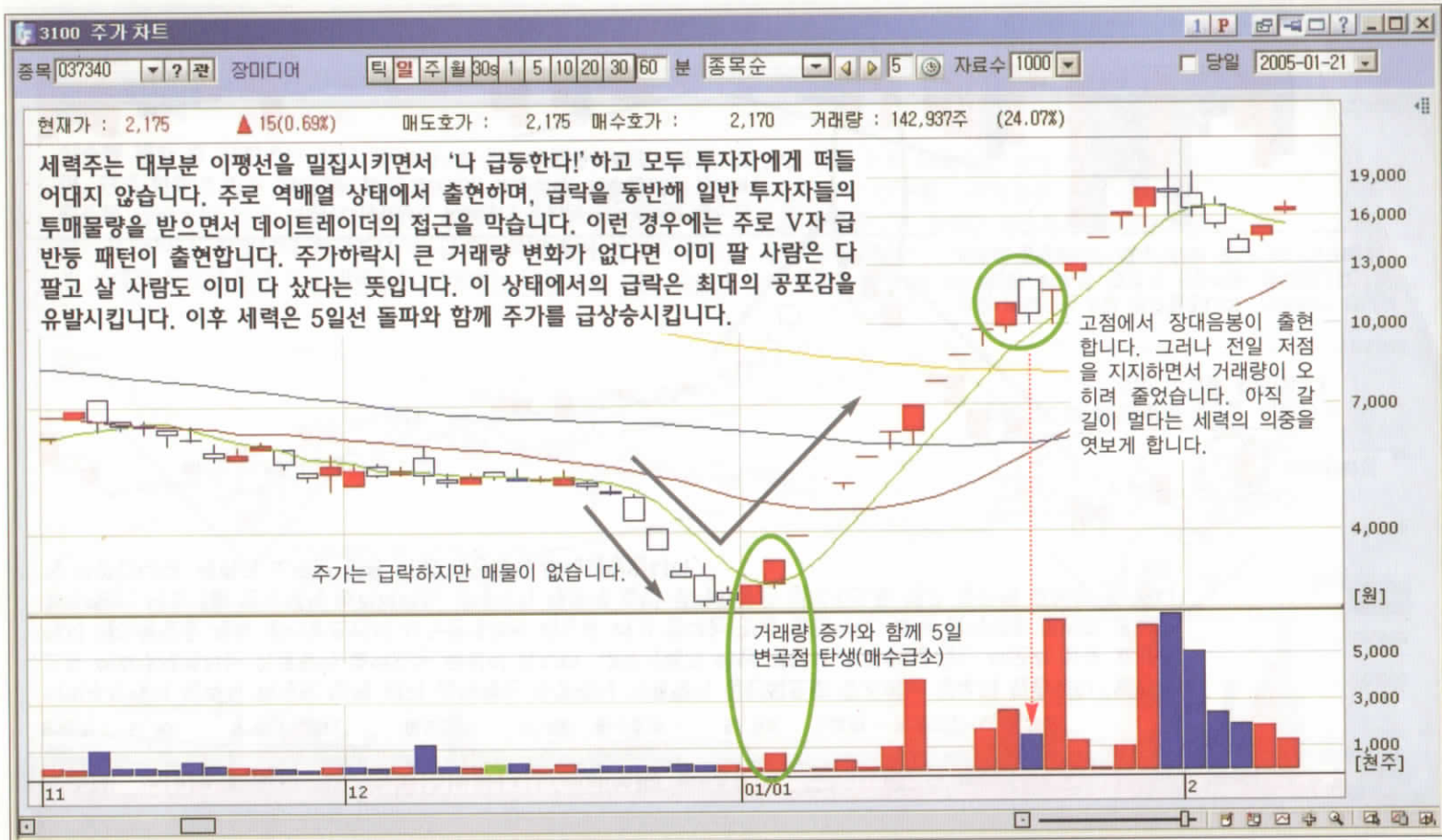
# 단기급락 중 거래량의 점진적 상승은 매수시점



▶ 주가는 어떤 심리적 요인으로 급락하는데 오히려 거래량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급락할 주식이 아닌데 자꾸 떨어지니까 그동안 대기하고 있던 매수자들이 좋다고 마구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급락하던 주가는 매도할 사람이 단시일에 다 매도했으니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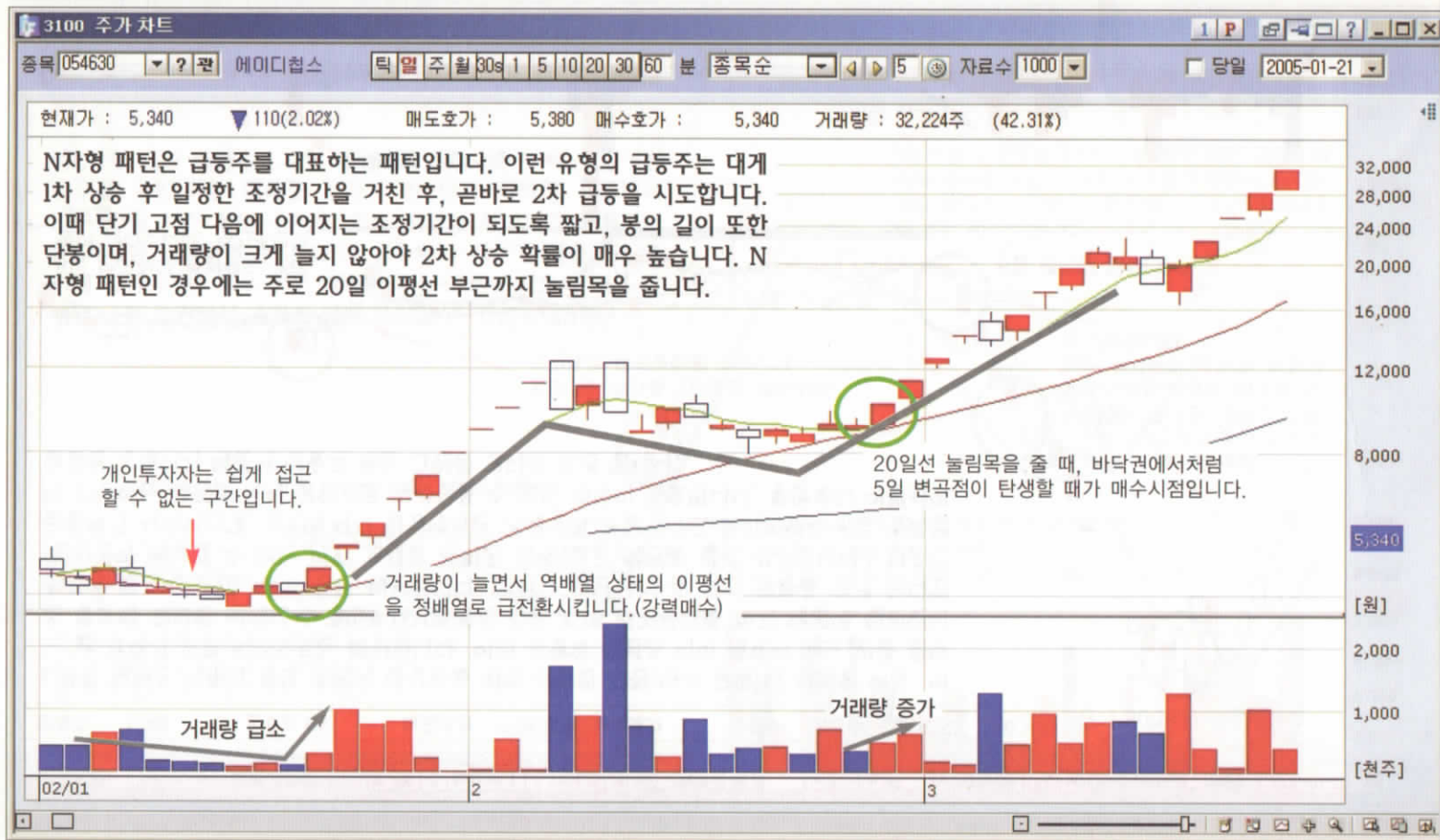


세력주는 V자형 패턴을 이용해 주가를 급등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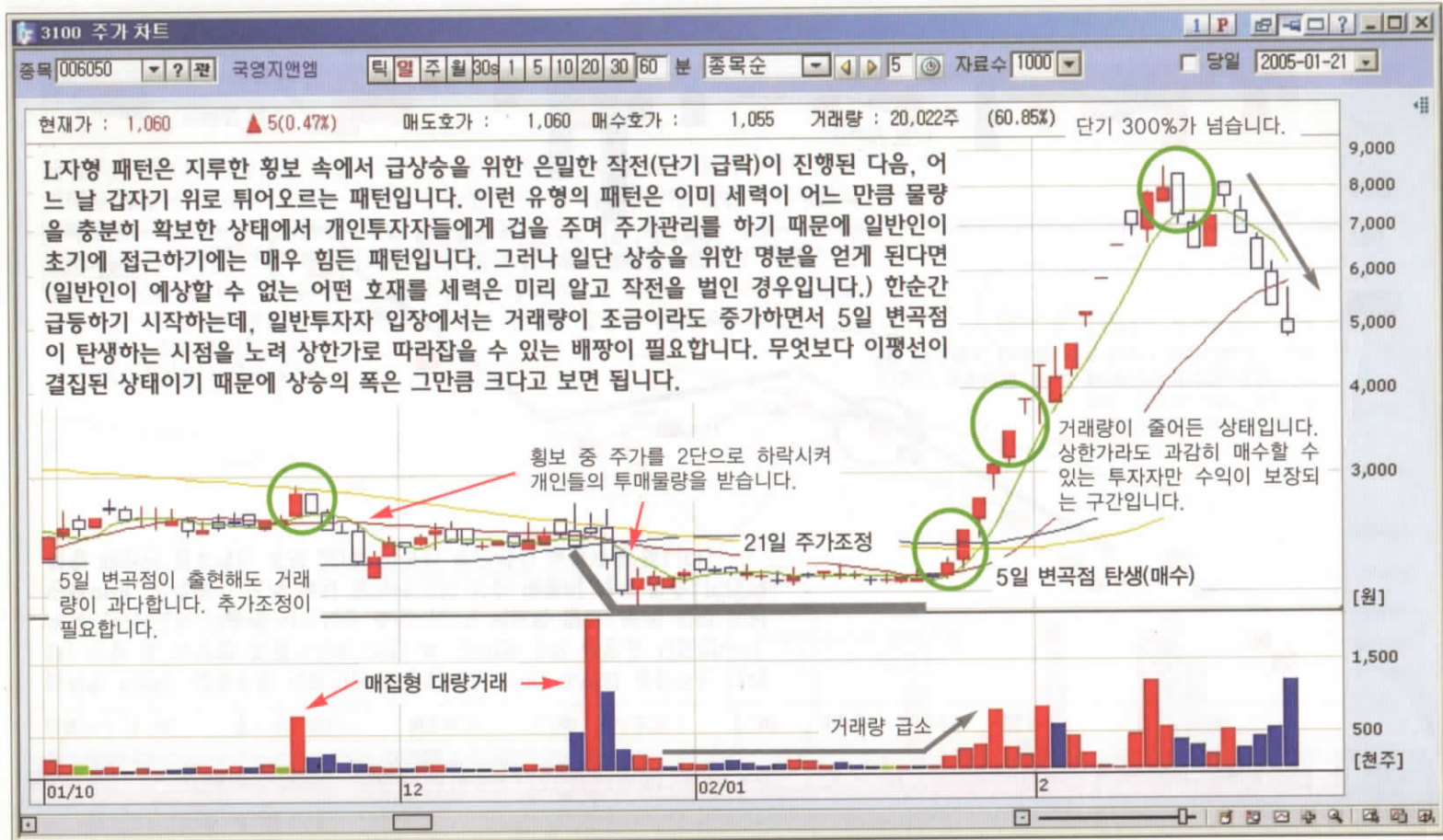
▶ 주가는 단기 급락하는데 이번에는 거래량이 아예 없습니다. 왜 그럴까? 매수자는 없는데 매도자가 갑자기 나타난 형국입니다. "부도가 내려나? 무슨 악재가 터졌나?" 만약 그런 경우라면 대부분은 갭하락으로 추락합니다. 그러나 위 차트를 보면 장대음봉으로 주가가 억지로 밀려 내려간 모습입니다. 누군가 작은 물량으로 겁을 주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 급등주의 대표 N자형 패턴



▶ N자형 패턴주는 매우 교과서적인 급등 패턴입니다. 무엇보다 세력의 마지막 물량 테스트 구간에서는 거래량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거래량 분출 시점이 바로 최고의 매수급소입니다.

지루함 뒤에 희열, L자형 패턴



▶ L자형 급등주는 지루한 횡보를 거듭하던 주식이 어느 날 거래량 없이 하락하거나, 혹은 거래량을 동반한 채 하락한 다음, 일정기간 주가조정을 거친 후 급등하는 패턴을 말합니다. 일단 주가가 단기 하락을 하면 단기 이평선은 역배열 상태로 되며, 세력이 거래량을 줄이면서 주가관리를 하게 됩니다. 주가하락 + 역배열 + 가격변동폭이 매우 적음 + 거래량 감소 = 개인들이 참기 힘든 구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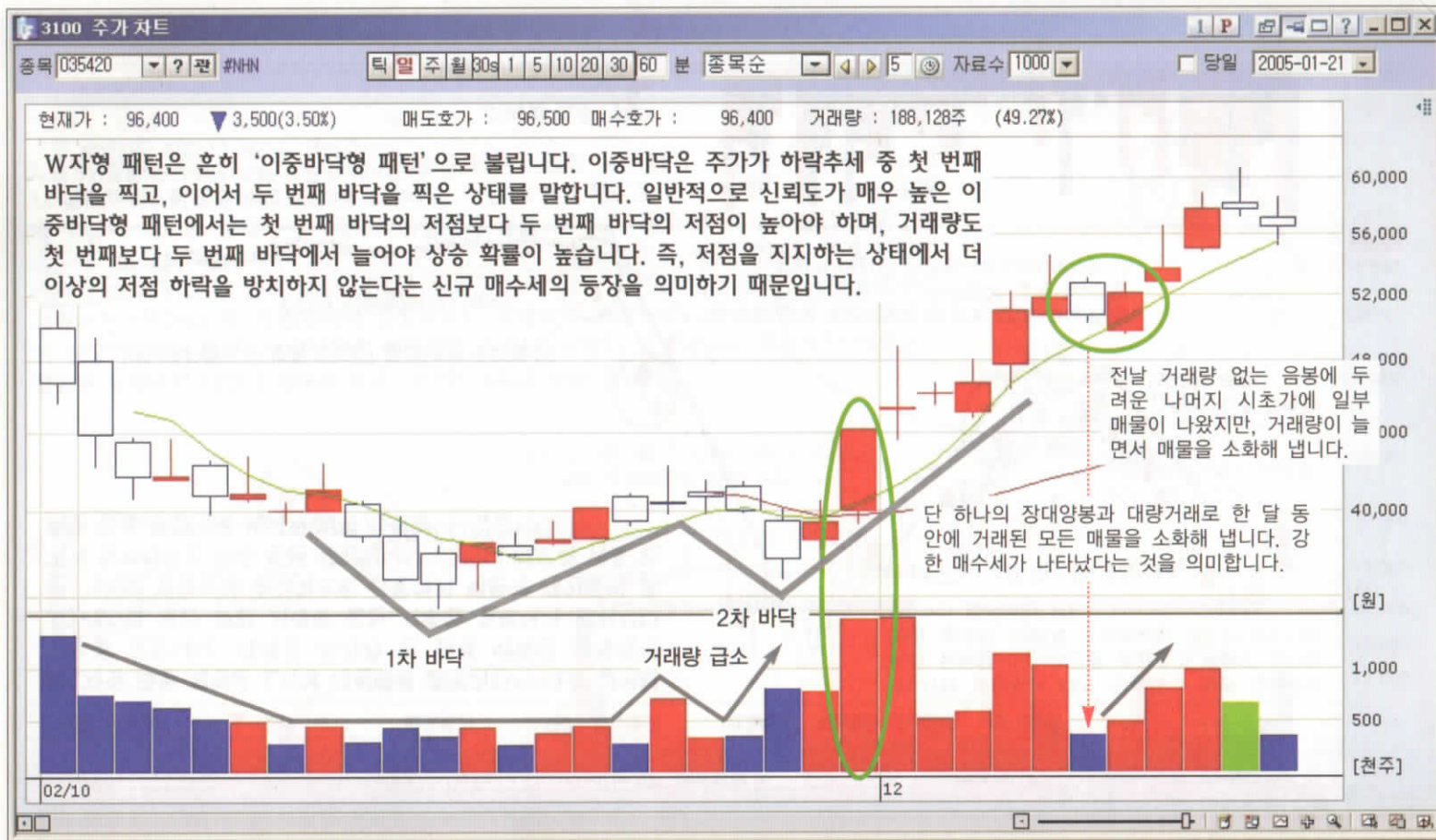


## 역L자형 패턴은 거래량과 이평선으로 매수시점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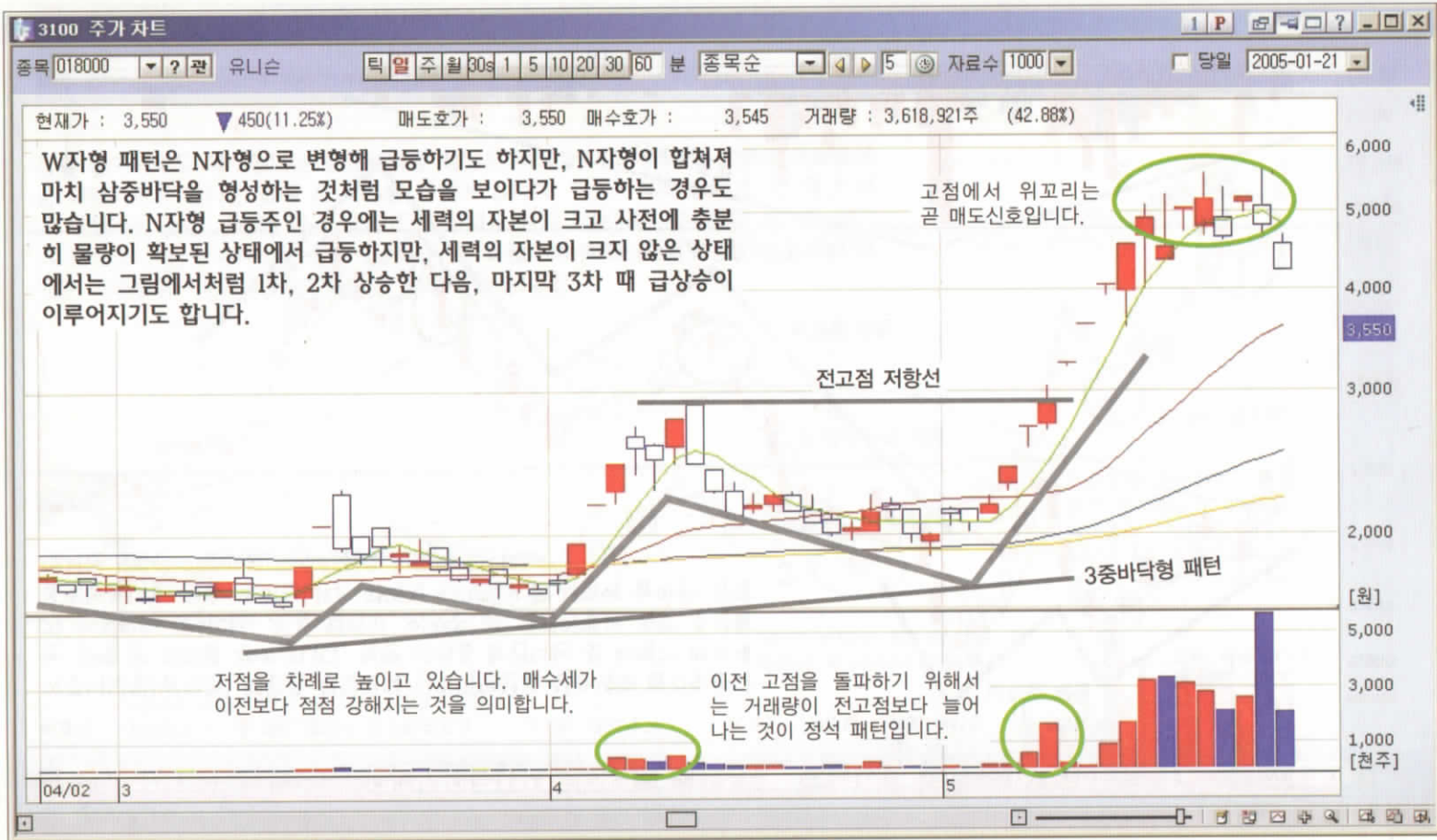
▶ 역L자형 급등 패턴은 L자형을 거울에 비친 듯한 급등형 패턴을 말하며, 거래량만으로 매수시점을 포착하기에는 이미 한 박자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거래량 변화없이 그대로 급등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장기간 횡보하는 주식에서는 거래량 변화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이평선 돌파시점을 눈여겨봅니다. 주가가 5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에서, 거래량 없이 기존 저항선마저 겹으로 돌파한다면 이때가 절호의 매수급소가 됩니다.

## W자형 패턴은 전저점을 높여야 확률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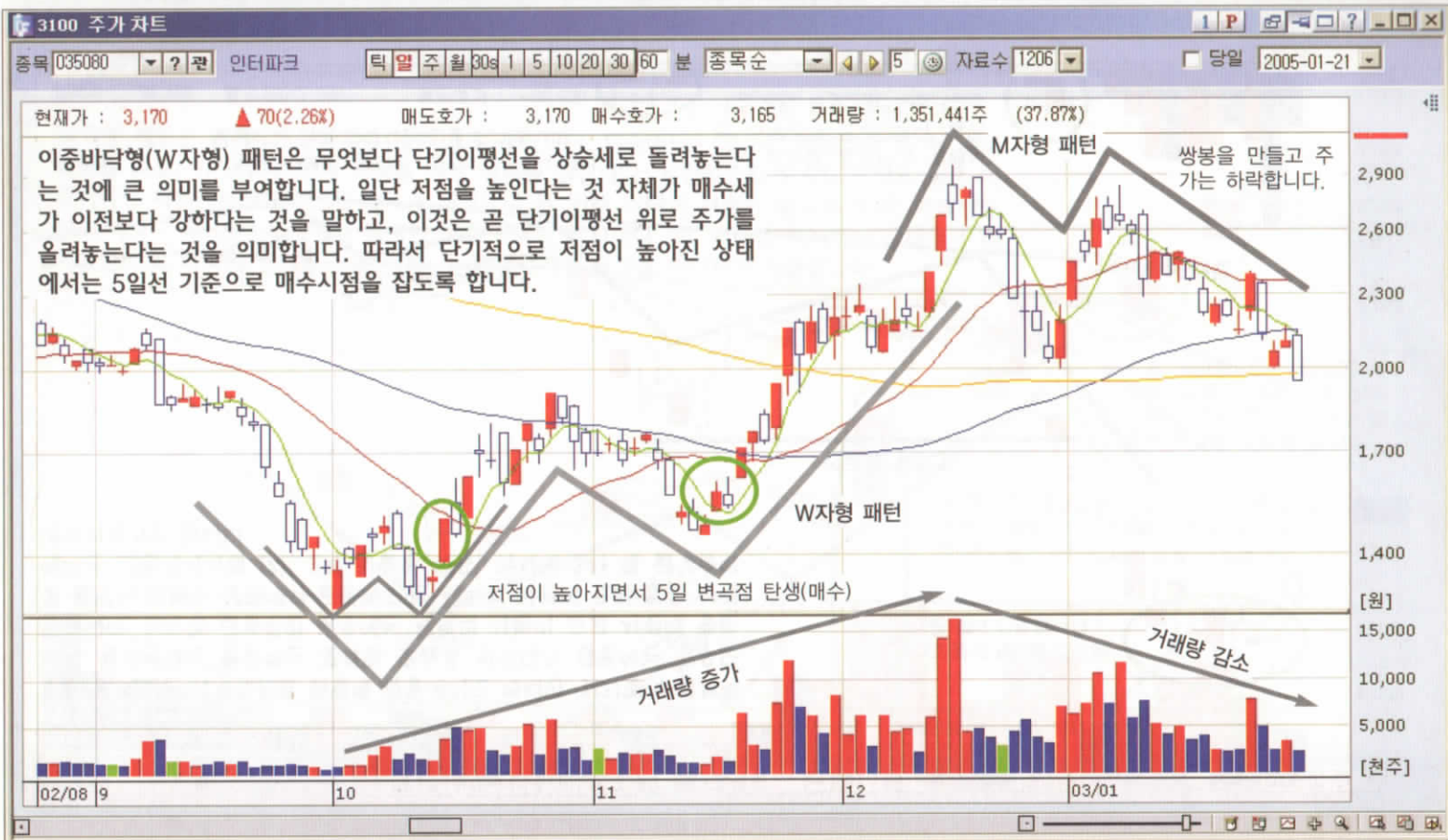
▶ 바닥을 높인다는 말은 전저점을 지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점을 지지한다는 것은 이제 하락할 이유보다는 상승할 이유가 생긴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매수세가 많아지는 것이고, 당연히 주가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됩니다.

# 급등주에서 W자형의 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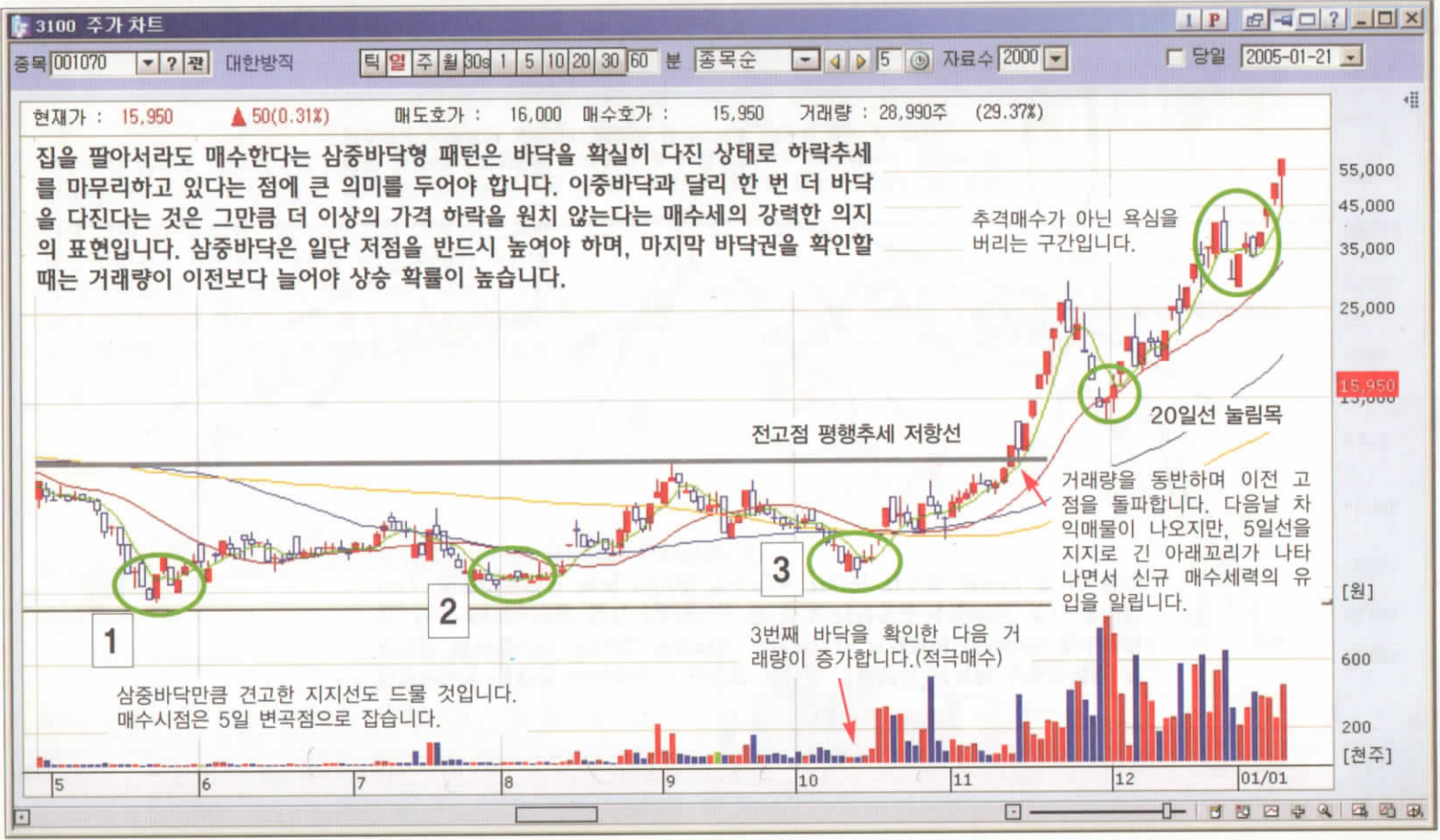


이중바닥형은 단기이평선을 상승추세로 돌린다





# 삼중바닥은 집을 팔아서라도 매수한다?



## 완만한 하락추세 마무리, 원형바닥형 패턴



▶ 원형바닥형 패턴은 일반 급등주 패턴과 달리 의외로 시세가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중장기 투자자들이 노릴만한 상승 패턴으로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하락했다는 것은 그동안 물량소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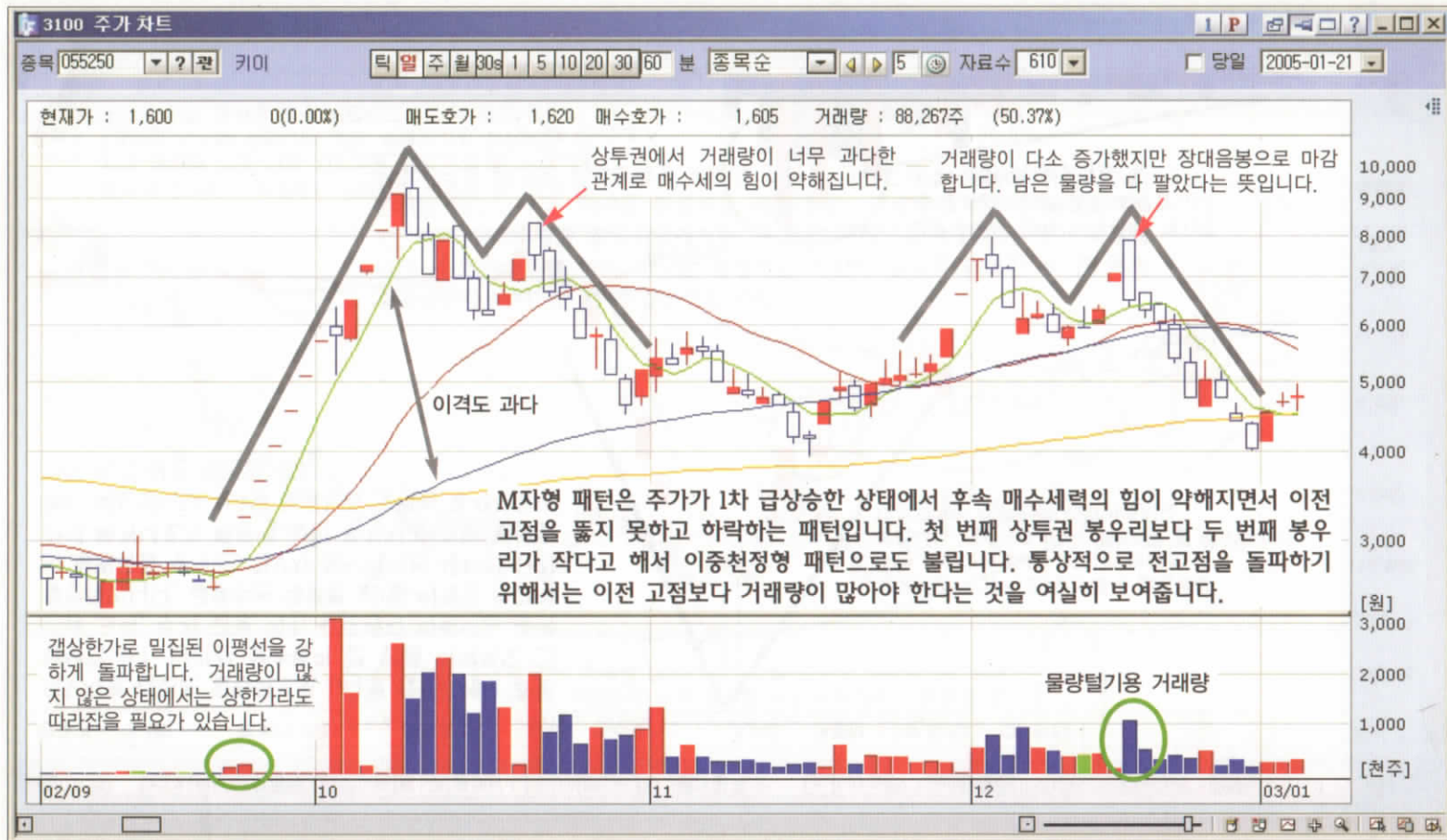


## 급등 뒤에 따라오는 급락, 역V자형 패턴



▶ 역V자형, 굳이 패턴 이름을 일일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등주라면 당연히 급락 가능성이 클 것이고, 고점에서 추세반전 신호가 포착되면 일단 빠져나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2차 급등을 하더라도 그때 따라잡아도 늦지 않습니다.

## 전고점을 뚫지 못하는 M자형(이중천정형) 패턴



▶ 일반적으로 한 번 300% 이상 급등했던 주식들은 다시 한번 급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6개월 정도의 기간조정(조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실전에서 다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일단 한 번 해먹은 주식을 또 해먹기에는 세력도 어지간히 철폐를 깔아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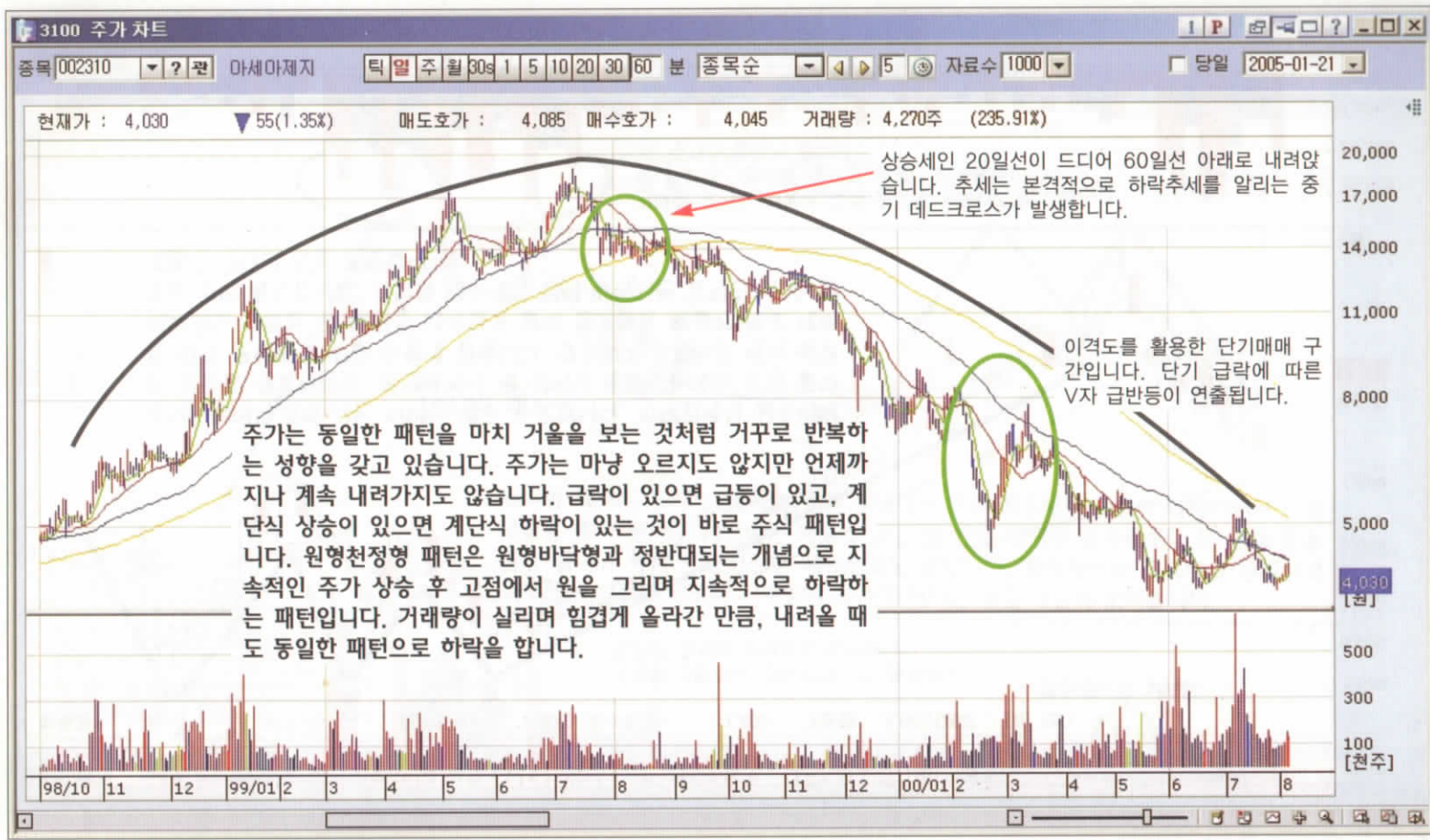
# 고점을 3번 확인하고도 실패하면 빠진다



▶ 쌍봉과 달리 삼봉은 그 후유증이 유난히 큰 것이 특징입니다.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지속적으로 빠집니다. 따라서 일단 고점을 3번이나 두들기고도 고점 돌파에 실패했다면, 매수한 이들은 무조건 빠지는 것이 좋으며, 대기매수자들은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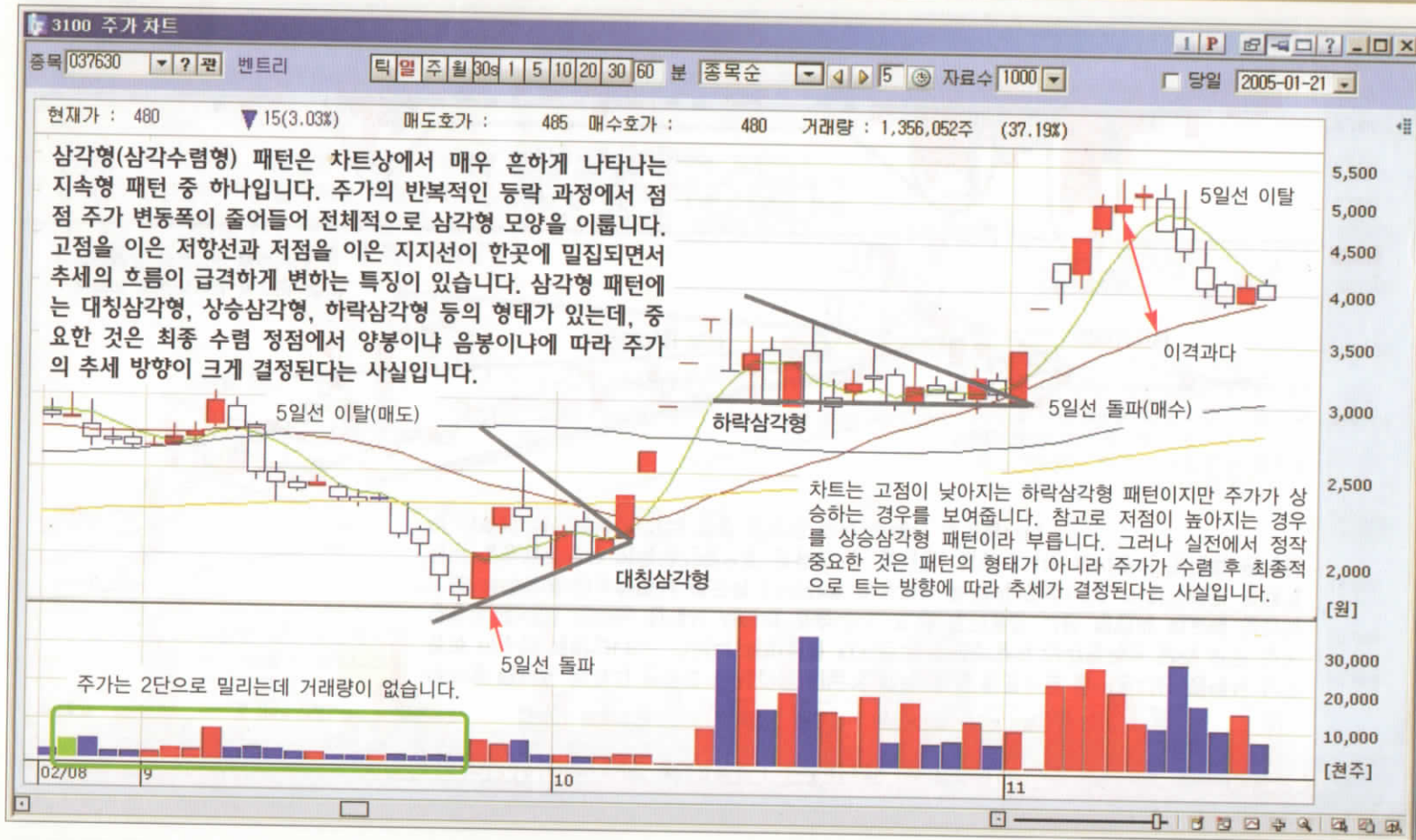


▶ 힘 한번 못 써보는 원형천정형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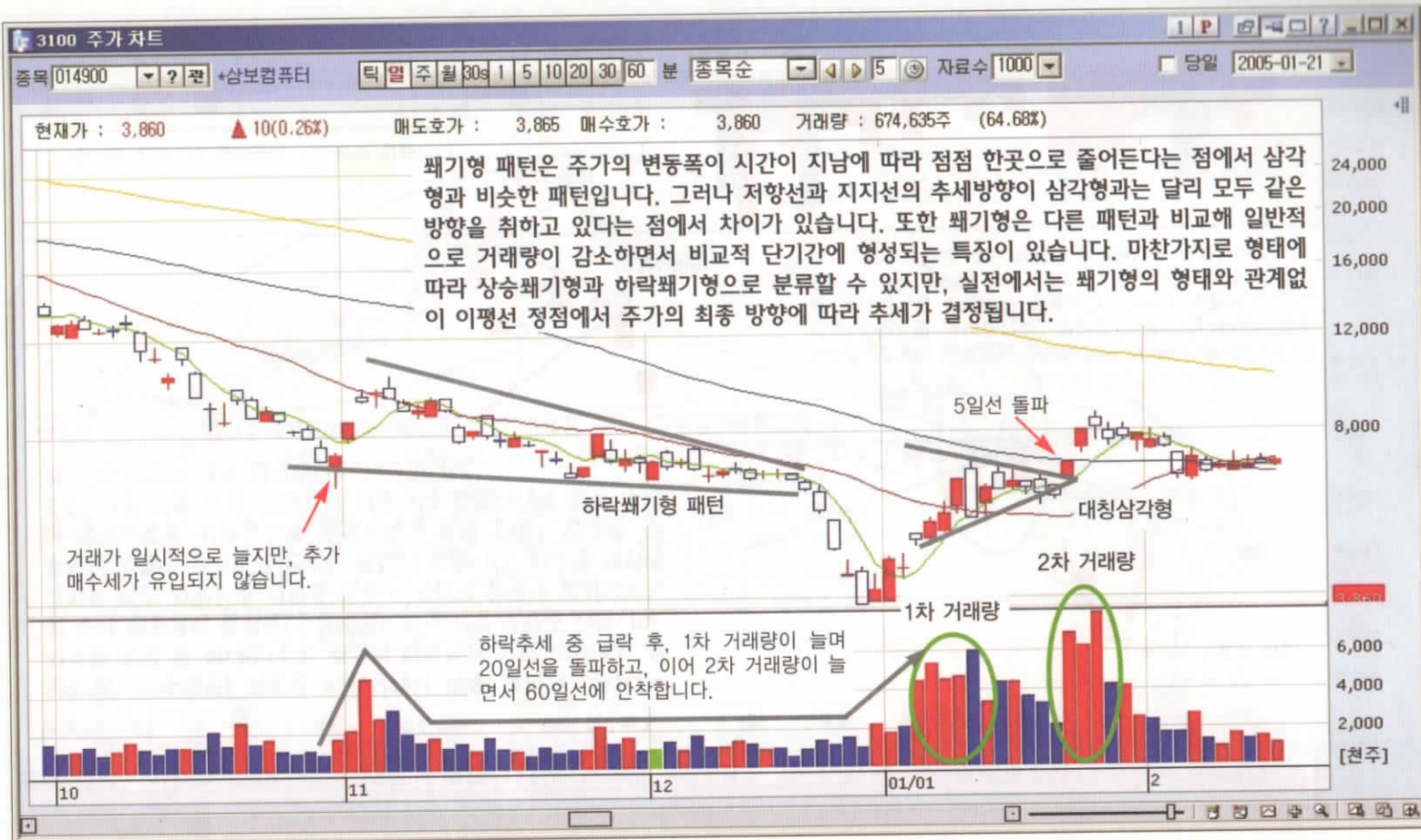
▶ 원형바닥형은 매물소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상승추세의 힘은 강하다고 했습니다. 원형천정형 또한 추세의 힘은 강합니다. 대신 가랑비에 옷 젖듯 장기간 하락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삼각형 패턴은 형태가 아니라 최종 방향이 중요하다



▶ 삼각형 패턴은 주가가 특정한 한쪽 방향으로 좁아지면서 마치 삼각형 형태를 이루는 패턴을 말합니다. 주가가 한 점에 수렴해 갈수록 내재된 힘은 강해지는데, 삼각형 수렴 정점에서 양봉이 출현하면 강한 급상승이 연출되고, 음봉이 출현하면 강한 하락추세가 연출됩니다. 따라서 삼각형 패턴에서는 주가 수렴의 정점시점을 유심히 관찰해가며 매매 포지션을 잡도록 합니다.

## 추세선의 방향이 같은 썰기형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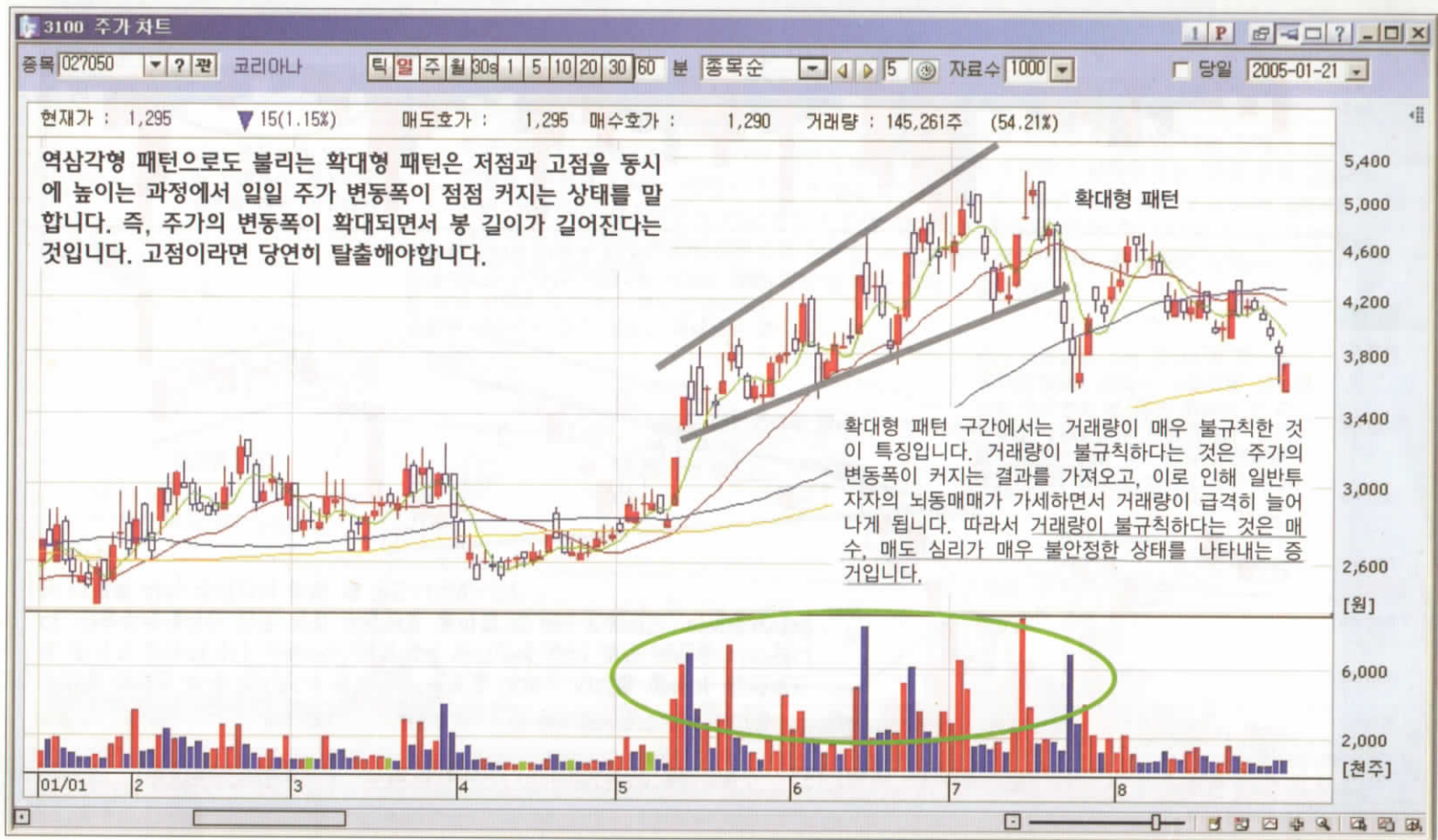




# 깃발형 패턴은 조정국면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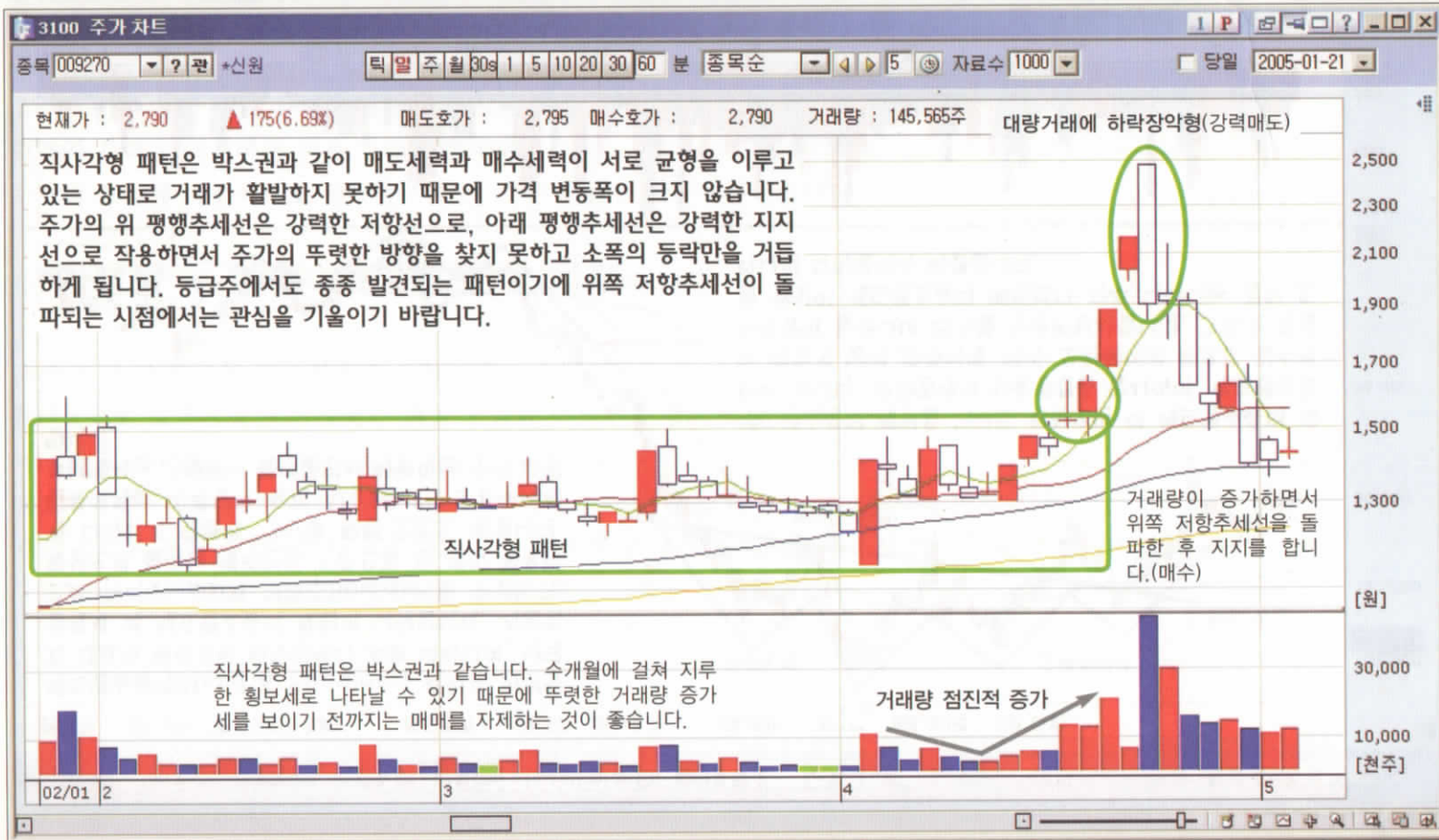


# 하락추세를 암시하는 확대형(역삼각형)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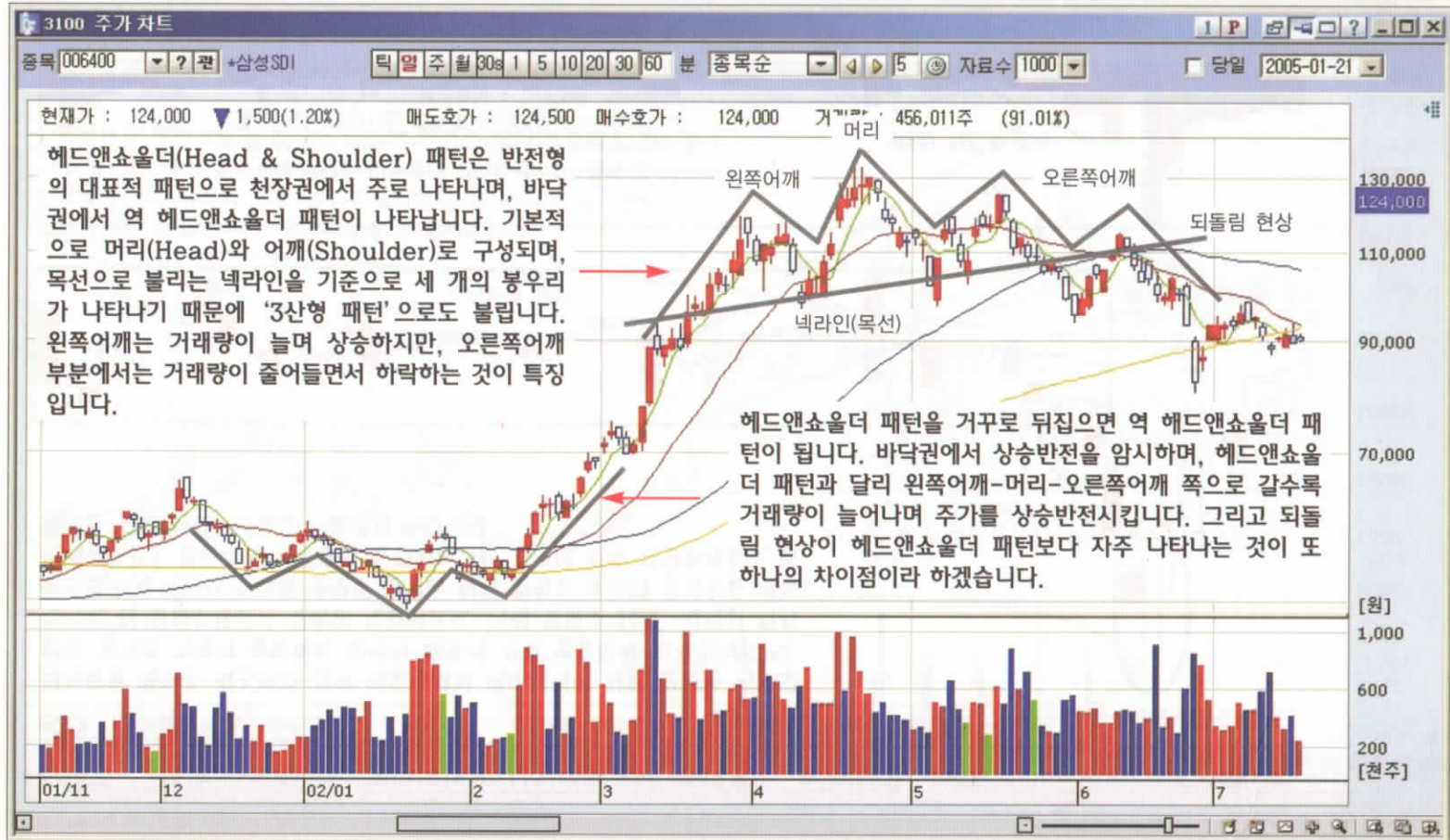
# 주가 정체구간을 나타내는 직사각형 패턴







## 헤드앤쇼울더 패턴



## 05. 세력이 만드는 보조지표

보조지표에 대한 강한 신뢰는 절대 금물입니다.

주가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거래량입니다.

주가의 흐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캔들과 이동평균선입니다.

즉, **거래량 + 캔들 + 이평선 = 차트** 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모두 보조지표에 속합니다.

결과적으로 보조지표는 거래량과 캔들 모양과 이평선을 동시에 참조해야만

어느 정도 신뢰를 갖는 투자지표가 된다는 뜻입니다.

보조지표 하나만으로는 절대 매매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장에서는 현재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수십 종류가 넘는 보조지표들 중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하는, 신뢰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 보조지표들의 핵심적인 사항을 설명합니다.

## 다이버전시란 무엇을 말하는가?



▶ 보조지표에서 다이버전시 현상은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꿔 말하면 단기적으로 보조지표는 어느 정도 신뢰를 갖는 반면에 중장기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 이상의 각기 다른 성질의 보조지표를 서로 비교분석해서 매매에 참조하도록 합니다.





# 대표적인 거래량 지표 OBV



OBV(On Balance Volume) 지표는 가격 변화에 대한 거래량을 관련시킨 대표적인 모멘텀 지표로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하는 것을 전제로 그랜빌에 의해 고안되었습니다. OBV 지표는 특히 시장이 매집상태인지 아니면 분산상태인지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주가가 상승추세에서는 거래량이 증가하며, 따라서 OBV 고점이 이전보다 높아집니다. 하락추세에서는 거래량이 줄면서 OBV 저점이 낮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횡보하는 상태에서 OBV 상승은 누군가 주식을 저점에서 매집하고 있는 상태로 해석합니다.

▶ OBV 지표는 거래량이 주가를 결정한다는 논리에 탄생한 거래량 지표입니다. 주가 횡보나 상승시 세력의 매집 여부를 참조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신뢰도가 높은 만큼 데이트레이더에게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OBV 다이버전스





# OBV의 한계를 파악하라



▶ 중소형주일수록 OBV 속임수가 많이 나타납니다. 단순히 주가 바닥권에서 OBV 다이버전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것을 세력의 매집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OBV는 거래량이나 이평선과 달리 하나의 보조 역할을 하는 지표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시세의 강약을 분석하는 VR



▶ 매매 포지션을 잡는 요령 중에서 거래량 지표인 OBV와 VR 이 두 개의 지표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도 실전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주가는 OBV와 함께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데 VR 지표가 급락하는 경우에는(주가는 단기 하락), 대부분 놀림목 구간입니다. 매수시점은 VR지표가 단기 바닥을 찍고 상승전환할 때를 잡습니다.

# 대표적인 이동평균선 지표 MACD



▶ MACD곡선 = 단기이동평균 - 장기이동평균 / 시그널(Signal)곡선 = n일의 MACD 이동평균

## MACD 추세선을 활용하라



▶ MACD 매수 : MACD가 시그널을 상향돌파할 때 / MACD 매도 : MACD가 시그널을 하향이탈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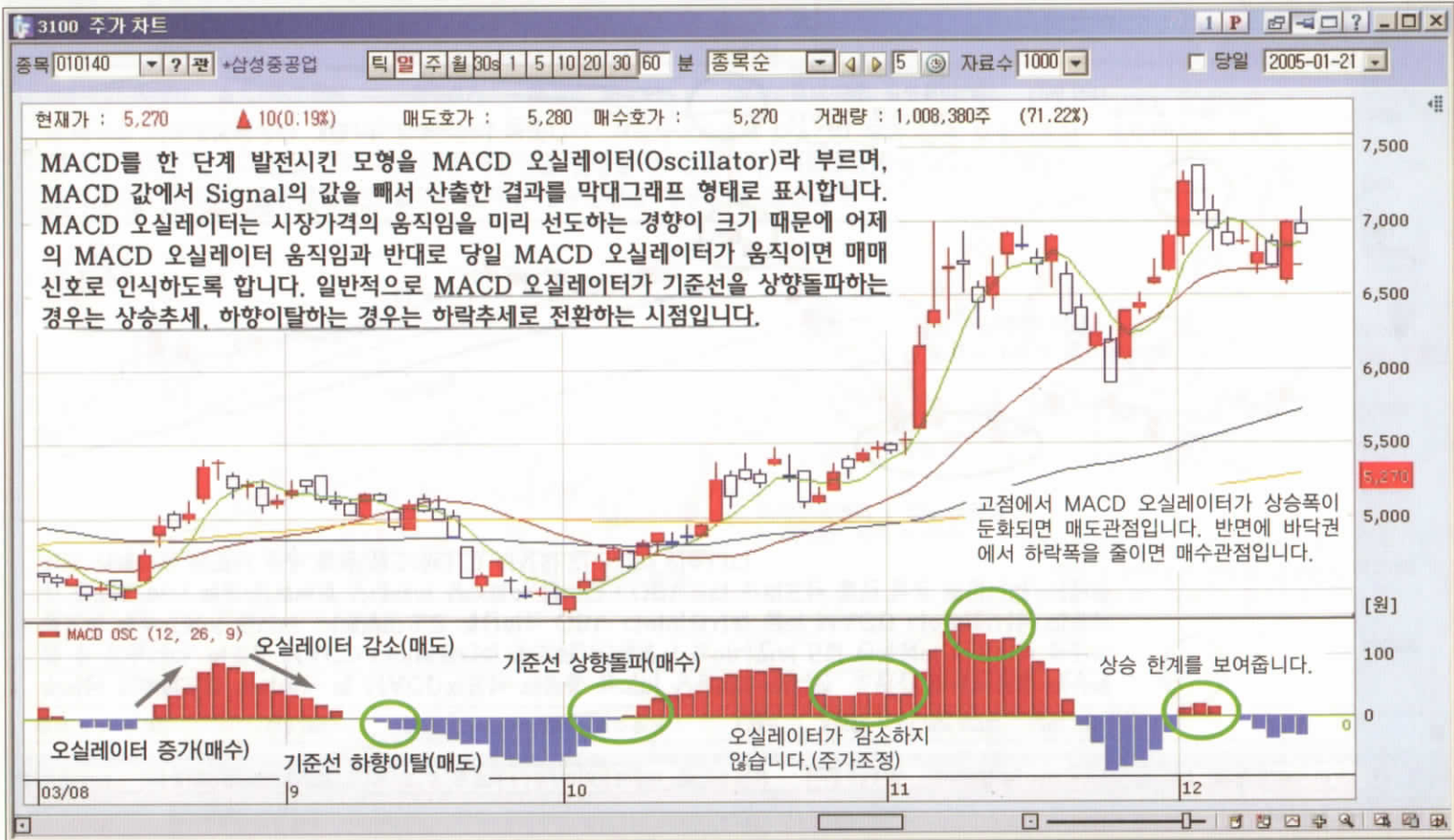


# MACD 다이버전시



▶ 이동평균선이든 추세선이든 보조지표든 일단 바닥권에서 3번 저점을 확인하면 상승추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MACD 오실레이터



## MACD와 MACD 오실레이터로 확률을 높여라





## 스토캐스틱으로 신뢰도를 높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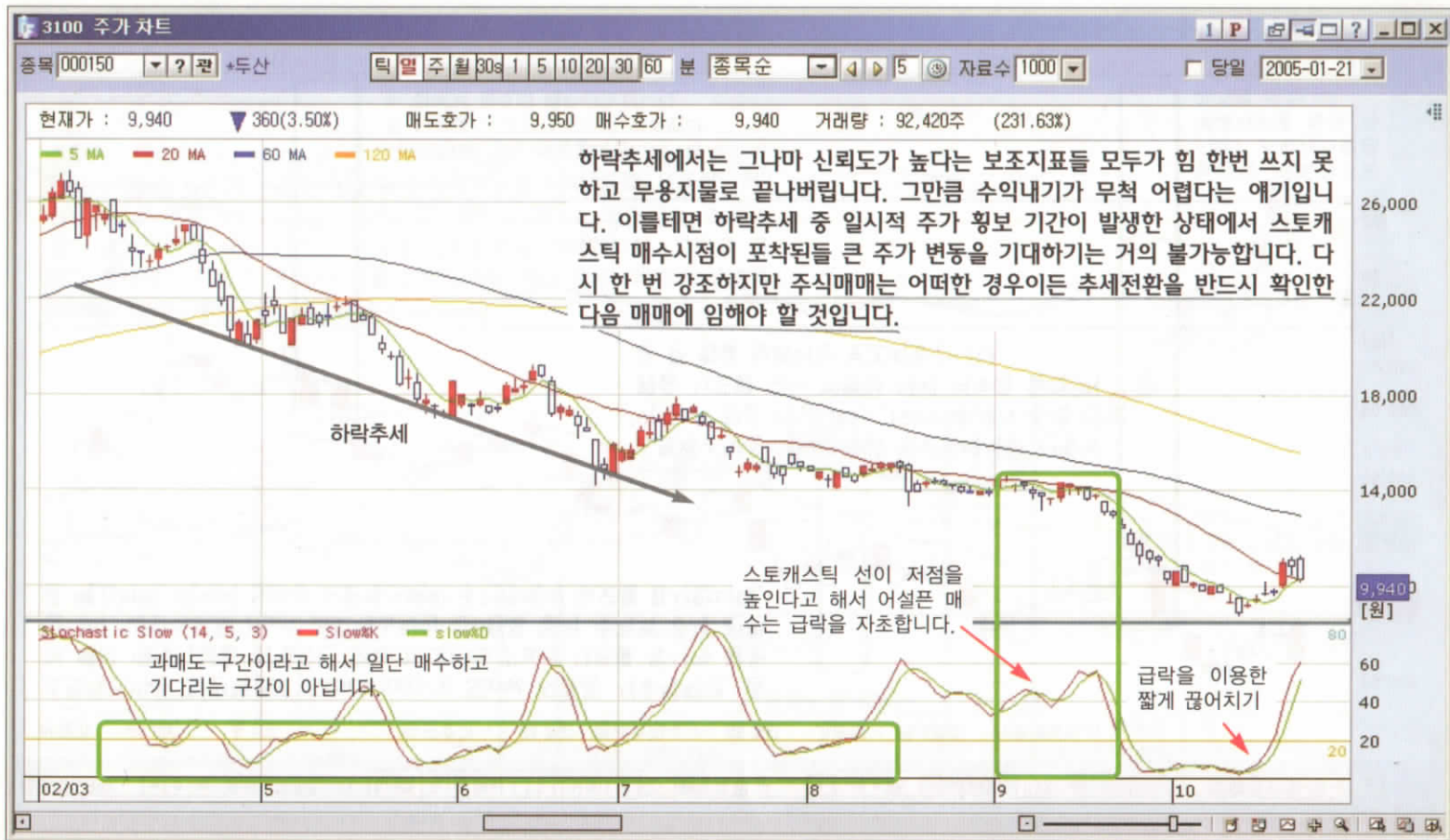


▶ 스토캐스틱은 대표적인 주가 탄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현시점이 과도하게 매수한 상태인지(매도관점), 아니면 과도하게 매도한 상태인지(매수관점)를 나타냅니다. 실전에서 활용도가 높은 만큼 MACD와 OBV지표를 동시에 활용하면 그만큼 신뢰가 높습니다.

# Slow, Fast 스토캐스틱 활용하기



## 보조지표도 하락추세에서는 무용지물이다



26,000  
22,000  
18,000  
14,000  
9,940 [원]





# 급등주에서도 스토캐스틱은 고가놀이 패턴으로 진행



모멘텀 지표로 사용하는 소나 지표



▶ Sonar 매수시점 : ① 기준선을 중심으로 -10 부근 / ② Sonar 선이 Sonar 이동평균을 상향 돌파 / ③ Sonar 선이 기준선(0점)을 상향 돌파



# 펀드멘탈과 모멘텀의 기본 개념



▶ 주식시장의 펀드멘탈이 개선되어야 주가상승을 위한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RSI(추세강도지수) 보조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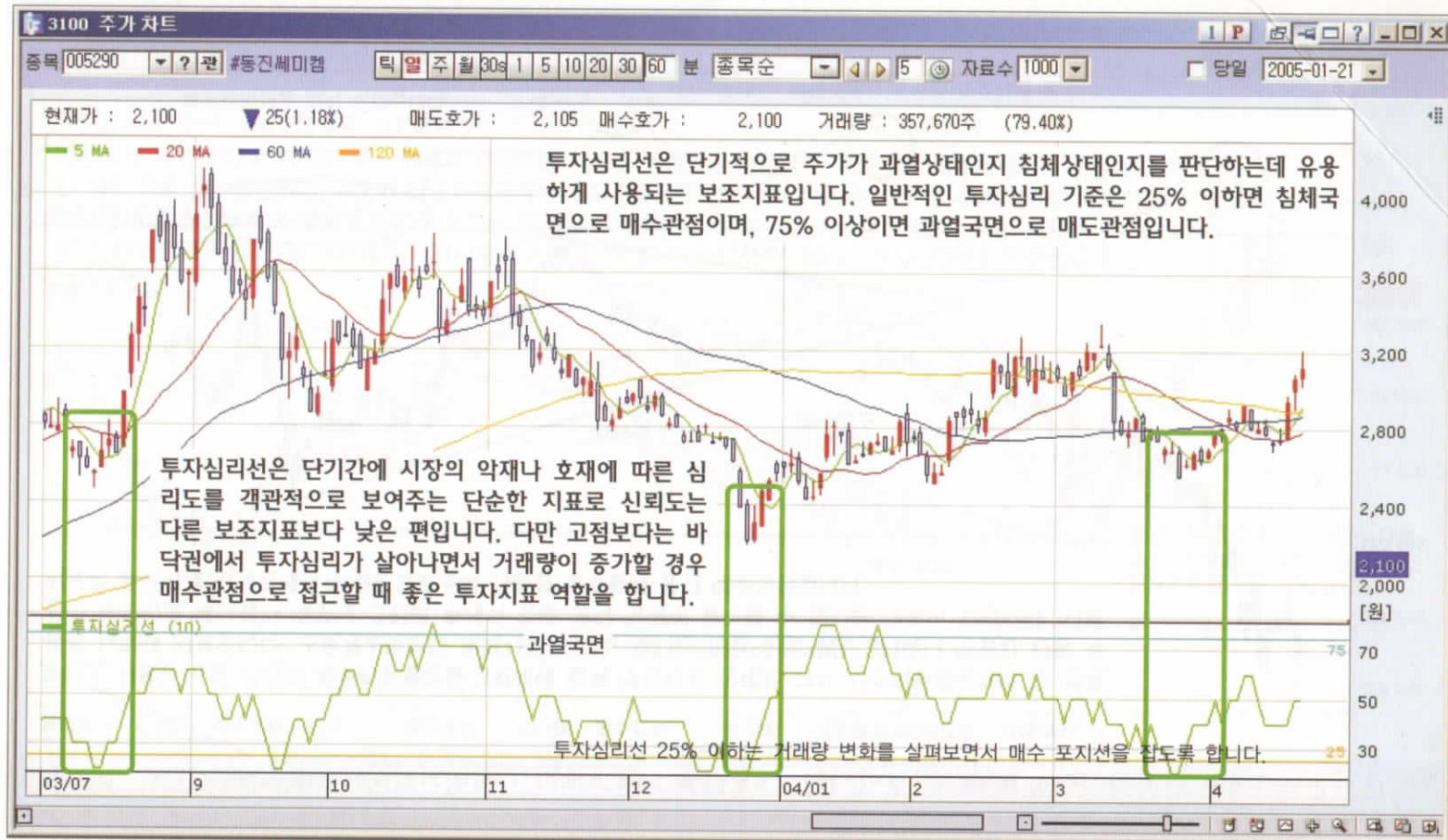


▶ RSI는 MACD와 함께 데이트레이더가 주로 활용하는 보조지표에 속합니다.

# Trix(지수이동평균 변화율)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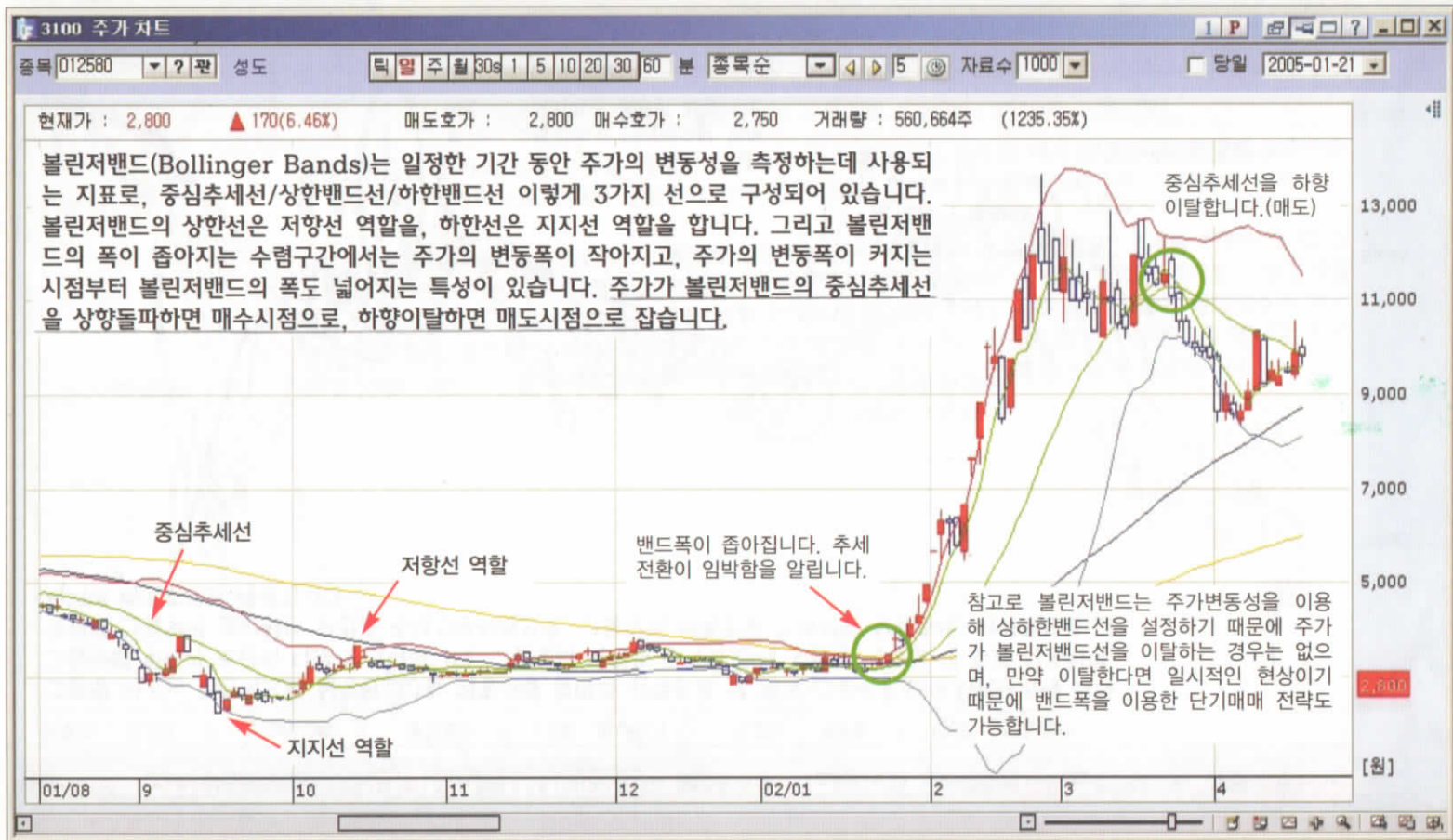


투자심리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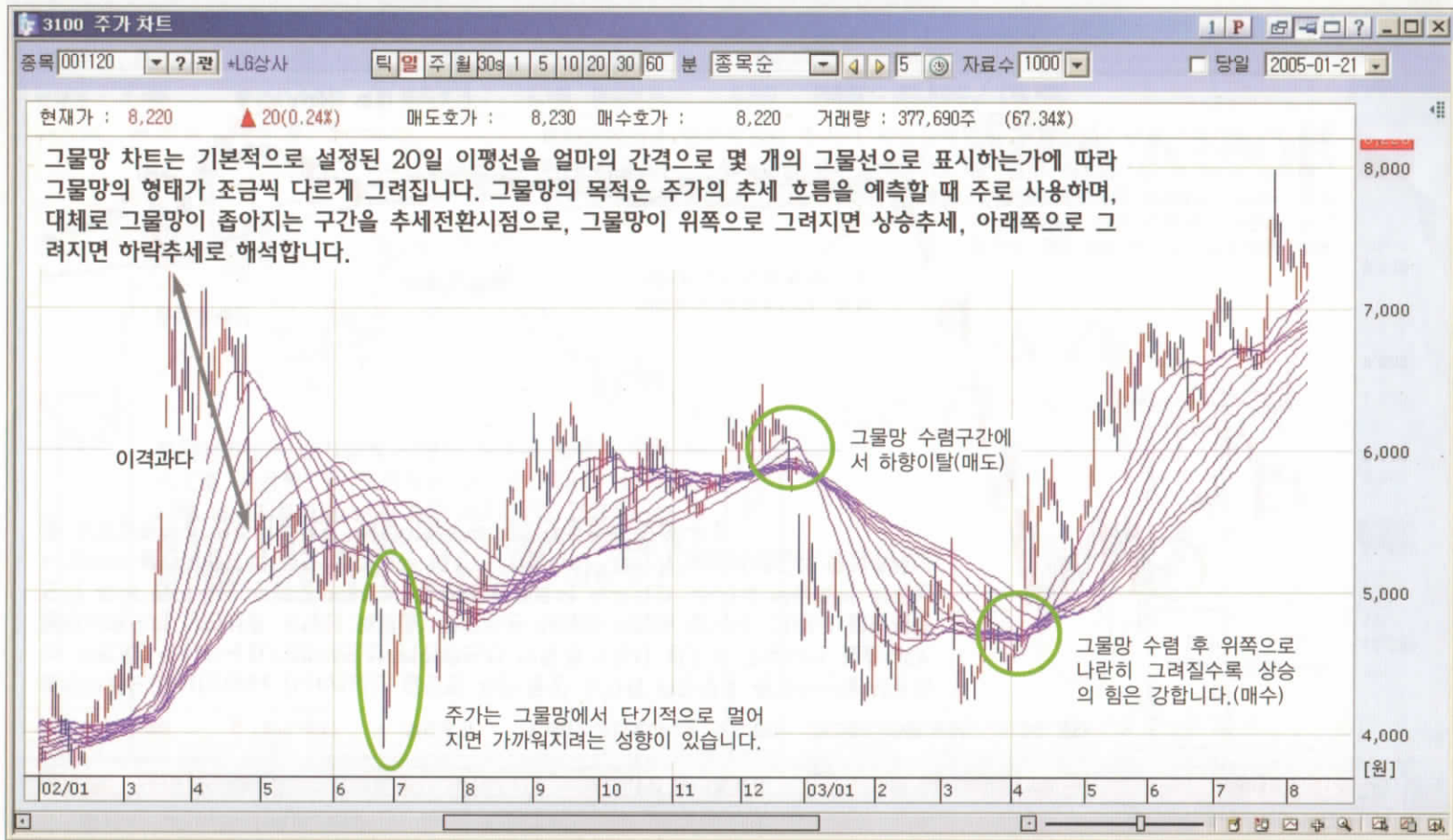




# 볼린저밴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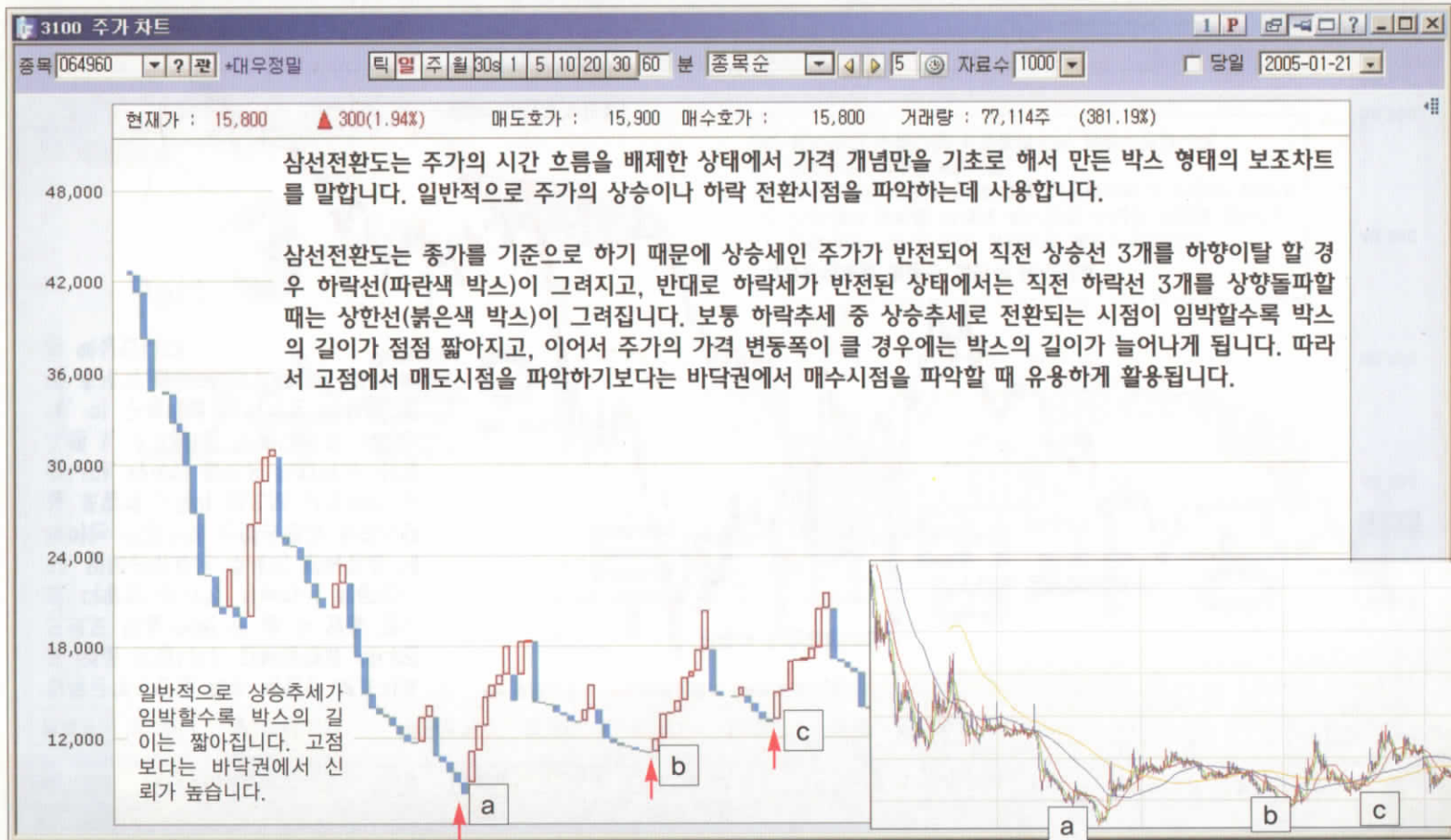


그물망 차트



▶ 그물망은 쉽게 말해 특정 이평선을 특정한 간격으로 나란히 그린 선들을 말합니다. 때로는 지지선이나 저항선 역할을 하며, 주가가 그물망 바깥쪽으로 이탈하는 시점이 추세전환시점입니다.

# 삼선전환도 차트



▶ 삼선이란 말은 선이 3개라는 것을 뜻하며, 이 3개의 연속적인 선이 전환됐다 해서 삼선전환도라고 부릅니다. 삼선전환도는 주로 중장기적 추세흐름을 파악하는데 사용됩니다.



일목균형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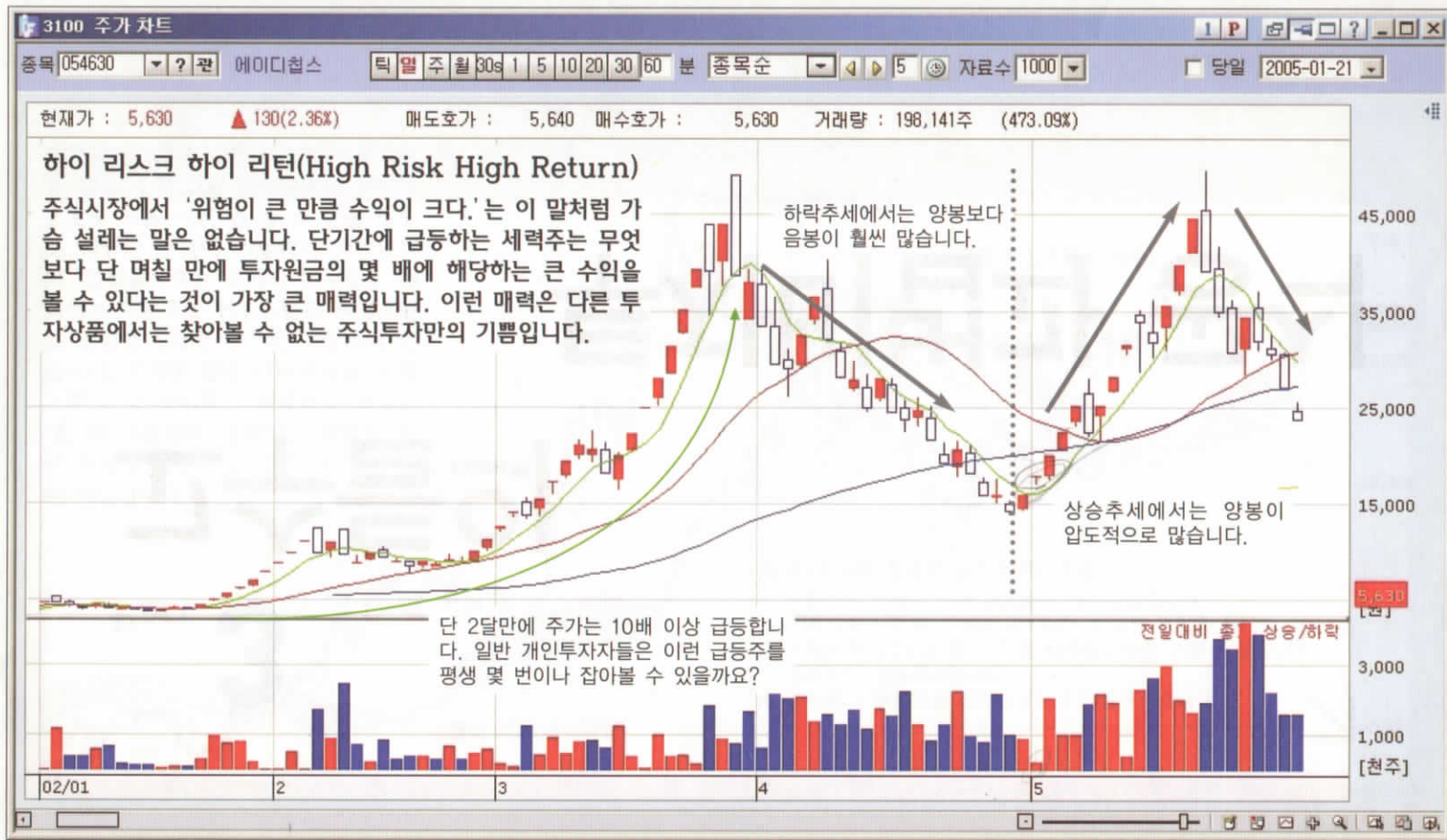
▶ 주식시장에서는 이론이 어려울수록 실전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다우이론이니 파동이론이니 일목균형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이론이나 설명 일수록 핵심적인 기본 개념만 알아두면 됩니다.

Part **3**

# 고수들의

# 투자비법과 공식

##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면 일단 세력주에 올라타라



▶ 급등주는 기술적 분석의 모든 것이 함축된, 그야말로 주식시장의 꽃으로 불립니다. 대박과 쪽박의 극단적인 상황이 한순간에 동시에 연출되는 한 편의 연극을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 ▶ 세력주의 주관적 관점

- 주식시장의 모든 주식에는 크든 작든 세력이 존재하고 세력주는 작전주, 급등주, 대박주, 황금주 등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 작전주는 투기성, 급등주는 단기모멘텀, 대박주는 중기모멘텀, 황금주는 장기모멘텀 등의 작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 세력주는 일반개미들(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싫어합니다.(누군가는 잃어야 하므로 함께 배부를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 세력주는 매집한 물량을 떠넘길 투자자를 유혹합니다.(때문에 대부분 차트가 예쁘게 그려집니다.)
- 세력주는 작전을 펼치려는 이들에게 큰 자본을 대는 물주가 따로 있습니다.(수익금은 일정부분 나누게 됩니다.)
- 세력주는 항상 팀별로 작전을 펼칩니다.(거래원은 여러 증권사로 분포시켜야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입니다.)
- 세력주도 예기치 않는 돌발사태로 큰 손해를 볼 때도 많습니다.(수급이 일순간 무너지면 세력도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세력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자신이 보유한 금액만으로도 주가를 움직일 수 있다면, 바로 세력이 됩니다.)

### ▶ 세력의 분류

세력을 크게 2종류로 분류하면 대주주와 일반세력(외국인, 기관, 큰손, 개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일반(큰손) 이렇게 3자 구도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제4세력과 제5세력이 은연중에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의 원리입니다. 제4세력은 인터넷 동호회 중심의 사설펀드나 사채업자 등을 일컫습니다. 제5세력은 바로 주가의 가격을 직접 결정하는 막대한 결정권을 가진 대주주를 말합니다.

급등주는 통산 대주주와 결탁한 제4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간혹 투자동호회 같은 데서 돈 많은 개미들끼리 서로 의기투합해 어설픈 세력 흉내를 내보려 작전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결속력 부족과 전문성 결여에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눈을 피해야 하고, 그때그때 상황 변화에 따른 임기응변이나 노하우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질도 해본 놈이 잘한다고', 어설픈 세력 흉내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때문에 제대로 된 세력은 작전할 주식의 정보를 미리 입수합니다. 때로는 CEO와 결탁하기도 하고, 증권사 직원이나 애널리스트와도 교류를 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 세력의 먹이사슬

**흔** 히 세력들이 개미들(개인투자자)을 유혹해 물량을 떠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답입니다. 그러나 실은 세력과 세력들 간의 싸움에서 중간에 개미들이 달라붙어 다니는 형국입니다. 중간에서 개미들은 수익도 보고 손실도 보는데, 다만 정보력이나 기술적 분석에 취약한 개미들만이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200만 명? 300만 명? 그럼 투자금액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10억? 5억? 천만에 말씀입니다. 대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은 많아야 대략 5천만 원 정도라 보면 됩니다. 물론 전업투자자나 예상 외로 큰 금액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개인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일반투자자 비율을 보면 전업보다는 각자 본업에 열중하면서 부업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소위 세력주라 불리는 작전주에서는 부업형식의 중·단기 투자자가 아닌 단기 성향이 짙은 일반투자자들 위주로 미끼를 던지며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세력은 절대 일반 개인투자자들만을 대상으로 먹잇감을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개미들은 투자 금액이 대부분 크지 않기 때문이며, 세력들은 중수 정도의 작은 세력들, 이를테면 자본이 많은 개인투자자나 단타성 성향이 짙은 투자자들을 노립니다. 투자금액이 큰 부류를 노려야만 목표로 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반 개인들만을 위한 작전이라면 100전 100패 작전실패로 돌아갑니다. 일반 개인들은 주식 경력도 적을뿐더러 쉽게 뇌동매매를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고가권에서 사기보다는 저가권에서 사려하고, 작은 이익에도 쉽게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주식을 좀 한다는 부류들은 투자금액이 클뿐더러 나름대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가매수에도 대담한 매매패턴을 보입니다. 세력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고가매수자들입니다.

일단 주도세력이 주가를 올리기 시작하면, 기가 막히게 돈 냄새를 맡는 작은 세력들이 하나둘씩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상한가 따라잡기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때부터 세력들 간의 치열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 세력주의 주가 상승 과정에서

**세** 력은 보통 2배에서 3배의 수익을 남깁니다.

목표가는 유통물량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저가대비 100~300%를 잡습니다. 일단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릴 때는 대부분 고가매수, 저가매도 전략을 취합니다.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고가권에서 누군가가 매수해 주어야만 올라가는데,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것은 세력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가매수, 저가매도는 세력 입장에서 손해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고가매수는 주가를 한 단계 업시켜 저항선을 뚫는 역할을 합니다. 일단 저항선이 돌파되면 이전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탈바꿈합니다.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세력은 대부분 미수를 잘 활용합니다. 재미와 세력이 미수를 동시에 활용한다면 과연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미수금액이 큰 세력이 이길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저가매도는 지지선을 깨트리면서 몇 호가 밑으로 주가를 일부러 끌어내리며 다른 세력에서 물량을 넘길 때 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다른 세력이란 서로 약속된 한통속을 말합니다. 때문에 미리 작전대로 물량을 받쳐놓습니다. 다른 세력으로부터 물량을 받은 세력은 새로운 지지선을 구축하며 단타 손절매 물량을 함께 받기도 합니다.

차트는 이때 분봉상 급등락을 연출하며, 새로운 추세점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이평선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며 숨고르기 절차를 밟은 후 계획했던 다음 작전에 돌입합니다. 이를테면 서로 물량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자전거래를 동반시키며 거래량을 급증시킵니다.

이 시점에서 눈여겨볼 것은, 바로 5일이나 10일, 혹은 20일 등의 이평선을 깔고 앉는 특징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지지를 한다는 말입니다. 주가가 상승한 상태에서 지지를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눈치 있는 다른 세력들의 갑작스런 외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추세력 혼자서는 주가를 급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며, 뜻이 있는 세력의 동참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들 세력들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은연중에 연대감이 형성되고, 이어서 작은 세력들은 자신도 모르게 큰 세력에 몸을 굽히며 함께 주가 급등을 연출시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유통주식 수가 100만 주인 주식이 있습니다. 어떤 세력이 작전을 펼치기 위해 긴 시간 동안 20만 주를 확보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작은 세력들 서너 명이 5만 주씩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또한 통 큰 일반 개미들 몇몇이 1만 주씩 보유중입니다. 추세력은 어떻게든 현 주가를 끌어올려 2배 이상 수익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려면 대략 현 주가의 3배 정도는 끌어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력은 고가에서 주식을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평균가는 매집가 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매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0%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대략 200%까지 주가를 급등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추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작은 세력들이 동참해 주지 않습니다. 자본이 많은 추세력이라면 돈의 힘으로 얼마든지 원하는 목표가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러나 자본이 한정된 추세력이라면 일단 적당한 선에서 작은 세력들과 타협을 해야 합니다. 만약 타협이 무산되면, 추세력이 억지를 부릴 때 작은 세력들한테 오히려 물량을 빼앗기기도 하고 도리어 물량만 과도하게 늘어나 작전행동반경이 축소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돌발 심리적 변수로 인해 수급이 따라주지 않으면 세력도 고스란히 물먹게 되는 때가 바로 이 시점입니다.



매집한 물량이 많다고 작전을 펼치기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세력은 항상 유통주식 수에 맞춰 적당한 물량만 매집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보유한 물량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집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팔기도 어렵습니다. 세력은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면서, 동시에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아야 감시의 눈을 피해 작전을 성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 ▶ 세력은 어떻게 개미 물량을 파악할 수 있나?

**정**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세력들 본인의 물량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통물량이 한정된 상태에서 어림잡아 계산해 보면 일반 개미들이 어느 정도 매수를 하고 매도를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미들은 제아무리 난다 긴다 하는 고수도 세력들 물량을 파악하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칼자루는 세력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물량을 알고 있으니므로 거래원 분석 등을 통해 능히 개미들 물량을 유추하는 것입니다. 호가창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세력인데 한 10만주 사자하고 몇 호가 밀로 깔아놓습니다. 그런데 누가 20만 주 사자고 덤으로 올려놓습니다. 이때 세력인 자신의 입장에서 과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세력은 매수·매도 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급등시 개미들이 따라붙는 물량 파악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만약 물량을 떠넘길 작은 세력들이나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따라오게끔 조정도 보이고 다시 급등도 시키고 자전거래를 동반시켜 거래량도 늘리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물량 분산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면, 그때부터는 일관된 매도 작전으로 돌변합니다. 허매수도 쌓아두고 일부러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깨트려도 보고 여러 가지 기술적 방법들을 동원하며 고스란히 물량을 몸집이 작은 세력이나 개인투자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 ▶ 세력은 어떻게 물량을 매도하나

**요** 즙은 세력의 작전형태가 예전과 많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세력은 주세력이 있고 이를 보조하는 보조세력들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5개 팀이 운영되며, 주세력은 매집한 물량을 주로 파는 세력이고, 보조세력은 주세력이 물량을 팔 수 있게끔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합니다. 분위기를 띄우는 방법은 각종 뉴스와 루머를 시장에 유포시키거나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을 통해 공개적으로 호재를 알리기도 합니다. 그밖에 인터넷 증권카페나 사이트를 이용해 슬금슬금 바람을 일으킵니다.

분위기가 고조되기 이전에 일단 모 주식을 A세력이 1차로 급등시키는 상태에서 B세력이 새로운 매수주체가 되어 A세력의 매도물량을 받습니다. 추가조정 후 C세력이 고가매수로 주가를 2차로 끌어올립니다. 이 과정에서 남은 A물량을 B세력이 받고, 그런 다음 B와 C세력끼리 서로 물량을 주고받으며 주가를 한 차례 더 상승시킵니다. 이런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주세력은 보조세력에게 물량을 주는 동시에 대량 자전거래를 동반시켜 일반개미들에게 물량을 모두 나눠줍니다.

평균단가는 당연히 급등하기 이전 수준이기 때문에 사고파는 과정 속에서 거래량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또한 고가권에서 미처 다 처분하지 못한 물량은 반등을 이용해 잔여물량을 모두 전량 처분합니다. 세력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주세력이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주세력도 다른 작은 세력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발 빠른 개미들에게도 당하기도 합니다. 다만 칼자루, 즉 매집된 물량을 쥐고 있다는 장점 하나로 확률상 수익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 ▶ 세력의 의도는 차트에도 나타난다

**세**력의 의도는 일차적으로 차트를 통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력주의 차트는 일봉보다는 분봉차트에서 그 의도를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실력으로 잡았든, 아니면 운이 좋았든 간에 세력주에 올라탄 시점부터는 일봉과 분봉, 이평선, 지지선 여부 등을 한순간도 한눈팔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하루종일 6시간 동안 모니터만 쳐다보는 고충이 있다 하더라도, 단 며칠 만에 은행에 몇십 년 동안 넣어둔 이자 이상의 수익을 보장받는데 그 이상의 고통인들 왜 못 참겠습니까?

### ▶ 세력주에 편승하려는 일반 개미투자자의 자세

**세**력주, 일명 급등주는 수익이 큰 만큼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미수나 물빵(올인) 같은 매매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수익이 크게 난 주식은 다시 돌아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후유증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미련이 남는다면 소액으로 철저히 단타로만 일관하도록 합니다.

무엇보다 될 수 있으면 유통주식 수가 적은 급등주에는 올라타지 않도록 합니다. 주식 수가 극히 적은 주식은 급등시 따라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령 운 좋게 매수했다고 해도 상투권이 극히 짧기 때문에 급락시 팔지도 못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통주식 수가 알맞은 급등주, 특히 거래량이 실리며 급등하는 주식일수록 팔 기회를 충분히 줍니다.



# 일반개미는 세력을 이기지 못한다 1







## 급등주의 일반적 조건

### 1. 수급상 조건

- ① 수급상 매수자도, 매도하고자 하는 물량도 거의 없는 거래공백상태(거래량 바닥)
- ② 장기간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 개인투자자가 대부분 포기하는 주식
- ③ 매스컴과 시장에서 소외되고 오랫동안 못 오른 주식
- ④ 자본금이 적은 주식(100억 미만의 소형주)
- ⑤ 대주주 지분이 낮은 주식(M&A 대상)
- ⑥ 주가탄력성이 크고 매물부담이 적은 주식
- ⑦ 왜 오르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주식
- ⑧ 주가가 하락할수록 거래량이 늘어나거나 폭락 후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주식
- ⑨ 세력들이 작전을 하기 쉬운 주식(저평가, 물량 적당, 오를 명분이 있는 종목)
- ⑩ 시장 인기 테마주(업종 대표주)

### 2. 기본적 분석 조건

- ① 부실기업에서 우량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관리종목 탈피)
- ② 반기실적이 대폭 호전되는 경우
- ③ 실적호전의 원인이 부동산 매각인지 매출증대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사실 여부
- ④ 영업이익 개선 여부

- ⑤ 매출채권(외상매출)이 급증했다가 급감하는 경우
- ⑥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이 대폭 높아진 경우
- ⑦ 기업외적 변화(금리인하)에 크게 민감한 경우
- ⑧ 신상품이나 신기술 개발에 대한 향후 기대이익
- ⑨ 정책이나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기대주
- ⑩ 우수한 경영자 교체

### 3. 기술적 분석 조건

- ① 이동평균선이 박스권에서 장기간 횡보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경우(이평선 수렴)
- ②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급증하는 경우(3배 이상)
- ③ 이동평균선 역배열 상태에서 이격도가 큰 경우
- ④ 최저점에서 3중바닥을 만드는 경우
- ⑤ 적삼병 출현 후 고점을 돌파하는 경우
- ⑥ 신저가 투매종목(바닥권에서 갭하락 3번 이상)
- ⑦ 장단기 급락 후 셋별형이나 상승장악형 출현
- ⑧ 장기간 하락추세선을 상향돌파하는 경우
- ⑨ 5일 변곡점 탄생과 함께 갭 상승으로 상승하는 경우
- ⑩ 5일, 10일, 20일, 60일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된 후 그 간격이 좁아지면서 서로 꼬이는 종목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기술적 분석을 마스터하고 차트대로 매매를 하는데 손실이 나는 것일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전형적인 급등주가 하나 있습니다. 1차 급등을 완료한 후 숨고르기에 들어갑니다. 이어서 2차 급등을 위한 힘찬 빨간색 양봉이 출연하면서 상한가로 종가를 마감합니다. 이때 매수기회를 엿보던 일반투자자들이 너도나도 2차 급등 시기가 도래했다고 좋아합니다. 차트를 볼 줄 아는 투자자들은 때로는 분할매수로 또는 몰빵까지 감행하는 도박을 벌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2차 급등은커녕 지지선을 갱 하향이탈하며 하한가로 직행합니다. 즉, 이 시점에서 그동안 배워온 차트분석을 믿고 투자한 이들은 큰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이 결과 차트는 참고만 하되 절대 믿지 말자는 의식이 싹튼니다. 이런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은 이후부터 조심하면서 차트 위주가 아닌 감으로 승부하는 경향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차트는 절대 속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위 예를 통해서 보면 차트는 분명 속임수 차트로 결론이 납니다. 그러나 그 속임수 차트도 자세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단순히 일봉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60분봉, 30분봉, 거래원, 거래량, 보조지표 등등을 함께 보기 바랍니다. 1차 급등 후 대량거래가 발생했는지, 지지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했는지, 상한가 대량거래가 있었는지, 체결강도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단기 OBV 지표가 꺾였는지 분명히 급락 전 하락을 암시하는 어떤 징후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것을 포착하지 못한다면 지금껏 여러분이 배운 차트분석은 한낱 기초수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어떤 세력이 해당 주식을 힘껏 끌어올린 상태에서 예정대로 숨고르기를 진행시킵니다. 이어서 2차 급등을 시도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의외로 많은 개미들이 들어왔다는 판단이 앞섭니다. 이때 만약 여러분이 세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주식은 한쪽이 돈을 벌면 다른 한쪽이 반드시 잃어야 합니다. 절대 함께 가지 못합니다.

**냉**혹함을 자랑하는 주식시장에서는 관대함이나 넓은 아량은 추호도 없습니다. 무조건 수익을 위해 존재하는 치열한 전 쟁터입니다. 따라서 세력은 그럴듯한 차트를 만들어가는 동시에 매도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원을 바꿔가며, 자전거래를 동반하고, 동시호가잔량을 이용하며, 허매수를 동원하며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 물량을 처분해



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앞의 예처럼 2차 급등을 알리는 신호를 차트에 만들어 내면서 세력은 나머지 물량을 개미에게 떠넘기며 유유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차트를 100% 볼 줄 안다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영원히 살아남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 돌발변수가 늘 있으며, 심리적 요인도 크게 작용합니다. 또한 세력도 자신들이 보유한 물량과 개인들이 보유한 물량 등을 저울질하면서 그때그때 상황변화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예상된 차트에 어긋나는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돌발행동 조차도 고스란히 차트에 그려집니다.

강조하는 것은 절대 차트를 불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식을 하려면 일단 차트는 절대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하며, 순간순간 돌발현상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길러야 합니다. 상승형 속임수 차트이든 하락형 속임수 차트이든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반듯이 어떤 암시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일단 자신이 생각하고 예상한 대로 그려지지 않는 차트라면, 비록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도 재빨리 손절매를 감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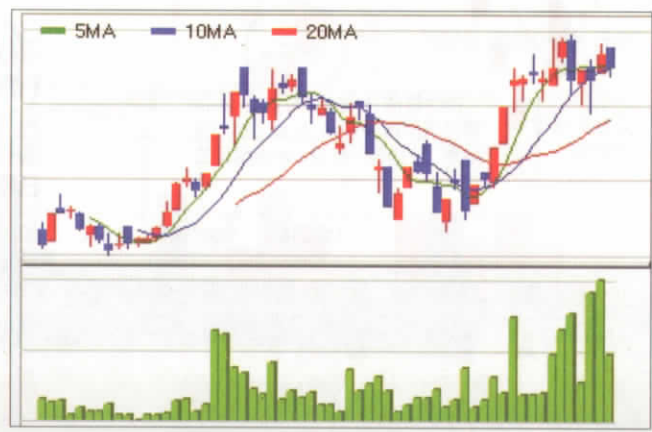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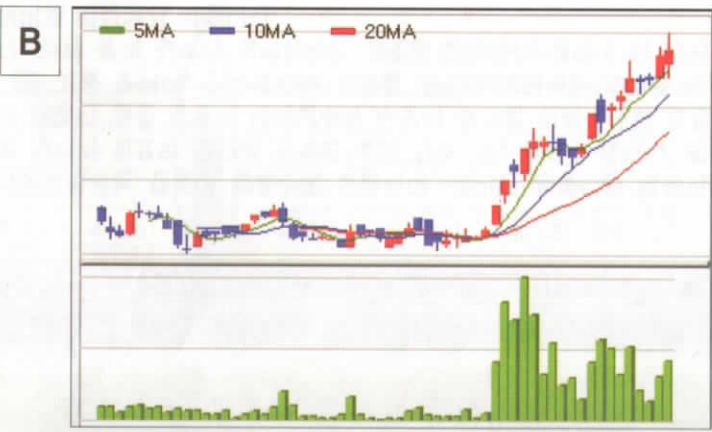


### 예쁜 차트가 보기에도 좋다

인간 사회에서도 잘생긴 사람이 첫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심듯이 주식시장에서도 일단 차트가 예뻐야 좋습니다. 차트가 예쁘다는 말은 특정 세력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과 상통합니다. A에 있는 2개의 차트를 살펴보면, 일봉의 길이가 유난히 들쭉날쭉합니다. 그만큼 투자자의 심리에 매우 민감한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류의 차트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좀처럼 들어맞지 않습니다. 즉, 세력이 있긴 하되, 자본이 극히 적은 투기성 세력만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반면 B 그림을 살펴보면, 주가의 횡보와 상승과 하락 과정이 유난히 예쁜 곡선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본이 큰 세력이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상승폭도 큰 만큼 하락폭도 크지만, 지지선이나 저항선 설정을 비롯해 대체로 기술적 분석이 어느 정도 들어맞는 차트입니다. 일반투자자들은 A와 같은 차트가 아닌 B와 같은 차트에서 매매를 해야 차트분석을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가 예뻐수록 지지시점과 상승, 하락시점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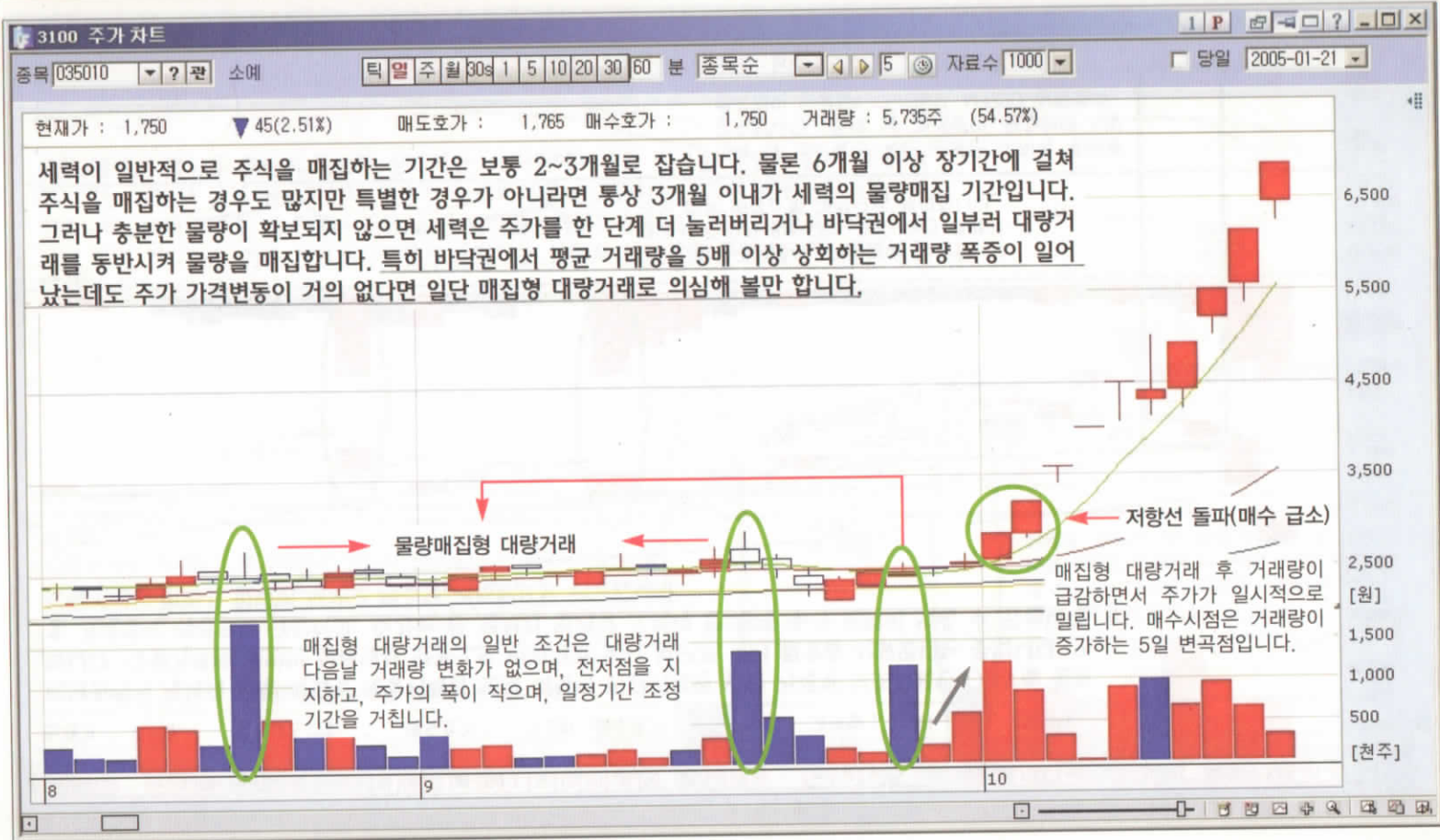


급등주의 캔들은 짧아야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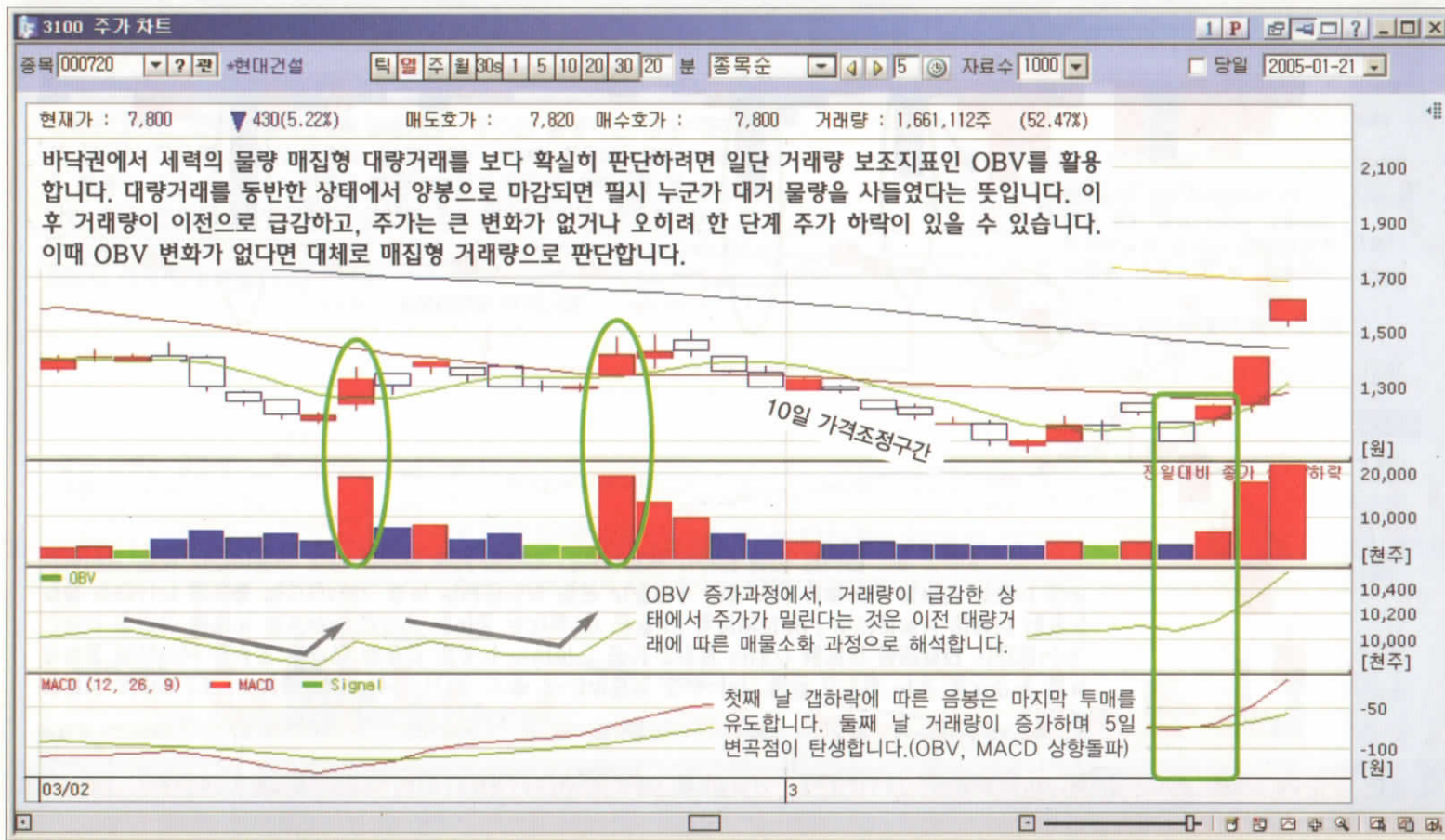


# 단기매집은 대량거래를 통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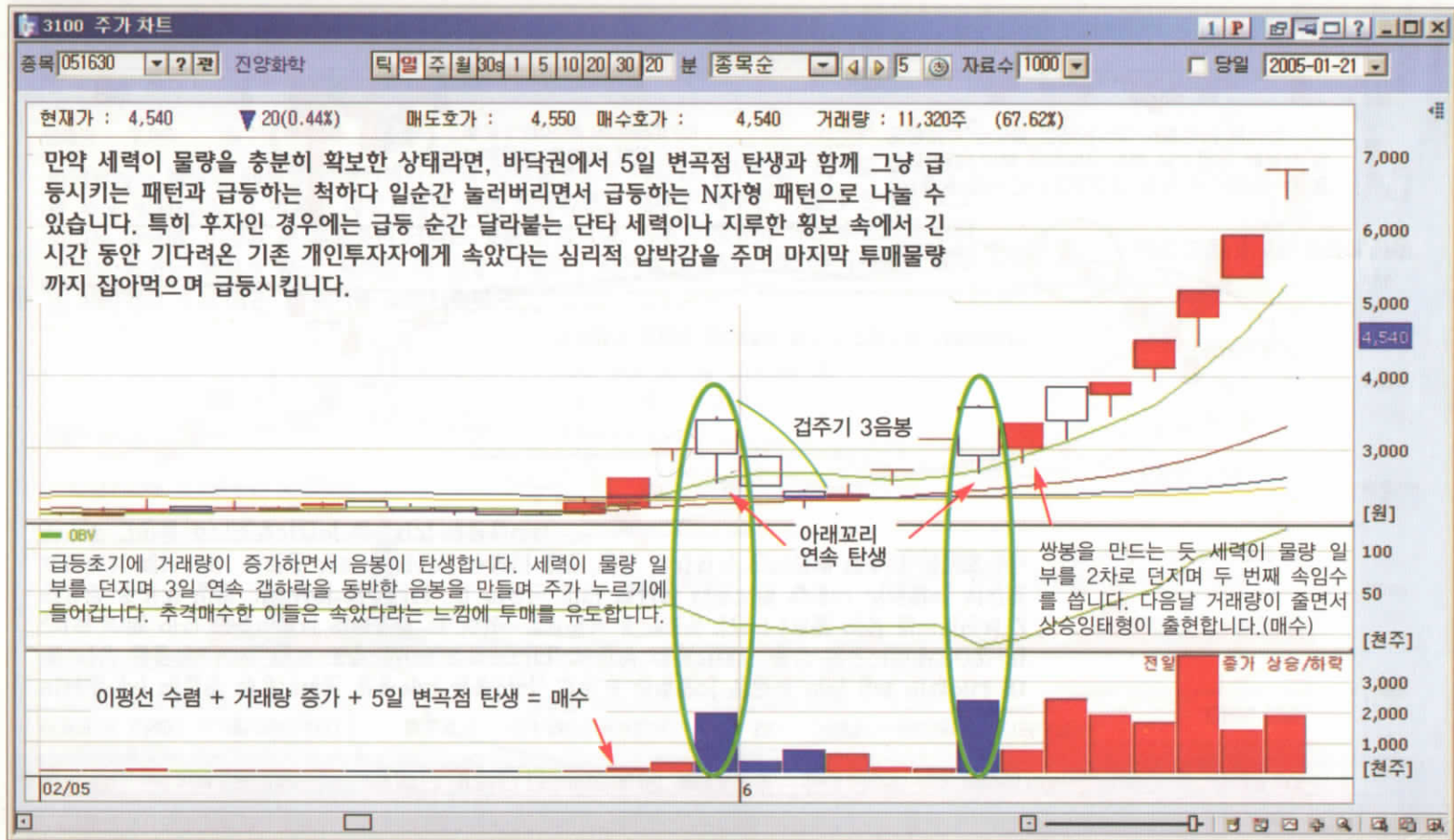
▶ 바닥권에서 대량거래가 일어났다고 모두 매집형 대량거래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물론 매수시점도 아닙니다. 차후 주가변화와 거래량 변화를 필히 참조해야만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매집형 대량거래의 맥을 찾아라



▶ 보조지표를 활용할 때는 어떠한 경우이든 최소한 2~3개 이상의 지표를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거래량 지표인 OBV인 경우 2~3일 내의 단기적으로는 신뢰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MACD나 스토캐스틱보다 신뢰가 낮습니다. 이런 보조지표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되도록 많은 지표를 동시에 참조하는 방법에는 없습니다.

# 세력이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는 겁을 준다



▶ 강한 하방경직성을 자랑하는 상태에서 대량거래에 따른 음봉은 종가가 최저가에서 마감하느냐, 아니면 아래꼬리가 달린 채 마감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래꼬리가 생겼다는 것은 장중 저가에서 누군가 물량을 흡수했다는 것이고, 다음날 거래량을 줄이며 음봉 몸통 안쪽에 양봉이 탄생하고, 셋째 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전일 양봉의 고점을 지지한다면 상승확률이 높은 캔들 패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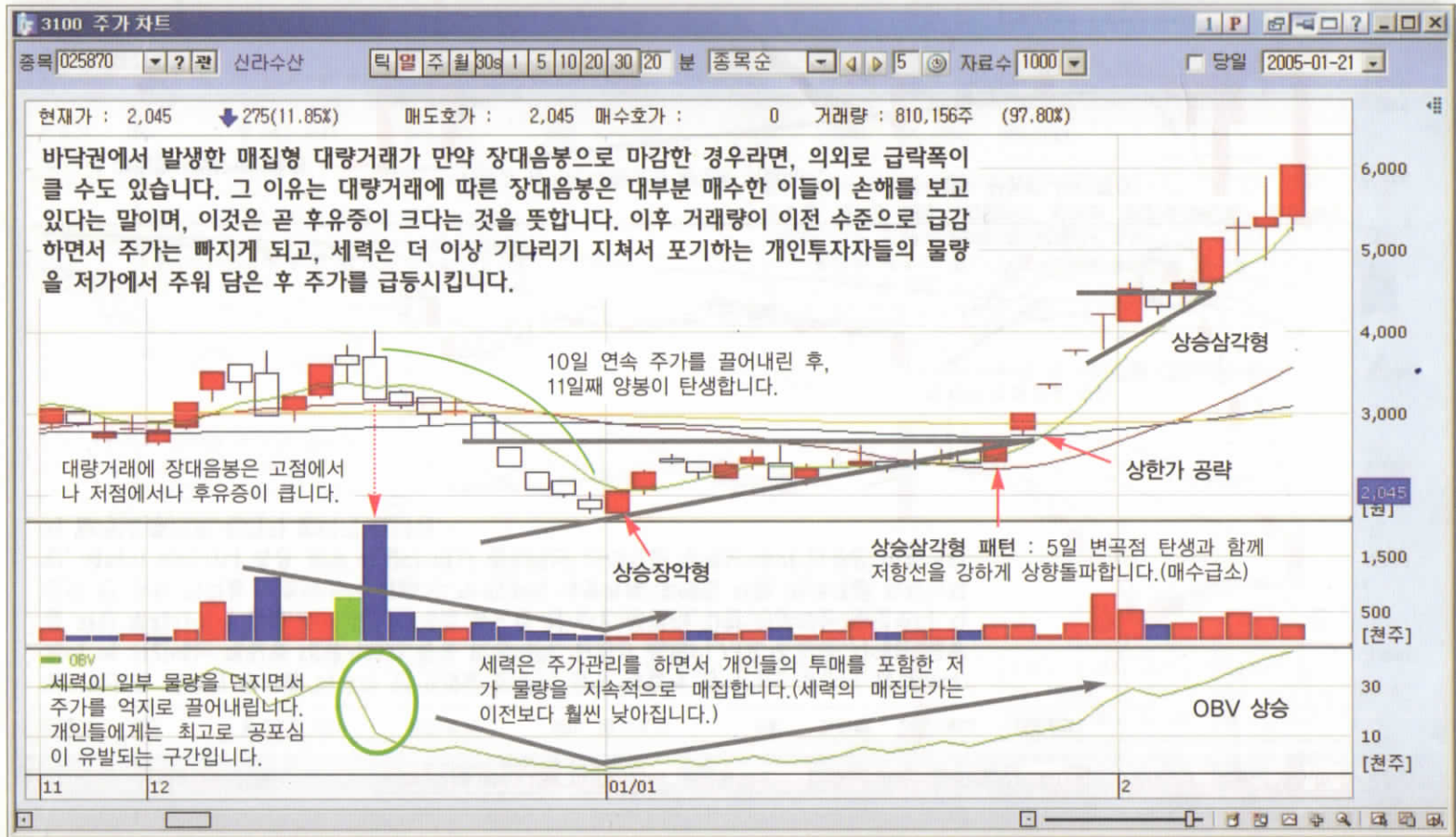


## 매집형 대량거래에서(양봉형) 주가를 빼는 경우 1



▶ 매집형 대량거래 후 45일~60일(2개월 전후) 정도 지나서 시점을 주시해야 하고, 이때는 특히 거래량 변화에 민감히 반응해야 합니다.

## 매집형 대량거래에서(음봉형) 주가를 빼는 경우, 2



## 매집형 대량거래는 통상 급등 2개월 전에 발생



▶ 바닥권에서 평균거래량의 10배가 넘는 대량거래가 터졌다면, 매수하는 시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통상적으로 바닥권 대량거래가 발생한 이후에 1~2개월은 세력의 주가조정기간입니다. 따라서 대량거래 이후 거래량이 급감한 상태에서(거래량 바닥)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는 시점부터 관심을 갖고 매수급소를 노려야 합니다.



# 세력의 교묘한 물량매집 패턴



물량털기용 속임수 대량거래를 조심하라



▶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바닥권에서 대량거래는 절대 매수하는 시점이 아닙니다. 매집용인지 물량털기용인지는 대량거래 이후 조정기간에서(1개월~2개월) 판가름나기 때 문입니다. 성급한 추격매수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거**래량은 마치 동전과 같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면은 항상 밝고 희망차 보이지만, 뒷면은 언제나 어둡고 불안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주식에서 특정한 매물대나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에는 거래량이 많아야 좋다고 배웠습니다. 특히 저점에서 대량거래는 상승의 직접적인 신호탄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닥권에서 대량거래는 매우 해석하기 어려운 여러 돌발 변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량거래의 기준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0만 주가 대량거래 아니면 1,000만 주? 대량거래의 기준은 몇 주가 움직였느냐가 아니라 '평균거래량'과의 차이를 비교평가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1~2개월 정도의 평균거래량보다 10배 이상 급증하는 경우를 흔히 대량거래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루 평균 100만 주 미만의 종목이 어느 날 1,000만주를 훨씬 뛰어넘는 거래량 폭증이 일어났다면 이때가 바로 대량거래가 일어난 시점입니다. 반면 평균거래량의 300% 정도를 매우 양호한 거래량 증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5일 변곡점을 매수시점으로 삼는 첫 번째 기준이 바로 거래량이 최소 100%에서 최대 500% 정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량거래는 무엇보다 세력들의 자전거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즉, 세력들이 서로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거래량을 일부러 늘립니다. 그럼 왜 세력들이 거래량을 폭증시킬까? 유통물량이 1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어째서 1,000만 주 이상의,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엄청난 거래량이 왜 단 하루 만에 발생한 것일까? 대부분의 대량거래는 고점이든 저점이든 세력의 물량털기용 거래로 보면 됩니다. 일반 거래량으로써는 물량 소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대량거래를 연출하는 것입니다(참고로 고가권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대량거래 발생 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증소형주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고가물량매집 패턴으로 해당 기업의 엄청난 호재가 숨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OBV와 체결강도 및 그밖의 지표를 통해 추가매수도 노려볼만한 타이밍입니다.).



상승할 주식은 대량거래를 통해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바닥권에서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주가는 하락하며 양봉 혹은 음봉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음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원상태로 복귀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시점에서 주식을 사는 개인투자자들이 유독 많습니다. 이때는 매수가 아닌 매도시점입니다. 간혹 중소형주 중에서 단발성 대량거래가 터진 후, 다음날 주가가 더 빠지거나 잘해야 이전 주가 수준을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닥권에서 대량거래는 세력의 물량매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어떤 심리적 요인으로 거래량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한번 거래량이 터지니 그동안 눈여겨보던 여러 개인투자자가 너도나도 이 기회에 한번 배팅이나 해보자는 식으로 몰려옵니다. 주가 변동폭이 커지니 데이트레이더도 가세합니다. 하지만, 단 하루 동안의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음날 주가는 그대로고 거래량 또한 대량거래 이전과 동일하게 줄어들립니다. 대량거래의 투기적 허매수가 사라지자 장중 고가에 매수한 이들은 그대로 단타받이가 되어 장기간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줍니다.

**바** 닥권에서 일어나는 대량거래는 단기 급락한 경우에는 급반등도 노려볼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추세나 장기간 횡보 중인 경우에는 절대 매수해서는 안 되는 구간입니다. 대량거래 이후의 거래량도 확인하고, 이평선 지지 여부도 확인하고, 그밖에 지표들을 통해 이제는 충분한 물량조정을 한 만큼 곧 상승이 임박했다고 판단이 설 때에만 조심히 매수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 급등주에서의 일반적 거래량 법칙



▶ 주가가 급등하거나 상승하려면 일단 급등 초기 바닥권에서는 대량거래가 없어야 합니다. 큰 세력이 관리하는 주식일수록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는 급등할 가능성이 큼니다.

## 급등주 초기의 거래량 변화

### 1. 급등 전 주가 변동폭은 크지 않습니다.

주가 횡보 중 거래량 변화없이 하락하는 경우는 일단 상승을 위한 흔들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 횡보 중 거래량 변화가 없다는 사실은 누군가 주가를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시점에서 거래량 없이 주가가 한 단계 하락한다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투매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증장기 이평선이 모두 하락추세인 경우에는 거래량 변화가 없는 한 추가 하락 가능성이 큽니다.

### 2. 급등 시점이 다가오면 거래량 변화가 옵니다.

세력의 물량매집용 거래량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대량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개월 이상의 조정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대량거래 후 거래량 변화가 들쭉날쭉 일정하지 않다면 급등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것은 세력이 주가 관리를 포기한 것을 말합니다.

### 3.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합니다.

20일 평균거래량을 상회하는 계단식 거래량 증가가 일어난다면 매수관점으로 접근합니다. 대형주일수록 거래량 증가는 뚜렷하지만, 소형주일수록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를 좌우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가 정확히 매수시점을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지지선과 저항선을 설정하고, 양호한 거래량 증가와 함께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시점을 매수시점으로 삼습니다. 만약 거래량 없이 3번 연속 갱상한가로 급등한다면 큰 미련은 갖지 마시고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4. 거래량이 증가하다 급감한 다음 다시 증가합니다.

가장 정석적인 초기 급등주의 거래량 모습입니다. 일단 거래량이 증가하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그러다 거래량이 다시 줄어들면 이내 관심을 보였던 투자자들이 실망을 하고 매수시점을 다소 늦춥니다. 여기서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면, 기다리고 있던 매수 대기자들은 이전과 같은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적극적인 매수는 자제합니다. 세력은 이때를 노려 주가를 힘차게 급등시킵니다.

### 5. 거래량이 증가하자마다 급등합니다.

대표적인 세력 관리주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이미 물량매집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기 매수자가 추격할 틈도 없이 곧바로 급등시킵니다. 이런 급등주는 대부분 세력이 매우 철저하게 주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개인투자자가 선취매하지 못합니다. 즉, 세력은 급등시킬 명분만 찾으면 언제든지 올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 급등주 거래량의 맥을 찾아라(이평선 밀집형) 1



급등주 거래량의 맥을 찾아라(이평선 밀집형) 2







급등주 거래량의 맥을 찾아라(역배열형)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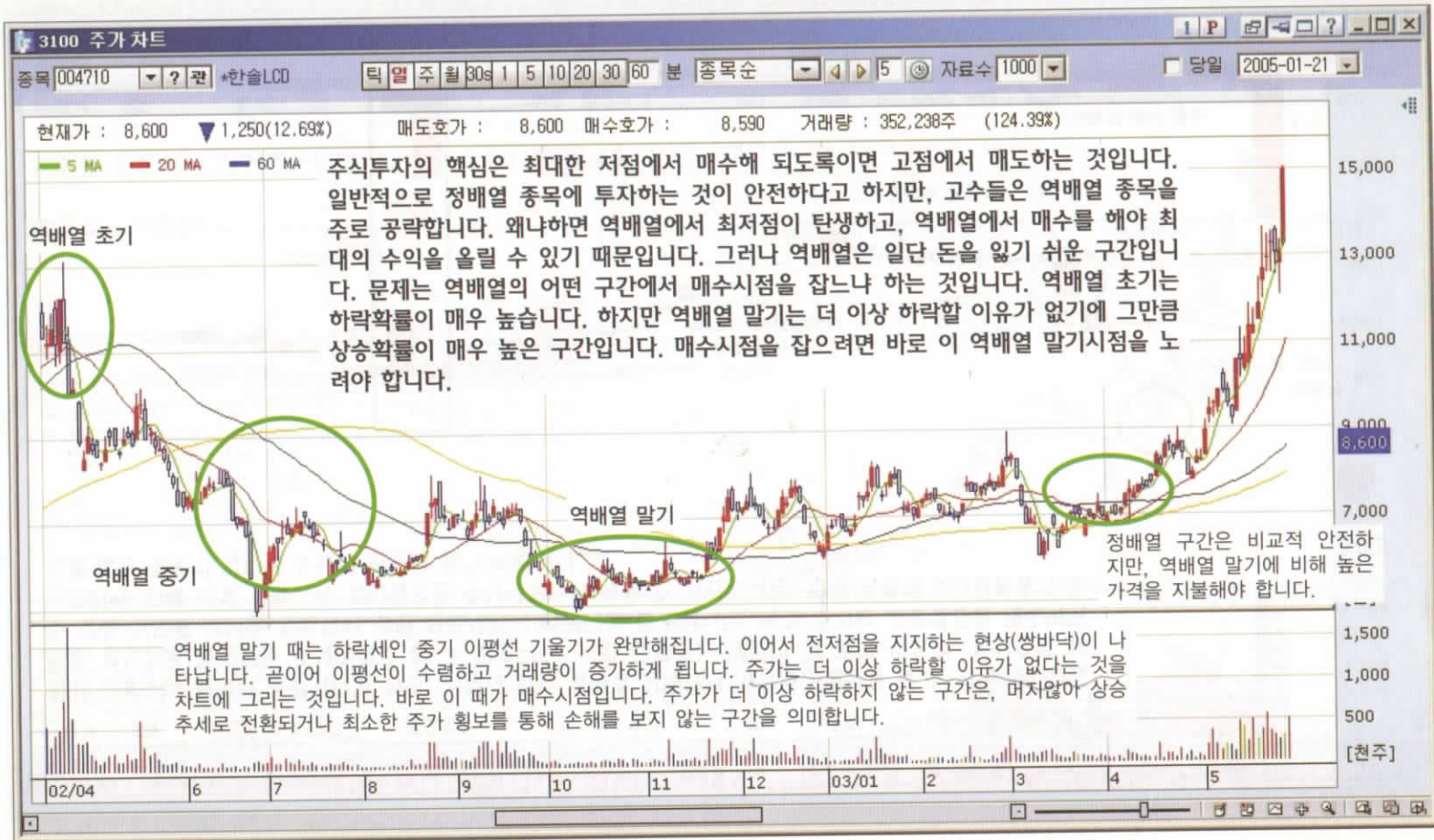


# 초급등주는 120일선을 점상으로 돌파한다



▶ 120일선은 주식시장에서 무려 6개월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주식들은 이 시점에서 저항을 통한 되돌림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고수는 정배열이 아닌 역배열에 관심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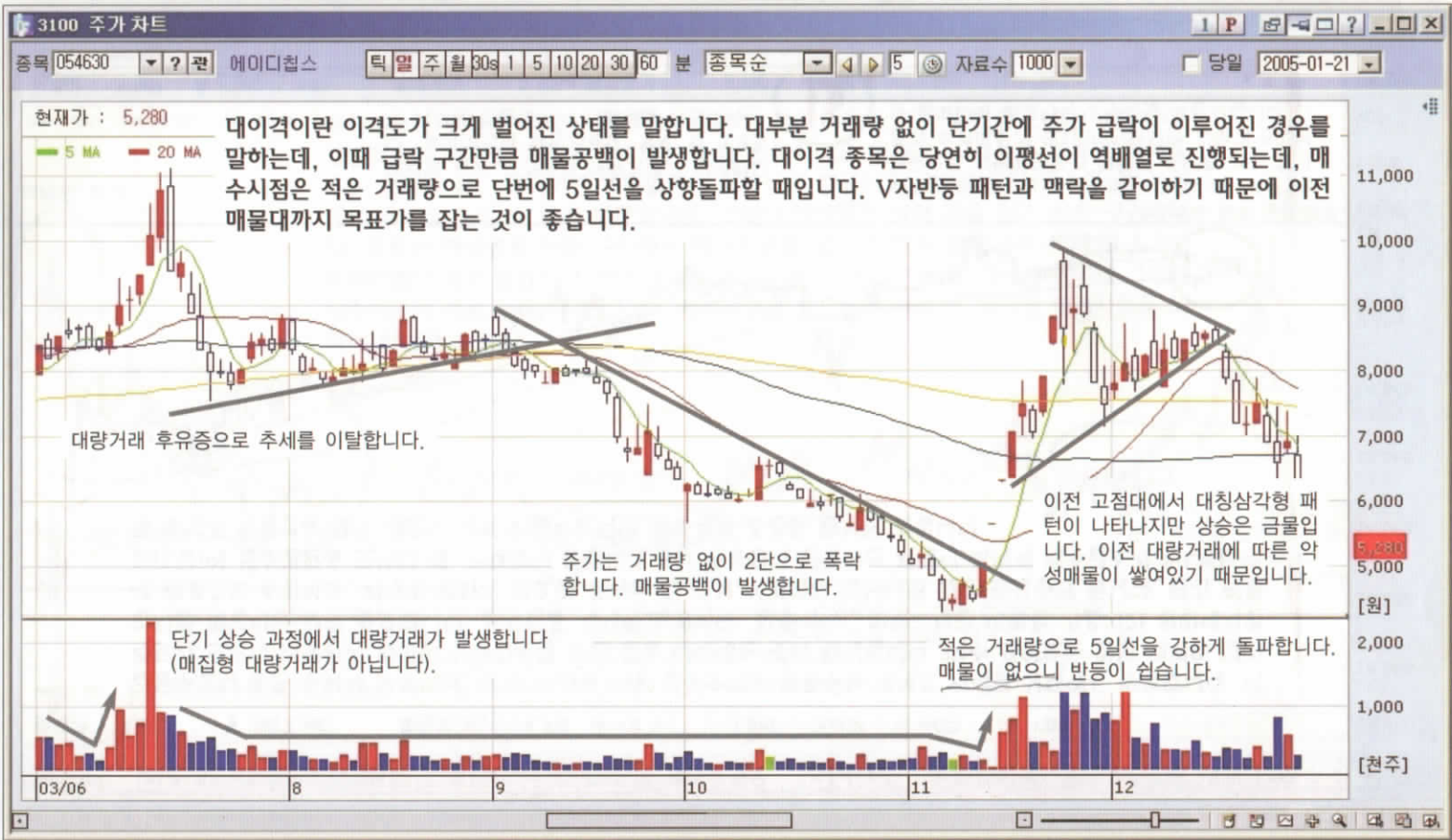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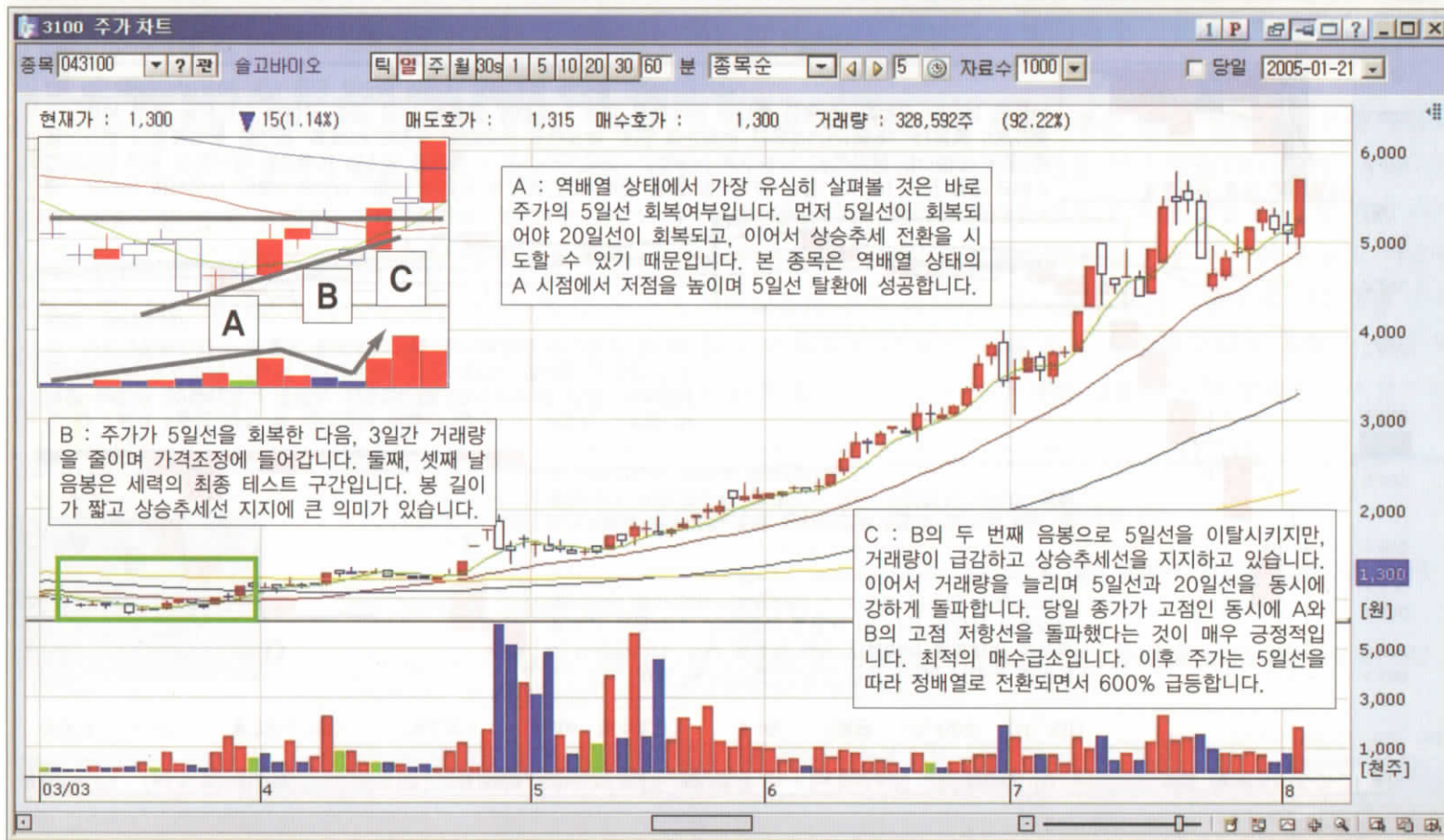
# 기 폭등주는 역배열에서 찾아라



▶ 일반적인 거래량 합에 따른 급등주 예상 상승폭 : 매진과정의 긴 횡보 구간을 거치면서 급락시 거래량이 총발행주식의 40%를 넘으면 약 300% 급등, 급등초기 3일 동안의 거래량이 총발행주식의 50%를 넘으면 전고점 대비 약 200% 상승(3일 동안 50% 미만이면 500% 상승)

대이격 종목은 매물공백을 노린다







## 역배열 후 매수급소 2





**이** 장에서는 급등주에 대한 일반적 이론이나 기술적 분석을 배제한 상태에서, 오직 급등주 차트만을 나열해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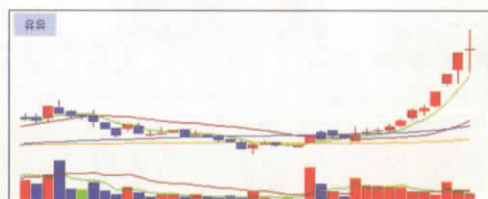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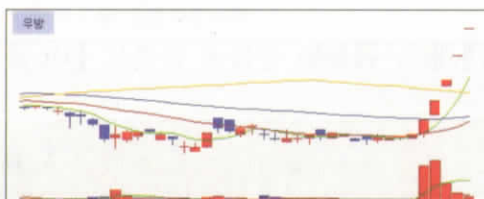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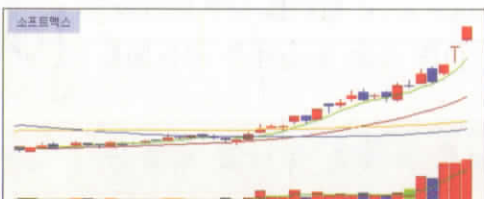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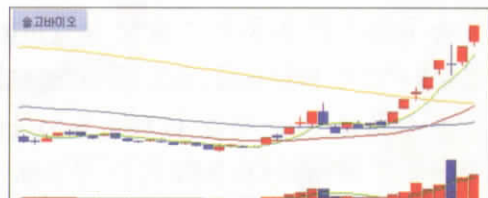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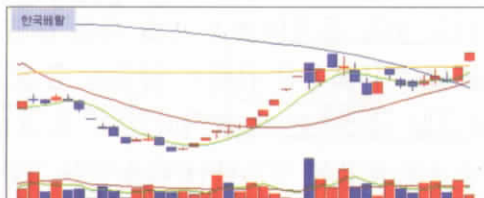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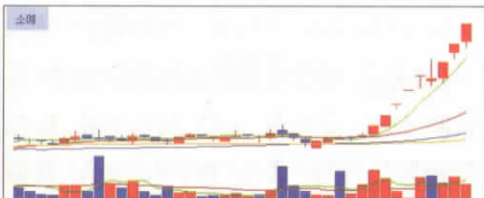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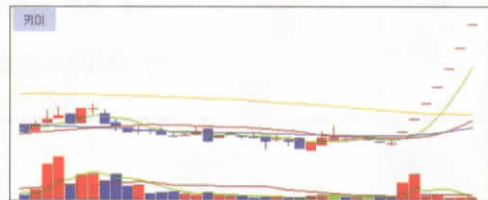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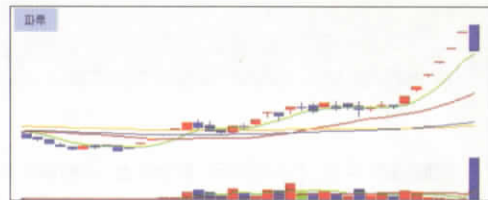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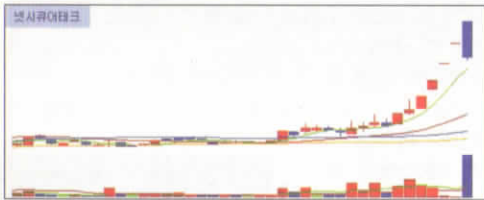
만약 여러분 중에 급등주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면, 증권방송이나 세미나 혹은 ARS 전화 서비스에 도움을 청할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급등주는 나름대로 공통점이나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급등주는 마치 쌍둥이와 같이 동일한 주가 패턴을 차트에 그립니다. 어떤 급등주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최대한 겁을 주어 한번에 주가를 급등시킵니다. 급등주를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동안 급등했던 과거 주식들의 차트를 모두 한자리에 놓고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책이나 방송이나 애널리스트의 말만 믿고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그동안에 급등했던 주식들의 차트를 한자리에 모두 모아 놓은 상태에서, 급등 이전에 주가 변화는 어떻게, 급등 초기 거래량 변화는 어떻게, 급등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서로 비교하며 나름대로 유사한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빠른 급등주 공부 방법입니다.

### 급등주 초기의 공통점을 찾기 위한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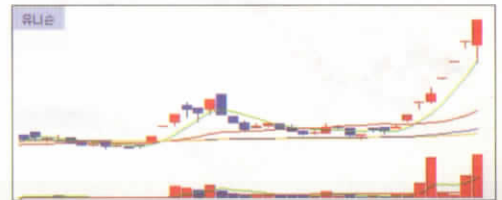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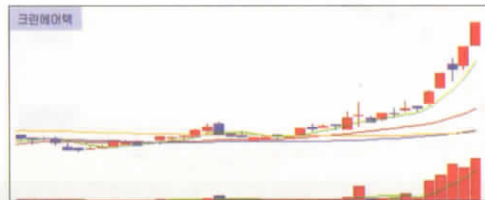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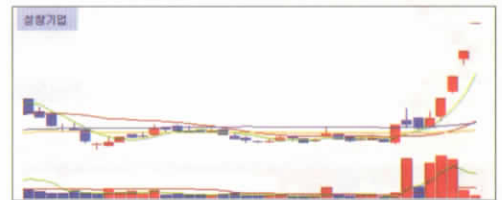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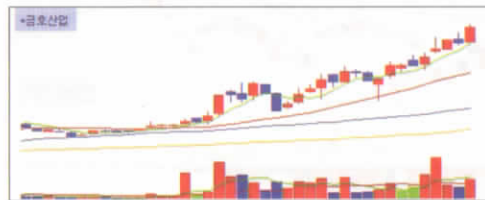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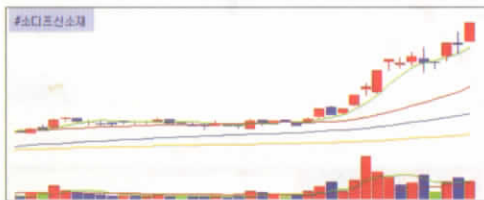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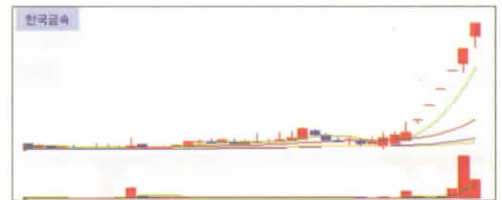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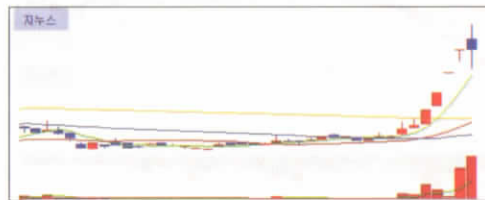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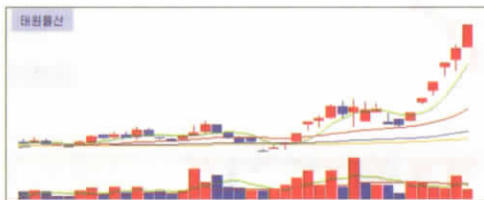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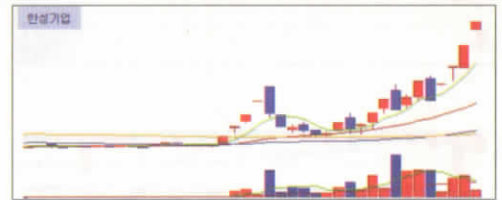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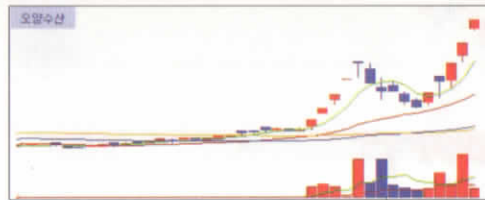
1. 2000년(문지마 시절) 이전의 급등주들은 배제하고, 참고가 될만한 급등주 위주로 나열했습니다.
2. 급등주는 되도록 급등 초기에 잡아야만 안전합니다. 급등 중간에서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이성보다는 감성에 따라 매매패턴을 가져가기 쉽습니다. 따라서 급등주의 초기 모습 위주로 소개합니다.
3. 급등주에는 V자형, N자형, L자형, 역L자형, 역배열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무작위로 보여줍니다. 특정 패턴에만 익숙할 것이 아니라 일단 많이 보고 익히고 참조하라는 의미입니다.
4. 급등 이전과 급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바랍니다. 캔들 모양, 이평선, 거래량 변화 등 급등 초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매우 중요한 투자기준이 됩니다. 반복해서 보면 급등주 차트란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5. 여기서 소개된 급등주 표본들을 실전에 적극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형태가 이 장에서 나열된 특정 급등주 형태와 유사한지, 유사하면 어떤 부분이 유사한지를 비교 확인해 봄으로써 실전매매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급등주 초기의 공통점 찾아보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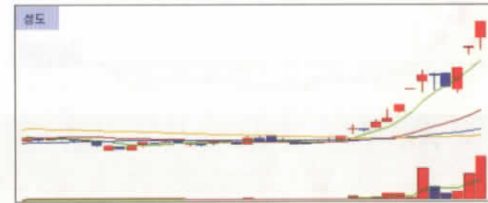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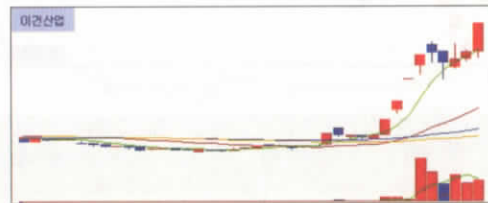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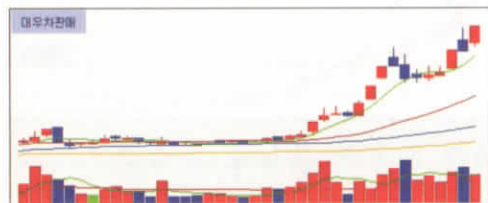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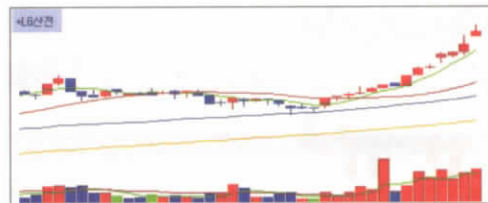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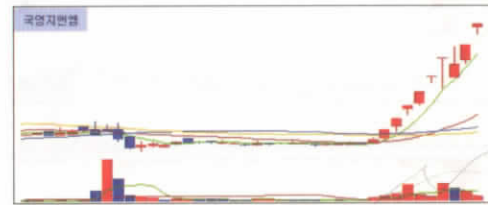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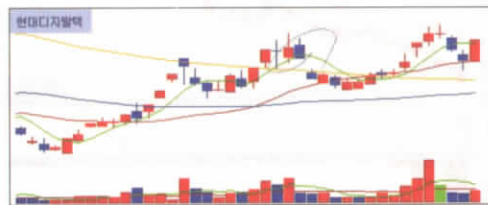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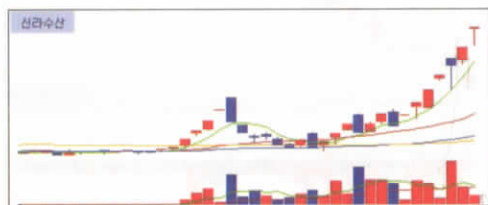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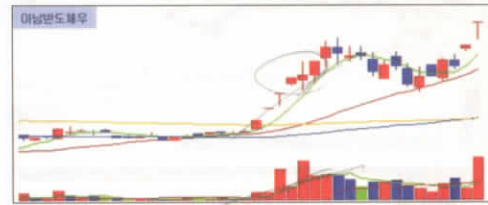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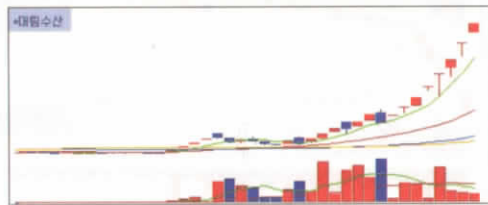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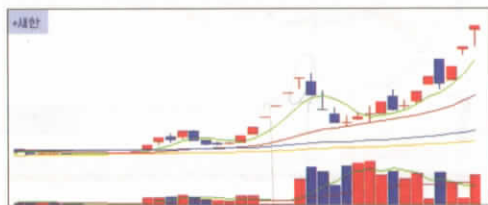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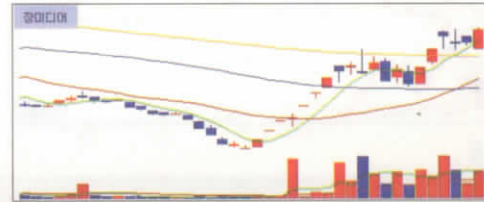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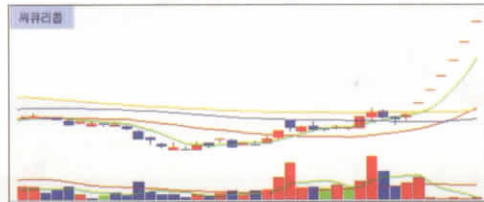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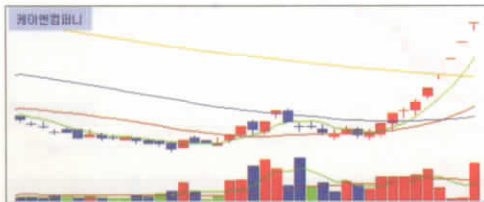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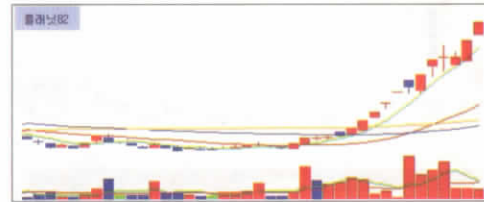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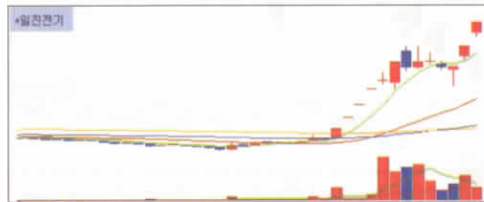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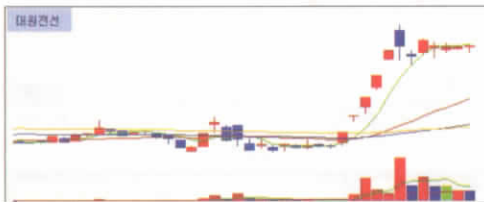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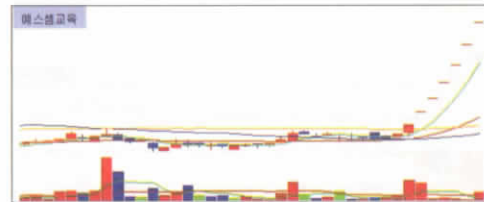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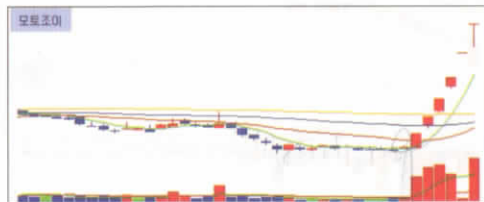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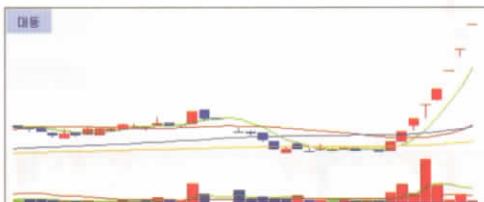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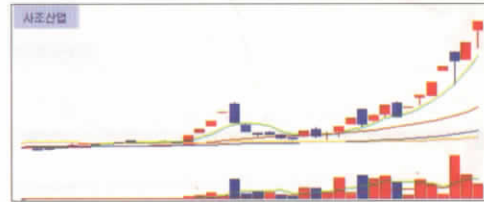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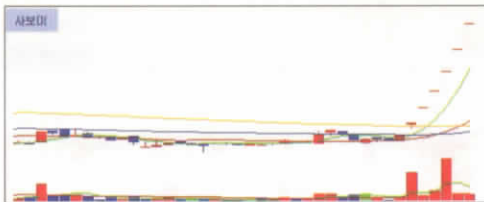




113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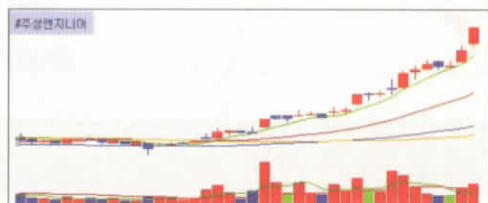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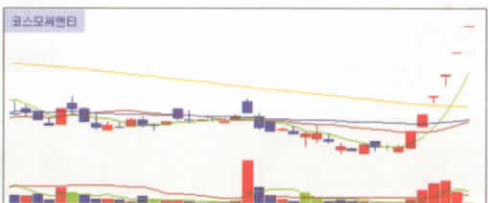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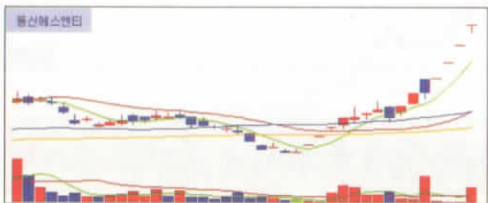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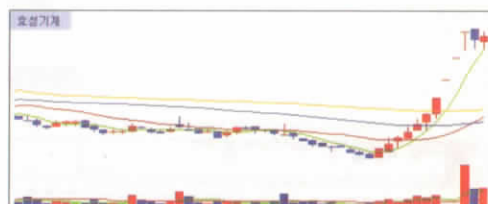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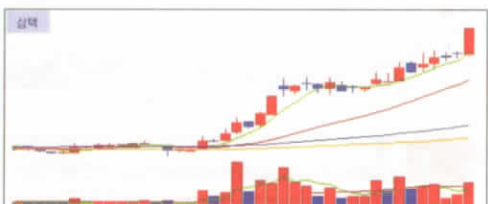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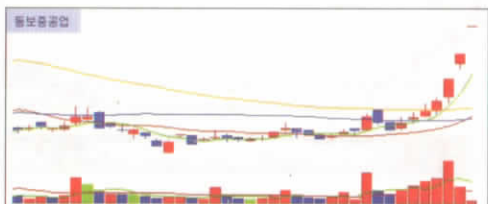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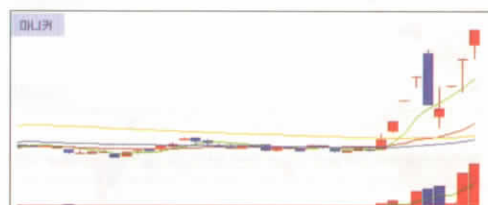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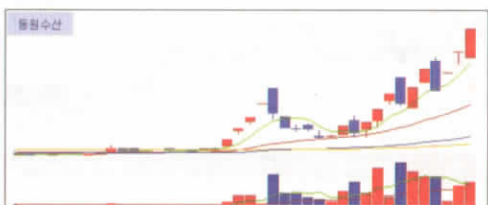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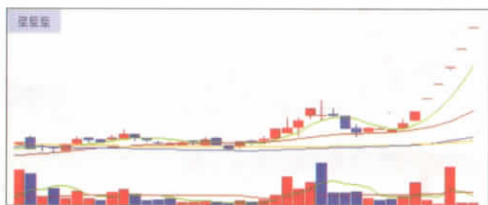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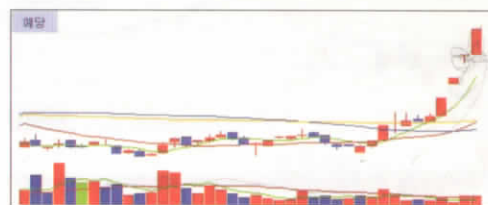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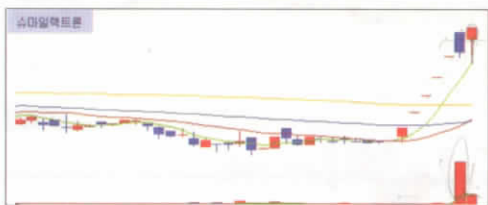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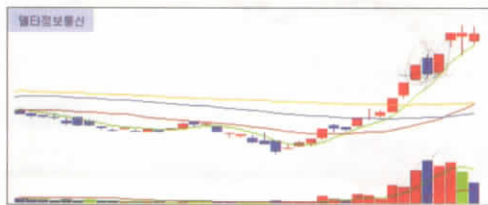
급등주 초기의 공통점 찾아보기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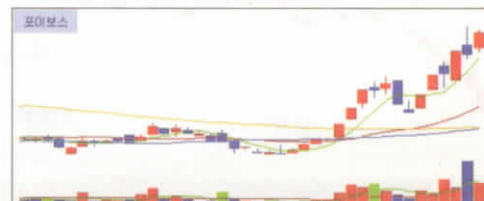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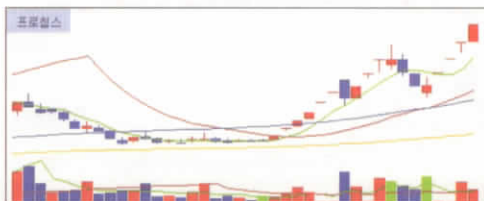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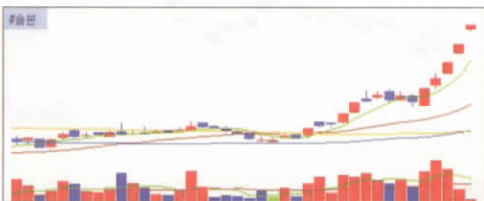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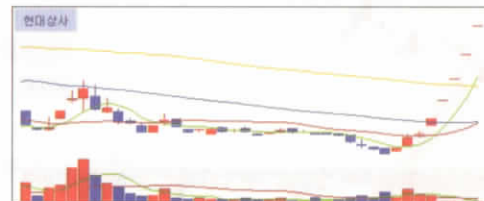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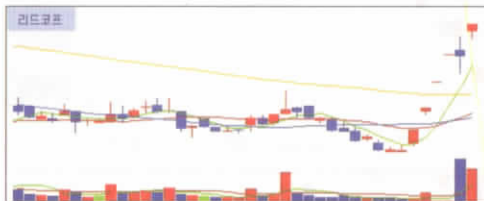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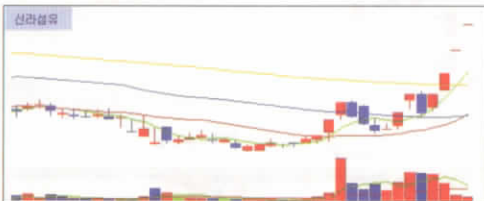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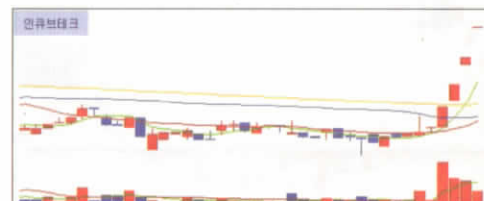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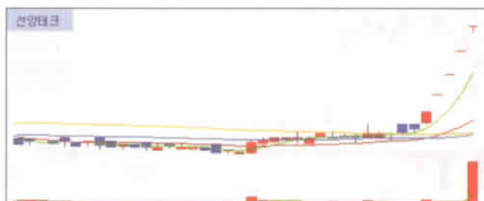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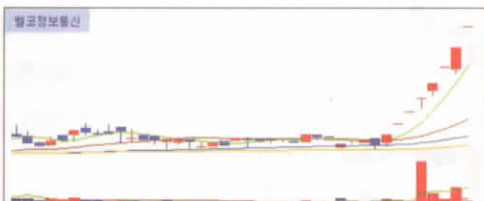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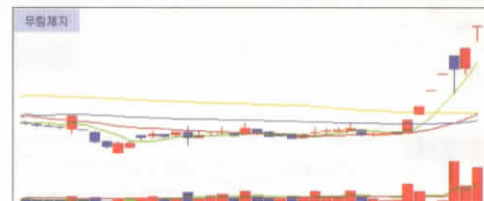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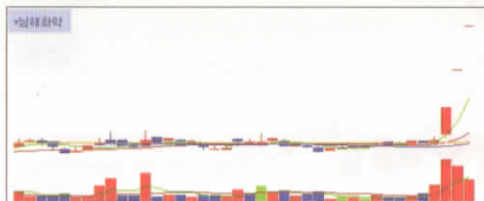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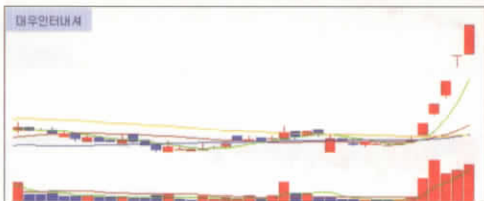


급등주 초기의 공통점 찾아보기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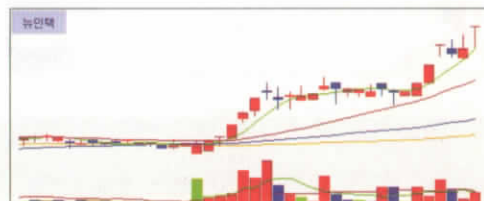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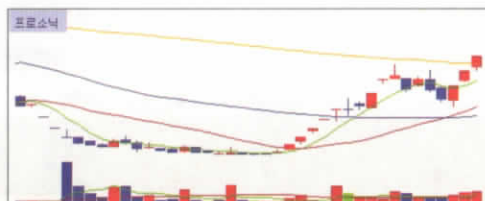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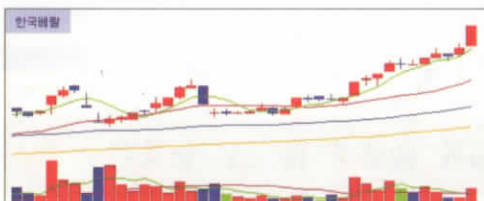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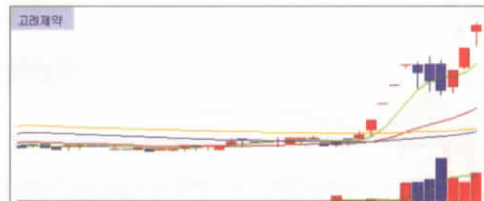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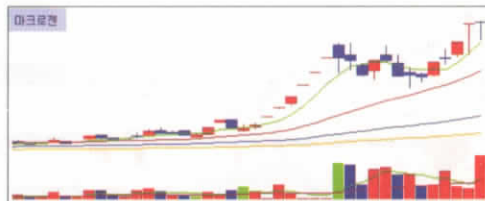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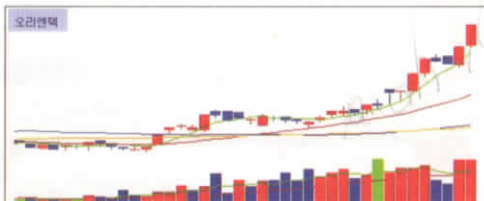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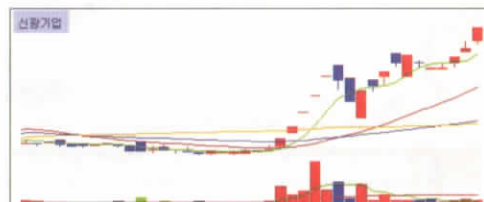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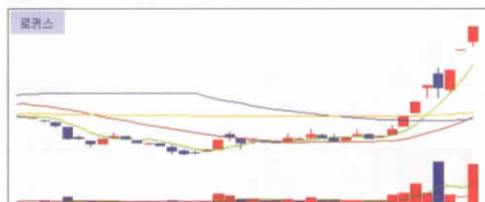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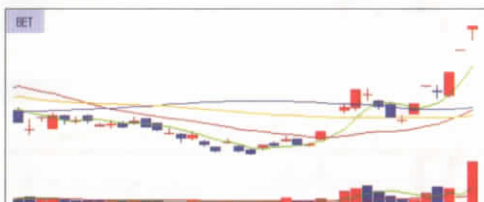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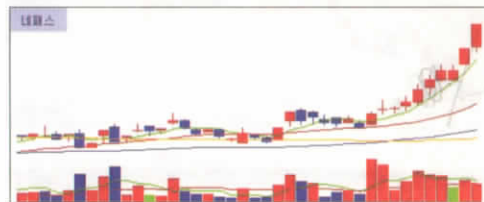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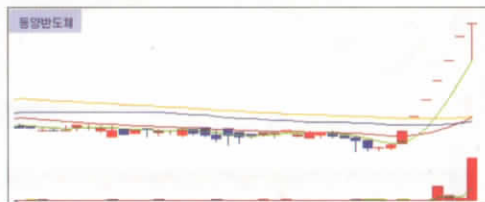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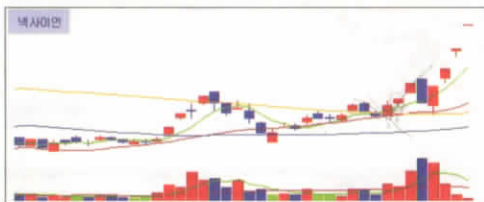


# 급등주 초기의 공통점 찾아보기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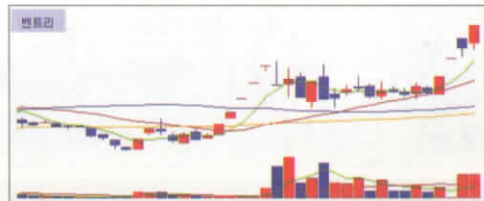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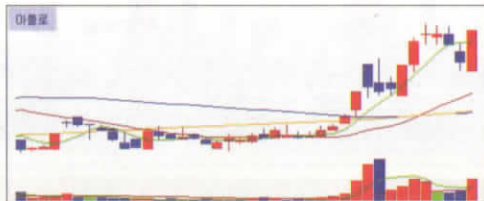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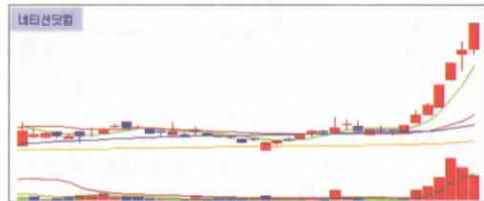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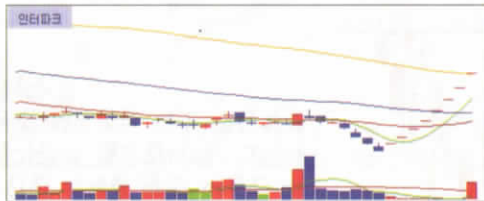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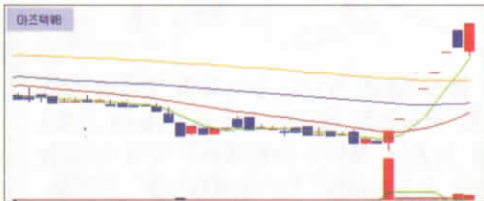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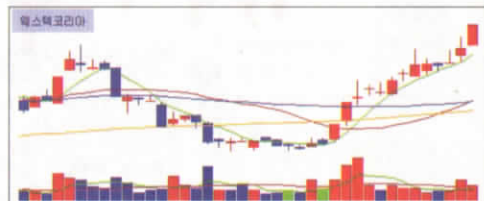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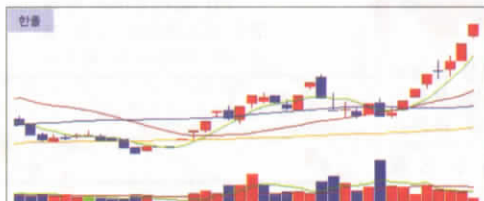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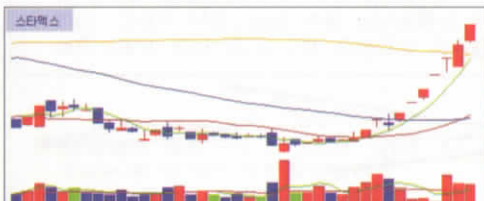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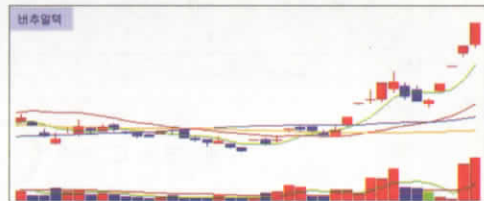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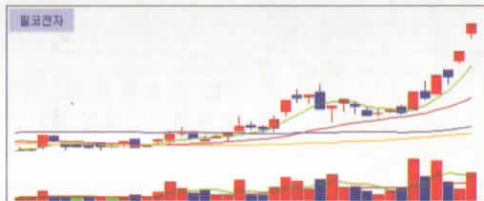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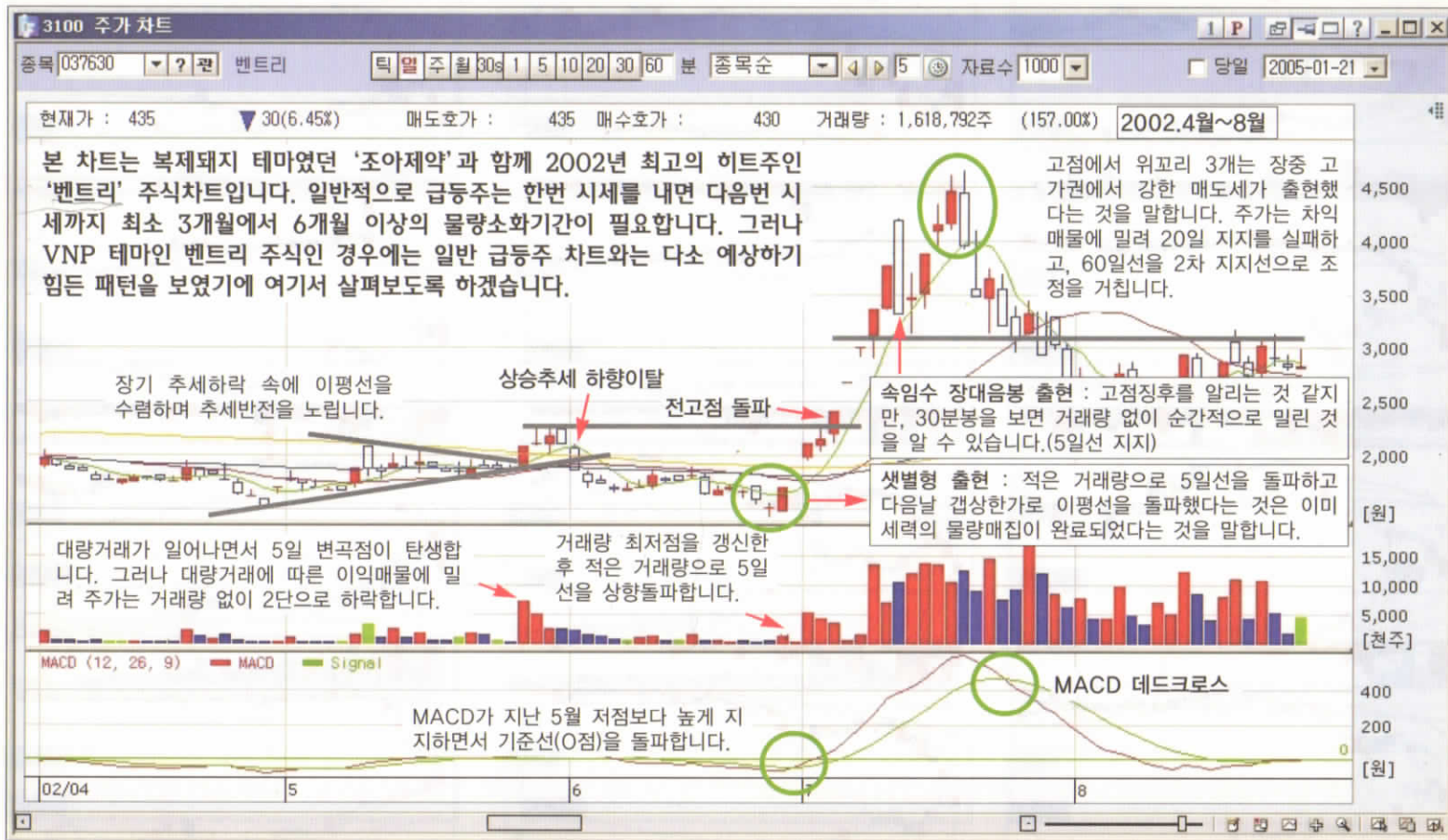
급등주 초기의 공통점 찾아보기 8







#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세력주 하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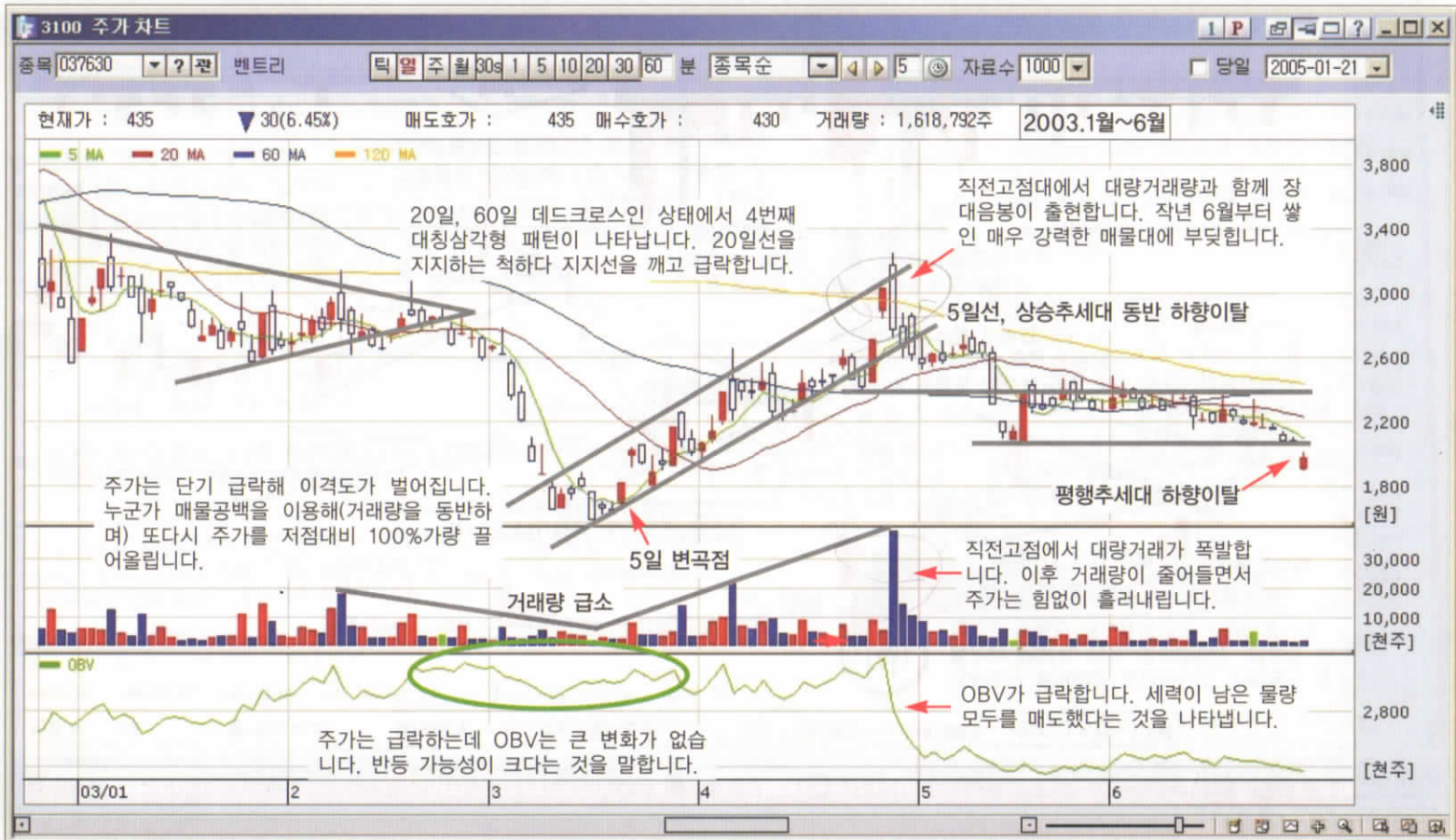


#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세력주 하나 2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세력주 하나 3



#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세력주 하나 4





## 상장주식수와 유동주식수에 따라 한계 급등폭을 예상

**정**확한 구분은 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2배 이상 주가가 상승하는 주식을 급등주라 부르고, 5배 이상 급등하는 주식을 폭등주라 합니다. 일단 주가가 급등하려면 해당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으나 나쁘냐, 이를테면 우량주나 부실주냐를 떠나서 큰 세력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회사의 상장주식수에 따라 주가 급등폭 한계를 대략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 |                                     |                                     |
|-------------------------------------|-------------------------------------|
| 1. 20배 폭등주<br>- 상장주수 200만 주         | 2. 10배 폭등주<br>- 상장주수 500만 주         |
| 3. 5배 폭등주<br>- 상장주수 1,000만 주        | 4. 3배 급등주<br>- 상장주수 중 유동물량 2,000만 주 |
| 5. 2배 급등주<br>- 상장주수 중 유동물량 3,000만 주 |                                     |

급등주라고 해서 언제나 상승 한계 목표가까지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세력은 주변 증시 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철수하거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기 바랍니다.



## 시가총액으로 알아보는 급등주의 조건과 한계

**세**력의 자본은 얼마나 될까? 몇백억? 몇천억? 놀라지 마십시오. 정말 큰 세력은 억 단위가 아닌 조 단위로 자금을 운영합니다. 쉽게 말해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런 어마어마한 자금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는 것일까? 돈줄은 따로 있습니다. 이를테면 모 병원 원장, 모 사채업자, 모 부동산업자 등 저마다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자금을 특정 세력에게 대고 서로 사이 좋게 개인들의 돈을 나눠먹고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지하자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보** 통 주가가 5배 이상 급등하는 주식의 시가총액은 대부분 100억 대 미만입니다. 예를 들어 50억 대 주가를 10배 띄우면 500억 대가 됩니다. 여기가 바로 전형적인 상투권입니다. 급등주의 한계 시가총액은 최대로 잡아야 7~800백억 대이고 대부분은 3~4백억 대에서 작전이 종료됩니다. 소형주인 경우에는 150~200억 대를 급등 한계 시가총액으로 잡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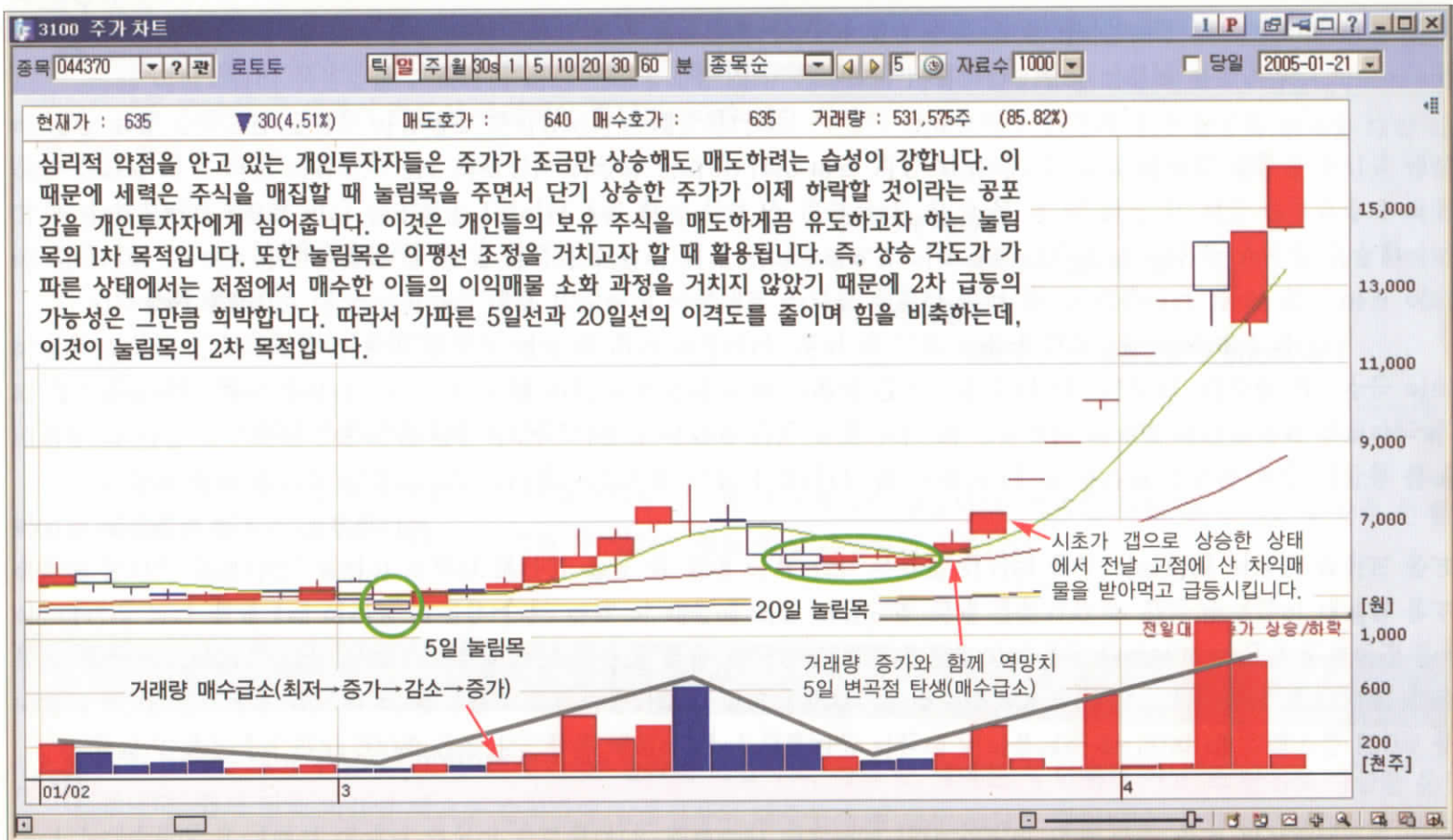
흔히 소형주에서 단기 100% 상승하는 급등 패턴이 많이 연출되곤 하는데 시가총액이 2~30억 대 소형주를 100% 올려보아야 50억 대입니다. 200억 대 주식을 100% 급등시키는 것보다 50억 대 주식을 200% 급등시키는 것이 훨씬 자본이 덜 들고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력이라면 같은 자본으로 힘들게 2배 이익에만 만족하고 작전을 완료하겠습니까, 아니면 보다 쉽게 4배 이익을 보겠습니까? 바로 이 때문에 적은 자본으로 쉽게 급등시킬 수 있는 주식들이 대체로 중소형주에 몰리는 것입니다. 세력이 자금만 많다고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금감원 감시의 눈을 피하려면 거래원 분산도 중요하지만 매집물량 확보도 중요합니다.

큰 돈을 들여 주식을 매집한다면 그만큼 작전노출 위험이 큼니다. 팔 사람이 다 판 바닥권 주식을 적은 자본을 들여 매집을 한 다음 순식간에 2배 이상 급등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급등주는 대체로 바닥권에서 출현하는지, 왜 중소형주에서 많이 출현하는지, 100억 대 미만의 주식에서 왜 그렇게 급등주가 많이 나타났는지, 단순히 급등주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하고 암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먼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시가총액이 100억 대 주식이라면 대략 10억이면 마음대로 주가를 쥐었다 폈다 할 수 있습니다. 돈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급등주를 운 좋게 잡았다고 하면 현재 시가총액으로 기준으로 500억 대 이상은 무조건 상투권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10억 미만 극소형주 1억이면 2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주당 몇 백 원도 안 되는 극소형주가 며칠 연속 상한가 가고 며칠 하한가로 끝두박질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낮은 가격이라는 가격 매력 때문에 투기성 세력이 매우 적은 자본으로 주가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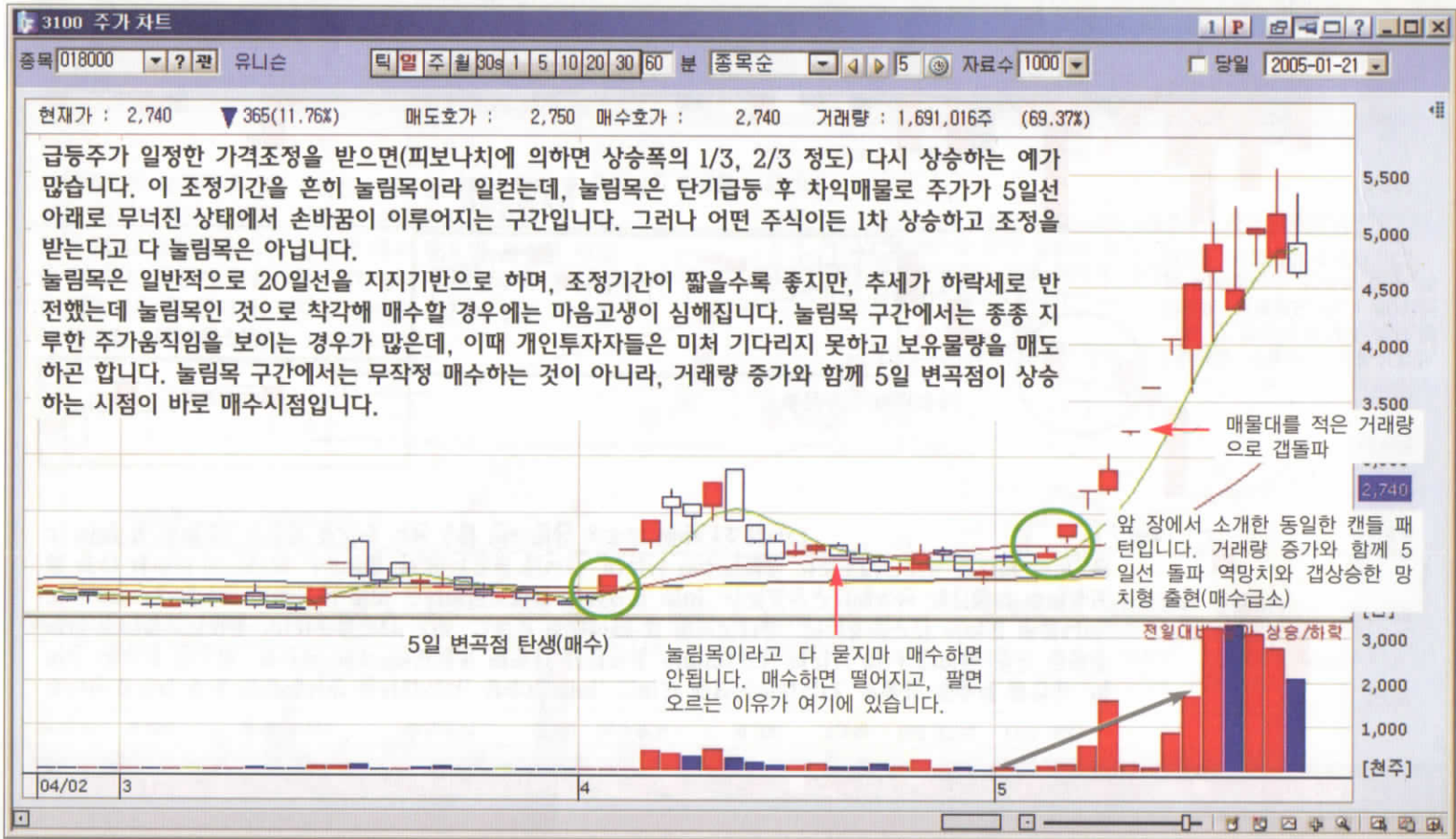
만약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노린다면 일단 시가총액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10억 미만의 극소형주는 피하며, 일차적으로 50억~100억 대 주식이 가장 작전하기 좋은 종목들입니다. 이 경우 급등 한계 시가총액을 대략 300억 대로 잡으면 무난합니다.

## 급등주 놀림목의 백미





# 급등 초기 놀림목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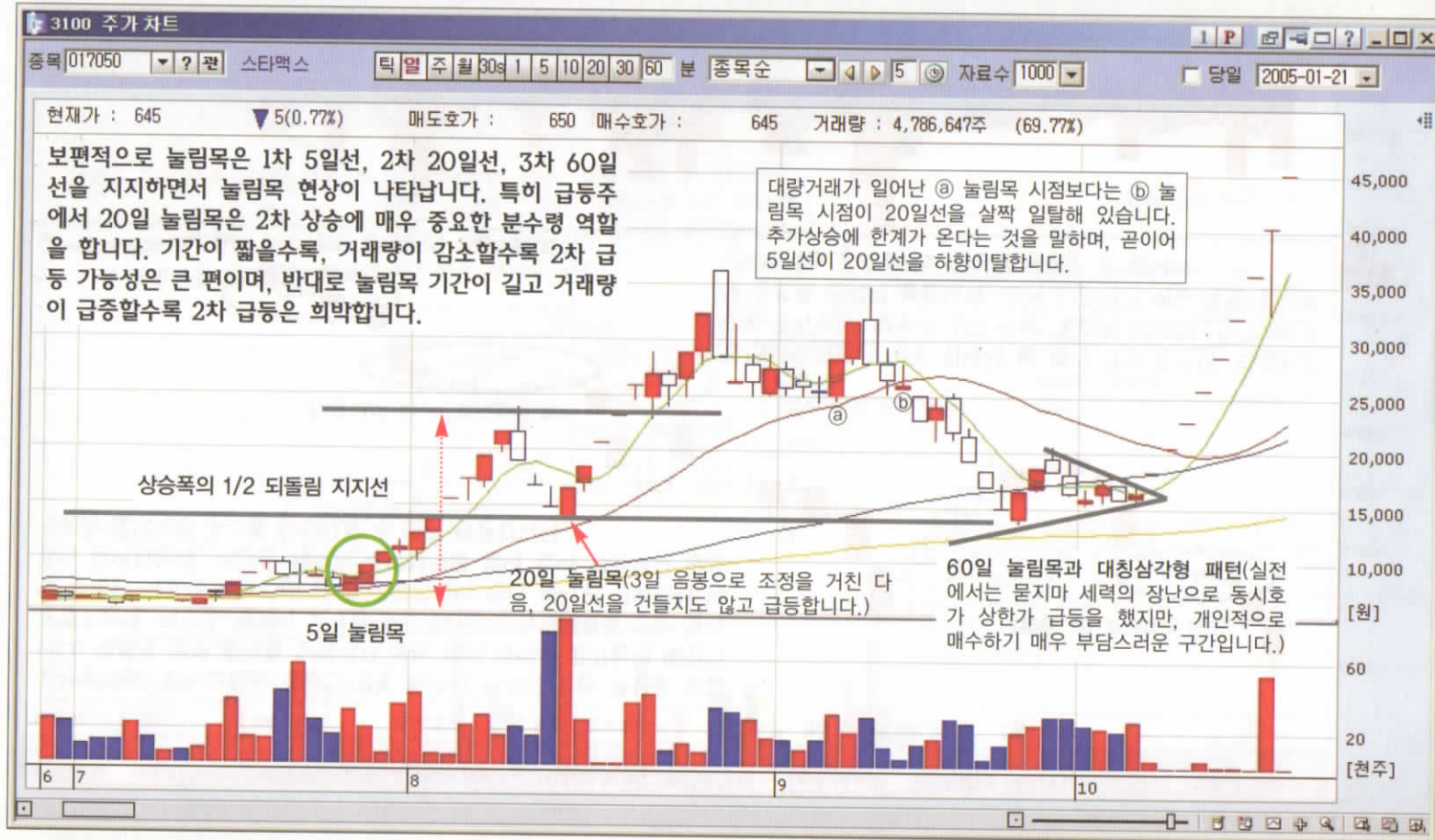
▶ 주가 횡보시 5일선을 돌파하는 양봉 역망치가 출현하고, 다음날 거래량이 늘면서 갭상승한 양봉 망치형이 출현은 상승확률이 높은 캔들 패턴입니다. 역망치형은 당일 매물소화를 의미하고, 갭상승 망치형은 이전 차익매물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세력의 힘이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 가격조정구간에서 매수시점을 노려라



# 1차 급등 후 2차, 3차 상승을 위한 놀림목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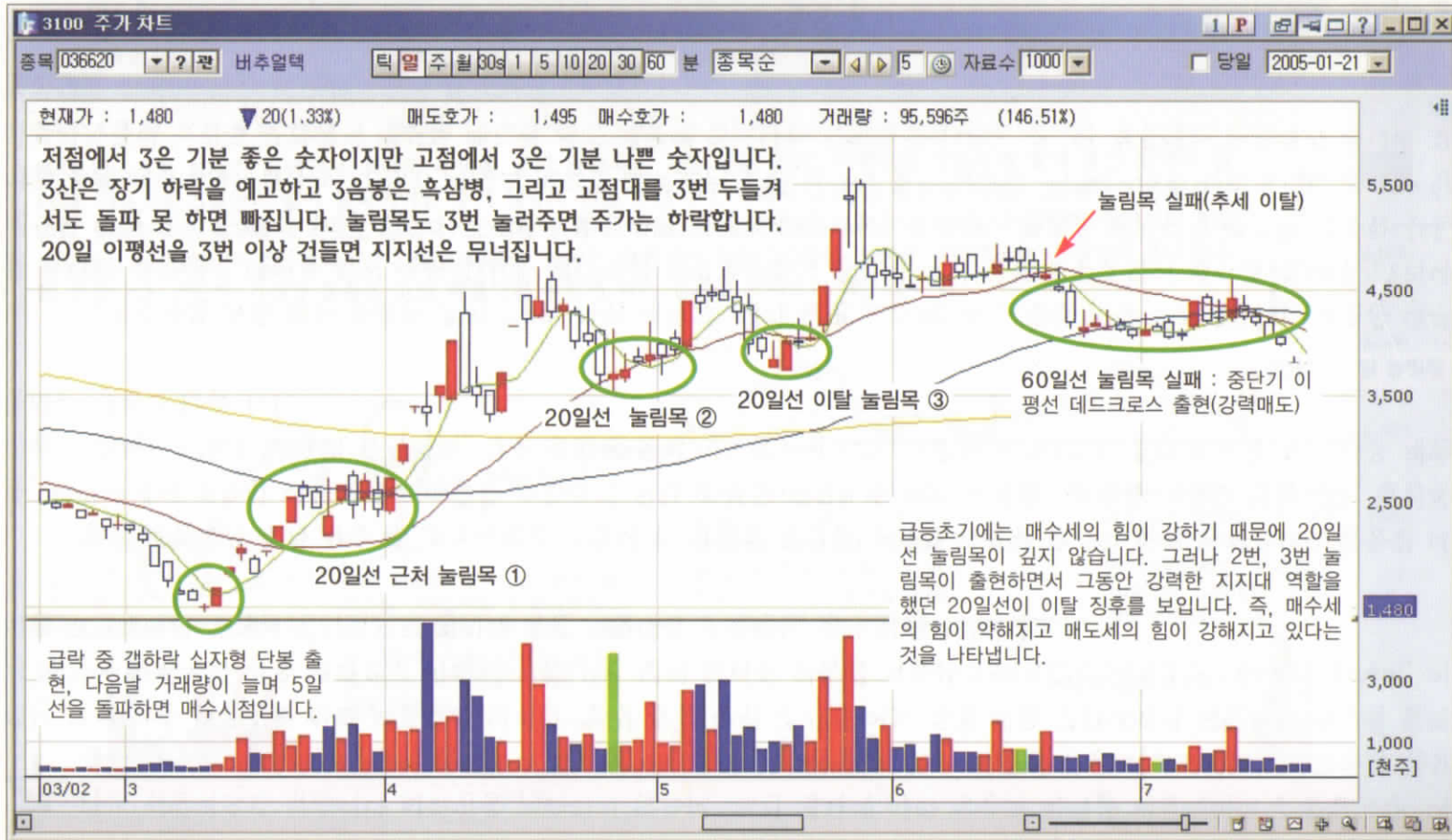
고가놀이 패턴에 대해서







### 3번 놀림목은 빠진다





## 되돌림 현상과 눌림목에 대한 고찰

**주**가는 일방적으로 상승이나 하락만을 지속하지 않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되풀이하며 순환합니다. 이 경우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에 반발하여 자율적으로 반락하는 현상을 바로 '되돌림 현상'이라고 합니다. 되돌림 현상에는 크게 상승 되돌림과 하락 되돌림이 있지만, 통상 상승 중인 주가가 어느 특정 비율 구간대까지 되밀리는 현상을 말하기 때문에 눌림목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곤 합니다. 널리 알려진 되돌림 비율은 33%(1/3), 50%(1/2), 66%(2/3)이며, 이 비율 구간대에서 주가는 일시적으로 지지대 혹은 저항대를 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눌림목은 주가 상승 후 조정국면을 뜻합니다. 바닥을 확인한 주가가 거래량 증가와 함께 단기적으로 급등한 다음, 바닥권에서 매수한 이들의 차익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조정을 거치는데 바로 이때를 '눌림목'이라고 말합니다. 눌림목 비율은 대체로 되돌림 비율과 유사하며, 상승 중인 중장기 이동평균선(20일, 40일, 60일)까지 주가 조정을 거친 다음 재반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투자를 처음 하는 분들은 흔히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른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대부분 눌림목 구간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일반투자자는 음봉이 아닌 양봉에 유혹되어 매수를 합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주가가 빠집니다. 속았다는 생각에 손절매를 감행하지만, 기가 막히게도 주식을 팔자마자 주가는 급등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은 마치 누가 자신의 계좌를 훑쳐보는 듯한 의심이 들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일반투자자들이 눌림목 구간에서 대부분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착시현상입니다. 즉, 이 경우에는 손절매가 아니라 보유물량을 그냥 손해를 보고 매도했을 뿐입니다.

되돌림은 자율성이지만, 눌림목은 인위성입니다. 되돌림은 세력의 큰 개입 없이도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 눌림목은 세력의 개입 여부에 따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배열에서 20일선 놀림목 매매는 최고의 매매기법





## ▶ 놀림목 매매의 핵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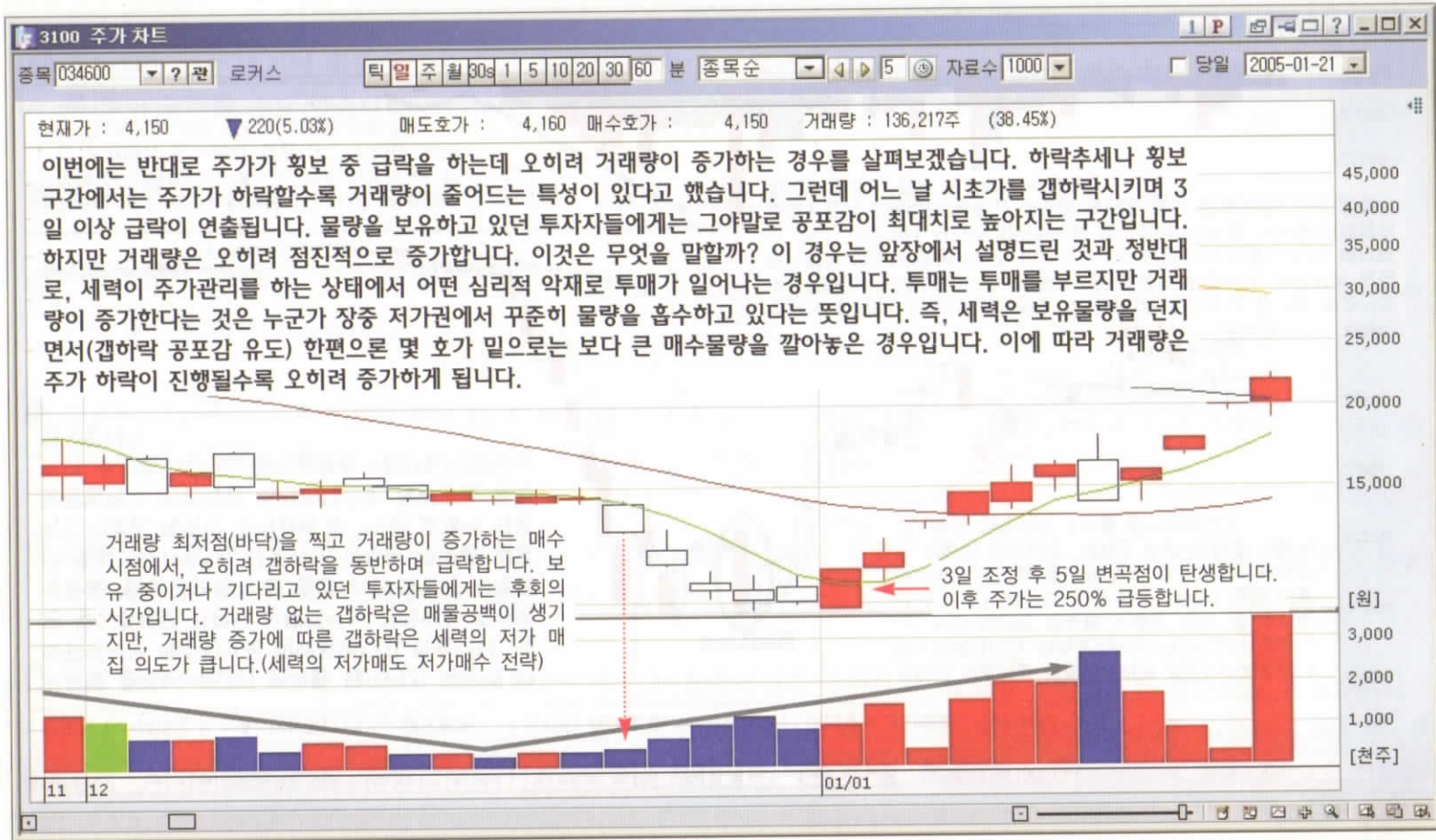
- 1 놀림목은 급등 초기에 확률이 높습니다. 놀림목 없이 단기 300% 이상 급상승한 상태에서는 놀림목이 깊거나 아예 놀림목 없이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 2 놀림목은 정배열 종목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상승 중 매물소화 과정을 위해 놀림목 구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3 급등주에서 놀림목은 일반적으로 20일선 이평선을 지지해야 합니다. 특히 20일 이평선이 하락추세인 경우에는 하락을 위한 놀림목 확률이 높습니다.
- 4 놀림목 구간에서는 주가 변동폭이 될 수 있으면 작아야 하고, 거래량 또한 감소해야 좋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지나치게 급증하면 주가 변동폭이 커지면서 놀림목은 없습니다.
- 5 놀림목은 세력의 주가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구간입니다. 이평선이 들쭉날쭉 한다가거나, 캔들의 길이나 거래량이 불규칙하면 세력의 주가관리는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 6 장기 하락추세를 벗어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린다면, 놀림목 구간에서는 몰타기도 가능합니다. 단, 이전 상승폭이 크지 않아야 하며, 상승 중인 이평선(20일선)은 반드시 지지해야 합니다. 20일 수급선이 깨지면 세력도 그만큼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추가 조정기간은 길어지게 됩니다.

#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급등하는 주식은 하락폭이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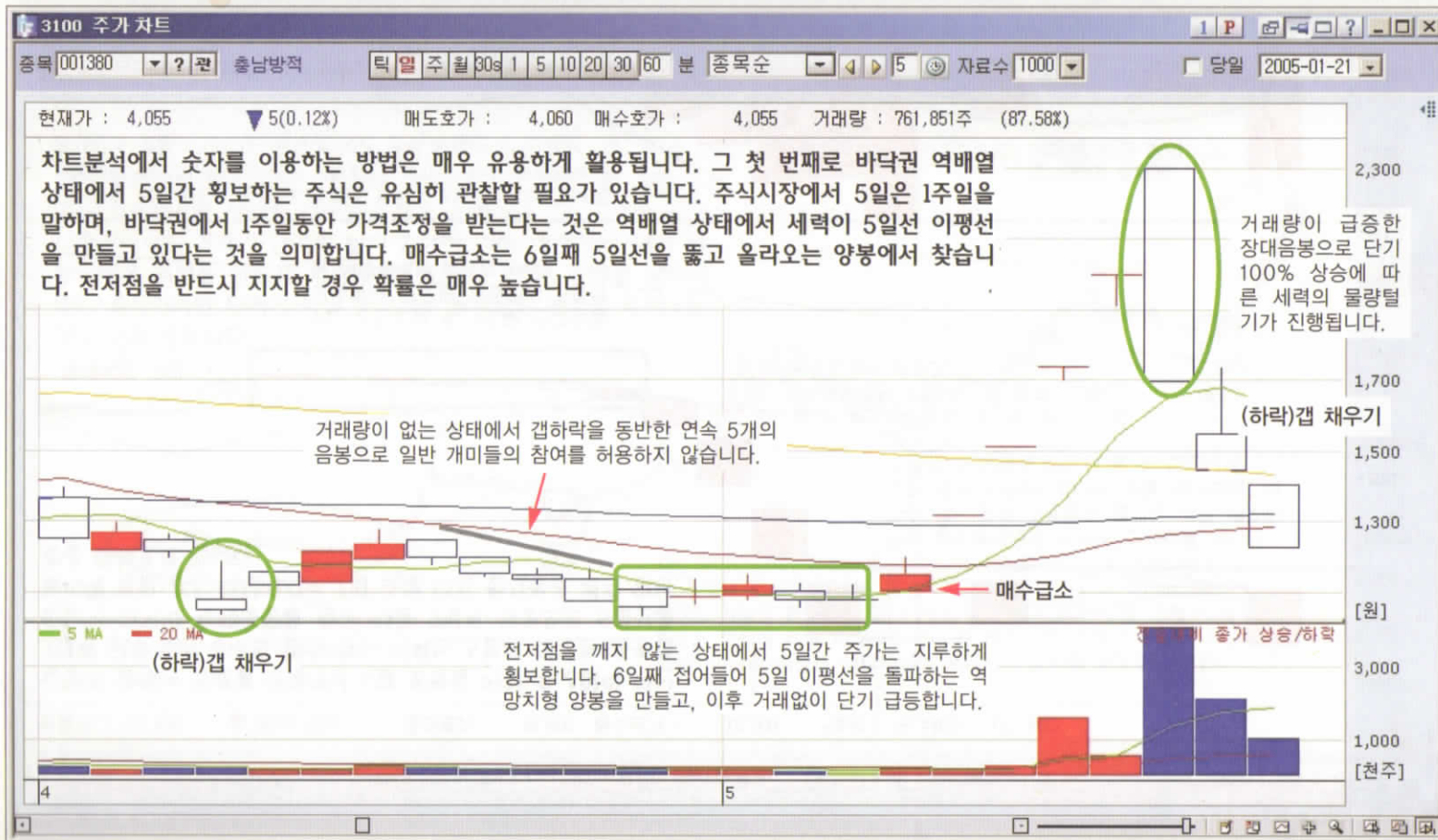
▶ 점진적으로 대량거래를 동반하면서 급상승하는 주식은 급락의 위험성은 적지만 그 후유증은 매우 큰 편입니다. 일단 하락추세로 접어들면 대량거래가 이루어진 가격대 모두가 악성매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급락하는 주식은 상승폭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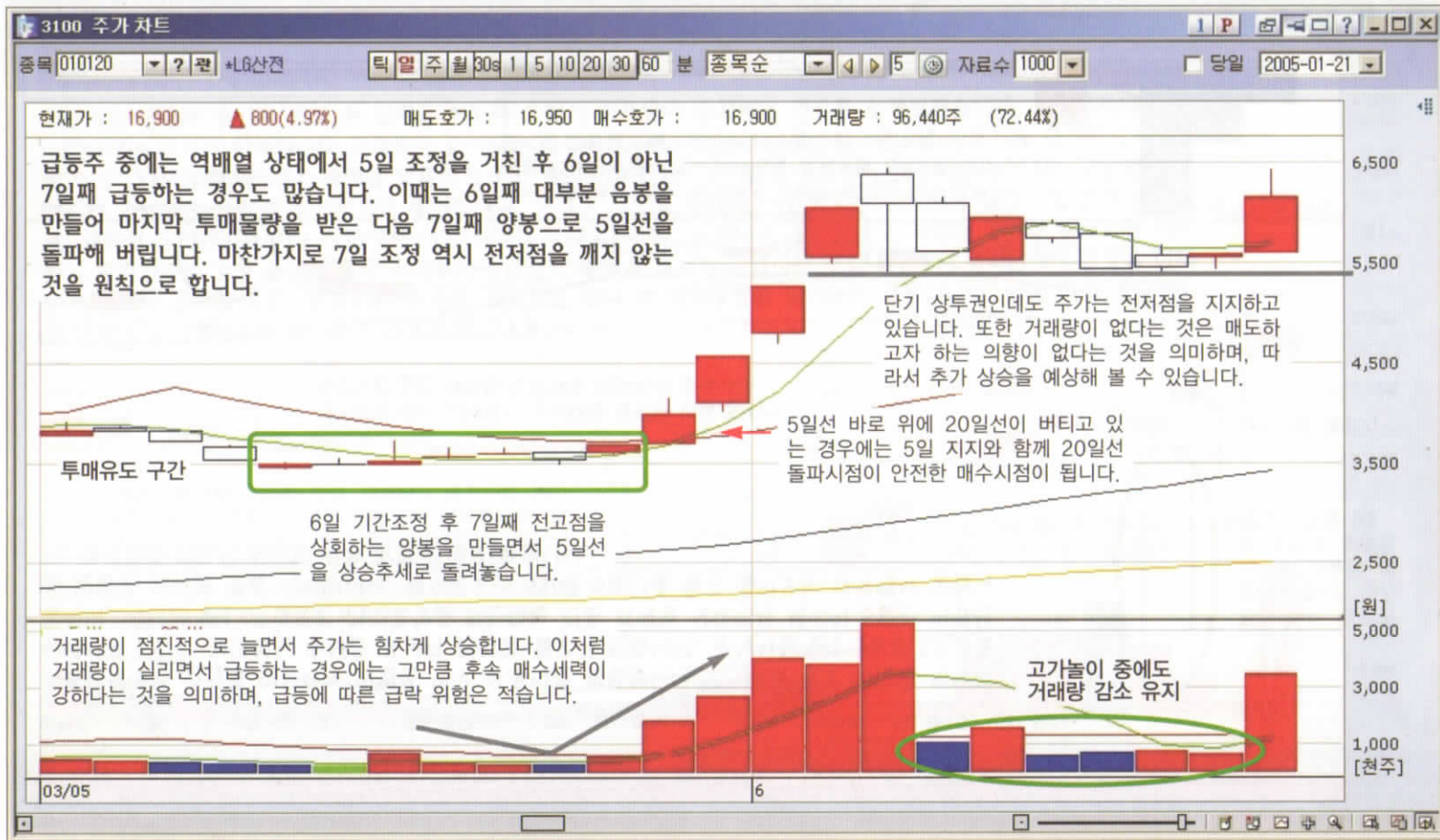
▶ 급락 중 거래량이 점점 증가한다고 무작정 사면 안 됩니다. 왜 급락을 하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단순한 심리적 요인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큰 악재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나 급락 원인을 잘 모른다면 해도, 우선은 지지선을 구축해야 그 다음에 변곡점 탄생 여부를 살펴보면서 비로소 매수시기를 저울질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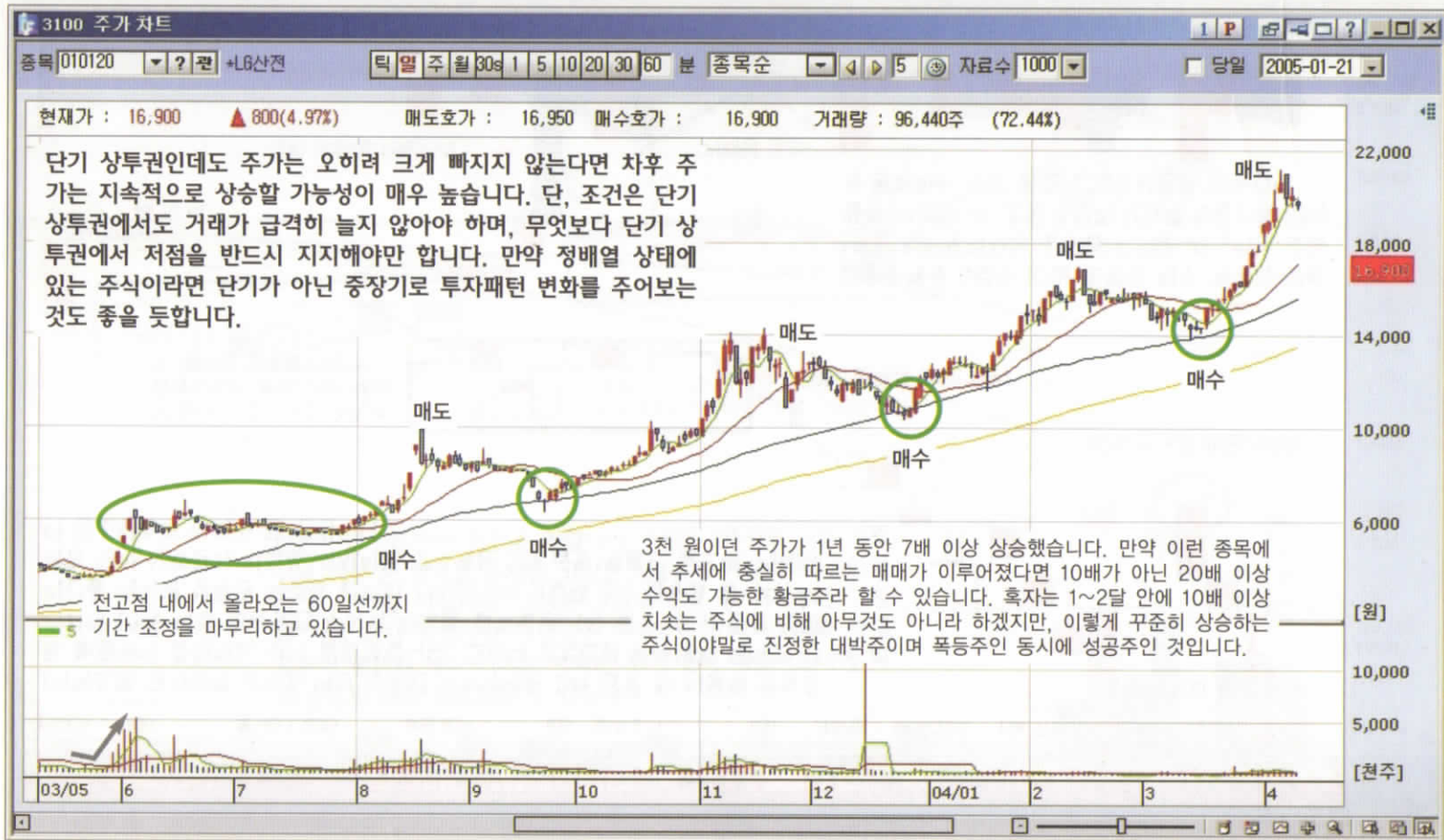
▶ 주가가 바닥권에서 추가 하락 후 5일간 주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동안 보유한 개미들은 대부분 지쳐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세력은 이런 심리를 이용해 역배열 중인 5일 이평선 조정을 거치면서 양봉 하나를 만드는데, 이때의 양봉 하나가 5일선을 정배열로 상승 전환시킵니다.

숫자로 알아보는 급등패턴 2 (7)



▶ 역배열 상태에서 5일째 기간조정 후, 6일째 전저점을 깨지 않는 작은 음봉이(거래량 없이) 출현한다면 7일째 양봉으로 마무리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데이트레이더나 스윙 트레이더에게는 놓칠 수 없는 맥점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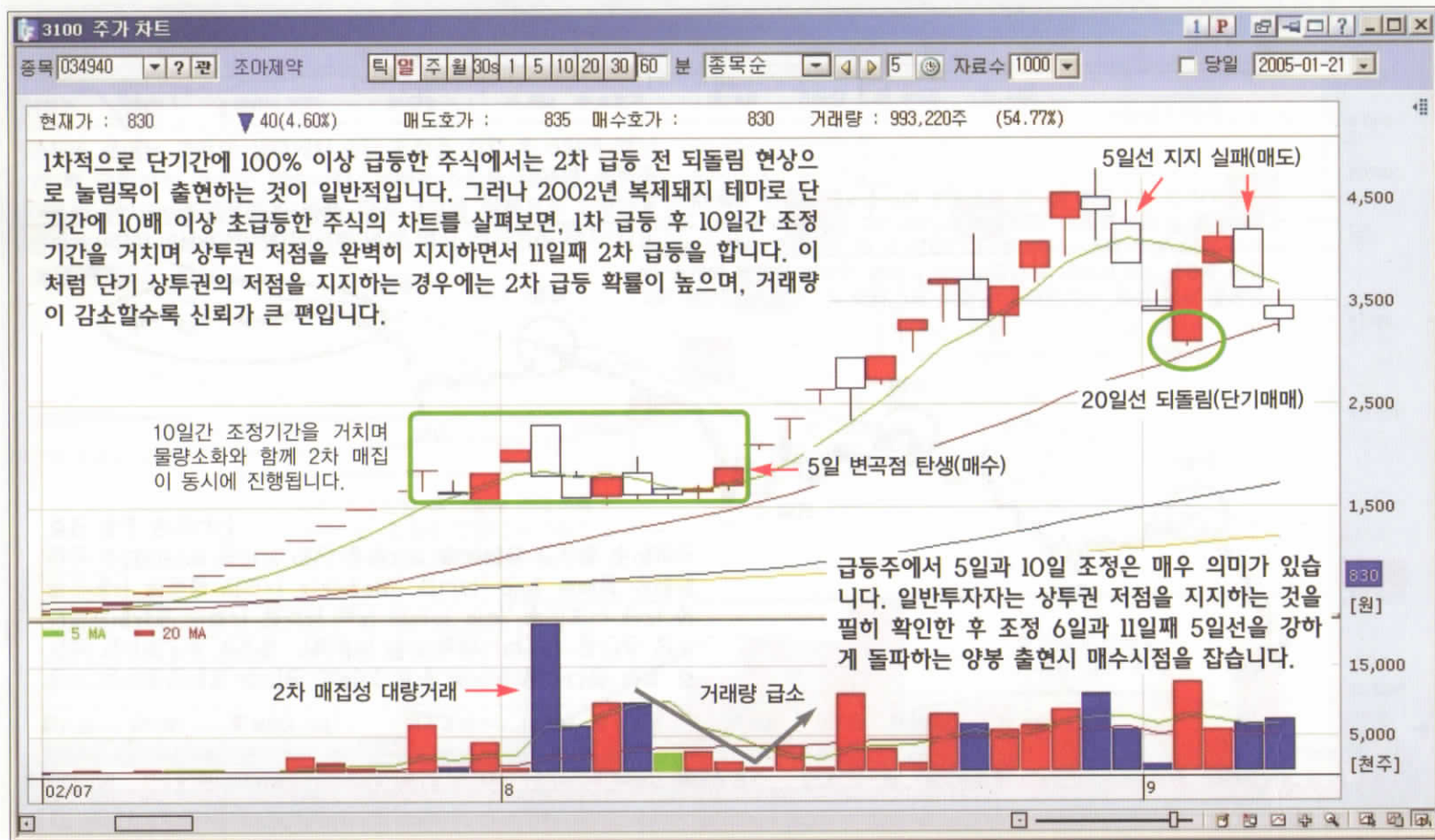
# 단기 상투권이 저점인 경우



▶ 주식시장에 수많은 종목 중에서 1년에 10배 가까이 꾸준히 오를 수 있는 종목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이런 종목 발굴을 위해서는 기술적 분석과 아울러 해당 기업에 대한 기본적 분석 및 가치 분석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체로 테마 대장주나 시장주도주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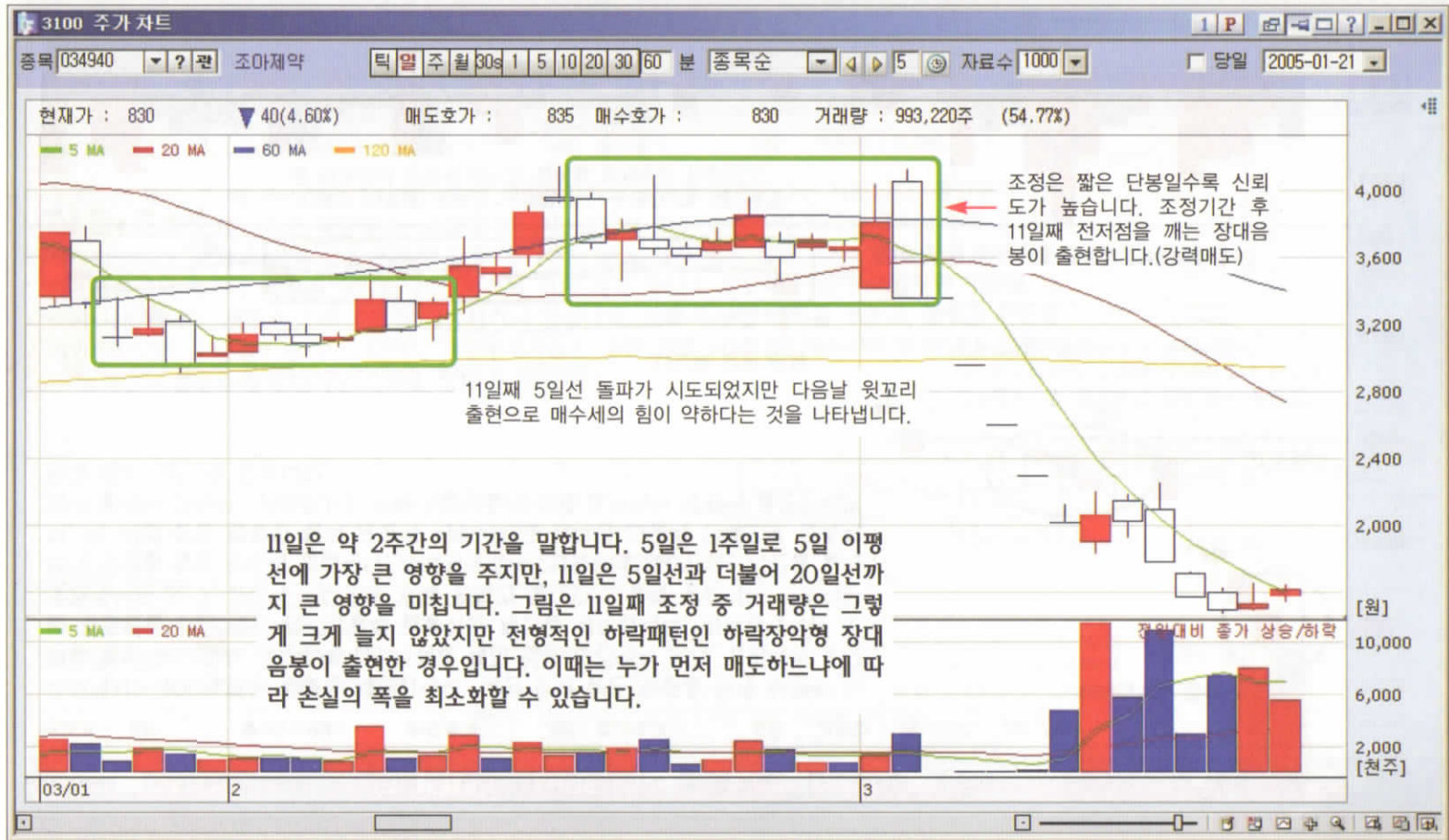


## 숫자로 알아보는 급등패턴 3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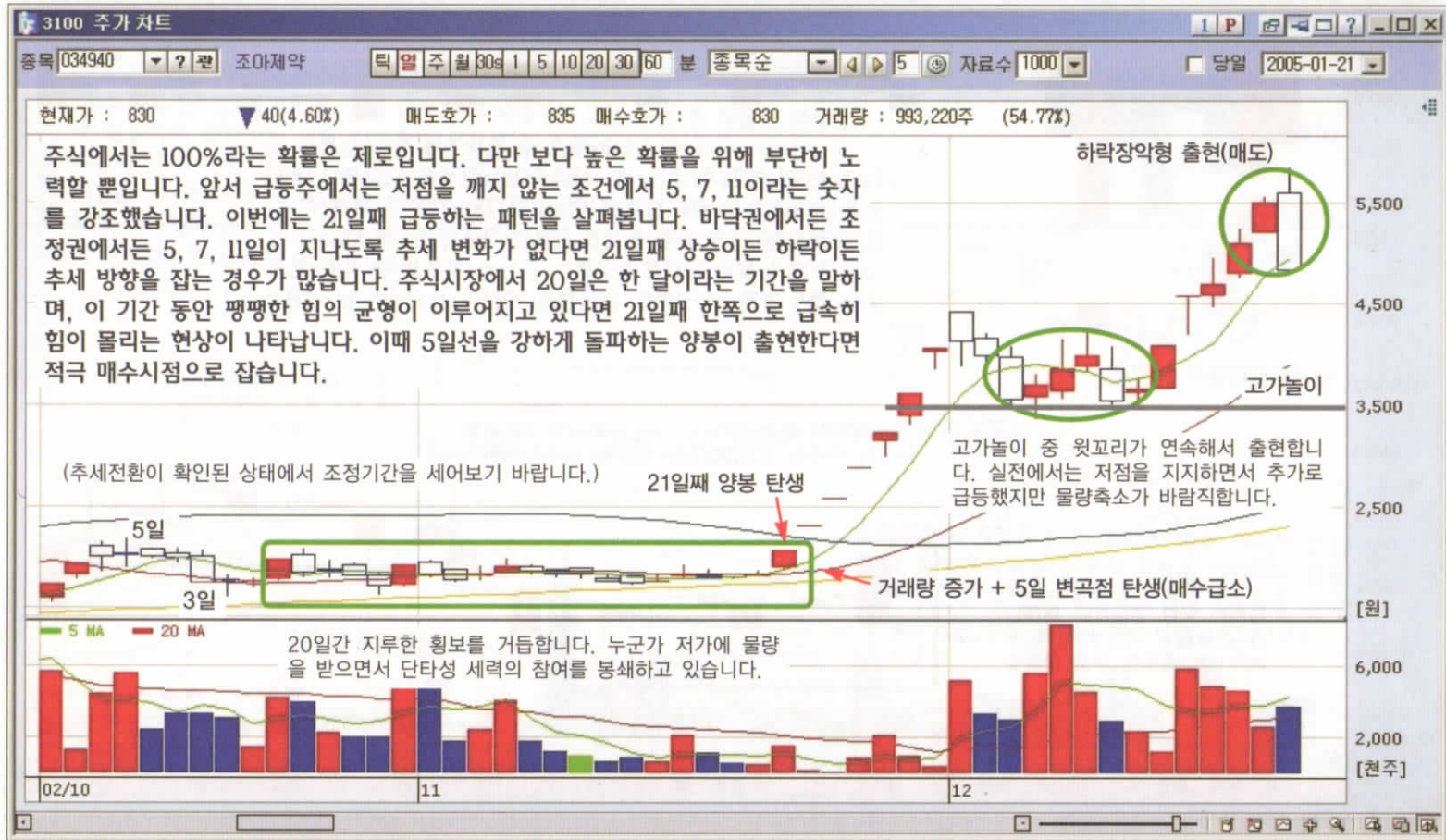
▶ 1차 급등한 주식에서는 일반 개인이 따라잡기에는 여간해서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급등주 매수는 투자금액의 30% 이하에서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상투권 저점을 지지하면서 5일선 돌파시점, 둘째는 20일선 놀림목을 확인하면서 매수세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 11일 조정 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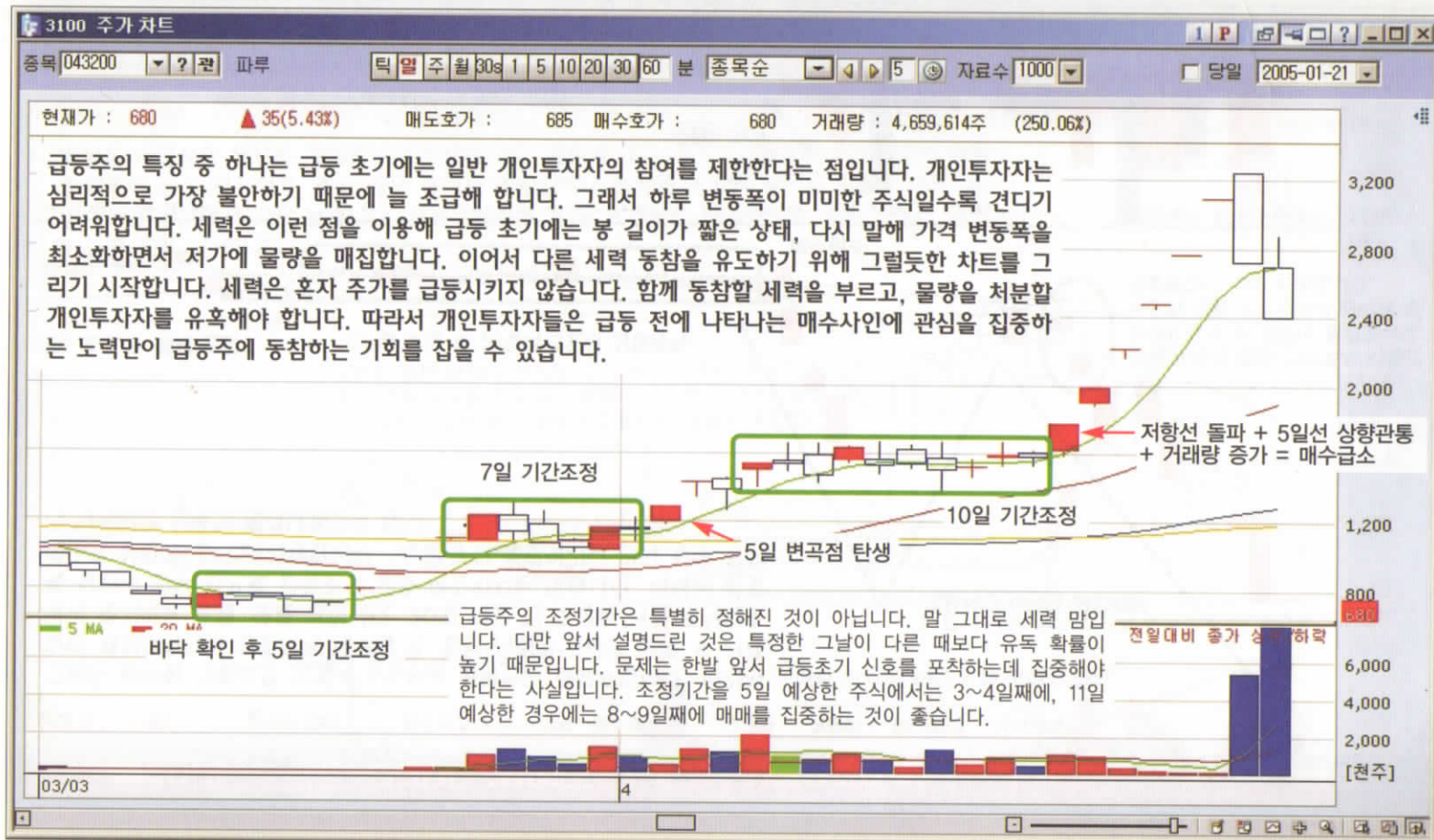
▶ 주식투자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조정기간을 나타내는 숫자는 3, 5, 7, 11, 21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모쪼록 이들 숫자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한다면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숫자로 알아보는 급등패턴 4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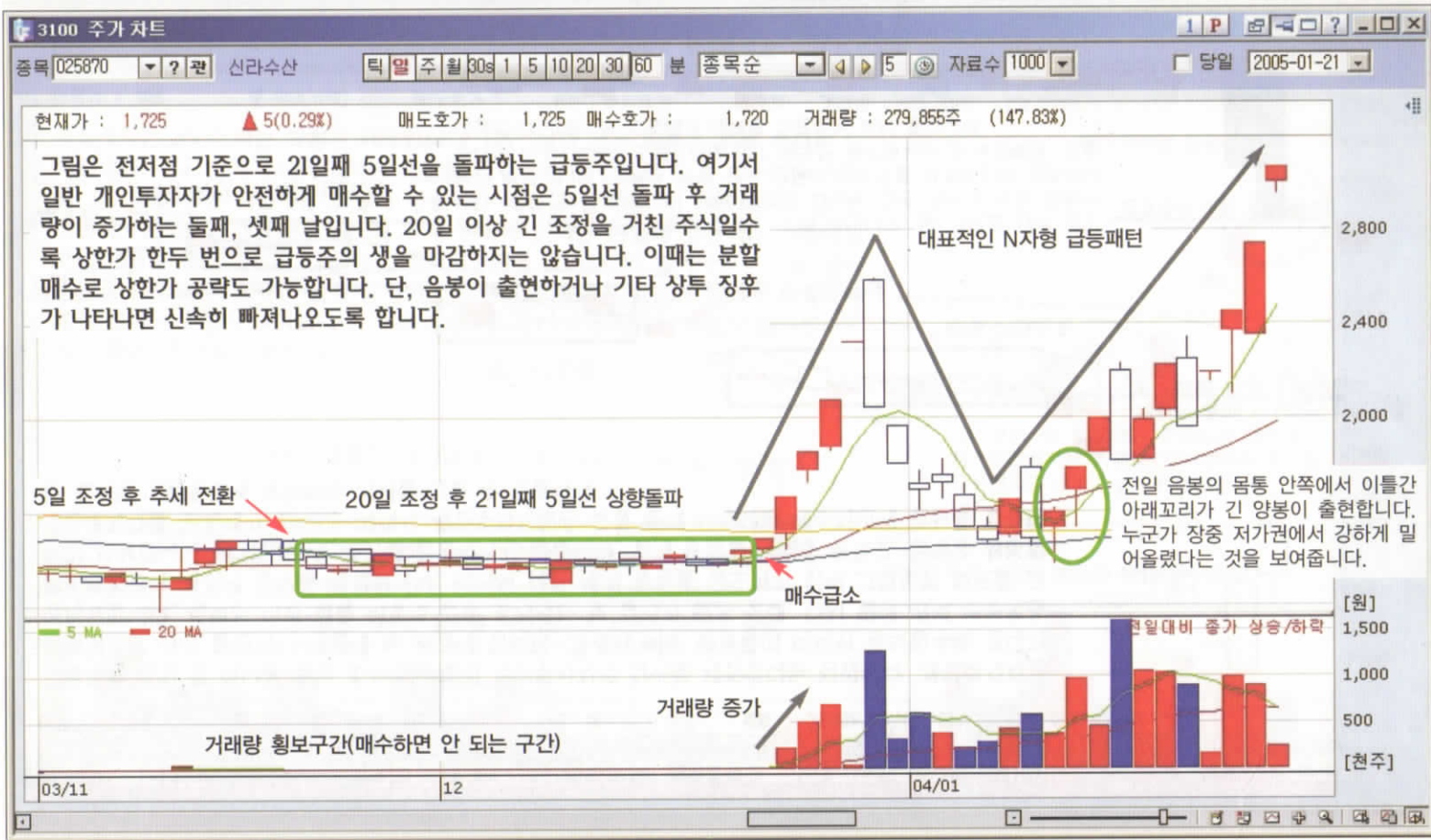
▶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가는 대략 1주일, 2주일, 1달, 3개월 기간을 두고 추세가 전환되곤 합니다. 5, 10, 20, 60일선 이평선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주가 패턴을 연구하면서 그나마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입니다.





▶ 실제로 급등주 초기에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세력은 항상 자신의 보유물량과 일반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테스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들이 최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시기는 급등 신호를 알리는 5일선 돌파 양봉시점입니다.

숫자로 알아보는 급등패턴 6



▶ 급등주는 조정기간에 따라 상승폭이 결정됩니다. 조정기간이 길수록 급등하는 힘이 강하고, 조정기간이 짧을수록 주가의 상승폭은 작아집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장기간 횡보하는 주식을 보유한 채 기다린다면 그것만큼 최악의 투자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 21일 조정 후 급상승하는 주식일수록 강하다



▶ 바닥권에서 매집형 대량거래가 출현하는 종목이 있다면(시장 소외주일수록 급등 가능성은 큼), 약 2개월 정도 관심권에 두기 바랍니다. 통상 2개월 전후로 강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예가 많습니다. 즉, 세력은 최소 2개월 이전부터 물량매집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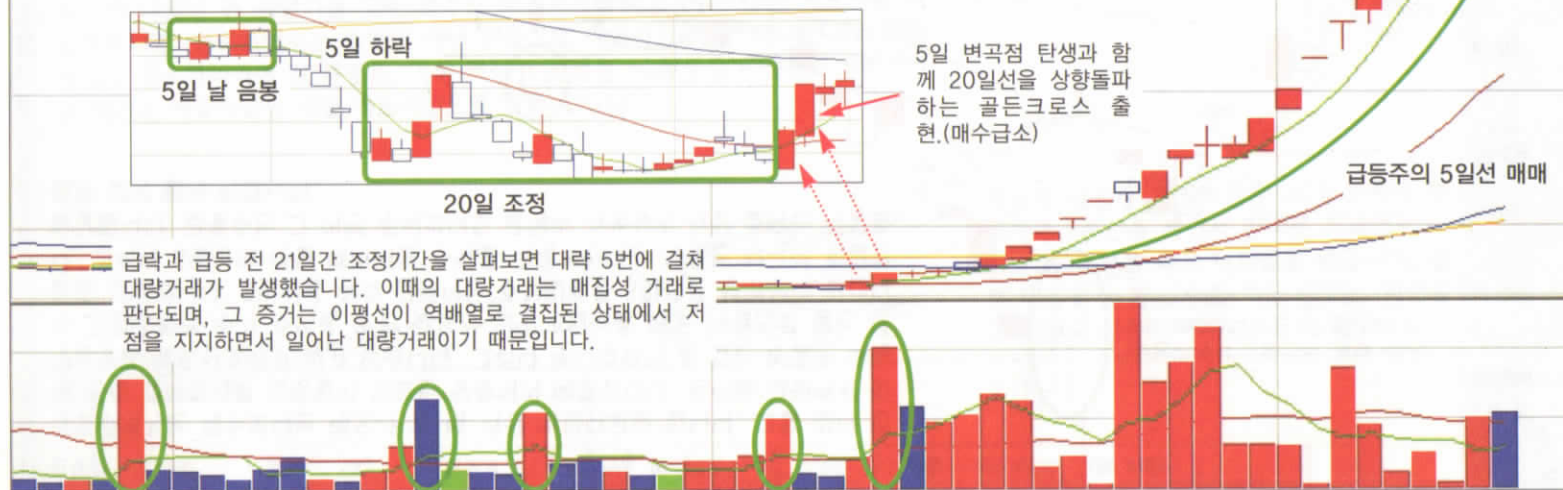
## 21일 조정 실패



▶ 급등주일수록 차트가 예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조정기간이 길다는 것을 말하며, 그만큼 가격 변동폭이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가격 변동폭이 클수록 개인투자자들은 많이 참여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개인투자자들은 언제나 매도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급등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세력은 절대 다함께 나누지 않습니다.



그림은 긴 조정 중 단기 급락 후, 저점을 확인한 다음 정확히 21일째 되는 날 5일선 이평선을 강하게 뚫고 하늘로 비상하는 급등주의 모습입니다. 20일의 조정기간은 또한 단기 가격변동이 있었던 앞쪽 10일과 저점을 확인한 뒤쪽 10일로 정확히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급등패턴의 숫자가 적용되는 하나의 예입니다. 반드시 급등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트를 분석할 때는 3, 5, 7, 11, 21이라는 숫자만큼은 늘 기억하면서 매매에 임하길 바랍니다.



▶ 상투권에서 대량거래는 하락을 예고하지만, 바닥권에서 대량거래는 상승을 예고합니다. 급등주일수록 바닥권에서 대량거래가 빈번히 일어나곤 하는데, 이것은 세력이 아직 물량확보가 덜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닥권에서 대량거래가 일어나는 종목을 발견하면 일단 관심권에 두기 바랍니다.

# 급등주에서는 5일선이 깨질 때가 매도?



▶ 5일선 매매는 이평선이 정배열일 경우에만 확률이 높은 매매기법입니다. 음봉이 출현하든 말든 5일선에 따라 몸을 맡기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기 100% 이상 상승하는 급등주에서 5일선 매매는 수익의 극대화를 주는 동시에 자칫하다가 매도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릴 수 있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 급등주의 최상의 매도급소



▶ 급등주에서 5일선 매매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5일선이 깨지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은 자칫 그동안의 수익을 고스란히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3배 이상 급등한 주식에서는 5일선이 아닌 최소한 60분봉을 매도시점으로 잡도록 합니다.

## 급등주에서는 30분봉을 주시하라



▶ 급등주에서 상승 조정 중, 30분봉에서 비록 거래량이 늘지 않았지만 60분선을 깬 경우에는 보유 주식의 50% 매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주식은 100% 확실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익을 최대화하는 지름길입니다.

# 급등 중 대량거래는 분봉을 통해 세력의 의도를 파악



▶ 급등주는 일봉이 아닌 분봉으로 세력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단기 10분, 20분, 30분봉에서 중기 60분, 120분봉을 통해 세력이 현재 매도에 치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겁을 주어 추가 매집을 시도하는지를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꿈의 기법인 상한가 따라잡기 1

### 1. 상한가 따라잡기의 매력

**주** 식시장에는 종종 하루에도 몇 종목씩 연속 상한가 종목이 출현합니다. 개인투자자에게는 5방, 10방 상한가 종목처럼 꿈에 그리는 종목도 없을 것입니다. 급등 이전에 미리 잡았더라면, 급등 중간에라도 잡았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나는 왜 저런 종목 하나 못 잡을까 하는 자괴감이 상호교차되는 이중감정에 사로잡히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연속 상한가 종목은 그만큼 높은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이 오늘도 눈에 불을 켜고 하이에나처럼 상한가 종목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상한가 따라잡기는 대체로 널리 알려진 투자기법입니다. 상한가 따라잡기는 강한 테마를 형성한 종목이나 좋은 재료가 있는 종목이 상한가에 진입할 때 과감히 추격 매수를 감행해 보유한 후 매도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쉽게 실전 투자에 응용하지 못하는 것은 급상승에 따른 급락의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험상 상한가 따라잡기는 대부분의 개인투자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안전한 투자방법입니다. 쉬운 예로 내일 오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주식은 과연 어떤 주식입니까? 정답은 바로 오늘 상한가를 친 주식입니다. 오늘 강한 매수세가 등장해 상한가로 종가를 마무리했기에 내일도 분명 오늘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상한가 따라잡기 기법은 무엇보다 상승장세가 아닌 횡보장이나 하락장세에서 매우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상승장에서는 어떤 종목이든 오를 확률이 높은 법입니다. 그러나 하락장세, 혹은 지루한 횡보장세에서는 특별한 주도주나 테마주를 제외하고는 개인투자자들은 어지간해서 수익을 내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런 무기력한 장세에서 짠! 하고 혜성과 같이 나타나는 강한 상한가 종목은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매수할 주식 없이 관망만 하던 대기 투자자들이 무언가 있구나 하며 한꺼번에 몰려드는 매우 특별한 모멘텀이 바로 연속 상한가 종목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락장세나 지루한 횡보장세에서는 상한가 따라잡기 기법처럼 매력적이고 안전한 투자방법도 드물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상한가 따라잡기에 대한 기본적 이론과 방법을 소개합니다.

## 2. 상한가의 목적

**상**한가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력이 다음날 물량을 팔기 위해 인위적으로 상한가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단기 투기성 성격이 짙기 때문에 당일 큰 손해를 볼 가능성도 크며, 대체로 다음날 대량거래를 동반하며 음봉으로 마감됩니다.

둘째는 세력이 매집한 물량을 며칠 후에 매도할 목적으로 만드는 상한가입니다. 이런 상한가야말로 진짜 상한가이며, 다음날 연속 상한가 행진을 벌일 수도 있으며, 고가놀이 패턴으로 진행되거나 거래량 없는 속임수 음봉으로 추가로 물량을 매집한 후 지속적으로 급상승시키기도 합니다. 문제는 개인투자자들이 후자쪽 상한가보다는 전자쪽 상한가에 쉽게 유혹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상한가라도 힘 좋고 돈 많은 세력이 존재하는 상한가를 잡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3. 강한 상한가란?

**세**력이 며칠 후에 매도할 목적으로 상한가를 친 종목은 대부분 주가관리가 잘 된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에서 나타나는 상한가는 강하게 급상승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한 상한가는 대체로 장 개시 후 10시 이전에 강하게 상한가로 돌아올립니다. 여기서 강한 종목은 장 시작 후 9시부터 9시 30분 사이에 상한가에 진입하는 종목입니다. 상한가 따라잡기는 바로 이처럼 장초반에 강하게 상한가로 마감하는 종목에서만 그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당일 종가가 반드시 상한가로 마감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한가에 진입한 이후로는 상한가를 지켜야 함은 물론 거래량도 없어야 합니다. 상한가 다음날 장초반부터 대량거래가 발생하면 팔기 위한 상한가로 인식하여 매우 신중한 매매를 해야 합니다.

## 4. 상한가 따라잡기의 1차 조건 - 첫 상한가만 노려라!

**주**식투자 경험이 많지 않다면, 반드시 첫날 상한가만 노리도록 합니다. 3번 이상 연속 상한가는 프로의 영역입니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선부르게 달려들다가는 큰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따라서 첫째 날, 혹은 최소한 둘째 날 상한가로 급등하는 종목을 놓쳤다면 아예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급등폭과 거래량 등을 고려해 눌림목 시점에서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5. 상한가 따라잡기의 2차 조건 - 거래량 변화를 살펴라!

**하**루 짜리 상한가인지 이틀 이상의 급등형 상한가인지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거래량입니다. 앞서서도 강조해왔듯이, 주가 조정기간은 충분했는지 거래량 바닥을 확인했는지 거래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등에 따라 상한가의 힘이 결정됩니다. 가장 좋은 거래량 조건의 상한가는 전날보다 적은 거래량으로 장초반 일찍 문을 닫는 상한가입니다. 그만큼 개인투자자와 데이트레이더의 유입을 원천봉쇄한다는 의미에서 강한 세력이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래량이 전일보다 5배 이상 급증한 상태에서의 상한가는 통상적으로 다음날 조정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이 따라잡을 수 있는 상한가는 거래량 바닥을 확인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며 단기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상한가입니다. 거래량이 아예 없거나, 반대로 거래량이 폭증한 상태의 상한가는 절대 따라잡으면 안 됩니다.

### 6. 상한가 따라잡기의 3차 조건 - 기본 분석은 필수다!

**상**한가 이전의 주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지금 시점이 바닥권인지 상투권인지, 유통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해당 기업의 특징과 재무상황이나 과거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앞으로 호재가 있을 것인지, 주 매수 창구는 어디인지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재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분석없이 무턱대고 상한가에 매수주문을 넣어서는 그대로 단타 세력의 밥줄이 됩니다.





1. 상한가 따라잡기 기본 요령(첫 상한가 기준)

- ① 오전 9시 장이 시작되자마자 검색 기능을 통해 상한가 종목과 +9~10%대 근처의 급상승한 종목들을 조회합니다.(보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최소한 시초가 +5% 이상 꺾상승한 종목만 노려야 하며, 장중 절대로 +5% 가격대를 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동시호가부터 상한가에 진입하거나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상한가 매수잔량이 많은 주식은 매수가 불가능하므로 제외합니다.
- ③ 상한가 상태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종목은 상한가가 깨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래량 급증 종목도 제외합니다.
- ④ 9~10% 상승한 종목 중에서 테마주를 우선 분류합니다.(줄기세포, DMB, A&D, 반도체, 광우병, 전쟁, 보안, 바이오, 무선, 음반 등) 테마주는 항상 대장주가 있으며 나머지 동종업체 주식들이 이 대장주를 뒤따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일단 핵심테마주 중에서 대장주가 일찍 상한가로 문을 닫은 상태라면 9% 이상에서 공방전을 벌이는 동종업체 중 이평선 조정이 잘 마무리된 종목 위주로 분할매수에 들어갑니다.
- ⑤ 테마주가 아니라면, 첫 상한가에 근접한 종목 중 바닥권 종목을 우선시합니다. 이전에 급등한 상태이거나 고가권인 경우라면 세력의 물량털기용 상한가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300% 이내) 5일선이 위로 살아 움직이려는 종목으로 압축합니다.
- ⑥ 느낌이 온다싶은 종목(부실주, 초저가주, 극소형주 제외)에 대해 발 빠른 분석에 들어갑니다. 거래량, 캔들패턴, 이평선, 다양한 보조지표, 공시여부, 유사 종목군에 대한 주가변화 등에 대한 분석을 최대한 2~3분 안에 끝마칩니다. 이어서 원금의 10% 내에서 분할매수에 들어갑니다.(주식 경력이 많지 않은 개인투자자들은 해당 종목 분석에 몇십 분 이상 시간

을 소요하지만, 고수들은 한눈에 감으로 모든 분석을 완료합니다. 그만큼 많은 노력과 경험과 철저한 분석과정을 통해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석 능력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저녁 경제신문이나 증권방송을 보기보다는 그 시간에 차트 하나라도 더 보고 의심을 품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7 상한가 진입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초가를 상한가로 시작한 후 거래량이 늘며 상한가 이탈 후 다시 상한가에 재진입하는 경우, 둘째는 5% 이상 시초가 갭상승 후 꾸준히 상승하며 상한가에 진입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상한가 중에서 후자 쪽이 비교적 안전한 상한가 매수 종목입니다.
- 8 강한 상한가 진입 시간은 대략 오전 9~10까지이며, 보통 9시 30분 이내에 상한가에 진입하는 주식이 강하지만 장중이나 (호재성 공시 출현) 장마감에 데이트레이더의 물량을 확보하며 상한가로 급상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2시 30분 전후로 급상승하는 종목 중에서도 급등주식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보험권에서 상한가로 급하게 밀어올리는 주식보다는 장초반 5%대 상승한 상태에서 시초가를 깨지 않고 꾸준히 물량소화를 거치며 상한가로 마감하는 종목이 강합니다.
- 9 상한가 진입시 거래량은 바닥권에서 전날 거래량보다 많으면 좋으나(300% 이내), 전날 거래량 대비 10배 이상 대량거래가 동반될 때에서 강한 상한가가 아니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10 상한가 매수잔량은 많을수록 좋으나, 너무 과도하게 많을 경우에는(당일 거래량의 10배 이상) 미끼용 매수잔량이기 때문에 다음날 고점에서 세력이 물량을 털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날 동시호가 잔량을 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상한가 매수잔량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당일 거래량의 1/5 이하) 당일이라도 당장 차익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전에서는 당일 상한가를 지킨다 해도 다음날 갭하락으로 출발하는 예가 많습니다.
- 11 오전 10시 이전에 문닫은 상한가는 반드시 장마감까지 상한가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행히 장마감까지 상한가를 지켜냈다 하더라도, 장중 2번 이상 상한가 이탈 후 재진입하는 경우라면 일단 매도한 다음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강한 상한가는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 12 운이 좋든 나쁘든 일단 상한가를 따라잡은 다음부터는 항상 모니터를 주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강한 상한가는 다음날 갭상승가 혹은 5% 이상 갭상승한 상태에서 거래량을 줄이며 상승을 이어가지만, 약한 상한가는 보험선에서 출발하



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상한가 다음날 보합선에서 시초가가 시작되면 일단 매도합니다. 차후에 급상승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시초가가 보합에서 시작한다면 거래량 증감 여부와 상관없이 당일 음봉으로 마감하는 예가 많습니다.

## 2. 상한가 깨지지 않는 기본 원칙

첫 상한가에 진입한 이후 당일 거래량의 10분의 1 이상 매수잔량을 즉시 쌓는 경우라면, 일단 당일 상한가는 깨지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만약 차익매물이 쏟아지면서 일시적으로 상한가를 깨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은 거래량으로 재차 상한가에 진입해야만 상한가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만약 대량거래가 동반되거나 상한가 이탈이 3회 이상 일어난다면, 다행히도 당일 종가를 상한가로 마감할 경우라도 추격매수보다는 물량축소 관점으로 접근하도록 합니다.

## 3. 상한가 따라잡기에 해당되지 않는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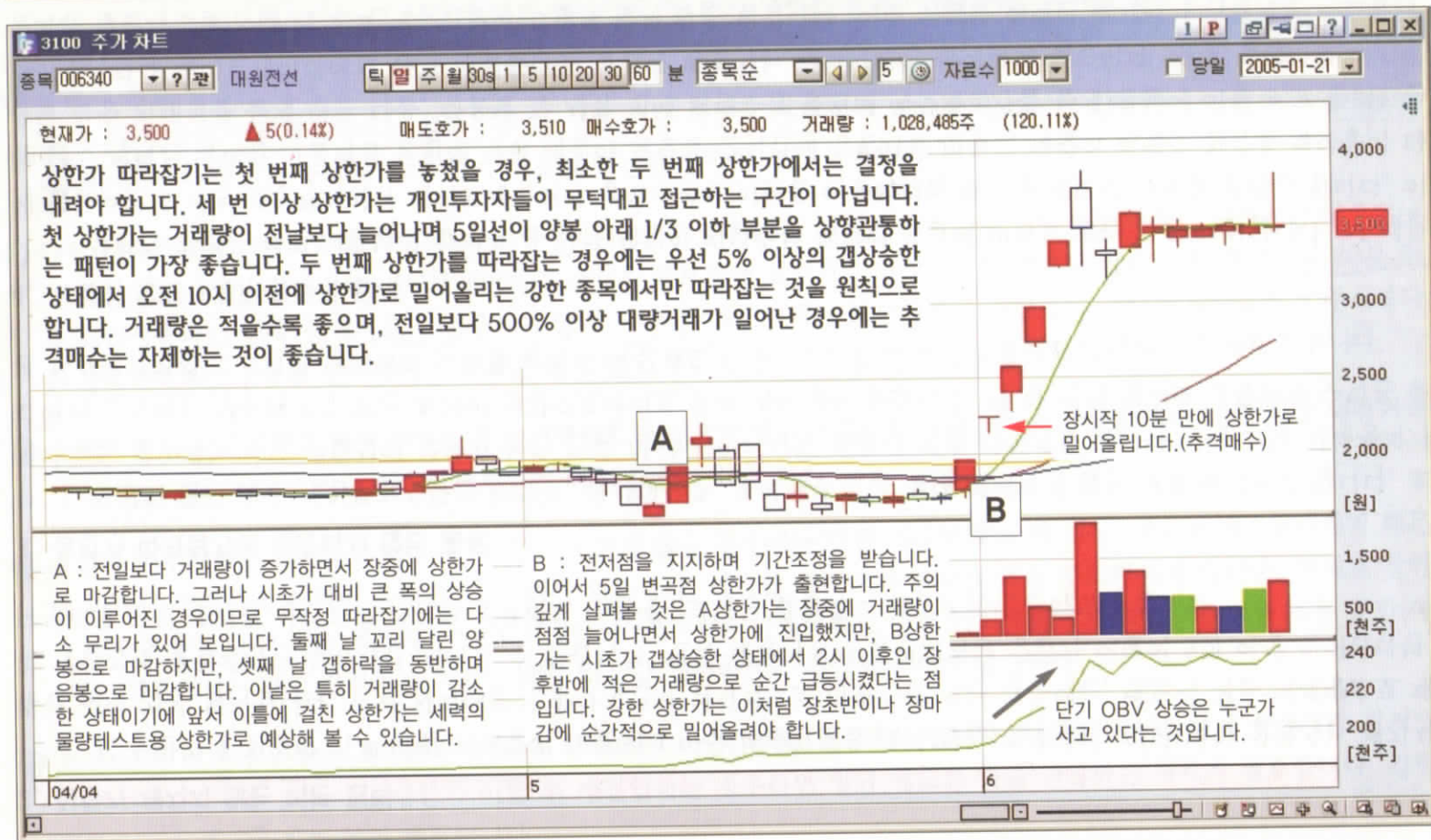
경험이 많지 않은 개인투자자들은 부실주, 관리대상주, 초저가주 등은 절대 매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초저가주인 경우에는 부도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만큼 당일 상한가라도 다음날 연속 하한가를 맞거나 아예 그날 거래정지가 되면서 급기야는 상장폐지가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까지도 몰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그동안의 수익은 물론 투자원금까지 고스란히 날려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 4. 속임수 상한가에 유혹되지 말자

상한가 기법은 예전부터 널리 알려져 온 만큼 세월이 지날수록 패턴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급등주만 노리는 개인투자자나 데이트레이더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이용하려는 투기성 세력도 극성을 부리곤 합니다. 이들 단기 세력은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당일 매집한 물량을 순식간에 상한가를 만들고 대량의 허매수 잔량을 쌓아놓아 다음날 상승 기대치를 높게 만든 다음, 다음날 장 시작 전에 허매수를 동원해 예상체결가를 높게 만들어 이를 보고 몰려드는 개인투자자나 데이트레이더에게 단기 매집물량을 한번에 떠넘기는 단타기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일 상한가로 마감될 종목은 상한가 주문 이외에 현혹 매수잔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법입니다. 이런 위험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질 명분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닥권 종목 위주로 매매하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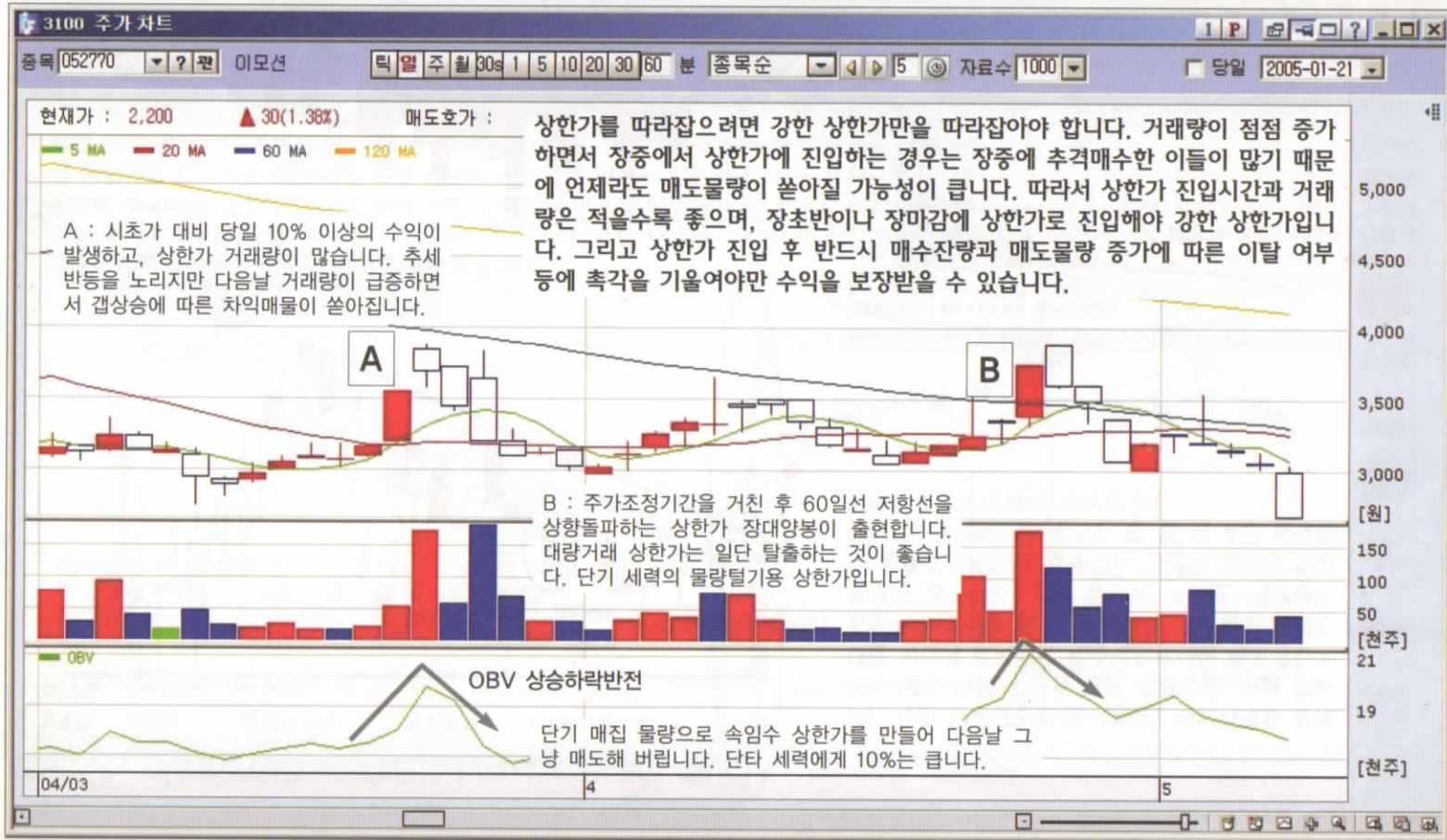


## 상한가 따라잡기 성공(강한 상한가를 잡아라)



▶ 거래량 지표인 OBV는 MACD에 비해 신뢰성이 크지는 않지만, 단기 시점에서는 오히려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급등주일수록 단기 OBV 지표를 활용하면 세력이 물량을 매집했는지 매도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OBV 다이버전시 현상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상한가 따라잡기 실패(속임수 상한가에 당하지 마라)



▶ 상한가에서 대량거래가 발생하거나, 혹은 다음날 시초가 상한가 부근에서 대량거래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무조건 매도관점입니다. 강한 상한가는 대량거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한가 대량거래는 단타 세력이 상한가를 억지로 만들어 매수세를 유혹해 물량을 터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급반등 후 상한가 대량거래는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한다



▶ V자 반등이나 W자 반등 패턴에서는 이전 고점을 상대로 쌍봉이나 삼봉을 그릴 때가 많습니다.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전 고점을 뚫지 못한 경우에는 대부분 세 번째 도전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후 이전 고점 가격대에 악성매물대가 쌓이며 거래량이 줄면서 실망매물이 늘어나 주가하락이 이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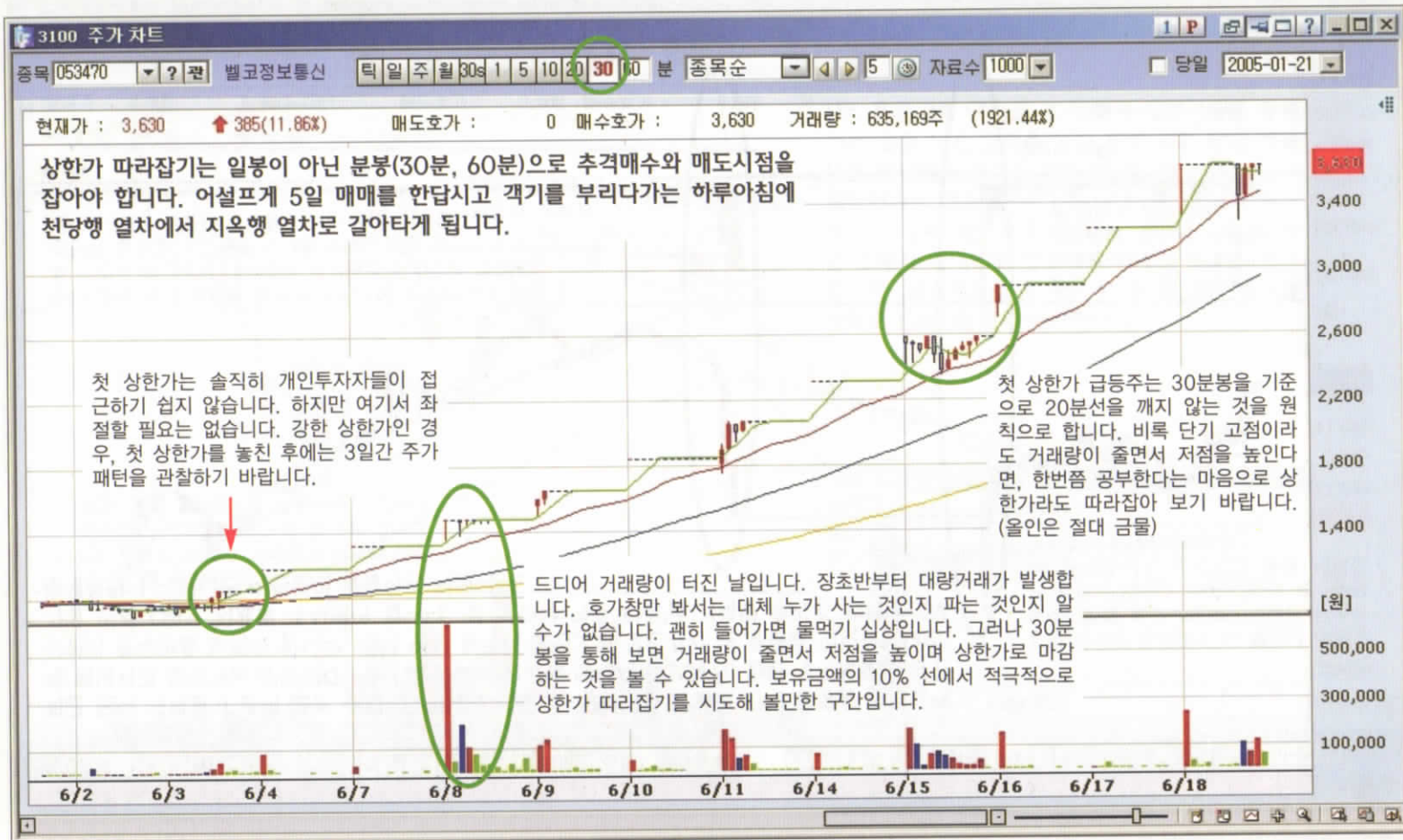


# 속임수 상한가 판단법



▶ 어떤 경우이든 첫 상한가 다음날, 장초반에 거래량이 급증하면(전날 상한가 거래량보다 많으면) 무조건 매도입니다. 강한 상한가는 거래량을 일부러 늘릴 이유가 없습니다.

## 상한가 따라잡기에서 분봉의 중요성





# 개인투자자들이 따라가기 힘든 급등 패턴



▶ 아무도 사지 않고 팔지도 않기에 거래량도 지극히 저조한, 매우 지루한 횡보구간에서 어느 날 대량거래에 비석형 캔들이 출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옆으로 기고 있는데, 혼자 잘났다고 대량거래에 위꼬리가 매우 긴 비석형 캔들이 출현하면 일단 2개월가량 관심권에 뒤보기 바랍니다.



## 급등과 급락, 그리고 되돌림 반등에 대해서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존재하는 법입니다. 항상 기쁠 수도 없고 언제나 슬픔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급등주는 대체로 주가 조정기간에 비례해 급등의 폭이 결정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1차 급등한 다음 눌림목을 통해 2차 급등이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단번에 2~300% 급등한 다음 장기간 하락추세 속에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지할 곳에서 지지를 못하고, 눌림목이나 되돌림 구간에서도 힘없이 무너지곤 합니다. 주식의 가격은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 사자는 사람과 팔자는 사람이 서로 합의를 보는 가격이 바로 주식가격입니다. 다음 2개의 급등주 차트가 있습니다. 한쪽은 급상승 후 반등없이 밀리는 차트이고, 다른 한쪽은 급반등이 일어나는 차트입니다. 처음은 유사한 급등패턴이지만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 하한가 매매는 곧 순발력 게임



▶ 하한가 매매도 상한가 매매와 마찬가지로 분봉을 통해 매매시점을 잡아야 합니다. 특히 하한가 매매는 위험성이 큰 만큼 당일 매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대량 거래가 동반된 상태에서 짧게 치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 하한가 매매의 기본 원칙

**하**한가 매매는 상한가 매매와 달리 상승장세나 하락장세나 매우 위험한 매매기법입니다. 상승장에는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하니 하한가 종목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을 것이고, 하락장에는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니 관심을 끌 수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매우 큰 매매기법이므로 경험이 풍부한 고수들이라도 함부로 하한가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일단 하한가를 친 종목은 투자자의 불안한 심리적 영향이나 시세 변화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해당 종목에 어떤 악재가 갑자기 시장에 돌출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연속 하한가를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공포심이 가중되면서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매수공황 상태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하한가 매매는 단타 위주로 접근하되 당일 반드시 팔고 나오는 것을 제1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3일 이상 연속 하한가로 마감한 종목 중에서 대량거래가 출현한 하한가 종목만 공략하는 것을 제2원칙으로 합니다.

### 그럼 왜 하한가 매매는 3일 이상 연속 하한가 종목에서만 가능할까?

첫째, 3일 하한가는 이전에 매수한 투자자가 최소한 -30% 이상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나 이틀 하한가는 개인들이 참을 수 있지만(물타기도 감행하지만) 3일이 지나서는 인내력 한계에 부딪혀 아예 장기투자로 전환하거나 대부분 손절매를 감행합니다.

둘째, 개인들의 미수물량을 자연스럽게 투매하게 합니다.(세력의 매집의도라면 더 이상의 좋은 매집환경은 없습니다.)

셋째, 만약 세력이 물린 경우라면 어떻게 하든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며 탈출을 시도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탈출하겠습니까? 바로 단기 급락을 노린(매물공백을 이용한) 반등 타이밍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단 팔 사람이 다 팔도록 만든 후, 개인들이 투매한 물량을 매수해 매집 단가를 최대한 낮춘 후 급반등을 시키며 물량을 처분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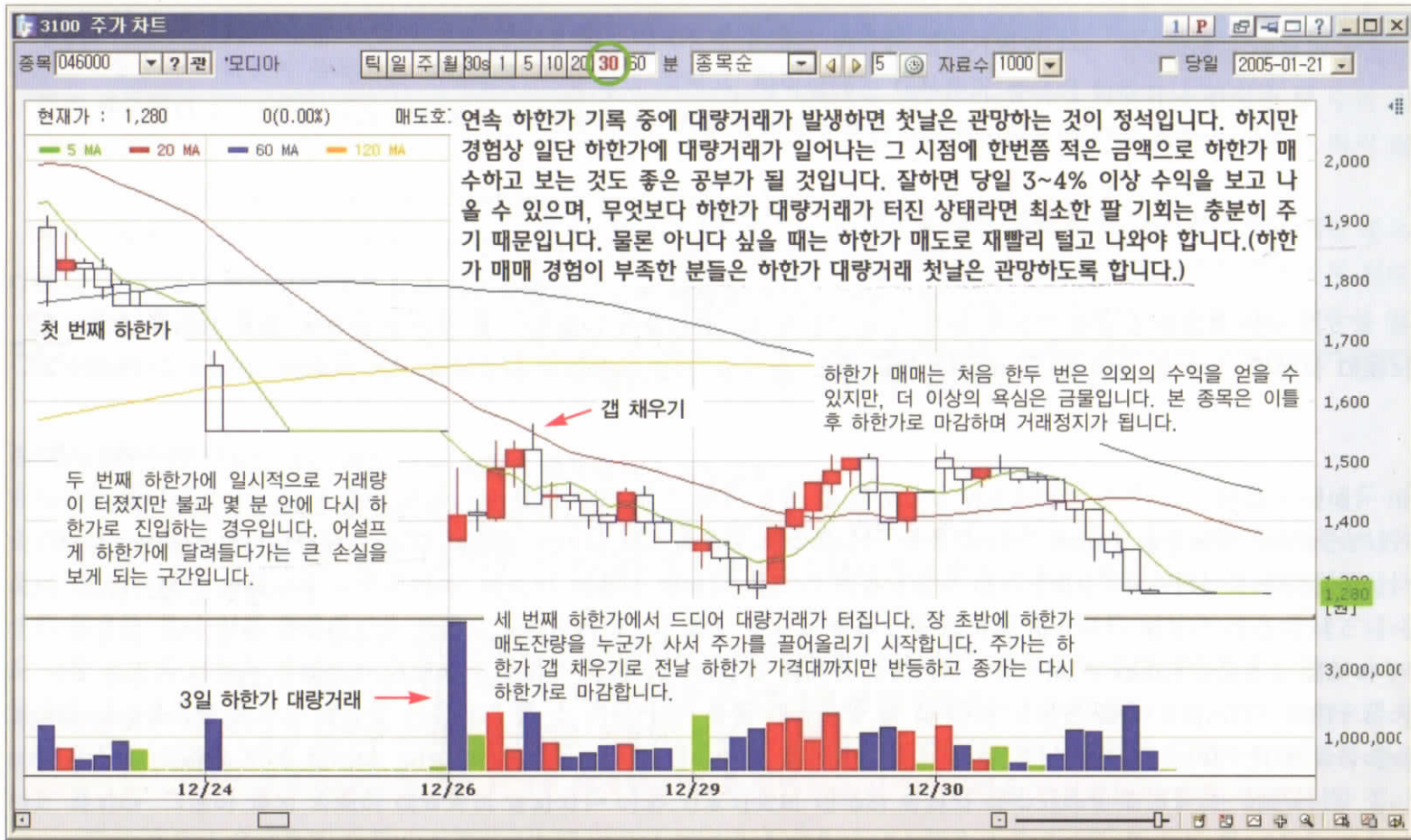


그럼 왜 하한가에서 대량거래가 일어나야 하는 것일까?

흔히 하한가 종목들을 유심히 관찰하다보면 하한가 호가창에 대량의 매수잔량이 등장하곤 합니다. 팔 사람은 하한가 라도 팔지만, 그동안 팔지 못했던 대부분의 투자자는 아침 시초가부터 대량의 하한가 매수잔량을 보고는 곧 반등이 올 것이라는 은근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데이트레이더가 몰리면서 하한가 한 호가 위, 그러니까 -10% 부근에서 치열한 매매공방을 벌이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한 번 이상 거래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이면 아홉 정도는 다음날 갭하락한 상태에서 손절을 감행하는 아픔도 겪었을 것입니다. 즉, 이때의 대량매수잔량은 세력이 보유한 물량을 팔기 위한 물량털기용 하한가 전략입니다. 이 경우 주가가 하한가를 탈피해 반등하는 척하다 대량의 매도세에 밀려 종가는 다시 하한가로 마감합니다. 따라서 하한가 매매는 반드시 하한가에서 대량거래가 일어나야 신뢰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하한가 대량거래는 누군가 대량의 하한가 매도물량을 매수했다는 사실입니다. 대량의 매수세의 출현은 투기성 세력이든 데이트레이더 간에 당일 하한가가 풀려 어느 정도 반등 혹은 갭 채우기가 시도된다는 뜻입니다. 하한가 매매는 바로 이때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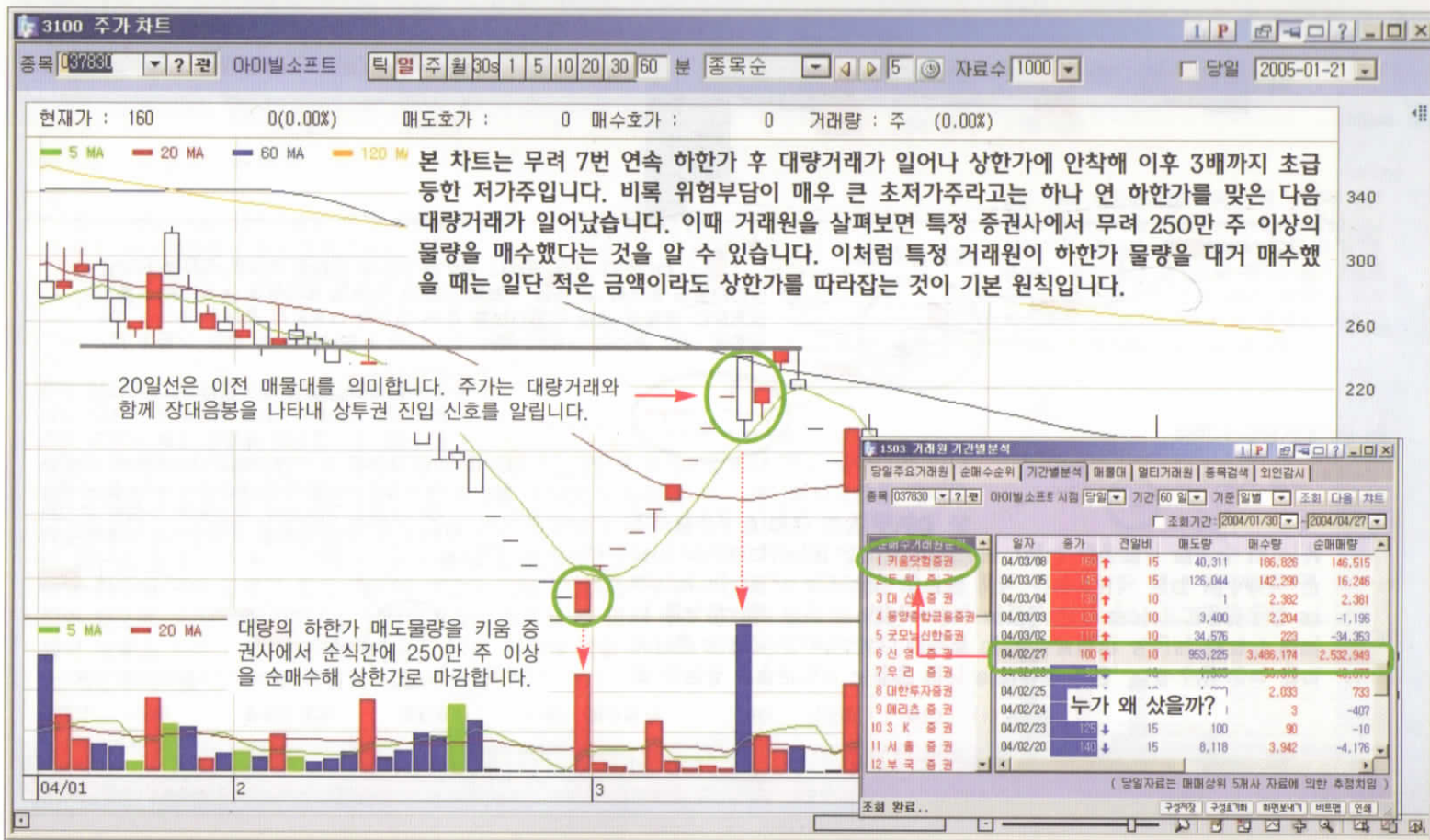
**주** 합해보면 하한가 매매는 일단 부실주가 아니어야 하고, 반드시 '3일 연속 하한가'를 친 종목 중에서 '하한가 대량거래가 발생한 종목'에서만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한가 매매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 3일 이상 연속 하한가에서 대량거래는 조심히 접근



▶ 하한가 매매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일 빠져나와야 합니다. 경험상 한두 번 하한가 매매의 재미를 봤다고 세 번 이상 같은 종목에 매매를 가져간다면 반드시 그동안의 수익을 고스란히 손해보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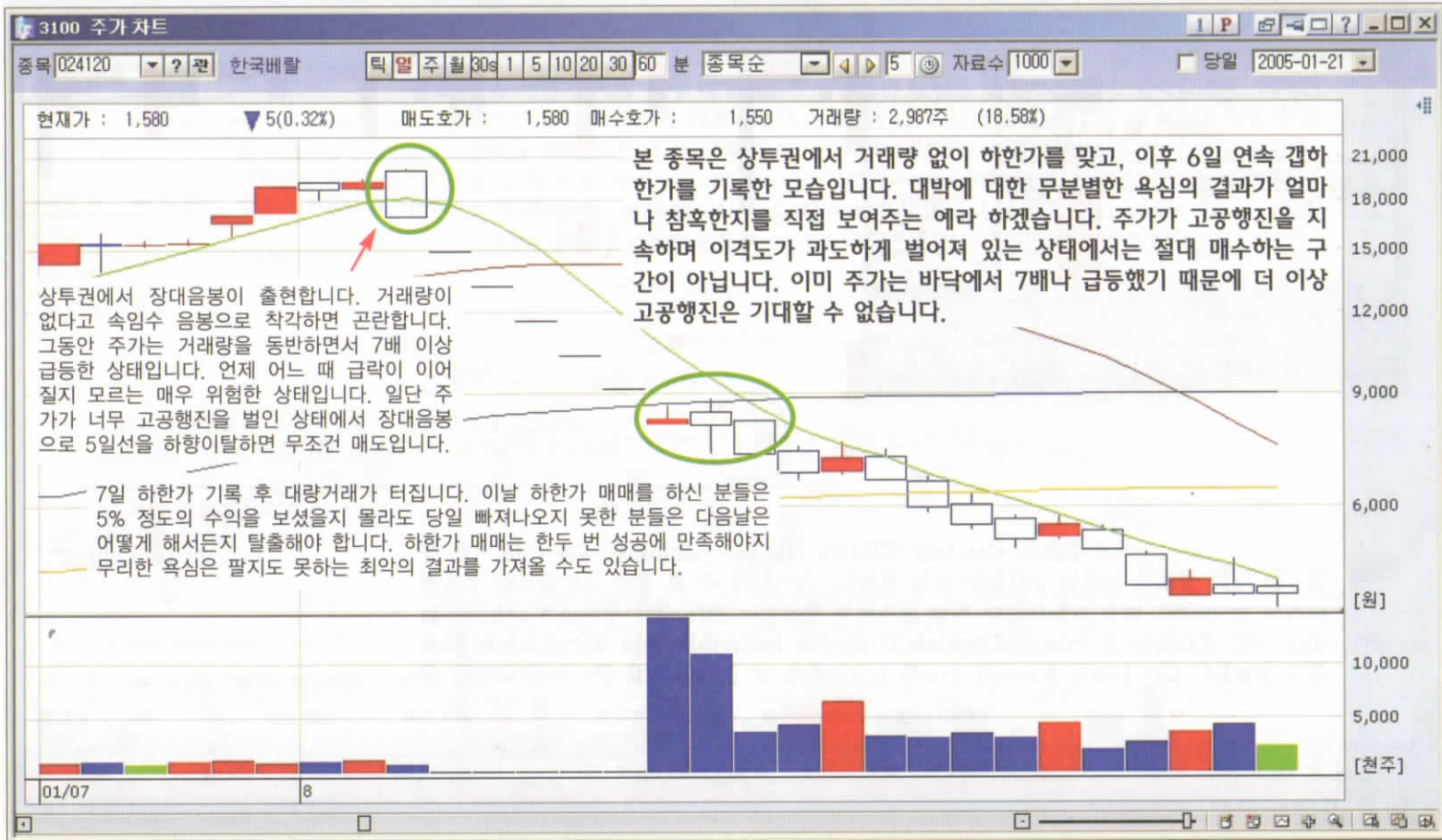
# 연속 하한가 대량거래시 거래원을 살펴라



▶ 특정 거래원이 공개적으로 대량의 물량을 매수했다는 것은 대부분 특정인이 해당 기업에 대한 지분매입 목적으로밖에 설명이 어렵습니다. 만약 투기세력이라면 공개적으로 한 증권사만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 하한가 대량거래 실패 사례



▶ 상한가에서 하한가까지 걸리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 피코소프트 2분 20초 / 솔고바이오 1분 20초 / LG카드 15초 정말 무섭습니다.

# 초저가주에서 하한가 매매를 잘못하면 끝이다



▶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간혹 기술적 분석을 아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실전과 이론이 대부분 맞지 않기 때문에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에게는 차트분석이 실전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 혹시 저가주만을 공략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전통적 투자기법인 사계다 전법에 대해서

**과**거 수십 년간 투자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많은 투자분석가가 저마다 다양한 투자기법을 만들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투자기법이 바로 사계다 전법입니다. 사계다 전법은 일본에서 창출한 이론을 구체화한 전통적 투자기법으로, 아래 설명에서와 같이 삼산(三山), 삼천(三川), 삼공(三空), 삼병(三兵), 삼법(三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1. 삼산(三山)

고점에서 봉우리가 삼개라고 해서 삼봉형이라고도 불리며, 지속적인 주가상승 이후에 매수세력이 유입되지만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추세로 반전되는 패턴입니다.(= 헤드 앤 쇼울더형(Head & Shoulder) 패턴)

### 2. 삼천(三川)

삼산형의 정반대의 패턴으로 흔히 삼중바닥형으로 불리입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며 바닥 저점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며, 장기간 하락추세에서 상승추세로 전환되는 확률이 매우 높은 패턴입니다.(= 역 헤드 앤 쇼울더형(Reverse Head & Shoulder) 패턴)

### 3. 삼공(三空)

삼공은 갭(Gap)을 의미하는데, 주가가 어느 날 매매거래 없이 갑자기 급등 혹은 급락함으로써 주가 매매가격의 빈 공간을 말합니다. 크게 상승갭과 하락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런 갭이 3회 이상 연속 발생하는 경우를 삼공이라고 합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급등한 상태에서 삼공이 발생하면 추세전환시점으로 해석합니다.

### 4. 삼병(三兵)

삼병형은 적삼병과 흑삼병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바닥권에서 적삼병은 상승신호, 상투권에서 흑삼병은 하락신호입니다.

### 5. 삼법(三法)

삼법형은 주가가 상승추세나 하락추세 중에서 음봉 혹은 양봉이 3개 연속해 출현하는 것을 말하며, 상승삼법형과 하락삼법형 패턴으로 구분됩니다. 상승삼법형은 주가가 상승추세에 있을 때 장대양봉 다음에 음봉 3개가 연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상승 눌림목 기간 중에 자주 발생합니다. 이에 반해 하락삼법형은 주가가 하락추세에 있을 때 장대음봉 다음에 양봉 3개가 연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적 반등 혹은 되돌림 현상이 일어날 때 자주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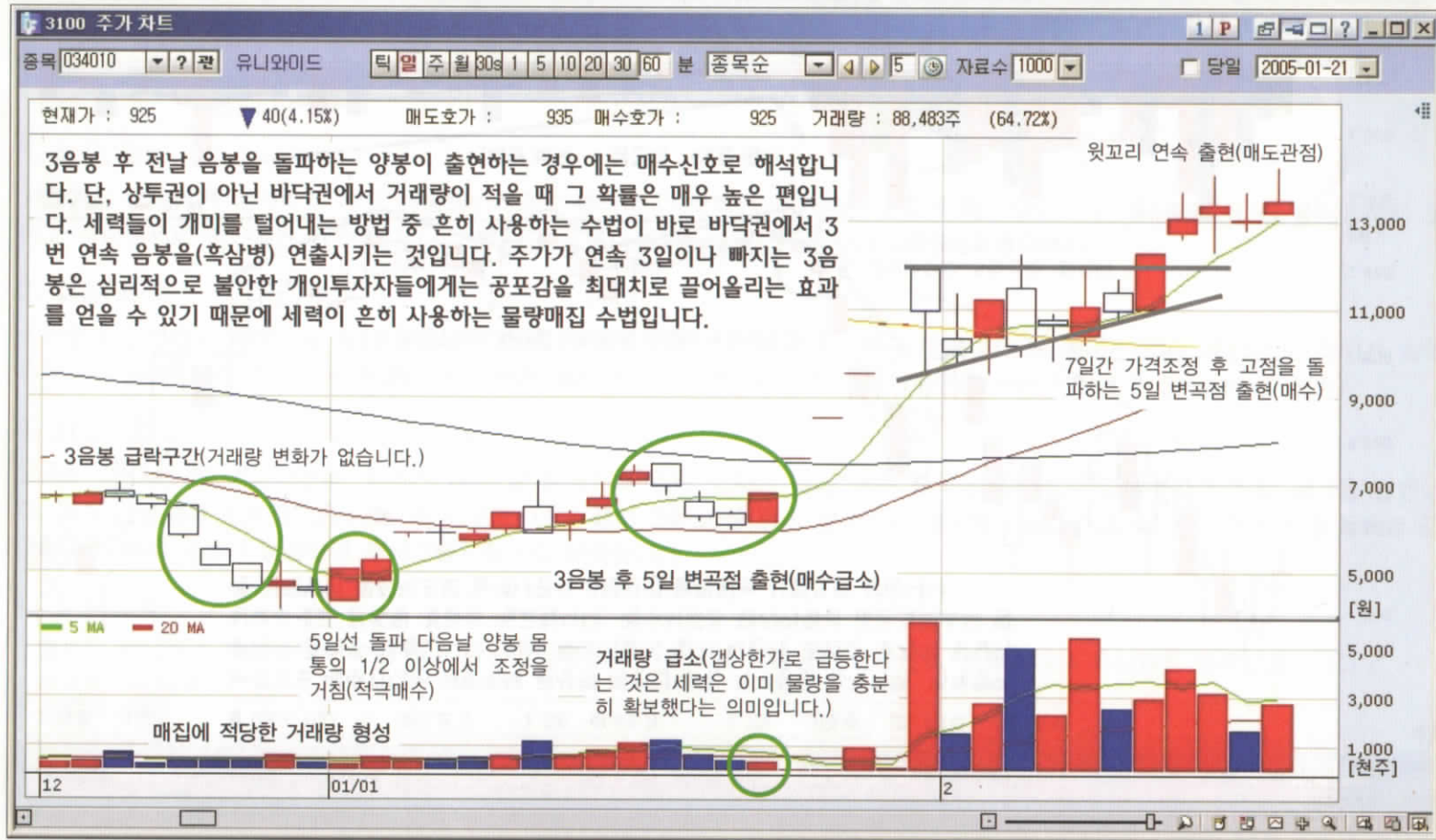


# 삼중바닥 완성 후 5일선 돌파를 노려라



▶ 삼중 바닥형 만큼 견고한 하방경직성을 자랑하는 주식도 드물다. 악재가 없는 한 삼중바닥 완성 후 상승추세로 전환되지만, 삼중바닥 완성 후 오히려 추세가 하락세로 꺾였을 때는 낙폭이 더 클 우려가 있습니다. 반드시 거래량 증가와 함께 이평선 돌파여부를 확인한 후에 매수관점으로 접근합니다.

## 3음봉 패턴 후 양봉을 노려라



▶ 3음봉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3일 연속해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경우입니다. 3음봉 이전에 매수한 이들은 3일 연속 손실을 본다는 것이고, 급기야 미수를 감행했다면 자연히 반대매물량이 나올 시점입니다. 다들 팔고 싶어 할 때 세력은 저가에 물량을 매집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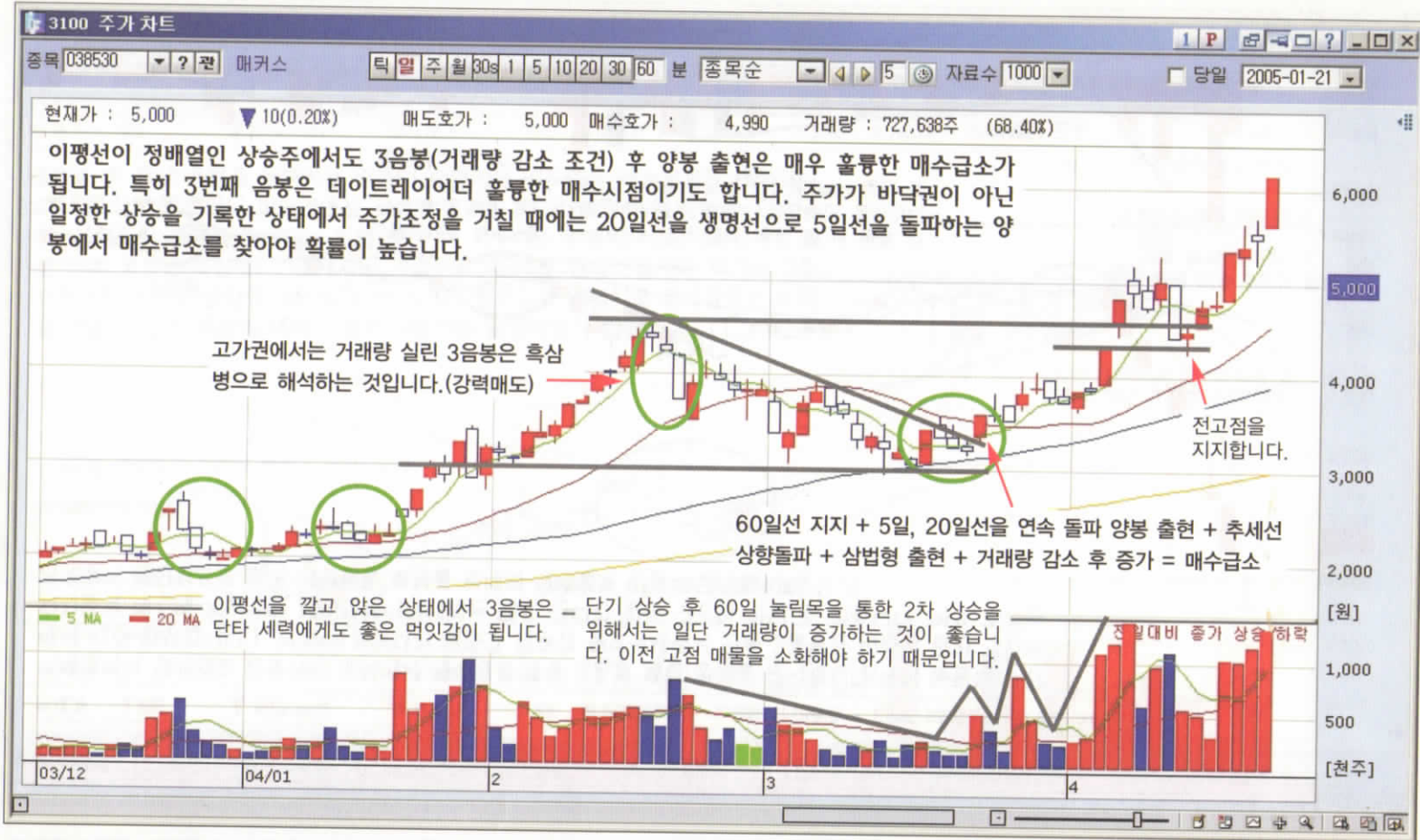
# 급등주에서 3음봉 후 5일선 돌파하는 양봉을 노려라



▶ 상승 놀림목 구간에서는 대체로 양봉보다는 음봉이 많습니다. 음봉은 주가가 낮아진다는 것이고, 상승을 예상해 매수했는데 주가는 5일선을 이탈하며 내려간다면, 이전 고점에서 산 매수자들은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들까? 속았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세력은 이점을 노립니다.



## 정배열 조정시 3번째 음봉을 노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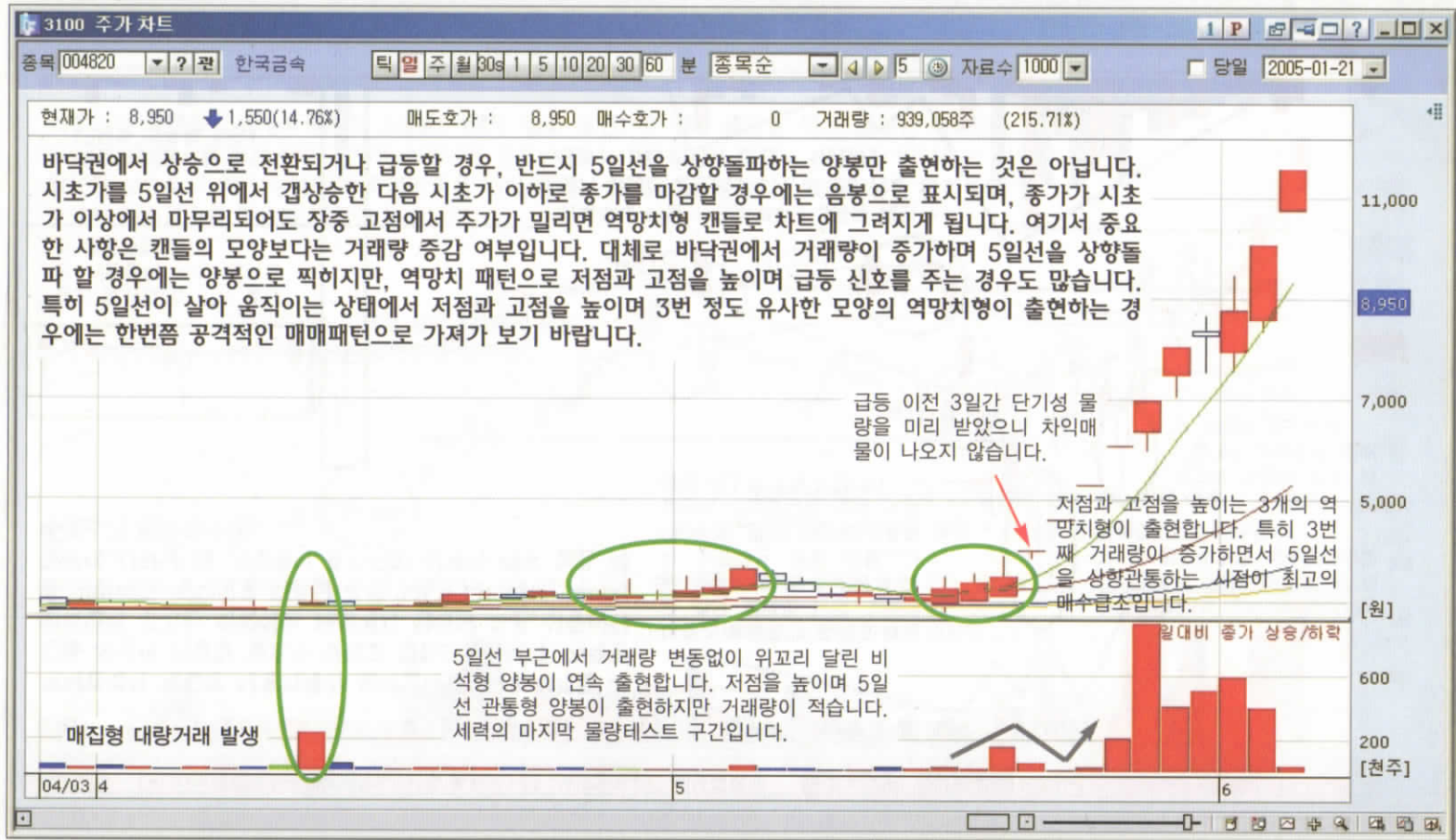
▶ 중장기 이평선이 지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점과 저점이 차례로 낮아지는 3음봉은 데이트레이더에게 최적의 매수조건이 됩니다. 거래량이 감소한 상태에서는 단기 매물 공백이 생깁니다. 미수를 감행한 이들은 반대매매가 나가기 이전에 손절매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단타매매를 한다면 바로 3번째 음봉에서 증가 매수를 하고 다음날 매도하는 전략으로 매매패턴을 가져가면 됩니다.



# 매집형 대량거래 출현 후 3음봉은 매수급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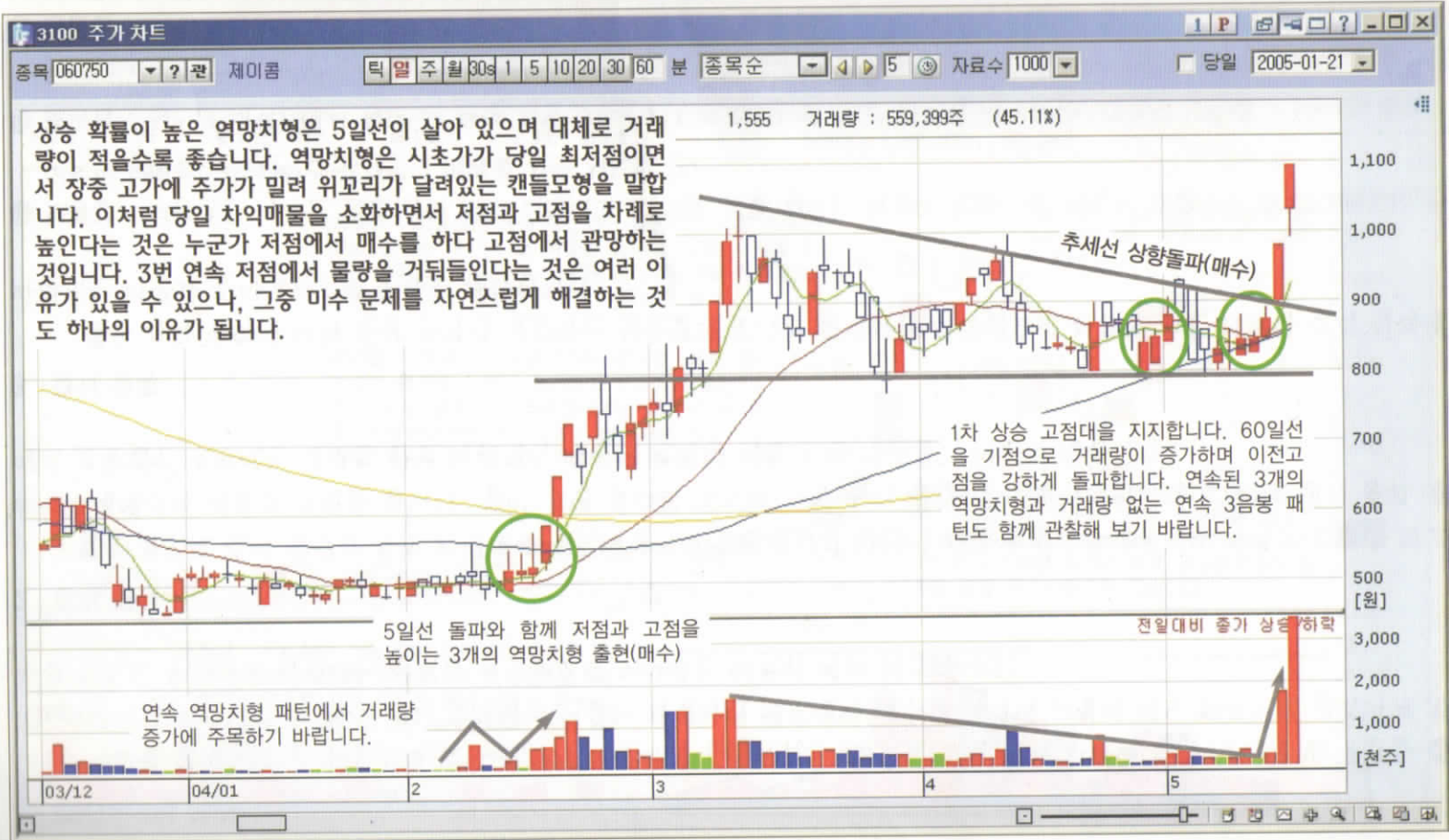
## 바닥권에서 5일 변곡점 탄생시 역망치형을 노려라



▶ 급등 초기 연속 역망치형의 의도는 세력이 주식을 최종적으로 매수한 다음 시장을 그대로 관망하면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누군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안 하니 저점에서 산 이들은 일단 수익을 봤으니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당일 주식을 팔고 봅니다. 즉, 양봉 다음날 출현할 차익매도물량을 세력이 미리 받는 과정에서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역망치 양봉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 이평선 수렴 중 연속 역망치 출현은 매수급소





## 갭의 기본적 이해

### 1. 갭(Gap)의 의미

차트를 살펴보면 주가가 거래 없이 갑자기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예가 많은데, 이때 주가와 주가 사이에 빈 공간을 갭(Gap)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갭이 발생하는 이유는 팽팽하던 매도세와 매수세 사이의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급격하게 치우친 결과로 투자자의 급변하는 심리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 2. 갭의 특성

일반적으로 갭이 발생한 특정 가격대에서는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추세에서는 지지선 역할을 하고 하락추세에서는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갭이 크면 클수록 지지와 저항이 더 강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갭의 종류 중에서 보통갭인 경우에는 대부분 한번 채워지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의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3. 갭의 종류

갭은 가격 변화에 따라 통상 주가가 상승하는 상승갭과 주가가 하락하는 하락갭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갭의 성격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종류로 분류합니다.

- ① **보통갭** : 보통갭은 박스권 횡보 중에 자주 나타나며, 대부분 갭을 채우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캘퍼나 데이트레이더들은 이러한 보통갭이 발생하면 갭채우기 매매를 자주 시도합니다.
- ② **돌파갭** : 장기간 바닥권에서 횡보 중 특정 저항선이나 지지선 매물대를 순간 돌파할 때 생기는 갭으로 보통갭과 달리 메워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단 돌파갭이 발생하면 추세반전의 강한 신호탄이 됩니다.
- ③ **중간갭** : 주가가 급상승이나 급하락에 발생하는 갭으로 추세의 힘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투자심리의 과도한 분출기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매매를 극히 자제해야 하는 위험 구간입니다(상승갭, 하락갭).
- ④ **소멸갭** : 추세전환 시점을 알리는 최종 갭을 말하며, 과도한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조만간 급락이나 급반등이 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갭은 그 시점에 확인하기 힘들며 주가 정점을 지나 갭을 채우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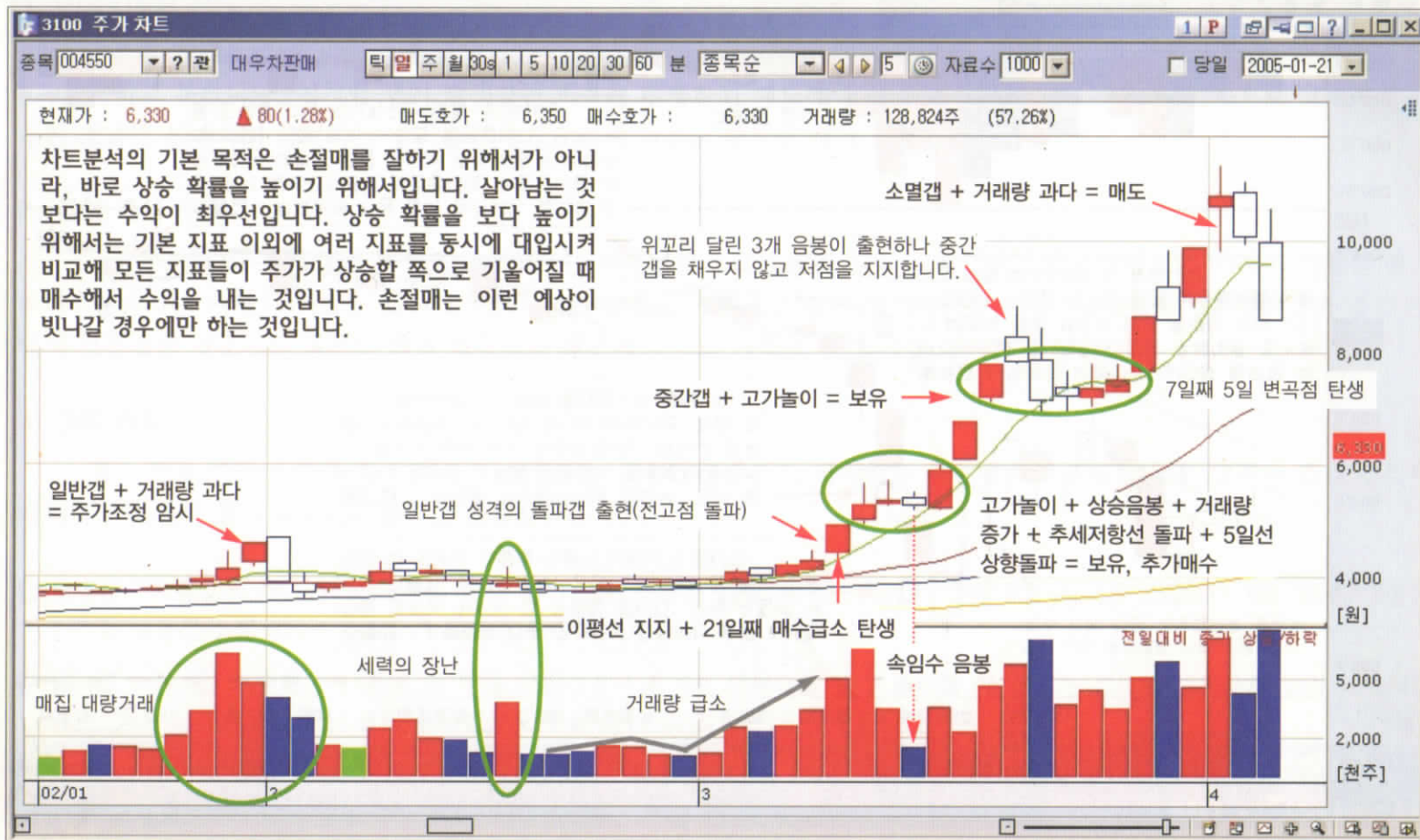
## 갭의 종류와 기본 성격



▶ 갭의 성장과정은 보통갭→돌파갭→중간갭→소멸갭 순입니다. 주가의 성장과정도 이에 어긋나지 않게 진행됩니다. 보통갭은 단타 구간이며, 돌파갭 발생시점이 비로소 적극적으로 매수나 매도나를 결정하는 구간입니다. 중간갭은 관망, 소멸갭이 비로소 출현한다면 급락권보다 상투권에서 신뢰가 높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신호로 해석합니다.



## 갭을 통해 살펴보는 급등주 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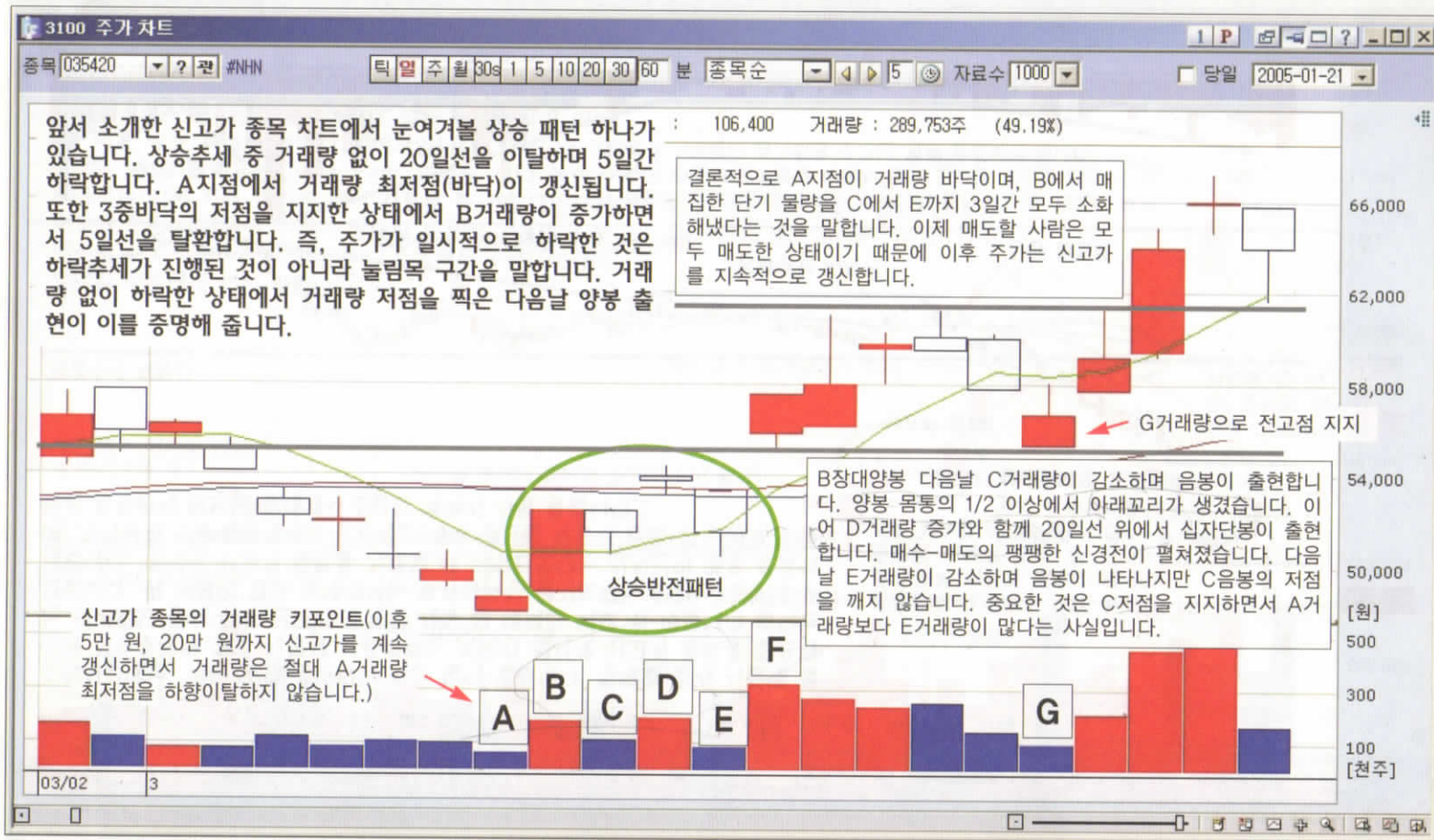
▶ 기술적 분석을 어느 정도 공부한 분들은 일단 손절매 타이밍은 잘 잡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손절매를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익이 목적입니다. 수익을 내려면 상승확률이 높은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데, 바로 상승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대로 된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설픈 차트분석은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 신고가 종목 투자 요령



▶ 신고가 매매는 전체 장이 상승추세일 때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하락추세 장세에서는 언제 어느 때 추세반전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신고가 종목을 고를 때는 소형주는 제외하며, 업종대표주나 시장인기주에서 찾도록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외국인 지분이 증가하는 주식일수록 좋습니다.

## 신고가 갱신 과정 중 참조할 상승반전 패턴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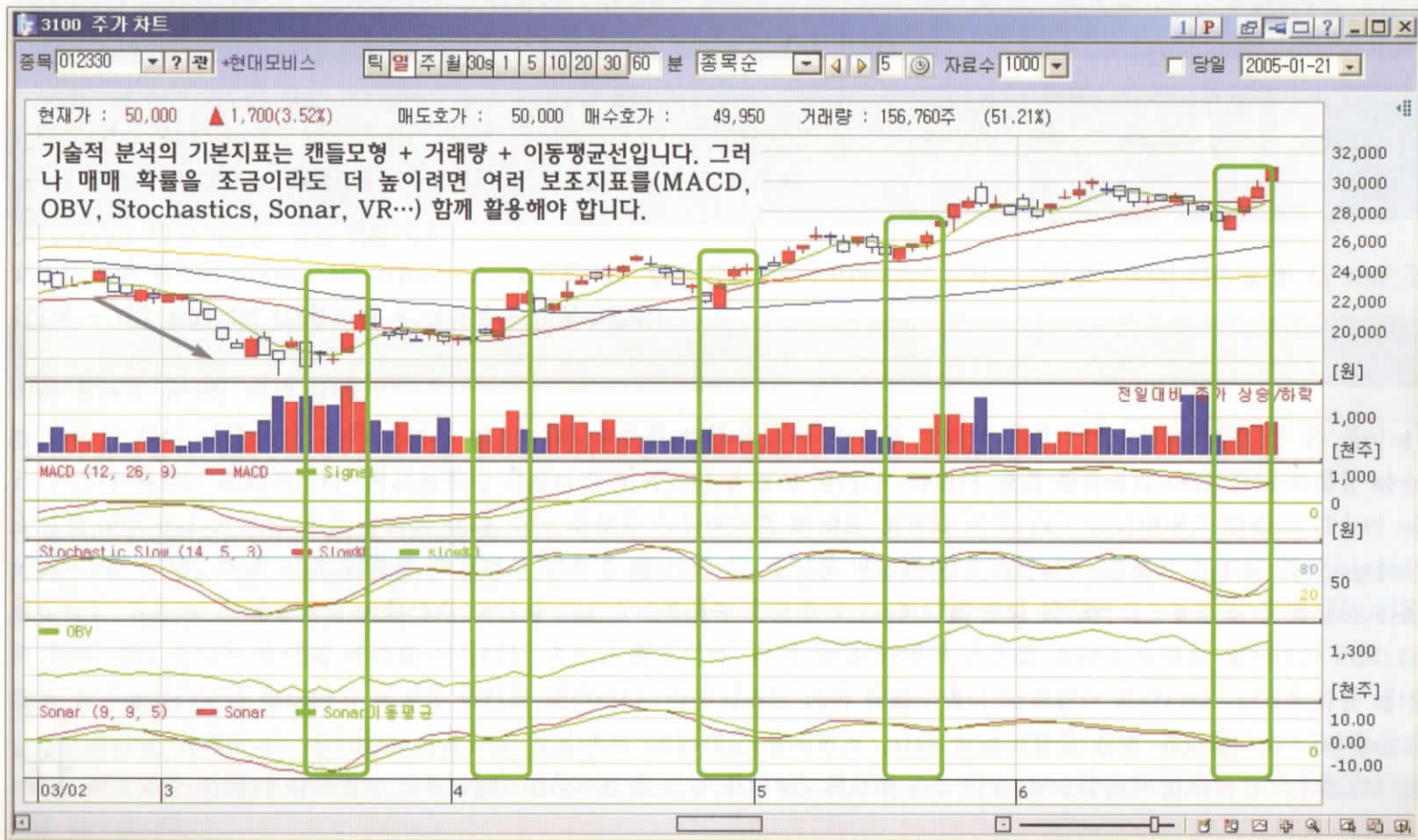


▶ 상승추세 중 거래량 없이 단기 하락한 상태에서 거래량 바닥→거래량 증가(양봉)→전날 양봉 몸통의 1/2 이상 조정→갭상승 단봉→갭하락 음봉(저점 지지, 거래량 최저점 보다 증가)= 상승반전 확률이 매우 큰 눌림목 패턴입니다. 실전에서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패턴은 아예 암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보조지표를 활용해 확률을 높여라



▶ 보조지표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전에서는 다이버전시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두 개의 보조지표만으로는 신뢰성을 얻기 힘듭니다. 되도록 신뢰도가 높은 보조지표 위주로 3개 이상 함께 사용해야만 추가흐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투자매매 확률을 높이는 맥

**차**트분석을 하면서 여러분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분석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먼저 추세방향을 확인하고, 지지선과 저항선을 설정하고, 거래량과 이평선을 분석하고, 매물대를 살펴보고, 기타 투자지표를 통해 상투권인지 바닥권인지 혹은 조정구간인지를 판단하고 매매를 판단할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법입니다. 차트분석을 제대로 한다 해도 주가는 우리의 예상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주가가 내일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는 50% 확률인데도 절반 이상 예측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의 투자방법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절반의 확률에서 60%, 70%, 80% 이상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식을 매매하기 이전에 특정 종목에 대한 접근 방법을 근본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매매는 하수나 고수나 어느 누구나 잘하는 방법입니다. 비밀번호만 입력하고 키보드만 누르면 됩니다. 그러나 특정 종목에서 대한 접근 방법은 아무나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락을 해도 내일 상승할 확률이 높은 주식을 고르는 일입니다.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며, 어떤 절차로 접근을 해야 될까?

### 1단계 - 제3 투자지표 (캔들모형 + 거래량 + 이동평균선)

차트의 구성 요소인 동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입니다. 이들 3개 투자지표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지식이 없다면 총 한 자루 없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 2단계 - 제4 투자지표 (캔들모형 + 거래량 + 이동평균선 + 보조지표)

캔들, 거래량, 이평선만으로 투자의 절대기준을 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조지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소 귀찮기도 하고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차트분석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지표인 만큼 개인투자자의 필수과목과도 같습니다.

### 3단계 - 제5 투자지표 (캔들모형 + 거래량 + 이동평균선 + 보조지표 + 심리지표)

심리지표란 주가는 대중의 심리와 반대로 진행된다는 원리에 근거하여 역발상 기법, 음봉매수법, 양봉매도법 등 투자심리를 역으로 활용하는 포괄적 투자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투자매매 확률을 최소한 51% 이상 높이기 위해서는 바로 3단계까지의 모든 지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포커를 할 때도 내 패만을 보고 승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의 패와 바닥에 놓인 패와 더불어 상대의 얼굴표정과 몸짓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패를 읽어내는 능력이 있어야만 비로소 이기는 승부를 하는 것입니다.

**매수관점** = 대세상승 + 박스권 돌파 양봉 + 하락추세선 상향돌파 + 2(3)중바닥 확인 + 이평선 지지 + 골든크로스 + 거래량 감소 후 증가 + 고가놀이 패턴 + 돌파갭 + 추세저항선 상향돌파 + 5일, 20일 눌림목 + 상승음봉 + 5일 변곡점 + 호재출현 + 각종 지표 상승반전 등

**매도관점** = 대세하락 + 장대음봉 + 하락추세반전 + 쌍(삼)봉 + 위꼬리 장대봉 + 속임수 양봉 + 고가권 대량거래 + 거래량 감소 + 추세지지선 하향이탈 + 데드크로스 + 연속 갭하락 + 돌발악재출현 + 각종 지표 하락반전 등(교차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은 그만큼 높습니다.)

## 기 엘리어트는 죽었다

먼저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투자이론 몇 가지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 1) 랜덤워크이론(Random Walk theory)

주가는 정국의 동향, 경기, 통화량, 물가, 금리, 기업의 수익력 등 각종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히 주가예측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방식의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랜덤이론의 요점입니다.

### 2) 다우이론(DOW theory)

주식시장의 사이클을 강세시장 3국면(매집→고조→과열)과 약세시장 3국면(분산→공황→침체)으로 구분한 대표적인 추세이론입니다. 주가추세는 주추세(1년) / 중기추세(3~6개월) / 소추세(1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주추세가 상승세면 강세시장을 하락세면 약세시장을 나타냅니다.



### 3) 엘리엇 파동이론(Elliott Wave Principle)

주가의 흐름은 상승 5파와 하락 3파로 구성된다는 이론입니다. 상승 5파는 주가가 올랐다가(1파) 조정 받고(2파) 다시 오르고(3파) 조정 받고(4파) 오른다(5파)는 것을 말합니다. 상승 5파가 마무리되면 하락 3파가 시작되는데, 하락 3파는 주가가 빠졌다가(1파) 반등했다가(2파) 다시 하락할 때(3파)를 말합니다.

### 4) 박스이론(BOX theory)

주가의 파동에서는 일정한 가격폭을 왕복하는 습성이 있어 이를 이용해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주가가 상승추세로 돌입하는 시기에 주가가 박스의 상한을 돌파하게 되면 종래의 박스 위에 새로운 박스가 형성되고, 따라서 박스 상한을 돌파한 시점에서 해당 종목을 매입하게 되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박스권 이론입니다.

▶ 이 이론 중에서 모든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듣고, 배우고, 집착하고, 이해하려고 무던히도 애쓰는 이론은 아마도 엘리엇 파동이론일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이것은 파동이론이 실전 활용도가 높아서, 혹은 주식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이론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투자이론과 달리 단지 파동 하나만 가지고도 책을 몇 권 쓸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게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단순한 이론 하나를 가지고 단지 다른 이론과 달리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개인투자자들은 무언가 확실한 투자비법이 숨어 있을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투자이론처럼 그저 알고 지나갈 일반적인 단순한 이론이 어느새 주식시장에서 필독서가 되고 필수투자이론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엘리엇 파동 이론은 단지 우량주들을 세력이 매집하고 고가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연히 반복되는 그저그런 하나의 패턴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상승 5파니 하락 3파니 실전에서는 대부분 무용지물이며, 굳이 상승각도니 비율이니 조건이니 그밖에 숫자들을 암기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차트 하나라도 더 분석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주**식투자는 객관화된 그 어떠한 이론도 없을뿐더러 수학공식처럼 암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론은 있지만, 주식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그때그때의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임기응변 없이는 절대 살아남지 못하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인생은 도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위험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주식시장도 알고 보면 도박장입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살아남는 매우 치열한, 현대 자본시장에서 공식적으로 합법화된 매우 훌륭한 도박장인 셈입니다. 그런 도박장에서는 항상 돈을 잃는 하수와 돈을 따는 고수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화투나 포커나 심지어 돈내기 바둑을 두어도 하수와 고수의 차이는 명확히 갈립니다. 하수는 일단 감으로 승부하는 경향이 많지만, 고수는 상대의 패를 읽고 고도의 심리전을 벌이며 여러 기술적 분석을 통해 승리의 확률을 최대한 높입니다. 주식시장에는 대다수의 하수투자자와 유사한 매매패턴으로는 절대 남의 돈을 따지 못합니다. 이 장에서는 간략히 하수와 고수투자자의 일반적인 매매패턴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편에서 있는지 직접 점수를 한번 매겨보기 바랍니다.

하수투자자 매매패턴	고수투자자 매매패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1년 12달 365일 하루종일 매매</li> <li><input type="checkbox"/> 저점 매수, 고점 매도</li> <li><input type="checkbox"/> 올인(미수) 매수-매도</li> <li><input type="checkbox"/> 신저가 저점 몰타기</li> <li><input type="checkbox"/> 저가주 물량 늘리기</li> <li><input type="checkbox"/> 양봉 매수, 음봉 매도</li> <li><input type="checkbox"/> 상한가 관망, 하한가 매수</li> <li><input type="checkbox"/> 매도 후 가격 상승→머칠 동안 화가 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5년에 크게 1번(대선), 1년에 적당히 4번(분기별) 베팅 매매</li> <li><input type="checkbox"/> 고점 매수, 저점 매도(이전 고점 돌파 매수, 이전 저점 돌파 매도)</li> <li><input type="checkbox"/> 분할 매수-매도</li> <li><input type="checkbox"/> 신고가 고점 몰타기</li> <li><input type="checkbox"/> 고가주 물량 늘리기</li> <li><input type="checkbox"/> 음봉 매수, 양봉 매도</li> <li><input type="checkbox"/> 상한가 매수, 하한가 관망</li> <li><input type="checkbox"/> 매도 후 가격 상승→원인 분석</li> </ul>

- 한번 성공한 종목→또다시 재매매 후회
- 오전에 큰 수익이 난 이후, 오후에는 마이너스
- 저가주 위주의 단기 매매
- 비인기주, 소외주 매매
- 몇 호가 위·아래에서 보조 매매
- 장중 고가권 매매
- 상투권 추격 매수, 눌림목 투매 매도
- 일단 손해보면 만만디(장기투자) 전환
- 손절매를 잘해야 한다며 잦은 손절매
- 캔들과 이동평균선에 관심
- 주관적 매매(심리불안)
- 거래원 탐색
- 거래량도 없는 지루한 종목에 관심
- 장마감 후 신문, 증권방송, ARS, 애널리스트에 온 신경 집중

- 한번 성공한 종목→관심종목에서 삭제
- 오전에 큰 수익이 나면 그날 매매 종료
- 고가주 위주의 중기 매매
- 인기주, 테마주 매매
- 시장가 매매
- 시초가와 증가 매매
- 바닥권 추가 매수, 눌림목 확인 매수
- 예상과 빗나가면 과감한 손절매
- 눌림목에서는 기다림의 투자전략
- 거래량에 관심
- 객관적 매매(자신만의 매매기법 고수)
- 거래량 탐색
- 바닥권 종목에 꾸준한 관심(거래량 증가시 매수 준비)
- 장마감 후 차트분석(실패와 성공 요인 메모)





**기** 술적 분석에서는 기본적으로 4가지 투자(매매)지표가 있습니다. 캔들, 거래량, 이평선, 그리고 보조지표를 말합니다. 여기에 제5의 투자지표가 있는데, 바로 심리지표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이들 5가지 매매지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수많은 투자기법이 탄생합니다. 지면상 대표적인 기법들 위주로 간략히 명칭만 표기하였습니다만 이외에도 많은 기법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매매기법으로 투자를 하십니까? 자신만의 매매기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최소한 여기에 소개된 매매기법들 모두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실전에 활용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지금부터 다시 노력하기 바랍니다(음식도 자기 입맛에 맞아야 하듯이, 매매기법도 본인 성향에 맞아야 합니다. 실전활용을 통해서 성공 확률이 높은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본인 성향에 맞는 매매기법입니다.).

기계적 매매기법(일정한 수익 발생 후 바로 매도)

시스템 매매기법(시스템 트레이딩)

신고가 매매기법

신저가 매매기법

3일선 매매기법(한 템포 빠른 이평선 매매법)

5일선 매매기법

10일선 매매기법(주가 횡보 중에 활용)

20일선 매매기법

정배열 매매기법

역배열 매매기법

역발상 매매기법(남들이 생각하는 반대로 투자하는 방법)

되돌림 매매기법(25%, 33%, 50% 되돌림 활용)

물타기 매매기법(눌림목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

물량늘리기 매매기법(물타기와 달리 고가매수가 일반적)

매도후-재매수 매매기법(세력의 겁주기성 물량 늘리기 기법)

상한가 매매기법

하한가 매매기법

시초가 매매기법

종가 매매기법

3일반대 매매기법(=3음봉)

이격도 매매기법

변곡점 매매기법(5일, 20일 변곡점 매매)

추세선 매매기법(하락추세선 상향돌파)

거래량바닥 매매기법

거래량추세 매매기법(주가 바닥이 거래량 대바닥인 경우)

추세대 매매기법(저항추세선 상향돌파)

삼각패턴 매매기법(이평선 정점에서 추세확인 매매)

박스권 매매기법

매물대 매매기법

사깨다 전법

급등주 매매기법

급락주 매매기법

2단급락주 매매기법

놀림목 매매기법(상승추세 중 5일, 20일, 60일 놀림목)

분차트 매매기법(3분, 5분, 10분, 30분, 60분봉 위주)

상승음봉 매매기법

양음양 매매기법

짜짓기 매매기법

공시가 매매기법

지수주 매매기법

테마주 매매기법

왕따주 매매기법(전체 장이 상승세 속에서 혼자 하락하는 주식)

비인기주 매매기법

미수 매매기법(부실주, 소형주, 저가주 제외)

분봉 매매기법

주봉 매매기법

갭 매매기법(보통갭에서 갭 채우기 매매법)

고가주 매매기법

저가주 매매기법

상폐주 매매기법

Part **4****데이트레이더를 위한  
최고의 신차트 강의**





## 데이트레이더는 오로지 차트로만 승부한다

**데**이트레이더(Day Trader)는 장세와 상관없이 특정 종목들만 하루에 몇 번이고 거래를 하면서 장 종료 시점에는 내일  
에 대한 주식시장의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보유종목을 모두 매도해 현금화하는 투자자들을 말합니다. 최근  
에는 전문 데이트레이더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대부분은 데이나 스윙(매수한 주식 당일 매도하기보다는 추세진행에 따라  
서 며칠씩 보유하는 전략)을 병행하며 주식을 매매하는 투자패턴을 보입니다.

주식투자를 하는 개인투자자들은 크게 직장인과 전업투자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종일 주  
식시장을 지켜볼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우량한 종목군에서 기본적 분석 위주의 중·장기 투자패턴을 보입  
니다. 그러나 전업투자자는 하루하루가 치열한 전쟁터이기 때문에 데이나 스윙 등과 같은 단기투자패턴을 보이며, 따라서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장시작부터 장마감 시간까지 하루종일 주식시장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차트분석의 여러 매매방법 중 분봉매매, 갭매매, 박스권매매, 시초가매매, 종가매매, 상한가매매, 하한가  
매매 위주로 단타 수익을 최고의 목적으로 합니다. 무엇보다 데이트레이더는 중·장기 투자자와는 달리 자기만의 투자기  
법이 반드시 있어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데**이트레이더는 무엇보다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일 매매를 통해 최소한의 수익(2% 이상)을 얻은 후, 장마감 이전에는 반드시 빠져나와야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 위주로 선정합니다. 또한 돌발변수에 따라 손절매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량, 즉 유동성이 풍부하면서 가격변동폭이 비교적 큰 인기주나 테마주 등이 주 타깃 종목군입니다. 절대적 기준은 못 되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는 종목이 데이트레이딩에 적합한 종목들입니다.

- 거래량이 활발하고 주가 변동폭이 비교적 큰 종목
- 하방경직성이 강한 종목(강한 지지대 형성)
- 유동성이 풍부한 주식
- 거래량 바닥을 찍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
- 시장 인기주, 테마주, 주도주
- 우량한 주식의 단기 급락주
- 정배열 20일선 상승주, 혹은 5일 상승주
- 역배열 말기, 정배열 초기, 박스권, 눌림목 구간
- 초저가주, 부실주, 관리주, 상폐주는 제외



## 데이트레이더의 매매 시간대는?



▶ 장 개시 전 동시호가(오전 8시 30분~9시) 시간은 데이트레이더에게 매우 민감한 시간대입니다. 동시호가 매매잔량을 이용해 전날 장마감에 매수한 단타세력이 당일 오전에 팔아넘기려 대량의 허매수로 개인투자자들을 유인할 수도 있고, 갭상승이나 동시호가 상한가로 급등하거나 갭하한가로 급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동시호가 매매는 개인들이 쉽게 달려들어서는 안 되며, 최소한 장 개시 후 5분 정도 관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데이트레이더라면 먼저 무엇을 참조해서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겠습니까? 아마도 대체로 초보 투자자들이라면 호가창을 제일 먼저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매수하고픈 가격대에 매수잔량을 깔아놓고, 매도하고픈 가격대에 매도잔량을 얹혀놓고 마냥 기다릴 것입니다. 낮은 가격에 체결되길 또는 높은 가격에 체결되길 갈망하며 하루종일 보초를 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가장 초보스럽고 억지스런 데이트레이드 방법입니다. 경험상 밀로 받쳐봐야 추가 하락이요, 위로 내놔봐야 추가 상승으로 배 아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에 체결된다는 것은 하락추세를 의미하고, 높은 가격에 체결된다는 것은 상승추세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데이트레이더에게는 때론 이런 매매패턴이 꽤 괜찮은 투자수익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성공확률보다 실패확률이 높은 매매패턴입니다. 호가창에 대량으로 쌓여있는 매수잔량이 진정 매수하고자 하는 잔량일까? 아니면 유혹을 목적으로 한 허매수일까? 또 한 호가창에 대량의 매도잔량이 딱 하고 버티고 있으니 쉽게 올라갈 것 같지 않아 손절매를 하거나 매수를 보류해야 할까? 정답은 호가창을 보고 매매시점을 잡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경험 많은 데이트레이더는 호가창이 아니라 분차트를 통해서 거래량 변화나 그밖에 지표 변화에 따라 주로 시장가 매수-매도가 정석입니다.



## 일단 정배열 종목이 안전하다



▶ 꾸준히 상승하는 정배열 종목에서는 외국인 지분 변동을 한 번 살펴보는 것이 투자매매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꾸준히 매입하는 종목은 급락이나 추세하락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상승하는데 어느 날부터 외국인 지분이 조금씩 줄어든다면, 머지않아 주가는 상투를 틀고 하락추세로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합니다.

## 5일선을 따라가는 종목에서 확률이 높다



▶ 20일선 수급선 아래에 5일선 심리선이 상향돌파하는 단기 골든크로스 시점은 데이트레이더가 가장 많이 몰리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거래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제일 먼저 지지선과 저항선을 설정하라(박스권 설정)



▶ 데이트레이더는 종목 선정 다음으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이 바로 저항선과 지지선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지선과 저항선 설정은 10일 정도의 기간으로 30분봉 차트를 이용하지만, 손놀림이 빠른 투자자들은 10분봉 차트로 기간을 2~3일 내로 잡습니다. 매매시점은 일봉의 추세선 매매와 마찬가지로 지지선 부근에서는 매수, 저항선 부근에서는 매도관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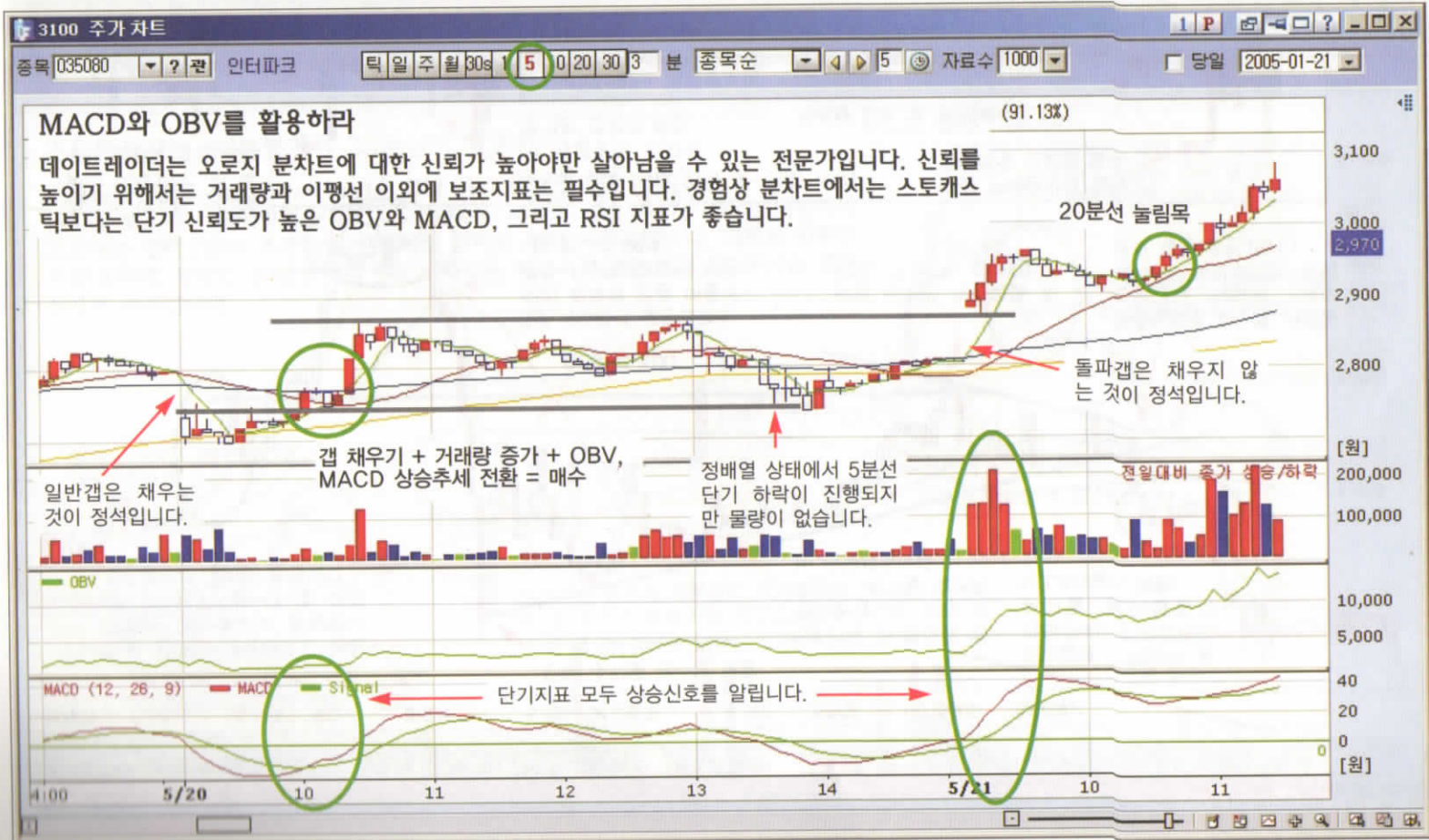
▶ 일반적으로 5분차트에서 5분 변곡점 탄생은 단타 매수시점이나 추세가 확인되기 전까지 적극적 매수는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차트에서는 주가 변동폭이 일순간 변화하기 때문에 5분선과 20분선, 그리고 거래량 변화를 함께 주시하도록 합니다.

데이트레이딩 분봉 차트의 맥 2



▶ 분차트를 3분 이하로 셋팅하는 것은 일반 데이트레이더로서는 대단히 무모한 차트 설정방법입니다. 전문 스캘퍼만이 3분 이하의 차트를 통해 순간 차익을 노리면서 발 빠르게 여러 종목을 서로 번갈아가며 초단타 매매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일반투자자들은 자기만의 확실한 데이매매기법 없이는 3분 이하의 분차트 설정은 자제하도록 합니다.





▶ 거래량 지표인 OBV는 종량적으로는 신뢰가 그리 높지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여타 지표들보다 신뢰가 높은 편입니다. 분차트에서 OBV 상승은 그대로 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다이버전시 현상은 눌림목인 경우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 스캘퍼는 1, 3분봉 차트에 목숨을 건다



▶ 스캘퍼(Scalper)는 하루에도 몇십 번 이상 초단타로 일관하는 데이트레이더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한두 종목이 아닌 주로 여러 종목에 걸쳐 현재가매매, 공시매매, 상·하한가매매, 박스권매매 등 모든 단기 매매기법은 하나도 안 가리며 오로지 2%대 수익만을 쫓는 고수들입니다. 주로 1~3분 이내의 분차트나 혹은 틱차트만을 위주로 빠른 매매를 하기 때문에 차트분석보다는 감으로 승부하는 기질이 탁월해야 합니다.



▶ 국내 상장종목 중 데이트레이딩과 스윙트레이딩의 기본 조건에 만족하는 최고의 종목은 무엇일까? 필자 생각으로는 한국을 대표하는 제2의 반도체 전문회사인 하이닉스가 아닐까 합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 스윙트레이딩 분봉 차트의 맥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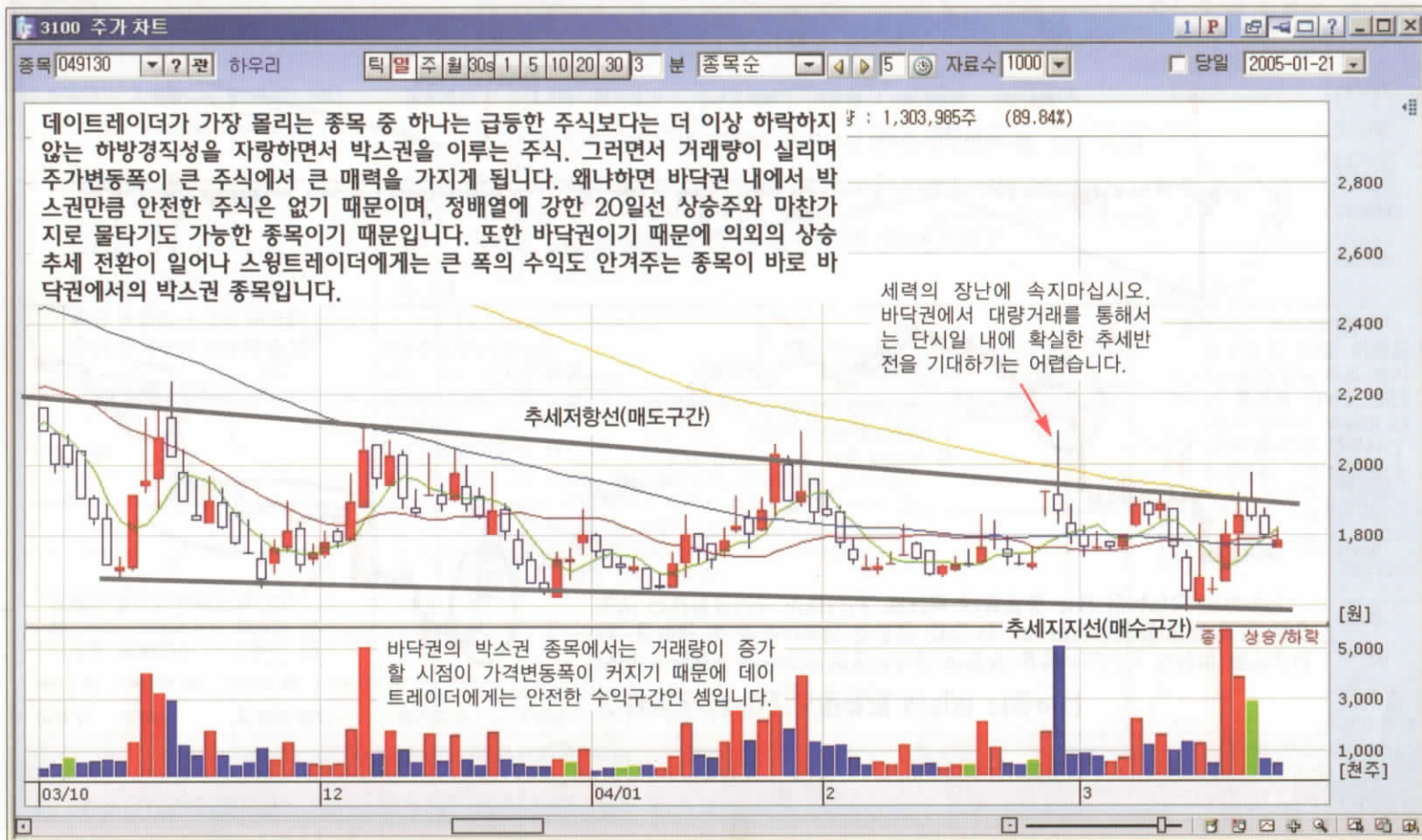


▶ 통상적으로 30분봉에서 OBV가 크게 하락한다면, 일단 그것은 세력이 물량을 던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승추세 중일 때는 조정 기간이 다소 길어지며, 하락추세에서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밀리게 됩니다.



▶ 데이트레이더나 스윙트레이더는 일단 상승하는 주식을 노리는 것이 성공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분차트를 너무 신뢰한 나머지 단기 100% 이상 급등한 주식을 뒤따라간다는 것은 위험성이 큼니다. 그동안 주가 상승 과정에서 세력이 물량을 전량 매도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으로도 하락추세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상승한 주식에서는 20분선이 깨지면 매도, 매수대기자는 관망입니다.

## 바닥권의 박스권 종목을 노려라



▶ 바닥권의 박스권 종목 매수시점은 당연히 추세지지선 근처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점입니다. 이때는 주로 5일 변곡점이 탄생하기 때문에 5일선을 기준으로 단타매매 성공률이 매우 높은 구간입니다. 매도시점은 분차트에서 20분선이 깨지는 시점, 그리고 주가가 추세저항선에 부딪혀 5일선을 하향이탈할 때는 관망구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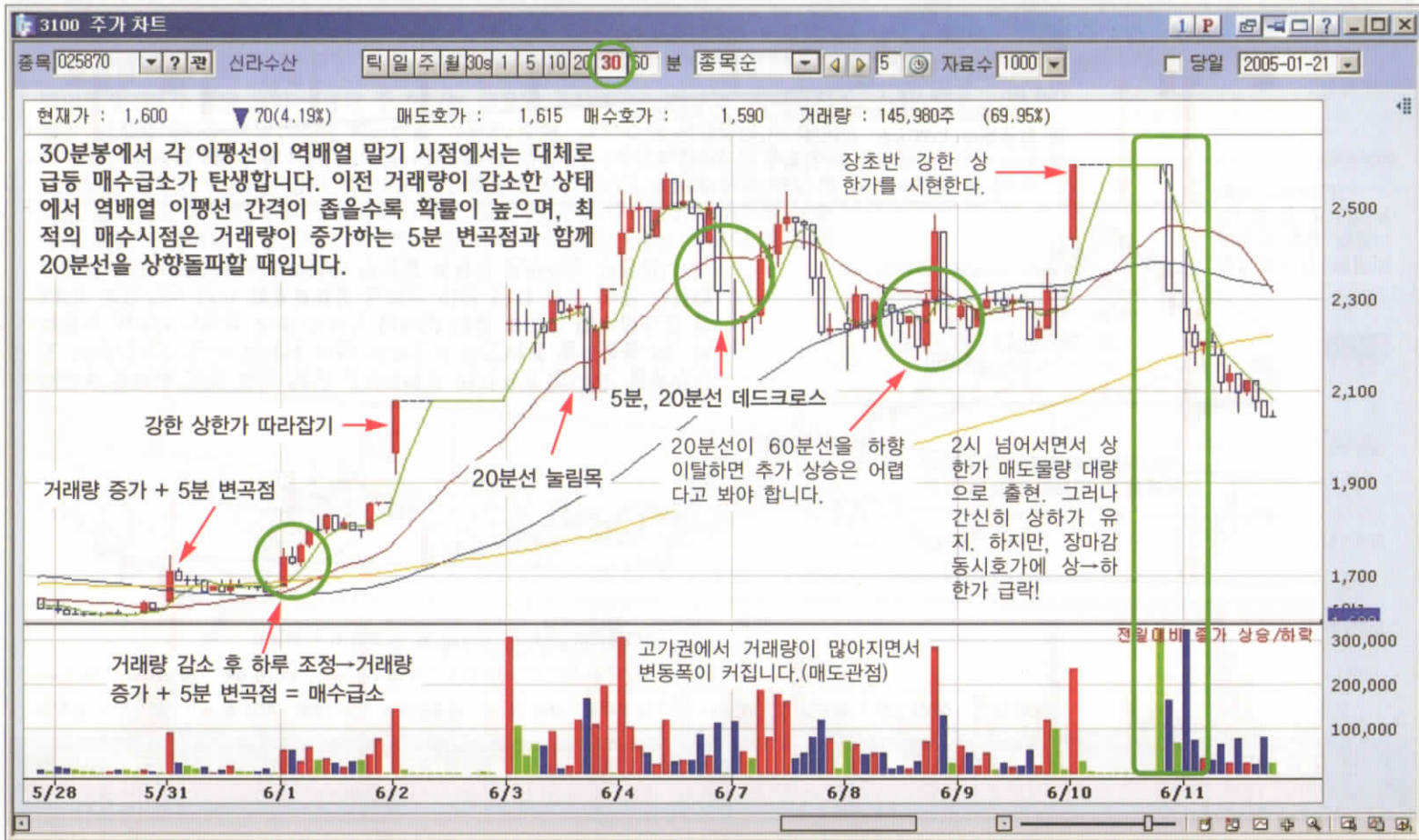


# 30분봉 이격도를 공략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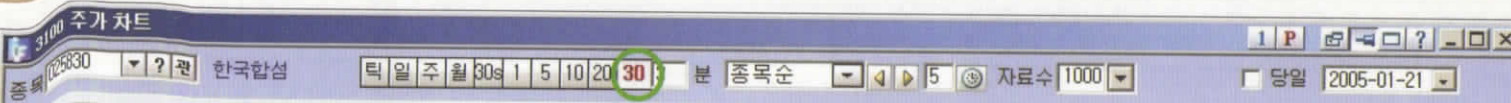
▶ 이격도 매매는 분봉이 아닌 일봉에서도 대략 60일 이평선을 기준선으로 잡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일반투자자들이 스윙 전략의 매매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20일 수급선을 이격도 매매의 기준선으로 정합니다.

30분봉 역배열 말기인 종목을 노려라



▶ 바닥권에서 강한 상한가라도 일단 상한가에서 대량거래가 발생하면 매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운이 좋으면 다음날 시초가 대량거래에 수익을 보고 빠져나올 수 있지만, 운이 나쁘면 당일 장마감 동시호가 때 하한가까지 순간으로 급락하기도 합니다. 특히 고가권이라면 그 위험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 급등주 놀림목은 언제나 좋은 먹잇감



일반투자자들이 급등주를 올라타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급등 초기 거래량이 동반되는 시점과 다른 하나는 1차 급등 후 놀림목 구간입니다. 대체로 급등 초기에는 올라타기 힘든 반면 1차 급등 후 놀림목이나 고가놀이 구간은 일반투자자도 충분히 올라탈 수 있습니다. 단, 이 때는 분봉차트를 통한 거래량 변화를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적은 금액으로 단기매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장 초반 대량거래로 상한가를 지킴, 장중반에 들어 매도물량 출현으로 상한가가 깨어집니다. 다중가는 상한가로 마감하지 않음 시점은 아닙니다.

상한가 다음날 고가놀이 패턴으로 주가 조정을 거칩니다. 상한 매도시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30분봉의 20분선이 깨지는 시점입니다. 대량매출 출현이 아직까지 없는 관계로 적은 금액으로 20분선 단타매매가 유효한 구간입니다.

20분선이 깨졌지만 거래량이 없습니다. 단기이격이 큰 만큼 이전 상한가 직전고점을 지지한다면 한번쯤 도전해볼 만한 구간입니다.

고가놀이 + 정배열 + 거래량 증가 + 5분 변곡점 + 전고점 돌파 = 급등주 매수급소입니다.

30분봉 차트 이평선이 수렴하고 거래량이 감소한 상태에서 저점을 높입니다(3중바닥).

급등주를 공략할 때 5일선을 생명선으로 잡기에는 여러모로 위험성이 큼니다. 최소한 30분봉 차트에서 20분선을 생명선으로 잡도록 하며, 거래량 변화나 추세지지선 돌파 여부에 따라 발 빠른 매매전략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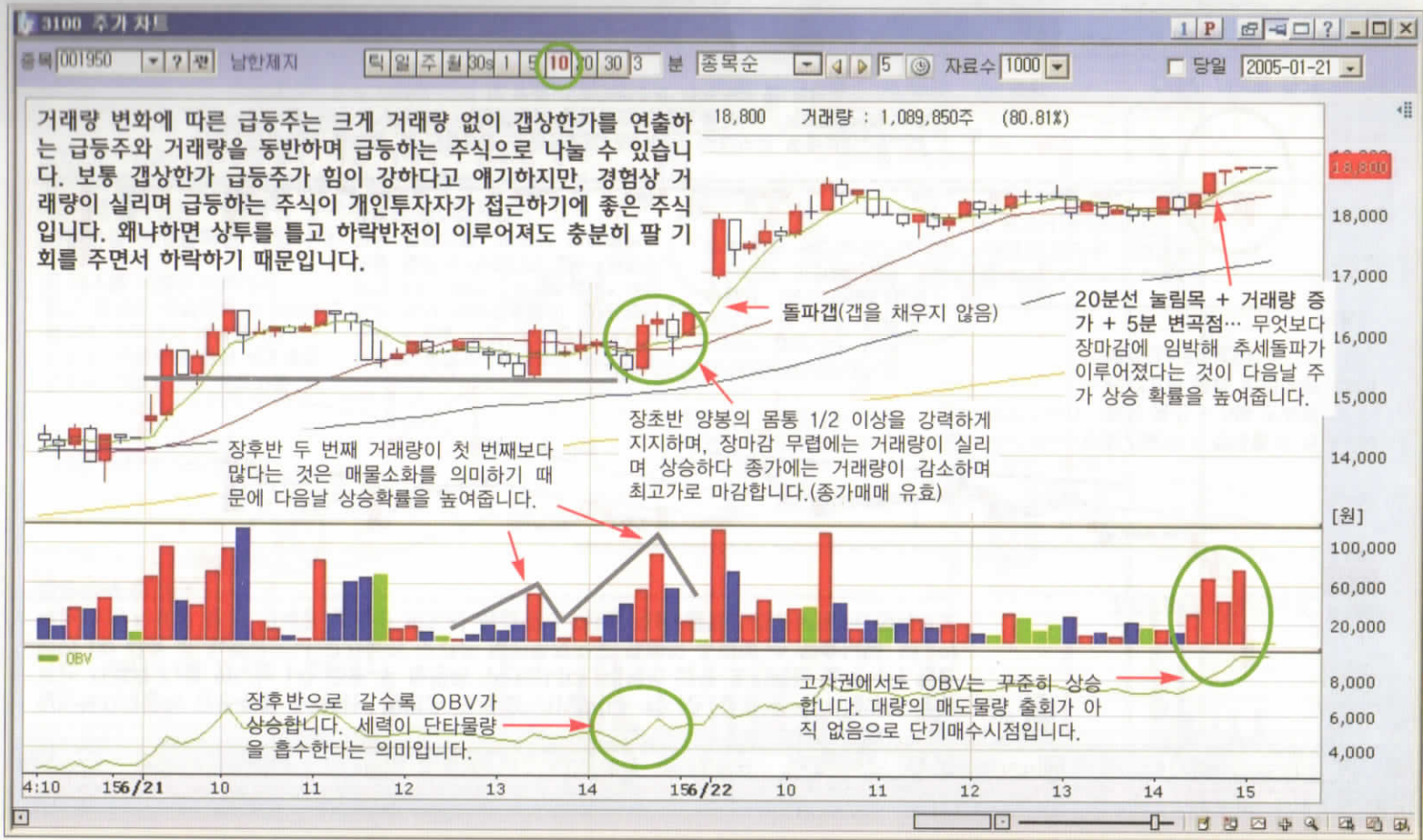
OBV, 거래량 증가



100% 이상 급등한 주식을 차트분석이 서투른 개인투자자가 일몰만 보고 달려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급등주는 일몰이 아니라 반드시 분봉으로 매도시점을 잡아야 합니다. 30분봉은 최소한의 안전관 구실을 하며, 보다 정확한 매매 판단을 위해서는 20분 혹은 10분봉을 통해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급등주 상한가 공략의 맥 1



▶ 급등하는 주식을 중간에서 따라잡으려면 분차트는 필수입니다. 거래량이 실리는 급등주일수록 단타든 스윙이든 5분선을 매수시점의 기준으로 잡고 20분선을 생명선으로 잡습니다.

## 급반등 상한가 공략의 맥 2



▶ 거래량 없이 단기 급락한 주식은 이격도 과다와 매물대 공백과 V자형 급반등 패턴을 동시에 노리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데이트레이더나 스윙트레이더 모두 관심을 기울일만한 종목에 속합니다. 특히 하락장세에서는 바닥권이나 황보권에서 단기 급락한 주식이야말로 단기 큰 폭의 수익이 가능한 주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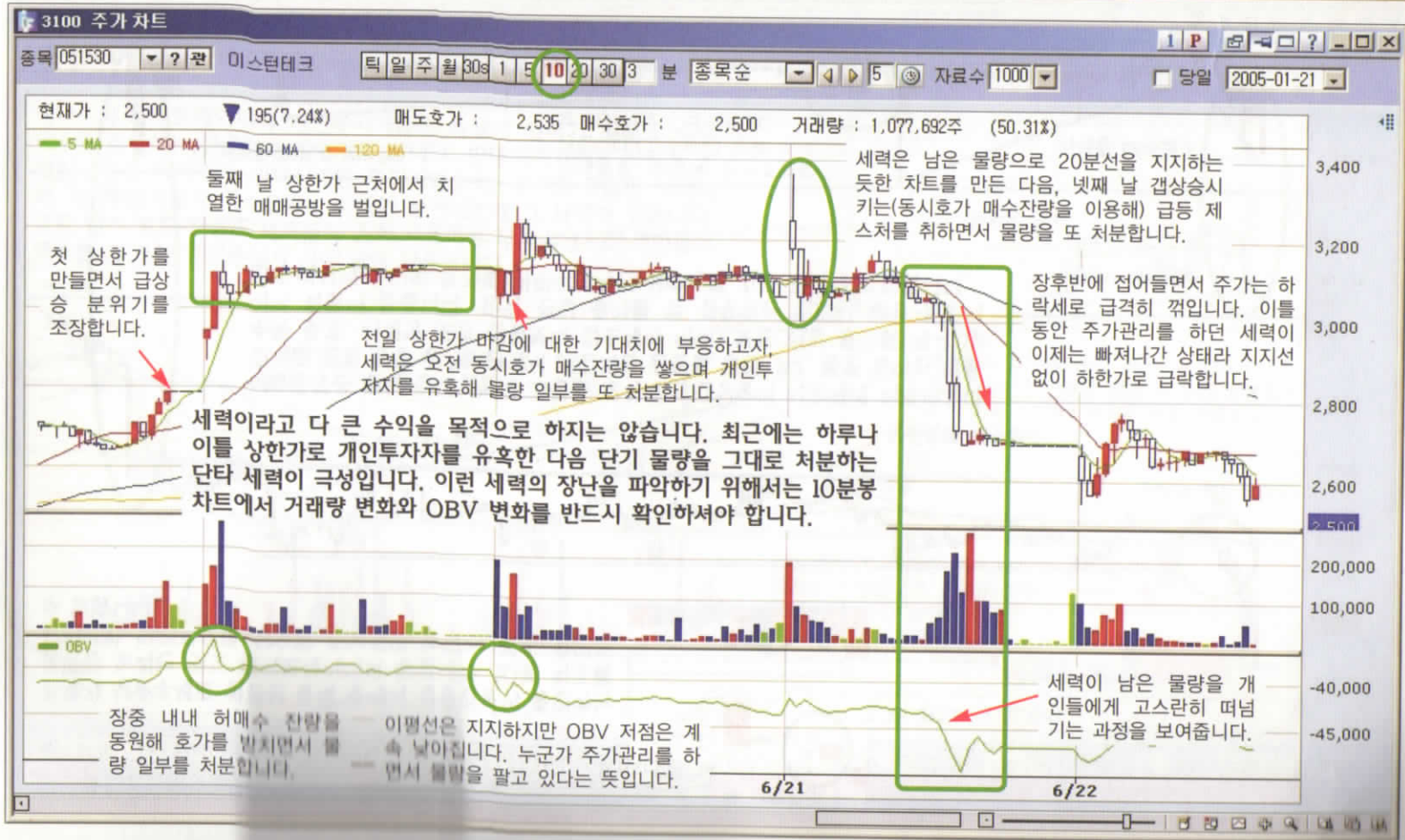
## 하한가 공략의 맥



▶ 거래량은 매도가 아닌 매수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수세가 유입되어야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이지 매수세가 없다면 거래량은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한가 매매도 반드시 이전보다 거래량이 증가해야만 성공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 분봉을 통해 단타 세력의 장난을 파악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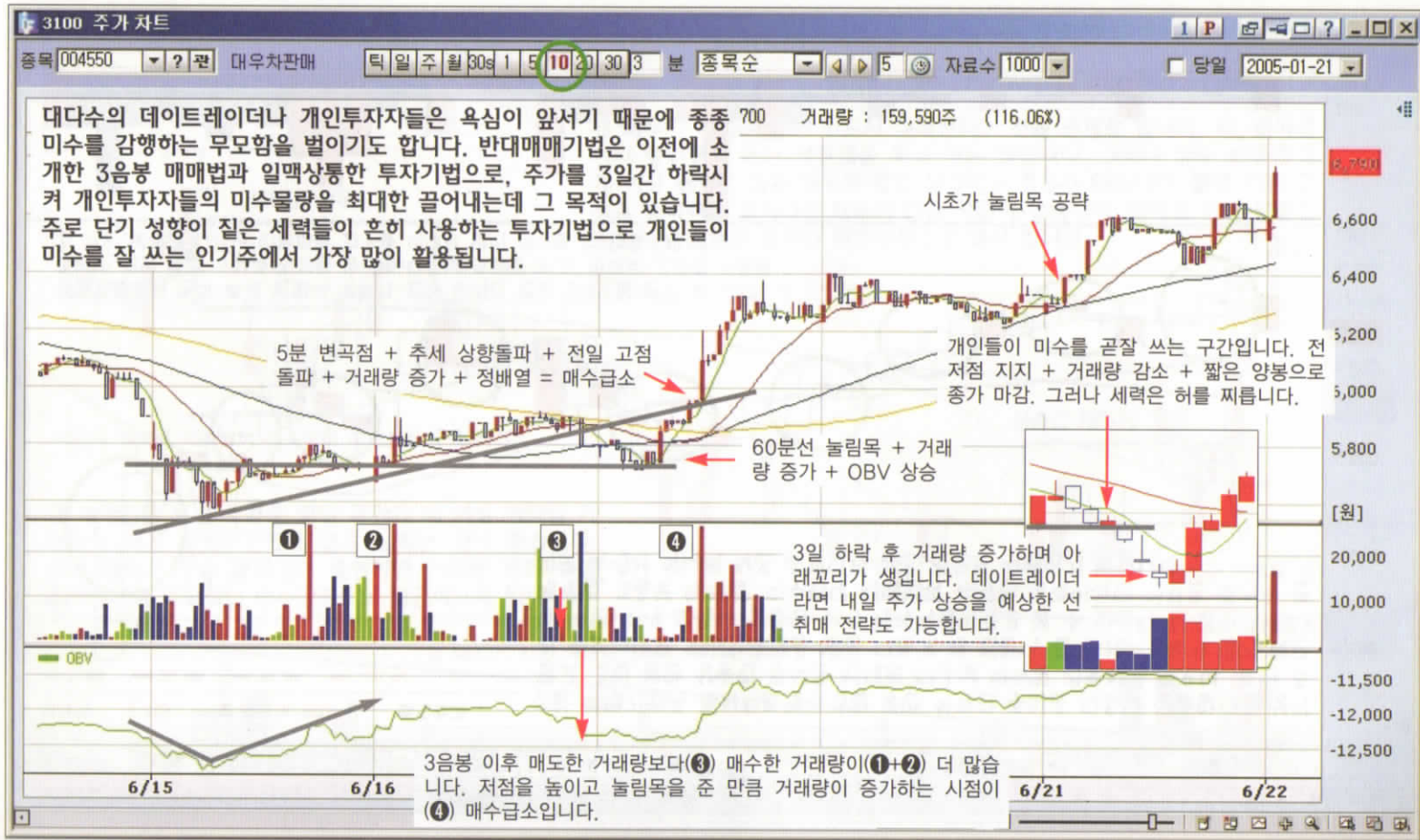
▶ 세력은 자신들의 매집단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시 바닥권이나 고점에서 주가관리를 하게 됩니다. 특히 고점에서는 주식을 파는 건지 사는 건지 확신할 수 없도록 차트를 교묘히 그리면서 물량을 처분합니다. 이렇선을 지지한다고 배팅이 아닙니다. 단기 OBV가 꺾이면 대부분 물량을 떠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으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다면 세력의 주가관리구간을 이용해 신속히 빠져나가기 바랍니다.

# 상승음봉만 찾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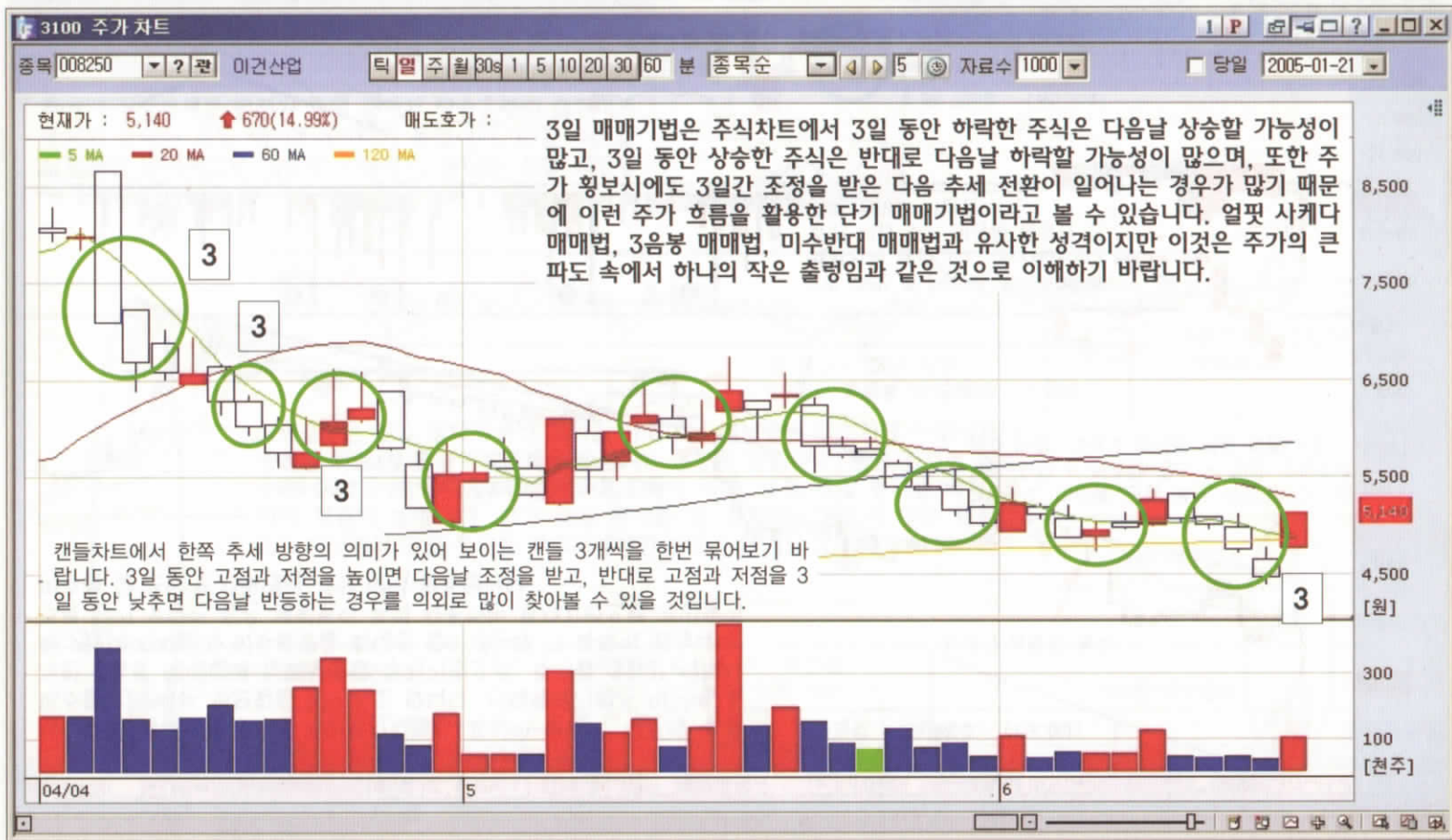
# 미수 반대매매를 노려라



▶ 고점과 저점이 차례로 낮아지는 3음봉은 데이트레이더에게 최적의 매수조건이 됩니다. 거래량이 감소한 상태에서는 단기 매물공백이 생기며, 미수를 감행한 이들은 반대매매가 나가기 이전에 손절매를 하게 됩니다. 단기 매수시점은 3번째 음봉에서 아래꼬리가 생겼을 때 증가매수나 다음날 시초가 매수를 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3일 매매기법



▶ 3일 매매기법은 어떤 매수급소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결치는 큰 파도 속에서 잔파도와 같은 주가의 흐름을 이용해 매매포지션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승이든 하락이든 주가조정이든 어떤 큰 추세의 흐름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그 순간을 포착하는 능력이 향상될수록 치열한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요령과 지혜를 얻게 될 겁니다.

# 갭 채우기를 시도하라



갭 채우기 기법은 갭은 반드시 채워진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돌파갭이나 중간갭이 아닌 보통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상승 보통갭 3개 이상 출현은 갭을 채우지 않고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갭이라면 채우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하락 보통갭 3개 이상 출현은 강력한 매도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 갭은 반드시 채워진다는 논리는 보통갭에서만 적용되며, 그렇다고 항상 100% 장담할 수 있는 패턴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당일 갭 상승이나 하락분을 채우지 못한 채 장을 마감하는 경우, 다음날 갭을 채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 쌍둥이 역망치형 캔들을 주시하라



▶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수익을 많이 본 주식은 큰 자랑거리처럼 떠들곤 합니다. 반면에 손실을 본 주식에 대해서는 단지 운이 없었다고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제는 그동안 수익을 본 주식도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게 한 주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패원인이 무엇인지 분차트와 그밖에 지표를 통해 분석하는 노력이야말로 급등주를 찾는 것보다 10배 이상 값어치가 있는 일입니다.





### 3중바닥을 그냥 지나치지 마라



▶ 데이트레이더는 5분이나 혹은 10분봉, 스윙트레이더는 30분(20분)봉을 기준으로 5분선 상향돌파가 매수시점이며, 20분선 하향이탈이 매도시점입니다. 그 다음 60분선은 추세의 강한 힘을 나타내기 때문에 60분선 3중바닥은 스윙트레이더에게 매우 훌륭한 매수급소가 탄생하는 구간입니다.

## 데이트레이더의 기본자세

1. 장초반과 장후반 1시간 동안만 매매에 집중하기(단타라면 가격 변동폭이 큰 구간만 노려야 합니다.)
2. 미수 금지(만약 미수를 쓰게 되는 상황이라면 딱 1종목만 온신경을 집중해야 합니다.)
3. 몰빵 금지(미수와 올인은 강통의 지름길입니다. 되도록 투자자금의 30% 이내에서 매매를 하기 바랍니다.)
4. 분산 투자(3종목이 가장 적당하며, 5종목 이상은 집중력이 분산되어 오히려 매매시점을 거꾸로 잡기도 합니다.)
5. 당일 매도(비록 현재 손해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 보유주식은 당일 반드시 매도해야 합니다.)
6. 손절매는 칼같이(손절매의 기준은 확실히 정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손절매만큼은 꼭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7. 보초매수 금지(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더라도 미리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8. 한 번 사고판 종목은 당일 다시 안 잡기(미련을 버려야만 살아남습니다.)
9. 오전 큰 수익이 나면 당일 매매 종료
10. 2~3일 슬럼프에 빠지면 하루 정도 쉬어가기

이 외에도 저마다 데이트레이가 지켜야 할 일반적인 원칙들은 많습니다. 이를테면 종목이라든가 매매횟수를 한정시켜야 한다든지, 몰타기는 절대 하지 말라든지 하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데이트레이더라고 해서 위에 소개한 것과 같이 어디에서나 흔히 접할 수 있는 기본원칙들을 굳이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단, 수익을 꾸준히 내는 데이트레이더라면 저마다 윙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손실을 반복하는 데이트레이더라면 최소한 위에 소개한 기본자세를 모두 지켜본 경험이 있는지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기술적 분석의 모든 것

# 차트의 脈 맥

이 책은 개인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근본원인을 분석해내고, 그동안 어설프게 알고 있었던 차트분석 이론을 보다 확실하게 다져줍니다. 다양한 투자기법과 투자요령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 외에도 실전에서 신뢰가 높은 매매기법들을 소개함으로써 성공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1. 기술적 분석의 맥

단순한 차트 설명이 아니라 기술적 분석의 원리와 이해를 바탕으로한 분석 방법을 제시합니다. 단지 상승형 패턴 몇 개를 나열하는 식의 분석이 아닌 각 페이지마다 하나의 테마를 통해 명쾌한 차트분석의 핵심만을 짚어 드립니다.

## 2. 고수들의 투자비법 소개

대부분의 고수들은 자신만의 투자비법 공개를 꺼려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만의 돈 버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기존 차트분석집에서 찾아보기 힘든 고수들의 다양한 매매기법들을 소개했습니다. 주식투자 경력이 많지 않은 초보투자자나 투자 경력이 2~5년 정도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목마른 갈증을 식혀줄 청량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3. 실전 확률이 높은 투자기법 공개

필자만의 투자기법 몇 가지를 공개해 드립니다. 주식 차트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량에 대한 숨겨진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속임수 거래량에 대한 편별 요령과 실전에서 직접 응용이 가능한, 실전에서 확률이 높은 투자매매기법 소개를 통해 성공투자로 가는 지름길을 제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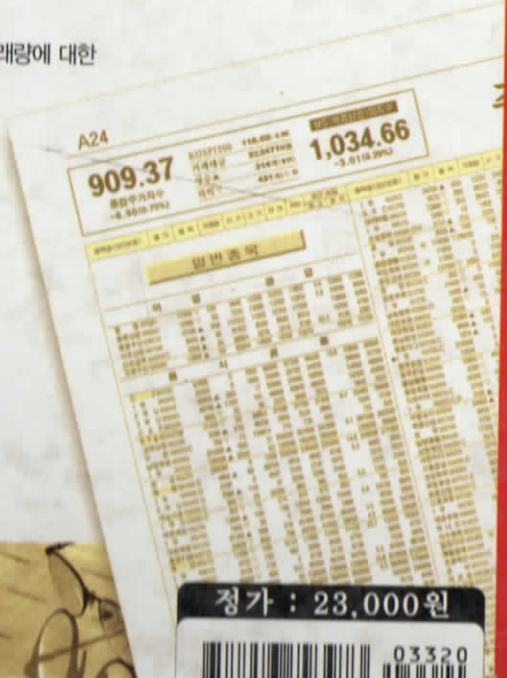
### [일반 개인투자자의 베타테스트 리뷰]

#### ▶ 임영모(투자경력7년 / 문화콘텐츠 CT City 실장)

그 동안 수많은 주식서적을 읽어봤지만, 이 책처럼 개인투자자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책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책들은 말이 고수들의 투자기법이었지 언제나 천편일률적인 기초 수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수들의 주식투자 요령과 투자기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돈을 벌어주는 기술인만큼 남에게 선뜻 공개하기 어려웠을 텐데, 이 책의 저자이신 동방신비 님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최인용(투자경력5년 / (주)에비앙 과장)

저는 주식투자도 항상 손실을 보는 일반 개미입니다. 투자경력이 몇 년 되어도 아직 저 자신에게 맞는 투자기법이 없었던지라 늘 다른 사람의 말에 우왕좌왕했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추천종목에만 귀를 기울였지 제 스스로 종목을 찾는 방법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그 동안의 투자방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맞는 투자기법을 발견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정가 : 23,000원



9 788983 793973  
ISBN 89-8379-397-X

The Stocks  
Investment  
Guide